

2008

軍事史 研究叢書

第 5 輯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 발간사

당 연구소는 그동안 발간해오던 ‘해외파병사’ 주제를 포함하여 국내 및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군사사 전반에 걸쳐 미정립된 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다시 군사사 연구총서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린 논문들은 17세기 조선시대 러시아정벌을 비롯해 한말과 일제시기를 거쳐 6·25전쟁 시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17세기 중반 북만주로 남하하던 러시아를 저지하려던 청나라의 파병 요구에 따라 출정했던 원정군 사령관 신유(申瀏)가 진중에서 쓴 ‘북정록(北征錄)’을 통해 당시 조선의 대외인식을 다루었고, 경상좌도와 함경북도 병마절도사·금위대장 등을 역임한 조희순(趙羲純)이 19세기 조선 사대부의 병법에 대한 관념과 전쟁수행에 대한 방법론을 소개한 ‘손자수(孫子髓)’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일본과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한 쟁투과정 속에서 일어난 구 한말 무관의 갈등 양상을 비롯하여, 태평양전쟁 말기 대만에서 일본 본토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일본군 제10방면군의 편성 과정에서 조선인의 동원실태를 규명했습니다. 또한 6·25전쟁 시기 중국군의 역할 가운데 연구가 가장 미진한 부문인 중국군의 철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目 次

이들 논문 가운데에는 사료의 제한과 연구경험의 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으나, 특히 이번에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연구자들의 참여가 많아 신진 연구자의 군사사 관련 연구를 장려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였습니다.

본 연구소는 앞으로도 군사사 연구센터로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자의 저변을 확대하여 양적인 면은 물론 질적으로도 새로운 안목이나 보다 깊이 있는 연구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되어 군사사 연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일반학계에서도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3월 10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김 홍 영

■ 발간사

■ 나선정벌과 신유(申瀏)의 『北征錄』 계승범(1)

1. 머리말 / 1
2. 나선정벌 이전 조선의 파병 사례와 그 성격 / 5
3. 나선정벌과 조선의 태도 / 17
4. 신유의 대외인식과 『북정록』 / 34
5. 맺음말: 18세기 기억 속의 나선정벌 / 47

■ 19세기 兵書 『孫子髓』 연구 조혁상(55)

1. 서 론 / 55
2. 『孫子髓』의 저자 趙義純 / 59
3. 『孫子髓』의 편찬배경 / 62
4. 『孫子髓』의 내용과 그 의미 / 72
5. 결 론 / 98

■ 러일전쟁기 한국 무관들의 참전과 그 성격 조 건(103)

1. 머리말 / 103
2. 개전 전후 러일의 군사적 갈등과 무관들의 동향 / 108
3. 개전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무관들의 동원 / 125
4. 맺음말 / 147

■ 태평양전쟁기 일본군 제10방면군의 편성과 한국인 군사동원 ... 황선익(151)

1. 머리말 / 151
2. 대만방위전략의 강화와 제10방면군의 편성 / 156
3. 관동군·‘조선군’의 이동과 대만 주둔 / 169
4. 한국인 군사동원의 실상과 희생 / 180
5. 맺음말 / 191

■ 북한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을 둘러싼 북중관계 연구 박종철(193)

1. 도 입 / 193
2. 중국군의 대북지원과 철군 결정 / 196
3. 중국군의 철군 중단과 재철군 결정의 배경 -종파사건을 중심으로 / 207
4. 중국군의 완전철군을 둘러싼 북·중 협상 / 213
5. 중국군의 최종철군과정과 철군 직후의 정세 / 221
6. 결 론 / 232

나선정벌과 신유(申瀏)의 『北征錄』

계 승 범*

- 1. 머리말
- 2. 나선정벌 이전 조선의 파병 사례와 그 성격
- 3. 나선정벌과 조선의 태도
- 4. 신유의 대외인식과 『북정록』
- 5. 맺음말: 18세기 기억 속의 나선정벌

1. 머리말

나선정벌(羅禪征伐)이란 17세기 중반 북만주로 남하하던 러시아(나선)를 저지하려던 청나라의 파병 요구에 따라 조선군이 송화강·흑룡강 유역으로 두 차례 출정한 사건을 가리킨다. 나선정벌에 대한 선구자적 연구를 한 이는 1930년대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일 것

* 미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

이다. 그는 조선의 관련 자료들을 소개하면서 원정의 배경과 전황을 개괄하였다.¹⁾ 이후 개설식의 검토가 몇 차례 있었는데,²⁾ 대체로 이나바의 연구 성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영어권 학계에서는 이 전역(戰役)을 청과 러시아의 충돌로 볼 뿐, 조선군의 참전을 언급한 연구서는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1980년대 들어 『북정록』과 입송절목(入送節目) 등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³⁾ 힘입어 조선군의 규모, 전투 상황, 화력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졌다.⁴⁾ 특히 러시아 자료까지 국내에 일부 소개됨에 따라 전황에 대해서는 그 전모가 거의 다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⁵⁾

반면에 나선정벌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해석은 1930년대 이나바가 제시한 시각과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아쉽다.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 세력의 확대를 청과 조선이 무력으로 저지하였다는 세계사적 의의를 지적한다거나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첫 접촉이었다는 외교

1) 稻葉岩吉, 「朝鮮孝宗朝於兩次滿洲出兵就」, 『靑丘學叢』 15 및 16, 1934.
2) 姜周鎭, 「韓國과 러시아의 外交史의 考察」, 『大丘史學』 12·13, 1977; 全海宗, 「호란 후의 대청관계」, 『韓國史』 12,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77, 389~393쪽; 崔韶子, 「청국과의 관계」, 『한국사』 32, 경기도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1997, 397~409쪽.
3) 『북정록』은 흔히 『북정일기(北征日記)』로도 불리는데 박태근이 사가에서 발굴하였고, 2차 파병절목은 반윤홍이 규장각에서 발견하였다. 朴泰根, 『國譯 北征日記』,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반윤홍, 「備邊司의 羅禪征伐 籌劃에 대하여 -효종조 寧古塔 파병절목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11, 2001 참조.
4) 申基碩, 「間島領有權에 關한 研究」, 서울: 探求堂, 1979, 223~262쪽; 申基碩, 『北征日記: 附 北行日錄 車漢日記』, 서울: 探求堂, 1980; 朴泰根, 「朝鮮軍의 黑龍江出兵(1654-1658)」, 『韓國史論』 9,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2; 李康七, 「朝鮮孝宗代 羅禪征伐과 彼我 鳥銃에 대한 小考」, 『古文化』 20, 1982; 반윤홍, 각주 3의 논문 등을 꼽을 수 있다.
5) 러시아 자료의 일부 소개 및 그 한글 번역에 대해서는 朴泰根, 각주 3의 책, 165~172쪽 참조. 아울러 러시아어 참고문헌은 朴泰根, 각주 4의 논문, 257쪽 참조.

사적 의의를 강조하지만,⁶⁾ 사실 이런 해석은 이나바가 이미 오래 전에 내린 바 있다.⁷⁾ 효종이 추진하던 북벌운동의 부수적인 성과라는 해석도 있지만,⁸⁾ 이 또한 이나바가 이미 제시한 바 있다.⁹⁾

그런데 청을 쳐서 치욕을 씻고 명의 원수도 갚자는 북벌운동과 청의 요구에 따라 그 지휘를 받으며 출정한 나선정벌은 그 성격이 같을 수 없다. 실제로 명을 군부(君父)의 나라로 인식하던 조선사회에서 군부의 원수인 청을 위해 파병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이념적 공황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군신관계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부자관계는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천륜(天倫)이라는 인식이 이미 조선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⁰⁾ 따라서 병자호란 이후 청의 파병 요구를 접하는 조선 조정의 고민은 바로 이러한 틀에서 살펴야 하며, 나선정벌 또한 예외일 수 없다.

한편, 조선왕조 500년간 외국의 요청에 따라 단행하였던 크고 작은 해외 파병 건수는 적어도 여덟 번인데, 그 마지막 사례인 두 차례의 나선정벌이 전체 흐름상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거시적인 검토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점 또한 아쉽다. 주지하듯이, 17세기는 명이 주도하던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청 주도의 새로운

질서로 바뀌던 격동기로, 조선왕조의 통치이념 및 대외인식 또한 그 영향을 심각하게 받던 때였다. 특히 해외 파병은 국제정세 및 대외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 사안이므로, 파병 결정은 당시 양반지배층의 정치사상과 대외인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선정벌을 이런 거시적인 시각에서 검토하는 것은 조선시대 군사(軍史)의 이해뿐만 아니라, 당시 양반엘리트들의 대외인식 및 세계관을 통시대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원정군 사령관 신유(1619~1680)가 진중에서 쓴 매우 귀중한 1차 사료인 『북정록』이 그저 전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되는 것은 또 다른 아쉬움이다.¹¹⁾ 『북정록』에 나오는 전투일지와 전황은 당시 러시아 코사크(Cossack)군의 보고서 내용과도 거의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훨씬 더 상세하므로, 그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¹²⁾ 그런데 『북정록』을 분석하는 시각을 조금만 넓히면, 전황이나 지휘권 문제 이외에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 예로, 『북정록』에서 청나라 사람들을 칭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들만 살펴보아도 원정군 사령관 신유의 대외인식이나 세계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몇 가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먼저 나선정벌(1654, 1658) 이전에 조선이 명이나 청의 청병을 놓고 논의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그 분석을 바탕으로 나선정벌의 파병 결정 과정과 추이를 검토하고, 나선정벌이 갖는 역사적 특징을 조선왕조의 파병사라는 큰 맥락에서 해석할 것이다. 더 나아가, 『북정록』에 나타난 신유의 감상과 필법을 『통상공실기(統相公實

6) 姜周鎭, 각주 2의 논문, 252 및 258쪽; 朴泰根, 각주 4의 논문, 253쪽; 崔韶子, 각주 2의 논문, 406쪽.

7) 稻葉岩吉, 각주 1의 논문(하), 56~57쪽.

8) 全海宗, 각주 2의 논문, 393쪽; 申基碩, 각주 4의 책, 234~236쪽; 반윤홍, 각주 3의 논문, 143쪽. 崔韶子, 각주 2의 논문, 401, 406쪽. 반윤홍과 최소자는 북벌론과 나선정벌을 동일선상에서 보는데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전개하지 않았다.

9) 稻葉岩吉, 각주 1의 논문(상), 7쪽 및 (하), 56~57쪽.

10) 한국왕조와 중국왕조 사이의 종번(宗藩)관계, 곧 책봉조공관계가 기존의 군신관계 개념을 넘어 부자관계로 새롭게 인식되는 시기와 이유에 대해서는 계승범, 「파병논의를 통해 본 조선전기 大明觀의 변화」, 『大東文化研究』 53, 2006 참조.

11) 당시 동서양 총포의 구조를 비교하는데 『북정록』을 참고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李康七, 각주 4의 논문, 25쪽), 관련 기록이 미진한 탓에 별 도움은 안 되었다.

12) 이에 대해서는 朴泰根, 각주 3의 책, 40~42쪽 참조.

記』의¹³⁾ 여러 자료들과 함께 검토함으로써, 원정군 사령관 본인이 느꼈던 나선정벌의 성격을 당시 양반사회의 시각과 관련하여 살피고자 한다. 또한, 원정 당시 나선정벌에 대해 느꼈던 조선인들의 생각이 17세기 말 이후 북벌론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 기억으로 새롭게 윤색되는지 추적할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외파병은 대개 군사적 결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이었다. 따라서 나선정벌 또한 당시 국내외 정치상황의 복합적인 산물로 보는 새로운 시각에 입각한 연구가 더 많이 나와야 하리라 본다.

2. 나선정벌 이전 조선의 파병 사례와 그 성격

외국의 요청으로 인한 해외파병을 조선역사의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 나선정벌은 어떤 위치에 놓일까? 나선정벌을 이런 큰 틀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어떤 파병 사례들이 있었으며 각 사안별로 조선 조정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그 흐름을 먼저 살펴 필 필요가 있다.

첫 사례는 1449년(세종 31년)에 명이 몽골 원정을 감행하면서¹⁴⁾

13) 『통상공실기』는 신유의 6세손인 신호응(申顯應)이 1869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일종의 문집인데, 본고에서는 朴泰根, 각주 3의 책에 수록된 영인본을 참조하였다. 더 자세한 해제는 朴泰根, 같은 책, 41, 46쪽 참조.

14) 이 원정에서 명의 50만 대군은 전투다운 전투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예선(也先)의 군대에게 거의 궤멸되었고 황제는 포로가 되었으며, 오히려 북경이 포위당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Frederick W. Mote, "The Tu-mu Incident of 1449," Frank A. Kierman, Jr. and John K. Fairbank ed., *Chinese Ways in Warfar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pp.

조선에 군사를 요청한 경우다. 이때 조선 조정은 한 목소리로 파병에 반대하였는데, 조선과는 무관한 명과 몽골의 싸움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시 조선 조정은 만일 몽골이 조선에 침입할 경우에는 강화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미리 결정해 놓고 사태의 추이를 관망할 정도였다.¹⁵⁾ 두 번째는 1467년(세조 13년)에 명이 건주여진(建州女眞)을 공격하면서 조선에 군사를 요청한 경우다. 이번에는 조정이 한 목소리로 파병을 추진하였는데, 그것은 독자적으로 건주여진 정토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때마침 도착한 명의 공동 군사 작전 요청을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¹⁶⁾ 세 번째는 1479년(성종 10년)에 명이 건주여진을 다시 치면서 조선에 출병을 요청한 경우다. 이때 파병 여부에 대한 논쟁 끝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조선 조정이 내린 결론은 명과의 외교 관계상 파병은 하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말고 그저 포로나 몇 명 잡아 보냄으로써 성의를 보인다는 일종의 절충안이었다.¹⁷⁾ 또한 명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는 이유도 사태의 예의보다는 활 제조에 필요한 궁각(弓角)을 명으로부터 계속 수입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다.¹⁸⁾

243~272 참조.

15) 『세종실록』 125券 31년 8월 16일 계해; 126券 31년 10월 1일 무신; 127券 32년 정월 15일 신묘. 본고에서는 민족문화추진회 온라인 공개 『조선왕조실록』을 참조하였다.

16) 『세조실록』 42권 13년 5월 5일 기사 및 6일 경오; 43券 13년 8월 17일 경술 참조.

17) 『성종실록』 109권 10년 10월 29일 신해; 110券 10년 윤10월 7일 기미 및 8일 경신 참조.

18) 조선은 이 파병 여부 논의가 있기 불과 4년 전인 1475년에 명에 청원하여 명의 수출금지 품목인 궁각의 수매를 특별히 허락 받은 바 있다. 曹永祿, 「水牛角貿易을 통해 본 鮮明關係」, 『東國史學』 9, 1966 참조.

요컨대 세종, 세조, 성종 때(15세기) 사례들은 겉으로 드러난 대응 방침은 서로 달랐지만, 그 이면에는 오로지 국가 이익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사대의 대상은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15세기 조선 지배층 사이에서 지배적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16세기 들어 이런 흐름에 변화가 나타났다으니, 네 번째 사례가 바로 그 경우다.

1543년(중종 38년)에 명의 한 관리가 건주여진 정벌을 건의하면서 조선과의 공동 군사 작전을 제안한 사실이 북경에 가 있던 동지사를 통해 서울에 알려지자, 이를 놓고 논의가 벌어졌다.¹⁹⁾ 이때 조정의 반응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정식 파병 요청이 있기도 전에 미리 파병을 기정사실화 한 점, 출병 반대 의견이 전혀 제기되지 않은 점, 파병에 따르는 국가의 손익을 저울질해보는 논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이 그 좋은 예다. 이는 당시 중종과 신료들이 대명사대와 조선의 국익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예로 볼 수 있다. 다른 말로, 15세기 후반 성종 때까지는 대명사대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사대와 국익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 때문에 손익 계산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16세기 전반 중종 대에 이르면 사대를 곧 국익으로 보아 양자를 동일시하는 인식이 조정에 팽배해 있었다는 것이다.²⁰⁾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16세기를 지나며 모화적 화이관의 확산과 왜란 때의 ‘재조지은(再造之恩)’에 힘입어 더욱 강화된 점을 고려한다면, 17세기 초에 명이 후금 원정을 위해 조선에 청병(請兵)하였을 때 조정의 중론이 15세기의 사례들보다는 16세기 전반 중종 대의 사례와 비슷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광해군

대(1608~1623) 외교노선 논쟁은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광해군 때 명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조선에 병력을 요청하였다. 첫 사례는 1618년에 명이 대규모 후금 원정을 준비하면서 조선에 청병한 경우인데, 이때 조선 조정의 논의는 비변사를 필두로 거의 모든 신료들이 찬성론을 펴고 광해군이 외롭게 반대하는 형세로 전개되었다.²¹⁾ 파병론의 근거는 군부의 나라인 명에 대해 ‘재조지은’을 갚아야 한다는 것과 200년 사대 전통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반대론의 근거는 명의 원정은 실패할 것이라는 현실적 정세 판단이었다. 전체 신료들의 파병당위론에 맞서 광해군이 인준을 거부하며 6개월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칙서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뒤늦게 청병칙서가 도착하자 광해군은 결국 뜻을 꺾고 파병을 인준하였다. 그러나 강홍립(姜弘立, 1560~1627)이 이끄는 13,000의 조선군이 명군의 지휘를 받다가 함께 패몰하고, 강홍립 등 일부 조선군이 후금에 투항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패전 직후 명은 조선에 칙서를 보내 패전의 원인이 명 장수들의 무능함 때문이었음을 자인하고 조선군의 전몰을 애도하였다. 그런데 칙서를 전달한 명의 차관이 ‘재조지은’을 강조하며 임의로 추가 파병을 요청함으로써, 파병 논쟁이 재개되었다. 광해군의 파병불가 논리는 칙서 없이는 군대를 움직일 수 없으며, 이미 포수 수천을 잃었으므로 추가 파병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비변사의 파병 논리는 요동과 조선은 순치(唇齒)의 관계이므로 요동이 위급한 지금 속

19) 『중종실록』 100권 38년 정월 2일 정미, 4일 기유, 6일 신해.

20)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비교 분석은 계승범, 각주 10의 논문 참조.

21) 이 사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稻葉岩吉, 『光海君時代の滿鮮關係』, 京城: 大阪屋號書店, 1933, 111~160쪽;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서울: 역사비평사, 1999, 244~255; Seung B. Kye(계승범), “In the Shadow of Father: Court Opposition and the Reign of King Kwanghae in Seventeenth-Century Chosŏn Korea,” Ph. D Dissertation(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2006), pp. 166~179 참조.

히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파병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칙서도 없이 번국이 군대를 움직일 수는 없다는 광해군의 논리를 꺾을 다른 논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²²⁾

이후 1621년에 들어서며 후금이 요양(遼陽)과 심양(瀋陽)을 점령하자 관전(寬奠)지역의 명나라 장수 왕소훈(王紹勳)은 조선에 협박투의 청병 서한을 보냈다. 이에 광해군은 매우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명하였다. 반면에 비변사는 서울에 도착할 차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대처하자고 건의하였다.²³⁾ 결국 광해군의 뜻에 따라 이번에도 조선의 파병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역시 칙서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듬해(1622년) 명은 감군(監軍)을 통해 서울에 정식으로 칙서를 보내 병력, 군량, 선척 등을 요청하였다.²⁴⁾ 이에 광해군은 명이 회복할 기미가 없음을 들어 단호히 거절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중국 선박이 조선 본토에 정박하는 것조차도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견지하였다.²⁵⁾ 반면에 비변사 대신들은 산해관(山海關) 밖이 다 함몰되었을지라도 번국이 중국을 섬기는 도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던 이 논쟁은 결국 광해군이 끝내 비준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선의 파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²⁶⁾

22) 계승범, 「조선감호론 문제를 통해 본 광해군대 외교 노선 논쟁」, 『朝鮮時代史學報』 34, 2005, 13~15쪽 참조.

23) 왕소훈의 자문 및 조정 논의에 대해서는 『尊周彙編』 권2, 『朝鮮事大·斥邪關係資料集』 1, 서울: 驪江出版社, 1985, 66~69쪽; 『광해군일기』 165권 13년 5월 11~12일 임자~계축 참조.

24) 『광해군일기』 176권 14년 4월 18일 계미 및 28일 기사.

25) 『광해군일기』 176권 14년 4월 26일 신묘. “傳于備邊司曰 監軍既已累接 而以宴席不及軍機 故至急之事 至今不得陳諭講定 若飄然西還後 將何以爲之乎 … 唐船亦勿泊內地江口事 不可不面諭詳細善諭”

1618년 이후 광해군과 비변사가 명의 청병을 놓고 줄곧 대립해왔지만, 이번 논쟁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광해군이 상황논리를 들어 칙서에 따르기를 ‘공개적으로’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번국의 왕으로서 황제의 명을 거부한다는 것은 일종의 항명이다. 칙서의 거부는 이제 광해군의 외교가 은밀하게 명을 속이는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명을 기피하는 차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대명사대를 정(正)과 의(義)의 절대개념으로 굳게 믿고 있던 신료들의 눈에 칙서의 거부는 곧 윤기(倫紀)를 저버리는 패륜행위에 다름없었다.²⁷⁾

그런데 정묘호란(1627)과 병자호란(1637)을 겪으며 조선이 후금(청)의 칙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대명의리론은 위기를 맞는 동시에 더욱 빛을 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특히 청의 연이은 파병 요구는 조선의 조약에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이념적 공황을 불러일으켰다. 바로 명과 조선의 군부(君父)·신자(臣子)관계 때문이었다. 조선의 양반지배층이 명을 부모의 나라로 인식한 것은 임진왜란 전의 일로, 16세기 전반 중종 대(1506~1544)부터 이미 조약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다.²⁸⁾ 그런데 군신관계와 부자관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치적 군신관계는 정세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인륜에 기초한 부자관계는 상황을 초월하는 영원한 관계, 곧 절대가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부자관계(효)가 윤기(倫紀),

26) 계승범, 「광해군대 말엽(1621~1622) 외교노선 논쟁의 실체와 그 성격」, 『歷史學報』 193, 2007, 20~26쪽.

27) 계해정변(인조반정) 직후 정변주도세력이 반포한 ‘반정교서’에서 광해군 폐위의 제일 명분으로 인목대비(仁穆大妃)에 대한 꺾박보다 명나라에 대한 배신을 더 강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반정교서의 분석은 계승범, 각주 21의 논문, 271~273쪽 참조.

28) 계승범, 각주 10의 논문, 337~339쪽.

이륜(彝倫), 천륜(天倫) 등으로 설명되는 이유이며, 유교정치의 근간이 ‘이국이효(理國以孝)’라는 말로 요약되는 까닭인 것이다. 요컨대 군신관계가 일종의 상대적 가치에 기초한 계약적 관계라면, 부자관계는 절대적 가치에 기초한 영원한 관계인 셈이다. 실제로 조선의 왕과 신료들은 명과의 관계를 통하여 충·효를 실천하였고, 그것은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국내의 통치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²⁹⁾

따라서 이런 조선사회에서 삼전도의 항복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굴욕 차원을 넘어 유교국가의 정체성이 뿌리 채 흔들리는 중차대한 위기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왕이 오랑캐(청) 황제 앞에 나아가 고두례(叩頭禮)를 행하고,³⁰⁾ 앞으로 명(군부)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맹세한 일은 조선의 왕과 신료들 스스로 유교의 양대 가치인 충·효를 동시에 범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유교 가치를 바탕으로 통치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에서 그 사회의 지도층 스스로 그 가치를 범하였다면, 그것은 체제의 붕괴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³¹⁾ 설상가상으로 정명(征明)에 동참하라는 청의 강압은 조선 조정의 고민을 극대화하기에 충분하였다. 파병을 한다면 조선(아들)이 청(원수)의 편을 들어 명(아버지)을 공격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양반지배층의 심리는 거의 정신적, 이념적 공황상태에 가까웠다.

29) 계승범, 각주 21의 논문, 292~301쪽.

30) 삼전도의 항복 의식 중에 인조는 3배9고두례(三拜九叩頭禮)를 세 차례나 하였다. 항복으로 인한 통치권위의 실추 현상에 대해서는 한명기, 「丙子胡亂 패전의 정치적 파장-청의 조선 압박과 仁祖의 대응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2003, 66~72쪽 참조.

31) 병자호란을 계기로 고조된 이런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鄭杜熙, 『朝鮮時代 人物의 再發見』, 서울: 一潮閣, 1997, 90~117쪽; Seung B. Kye(계승범), “The Posthumous Image and Role of Ming Taizu in Korean Politics”, *Ming Studies*, v. 50, 2004, pp. 107~130 참조.

이 시기 청의 연이은 파병 요구를 대하는 조선 조정의 고민은 이런 맥락에서 접근해야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청의 첫 파병 요구는 철군 과정에서 나왔다. 철군 길에 청은 가도(假島)의 명나라 거점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는데, 조선에도 징병하였던 것이다. 항복 직후 상황이 없던 조선 조정은 선택의 여지없이 수군 3,000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조선군은 시종 미온적으로 움직인 탓에 청나라 장수의 질책을 여러 번 받았다.³²⁾ 이런 태도는 조선 조정도 마찬가지였다. 가도 공격을 명에 사전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도 함락 소식이 전해지자 인조와 대신들은 함께 애도하였고, 조선군이 만약 공격에 적극 동참하였다면 후세에 비난을 들었을 것이라고 안도하였던 것이다.³³⁾ 이러한 조정 분위기는 대명의리론이 당시 신료들 사이에 절대적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청군 철수 후 사태가 다소 진정되자 조선 조정은 파병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철군 직후 청은 금주(錦州) 공격을 위해 추가로 징병하였는데, 조선 조정은 징병 철회를 위해 두 차례나 청에 주문하였다.³⁴⁾ 온 조정이 파병에 반대한 이유는 역시 명나라와의 ‘부자지의(父子之義)’ 때문이었다.³⁵⁾

32) 가도 정벌 당시 조선군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劉家駒, 「清初徵兵朝鮮始末(上)」 『食貨月刊』, 12-10・11, 1983, 383쪽 참조.

33)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4월 정해. “…(崔)鳴吉曰 假島之事 意以爲不至如此矣 終至於陷沒 都督竟能死節 極可驚歎矣 但我軍則似不與彼同入於戰 是可幸矣 上曰 我兵則遠去 而不爲相戰云矣 鳴吉曰 此則多幸 若以我兵爲戰 則後必有言 而今幸不然 多幸多幸…” 본고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온라인 공개 자료 참고.

34) 『인조실록』 34권 15년 4월 17일 병술; 35권 15년 6월 29일 병인 및 7월 7일 계유.

35) 『인조실록』 34권 15년 3월 20일 기미. “…(洪)瑞鳳曰 我國與中朝 有父子之義 一朝以兵刃相加 誠有所不忍也 … 上曰 假島不過避亂之人 不可與犯中原 比而同之也 直據義理 極言其不忍爲可也”

조선이 기한을 넘기도록 파병하지 않고 주문사만 보내자 청 태종은 칙서를 보내 인조를 크게 힐책하였는데, 이때 최명길(崔鳴吉, 1586~1547)이 조선의 형편상 동원 능력이 부족함을 들어 청의 파병 요구에 즉각 응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여 사태를 무마하는데 일단은 성공하였다.³⁶⁾

그러나 바로 이듬해(1638년) 5월에 청은 조선에 5,000 병력과 군량을 다시 요구하였다. 조선 조정에서 또 다시 징병 철회를 청하는 진주사를 보내자, 청 태종은 칙서를 보내 심양에 억류되어 있는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의 안전을 거론하며 위협을 가하였다.³⁷⁾ 이에 조선 조정은 마지못해 5,000 병력의 파견을 결정하였으나, 일부 신료들 및 유생들의 파병불가 상소가 줄을 이었다.³⁸⁾ 인조도 차라리 남한산성에서 죽는 게 더 나았겠다고 한탄하며, 자신이 겪는 엄청난 정신적 공황을 거듭 토로하였다.³⁹⁾ 그 결과, 파병 결정에도 불구하고 진척은 빠르지 않아 청이 통보한 기일에 맞출 수 없었다.

이에 청 태종은 심양에 인질로 와 있던 소현세자에게 부장을 보내 조선의 태도를 심하게 질책하고 세자를 종군케 하였으며,⁴⁰⁾ 8월과 9월이 되도록 조선군이 도착하지 않자, 병자호란이 왜 일어났는지를 상기시키며 압박하였다.⁴¹⁾ 이에 조선 조정이 다시 최명길을 보

내 청죄(請罪)하자,⁴²⁾ 청 태종은 인조에 대해서 추후에 죄의 경중을 물을 것이라고 위협하였다.⁴³⁾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조정의 중론은 여전히 대명의리에 묶여 있었다. 사태가 이런 식으로나마 일단 진정되자, 이렇게라도 참전하지 않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이⁴⁴⁾ 대세를 이루었던 것이다.

한편 이듬해(1639년) 청의 병부는 웅도(熊島)에 웅거하여 반기를 든 경하창(慶河昌) 무리를 조선으로 하여금 정벌하도록 하였다. 이에 조선 조정은 이전과는 달리 비교적 선뜻 응하여, 3월에 군사 500을 보내 웅도를 성공적으로 토벌하였다.⁴⁵⁾ 조선 조정이 이전과 달리 웅도정벌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벌의 대상이 명이 아니고 다른 오랑캐였다는 점일 것이다. 즉 ‘군부’의 나라인 명을 치는 것이 아니므로 정신적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조정에서 걱정하였던 것은 이번 정벌이 혹시라도 변방의 화근이 될까 하는 것이었지,⁴⁶⁾ 명과의 의리 때문에 고민한 바는

36) 이에 대해서는 『연려실기술』 권26, 仁祖朝故事本末, 「淸人徵兵」,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67 참조.

37) 『인조실록』 36권 16년 5월 23일 을유; 37권 16년 7월 24일 을유.

38) 『인조실록』 37권 16년 7월 27일 무자 및 28일 기축; 37권 16년 8월 1일 신묘 및 9일 기해.

39) 『인조실록』 37권 16년 8월 1일 신묘 및 19일 기유.

40) 『瀋陽狀啓』,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무인 7월 초10일, 11일, 8월 초6일, 원전 42~46쪽. 후에 간청이 받아들여져 세자 대신 봉림대군이 48일간 종군하였다(『瀋陽日記』 무인년 11월 28일 병술). 본고에서는 李錫鎬 譯, 『瀋陽日記』, 韓國名著大全集, 서울: 大洋書籍, 1975를 참고하였다.

41) 『심양일기』 무인년 8월 초4일 갑오 및 초6일 병신; 『심양장계』 무인 9월 초8일, 원전 50~51쪽.

42) 『太宗文皇帝實錄』 44:7b~8b 崇德 3년 10월 무술. 『大清歷朝實錄』, 新京: 大滿洲國國務院, 1937 소수(所收).

43) 『崇德三年滿文檔案譯編』 226(張存武·葉泉宏 編,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臺北: 國史館, 2000, 242~244쪽 소수). “聖上覽畢 … 諭崔鳴吉曰 … 倘因爾軍未來 誤朕征明 又將如何 … 俟征明之諸王貝勒等歸來後 再議汝之罪 彼時 方知爾罪之輕重”. 이 칙유는 『태종문황제실록』 44:8b~9a 崇德 3년 10월 무술 조(條)에도 보이는데, 내용은 비슷하나 문장은 많이 다르다.

44) 『인조실록』 37권 16년 11월 6일 갑자. “…講訖 領經筵沈悅曰 徵兵終未及期限 以致還來 雖有徵銀之舉 深以爲幸 上曰 旣已舉兵渡江 則期限之及與不及 不可言 然不犯大國之境 今雖徵銀 亦何恨也”

45) 『인조실록』 38권 17년 정월 30일 무자; 『태종문황제실록』 46:10b~12b 崇德 4년 5월 경신; 47:25b~26a 崇德 4년 7월 신미. 웅도정벌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술은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編, 論史類, 論史, 「熊島事實辨證說」 참조. 본고에서는 민족문화추진회 온라인 공개 자료 참고.

전혀 없었다. 이렇듯 웅도정벌에서 보여준 ‘예외적’ 적극성은 이로부터 약 15년 뒤 나선정벌에 임하면서 조선 조정이 취한 적극적 태도를 이해하는데 좋은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한편 명에 대하여 지속적인 공세를 취하던 청은 같은 해(1639년) 가을에 또 다시 칙서를 보내 징병하였다.⁴⁷⁾ 이에 조선 조정은 다시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여러 경로를 통해 병력과 군량의 감면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싸움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려는 계책에 골몰하였다.⁴⁸⁾ 그러나 청의 압력에 못 이겨 결국 임경업(林慶業, 1594~1646)을 도원수로 삼아 병선 120척에 수군 6,000과 군량 10,000석을 싣고 요하(遼河) 하구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정명(征明)에 나서지 않으려는 움직임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되었다. 예를 들어, 파병 결정은 또 다시 조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으며,⁴⁹⁾ 형편상 파병이 불가피함을 수궁하는 신료들도 이 사실을 명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⁵⁰⁾ 또한 군량을 싣고 조선의 연해를 향해하던 선박들이 침몰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청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 조정조차도 사건의 배경을 의심할 정도였다.⁵¹⁾ 뿐만 아니라 출정한 조선 장수들은 전투에 임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명과 밀통하기까지 하였다.⁵²⁾ 조선의 이러한 태도는 청

태종의 진노를 격발하여 급기야 심각한 외교문제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소위 1차 심옥(瀋獄, 1640~1641)사건이 그것으로, 청의 징병에 대해 조선 조정이 지속적으로 보인 미온적 태도가 그 주요 원인이었다.⁵³⁾

이 심옥을 계기로 조선 조정의 파병 반대 목소리는 크게 꺾였다. 1차 심옥 중에 청은 조선에 다시 징병하였는데,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따랐으며, 조야의 반대 상소도 올라오지 않았다. 결국 1941년 봄에 조선 조정은 유림(柳琳)이 이끄는 2,000병력을 파견하여 금주 전투에 임하게 하였으며, 전황에 따라 군마와 군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다. 또한 금주를 함락할 때(1642년 3월)까지 병력을 교체하며 전투에 임하였다.⁵⁴⁾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는 청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을 뿐, 조선의 대명의리가 약해졌기 때문은 아니었다. 실제로 조선의 중신들 사이에서는 명과 밀통하려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였다. 이른바 2차 심옥(1642~1643)사건은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드러나 발생한 것으로,⁵⁵⁾ 대명의리론이 당시 조야에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잘 보여준다.

결국 조선시대 외국의 요청에 따른 파병은 모두 군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정치적 판단과 고민의 기저에는 조선이 200년 이상 명과 맺어왔던 매우 특수한 종번(宗藩)

46) 『인조실록』 38권 17년 2월 21일 기유.

47) 『인조실록』 39권 17년 11월 25일 무인.

48) 병선에 함포를 장착하지 말자는 비변사의 건의는 좋은 예다. 『인조실록』 39권 17년 12월 11일 계사.

49) 『인조실록』 39권 17년 12월 26일 무신; 40권 18년 윤정월 27일 기유.

50) 『인조실록』 40권 18년 2월 8일 기미 및 13일 갑자.

51) 『인조실록』 40권 18년 2월 27일 무인, 3월 25일 병오, 4월 23일 갑술.

52) 『심양장계』 경진년 5월 22일, 5월 25일, 5월 26일, 7월 초3일, 7월 20일, 원전 101~103, 105~106, 110쪽; 『인조실록』 41권 18년 7월 11일 경인 참조.

53) 파병반대를 주도한 죄목으로 김상헌(金尙憲, 1570~1652) 등 네 명이 심양으로 압송되었다. 이 심옥에 연루된 사람들의 일화는 『연려실기술』 권26, 仁祖朝故事本末, 「瀋獄諸囚」 참조. 1차 심옥에 대한 연구로는 田川孝三, 「瀋獄問題について(上)」, 『靑丘學叢』 17, 1934 참조.

54) 금주 전투 상황과 조선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劉家駒, 「清初徵兵朝鮮始末(下)」, 『食貨月刊』, 12-12, 1983, 438~442쪽 참조.

55) 이에 대해서는 寺內威太郎, 「17世紀前半の朝中關係の一齣-第二次瀋獄を中心に」, 『駿台史學』 96, 1996 참조.

관계, 즉 군신 및 부자관계가 놓여 있었다. 특히 ‘이국이효(理國以孝)’에 기초한 통치이념상 국가 간의 부자관계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든 바뀔 수 없다는 대명의리론에 그 이념적 뿌리를 두고 있었다.⁵⁶⁾ 따라서 청의 정명(征明) 동참 요구에 응하는 조선의 태도는 지극히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나선정벌과 조선의 태도

개항 이전 조선왕조의 마지막 해외 파병이 된 나선정벌(1654, 1658)은 명이 중원에서 사라진 지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명과는 무관한 ‘오랑캐’(러시아)를 상대로 한 원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조선 조정은 청의 강압에 의해 정명전(征明戰)에 나서야 했던 이전 경우와는 달리,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띠게 되었다. 이번 소절에서는 나선정벌의 추이를 먼저 재구성해 본 후에, 청의 징병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응한 조선 조정의 태도 및 그 동기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나선(羅禪)은 러시아를 가리키는데, 러시아와 아시아를 묶어주는 주요 매개는 모피였다. 몽골의 침입(1237, 1240)이 있기 전부터 러시아지역의 공국(公國)들은 세금의 반 이상을 모피로 걷는 등 모피는 화폐의 기능을 할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었다. 몽골의 지배권에 들어간 후에도 공국들은 조공의 일부를 모피로 바쳤으며, 14세기에 들어

서며 모스크(Moscow) 공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모피무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며 크게 성장하였다.⁵⁷⁾

이런 추세는 급기야 러시아가 16세기 후반에 우랄산맥을 넘어 동진을 시작하는데 큰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러시아 당국은 국가 재정 수입의 큰 몫을 차지하는 모피의 확보 및 아시아와의 무역을 정부가 독점하기 위해 시베리아 원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⁵⁸⁾ 북아메리카산 여우와 해리(beaver)의 모피가 대거 유럽으로 유입되던 17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시베리아산 모피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모피는 약간의 부침을 감안하더라도 17세기 내내 러시아 정부 일 년 수입의 10%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다.⁵⁹⁾

실제로 코사크(Cossack)인을 앞세운 러시아의 동진은 그 속도가 매우 빨라, 우랄산맥을 처음으로 넘은 1581년 이후 식민도시를 건설하며 계속 동진하여 16세기가 끝나기 전에 이미 중앙아시아의 톰스크(Tomsk, 1598년)까지 거점을 확보하였다. 그 뒤 1632년까지 바이칼(Baikal) 호수 서안에 이쿠츠크(Irkutsk)를, 북극해로 흐르는 레나(Lena)강 중류에 야쿠츠크(Yakutsk)를 각각 건설하였다. 러시아는 바로 이 야쿠츠크를 거점으로 삼아 남진하여 1643년부터 1646년까

56) 이러한 이념적 부담에 더하여 재정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李廷喆, 「17세기 朝鮮의 貢納制 改革論議와 大同法の 成立」, 박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2004, 89~91쪽 참조.

57) 중세 러시아의 정치와 경제에서 모피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Martin, Janet, *Treasure of the Land of Darkness: The Fur Trade and Its Significance for Medieval Russia*,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참조.

58) 러시아의 동진을 모피경제와 관련하여 설명한 연구로는 Fisher, Raymond H., *The Russian Fur Trade, 1550-170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3, pp. 28~47; Mancall, Mark, *Russia and China: Their Diplomatic Relations to 1728*,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p. 11~20 참조.

59) 17세기 러시아 경제에서 모피가 차지하는 비중의 시기별 부침 현상에 대해서는 Fisher, *Ibid.*, pp. 108~122 참조.

지 3년에 걸쳐 흑룡강 상류에서부터 하구까지 탐사를 마쳤으며,⁶⁰⁾ 하구에서 바닷길로 북상하여 1647년에는 오흐츠크(Okhotsk)항을 건설하고 바다 이름을 오흐츠크해로 명명하였다.⁶¹⁾ 우랄산맥을 넘은지 불과 60여년 만에 아시아 대륙을 동서로 관통하였던 것이다. 이후 흑룡강을 따라 중형무진하며 강 상류에 알바진(Albazin) 요새(1651)를, 강 중류에 하바롭스크(Khabarovsk) 요새(1652)를 건설함으로써 흑룡강 일대를 거의 통제권에 넣었고, 흑룡강의 큰 지류인 송화강을 거슬러 남하하는 등 만주 일대를 강하게 압박하기에 이르렀다.⁶²⁾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자체 경제력을 갖추고 영주하기 위한 이주 정책과 농지확보 정책 등을 꾸준히 전개하였다.⁶³⁾

이에 청과의 충돌은 불가피하여, 17세기 중반에 두 나라 사이에는 몽골과 북만주 일대에서 승패를 주고받는 전투가 꾸준히 이어졌다.⁶⁴⁾ 그런데 애초에 만주에서 흥기한 청은 입관 후 만주 지역을 떠

나 중국 내부로 대거 이주하였으므로, 만주 일대의 인구는 크게 감소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청나라의 주력군은 남방에서 여전히 항거하는 남명(南明, 1644~1662)을 제압하는데 투입되어 있었으므로, 청군의 주 화력 또한 대개 남쪽에 배치되어 있었다.⁶⁵⁾ 이러한 사정은 당시 북경 당국의 북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데, 실제로 당시 청 조정은 흑룡강을 따라 만주를 압박하는 세력이 누구인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듯 전투력의 열세와 정보 부족의 결과, 청군은 1652년에 우찰라(烏札拉, Acharsk) 전투에서 패하기에 이르렀다. 이 전투는 청의 영고탑(寧古塔) 방면 사령관 하이세(海色)가 이끄는 1,500여 청군이 하바로프(Khabarov)가 지휘하는 500여명 규모의 러시아군 기지를 기습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청군은 작전 미숙과 화력의 열세로 인해 오히려 676명의 전사자를 내고 참패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러시아군의 손실은 전사 10명과 부상 78명이었다.⁶⁶⁾ 이에 청은 재차 출정을

60) 러시아의 첫 흑룡강 탐사 및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Zenone, Volpicelli(pseud. Vladimir), *Russia on the Pacific and the Siberian Railway*, London: Sampson Low, Maston & Company, 1899, pp. 100~108 참조.

61) 당시 오흐츠크의 러시아(코사크)인 상주인구는 54명이었으며, 1675년의 150명을 제외하고는 1730년대까지 한 번도 100명 선을 넘지 못하였다. Gibson, James R., *Feeding the Russian Fur Trade: Provisionment of the Okhotsk Seaboard and the kamchatka Peninsula, 1639-1856*, Madison, Milwauke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9, pp. 18~19 참조.

62) 이 문단에서 다룬 러시아의 동진 상황을 연대별로 한눈에 잘 보여주는 지도로는 Mote, F. W., *Imperial China, 900-1800*,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 872 참조. 한편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 과정을 여러 일화를 곁들여 상세히 설명한 연구로는 Zenone, 각주 60의 책, pp. 40~99 참조.

63) 러시아인의 극동지역 정착 과정에 대해서는 Gibson, 각주 61의 책 참조.

64) 러시아의 동진과 남진으로 야기된 청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Mancall, 각주 58의 책, pp. 20~32; Mote, 각주 62의 책, pp. 868~876 참조. 몽골이 러시아와 청나라에 분할 복속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Sebes, Joseph S., "The Fragmentation

of the Mongols During the Ming Dynasty and Their Step-by-Step Conquest by the Manchus and Russians," *The Canada-Mongolia Review*, v. 3, no. 1, 1977, pp. 24~32 참조.

65) 청의 중국 정복 및 남명의 몰락 과정에 대해서는 Struve, Lynn A., *The Southern Ming, 1644-1662*,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Struve, Lynn A., ed. & trans., *Voices from the Ming-Qing Cataclys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참조.

66) 전투상황과 러시아군의 전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하바로프의 전투 보고서 영문번역 전문은 Zenone, 각주 60의 책, pp. 120~121 참조. 한편 러시아 관련 기록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청나라 자료인 『平定羅刹方略』(『續修四庫全書』 39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과 『朔方備乘』(같은 책, 740~742)에는 이 전투에 대해 단 한 줄의 기록만 있다. "順治九年 駐防寧古塔章京海色 率所部擊之 戰于烏拉村 稍失利"(『平定羅刹方略』 1:1a; 『朔方備乘』 2:2b) 이렇게 소략한 이유는 이 두 자료가 모두 강희제(康熙帝, r. 1662~1722) 이후의 대러시아 관계

준비하면서 화력의 보강을 위해 조선에 충수병의 파병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나선정벌을 위한 청의 첫 파병 요구는 1654년(효종 5년) 2월에 있었다. 청의 차관 한거원(韓巨源)이 가져온 예부의 자문에서 청은 조선 조총수 100명을 3월 10일까지 영고탑으로 들여보낼 것을 요구하였다.⁶⁷⁾ 이에 조선 조정은 즉각 출정 준비에 들어가 북우후(北虞候) 변급(邊戾)을 사령관으로 삼아 영장(領將) 1인, 초관(哨官) 1인, 영장의 군관 및 통사(通事) 등 22인, 초관의 군관 8인, 포수 100인, 화병(火兵) 20인 등 모두 152명 규모의 원정군을 구성하고, 영고탑에 도착하기까지 필요한 열흘 분량의 식량을 지급하는 내용의 절목(節目)을 완성하였다.⁶⁸⁾ 그러나 청나라에서 오기로 한 아문통사(衙門通事)의 도착이 늦어지는 바람에 조선군은 국경을 넘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다가 3월 26일에 마침내 회령(會寧)에서 두만강을 건넜다.⁶⁹⁾

이후의 원정 상황을 조선군 사령관 변급의 보고와 러시아 지휘관 스테파노프(Stepanov)의 보고를 토대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군은 8일간의 행군 끝에 영고탑에 도착하였고, 거기서부터 청군의 지휘를 받으며 100리쯤 행군하여 홀가강(忽可江, 목단강 牧丹江)에 이르렀다. 거기서부터는 선박을 이용해 강을 따라 이동하였는데, 선단의 규모는 17인승 정도의 배가 20척, 4~5인승 정도의 배가 120척

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67) 『효종실록』 12권 5년 2월 2일 계해.

68) 『비변사등록』 효종 5년 갑오 2월 초2일. 본고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온라인 공개 자료를 참고하였다.

69) 『비변사등록』 효종 5년 갑오 4월 초3일. “啓曰 寧古塔入送軍兵 整齊以待 而過三月初十日 師期衙譯不爲出來 故已將此由移咨北京矣 今見北兵使鄭楹節次馳啓衙譯今始來到 軍兵當於三月二十六日渡去云…”

이었다. 이렇게 영고탑을 떠난 지 14일 만에 회통강(會通江, 홀가강, 목단강)과 후통강(後通江, 송화강)의 합류 지점에 위치한 왈합(曰哈)이라는⁷⁰⁾ 곳에 당도하였는데, 영고탑에서 약 2,400여리쯤 되었다. 거기서 청·조선·왈합 연합군 선단은 러시아군과 맞닥뜨렸는데, 변급은 러시아군 선단의 규모를 3백 석을 실을 만한 큰 배 13척과 倭船처럼 생긴 작은 배 26척 등 모두 39척으로, 승선 인원은 400명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⁷¹⁾

한편 당시 스테파노프는 320여명의 러시아(코사크)군을 이끌고 송화강을 거슬러 남진하던 중이었는데, 도중에 강안과 선상에 포진한 중국군(이후 연합군)과 맞닥뜨렸다. 이에 총격과 포격을 주고받는 전투가 벌어졌는데, 연합군은 모두 배를 버리고 강변으로 상륙하여 진지로 들어갔다고⁷²⁾ 한 것으로 보아, 이 수상총격전에서는 연합군이 패퇴한 것 같다.⁷³⁾ 실제로 선박의 크기에서 밀려 수상전이 불리

70) 왈합은 왈가(曰可)로도 표기되는데, 지금의 목단강 중류 이북 지역, 즉 목단강 중하류 지역을 일컫는 지명이지만(稻葉岩吉, 각주 1의 논문, 15, 26쪽), 보고서의 문맥을 볼 때 변급이 말한 왈합은 넓은 지역이 아니라 목단강이 송화강으로 합류하는 어떤 지점, 즉 현재의 의란(依蘭) 근처로 비정할 수 있겠다.

71) 이 문단 내용은 『효종실록』 14권 6년 4월 23일 정축 참조.

72) *Dopolneniia k Aktam istoricheskim*, v. 3(Sanktpeterburg: V tip. II Otd-niia Sobstvennoi E.I.V. Kantseliarii, 1846-1872), v. 3, 1654, #122, pp. 525~528, esp. p. 525. 이후로는 DAI로 약칭함. 한편 이 자료의 중국어 번역본은 『歷史文獻補編 17世紀中俄關係文件選譯』, 北京: 商務印書館, 1989, 第17件 1654년 8월 초, 88~90쪽에서 볼 수 있다.

73) 『同文彙考』,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8, 原編 권76, 軍務. 順治 11년 7월 (모) 일. “二十八日 與賊遇於江中 終日接戰 賊中丸死者甚多” 밑줄 친 부분은 어법상으로 보면 “적은 (아군의) 탄환에 맞아 죽은 자가 심히 많았다”로 해석이 된다. 그러나 당시 연합군이 수상전에서 불리함을 느껴 물으로 상륙하여 포진하였다는 기록을 감안할 때, 첫 수상 총격전에서는 연합군의 피해가 많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그럴 경우 변급은 왜 ‘중적환사자(中賊丸死者)’라고 적지 않고 정반대 내용인 ‘적중환사자(賊中丸死者)’라고 했을까? 아마도 변급은

하다고 느낀 연합군은 변급의 건의에 따라 일부는 미리 강안에 상륙하여 언덕에 올라 나무로 엄폐물을 설치한 바 있다.⁷⁴⁾ 이에 사기가 오른 러시아군이 일거에 연합군 진지를 빼앗으려 상륙 공격을 감행하자,⁷⁵⁾ 조선 총수병은 엄폐물에 의지해 사격을 가하였다.⁷⁶⁾ 이에 러시아군은 많은 부상자를 내고 물러나 다시 승전하였다가, 탄약과 식량의 부족을 느껴 하류 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⁷⁷⁾

이에 연합군도 모두 승전하여 나흘 동안 추격전을 전개하였다.⁷⁸⁾ 러시아군은 후통강(송화강)이 흑룡강과 합류하는 곳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응전하려 하였으나, 마침 동풍이 불자 돛을 올리고 흑룡강 상류 쪽으로 퇴각하여 사라졌다.⁷⁹⁾ 도중에 34명의 병력을 충원 받은 스테파노프는 흑룡강 상류의 쿠마스크(Kumarsk)로 이동하여 요새의 방비를 강화하였다.⁸⁰⁾ 한편 연합군은 강중의 한 섬에 토성을 쌓고 철군하여, 6월 13일에 영고탑으로 귀환하였다.⁸¹⁾ 조선군은 84일

그날의 전투를 수상총격전과 육상진지전을 한데 묶어 그 결과만 기록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그날 전투의 세부적인 상황은 생략한 채 러시아군 다수가 (조선군의) 총격을 받아 쓰러졌다는 결과만 적었다는 것이다. ‘종일접전(終日接戰)’이라는 말을 앞에 쓴 점으로 보아 더욱 그렇다.

74) 『효종실록』 14권 6년 4월 23일 정축.

75) DAI, v.3, 1654, #122, p. 525; 『역사문헌보편』 제17권, 1654년 8월초, 90쪽.

76) 『효종실록』 14권 6년 4월 23일 정축.

77) DAI, v.3, 1654, #122, p. 525; 『역사문헌보편』 제17권, 1654년 8월초, 90쪽. 『동문회고』 원편 권76, 군무. 순치 11년 7월 (모)일.

78) 『동문회고』 원편 권76, 군무. 순치 11년 7월 (모)일.

79) 『효종실록』 14권 6년 4월 23일 정축 참조. 한편 이 1654년의 1차 원정 상황의 대략은 朴泰根, 각주 4의 논문, 243~247쪽 및 申基碩, 각주 4의 책, (1979), 239~243쪽을 일부 참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태근의 논문에는 각주가 전혀 없어 기술 내용의 전거를 대조,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정적 문제가 있고, 신기석 논문의 해당 부분은 나선정벌 관련 조선 측 자료들을 소개한 稻葉岩吉의 각주 1의 논문 일부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 DAI, v.3, 1654, #122, p. 525; 『역사문헌보편』 제17권 1654년 8월초, 91쪽.

간의 원정을 마치고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모두 회령으로 귀환하였다.⁸²⁾

이렇듯 1654년의 전투는 송화강을 따라 남하하던 러시아 세력을 일단 막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결정적 승리는 아니었다. 실제로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나선정벌의 조선군 사령관 변급과 신유 모두 적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도주했다는 기록을 남겼지만,⁸³⁾ 변급의 보고서 및 조선의 자문에서 적의 사상자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스테파노프의 보고서에도 부상자가 있다고만 하였을 뿐 대략의 숫자도 제시하지 않은 점, 러시아군이 흑룡강 상류로 퇴각하는 도중에 30여명 정도 충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설사 스테파노프가 최초의 상륙작전에서 일부 병력의 손실을 입었을지라도 그것이 러시아군의 추후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조선군의 전사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충돌은 치열한 접근전이 아니라 원거리 총격전의 성격이 짙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스테파노프가 이끄는 러시아군은 비록 일시적으로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흑룡강과 송화강 하류를 오가며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1655년 봄에 청군은 흑룡강 상류에 위치한 스테파노프의 쿠마스크(Kumarsk) 요새를 포위하기까지 했으나 식량 문제로 스스로 포위망을 풀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청나

81) 『동문회고』 원편 권76, 군무. 순치 11년 7월 (모)일.

82) 『효종실록』 12권 5년 7월 2일 기축.

83) 각주 73 및 『북정록』 5월 20일 “甲午我軍征役之時 雖無累次交戰之事 彼賊不能抵當 且多死傷而逃走…” 본고에서는 朴泰根, 각주 3의 책 소수(所收) 영인본을 이용하였다.

라는 작전을 바꾸어 흑룡강 연안의 도착 부락민들을 강제로 남쪽으로 이주시키는 일종의 청야작전을 구사하여 러시아군을 압박하기도 하였다.⁸⁴⁾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 흑룡강을 헤집고 다니는 러시아 세력으로 인해 청이 느끼는 위기위식이 여전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청이 대규모 원정을 다시 준비하면서 조선의 충수병을 재차 요구한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였다.

1658년 2월에 청은 조선에 두 번째 징병칙서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조총수 200명의 파견과 조선군의 군량 일체를 스스로 준비하여 5월초에 영고탑에 도착할 것을 요구하였다.⁸⁵⁾ 이에 효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칙사를 맞이한 바로 그 자리에서 파병을 즉각 결정하였으며, 모든 관련 절목도 바로 다음날 완성하였다.⁸⁶⁾ 절목에 따르면, 이때 조선 조정은 혜산진첨사(惠山鎭僉使) 신유(申瀏, 1619~1680)를 영병장(領兵將)으로 삼아 초관 2명, 영병장의 수행원으로 군관과 통사를 포함하여 22명, 두 초관의 수행원 도합 16명, 포수 200명, 화병 20명 등 총 261명을 출정시켰으며, 3개월 정도의 군량 등 모든 군수품을 조선이 부담하고 그 운송도 영고탑까지는 조선이 책임지도록 하였는데,⁸⁷⁾ 이는 칙서의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결과였다.

84) 1654년 전투 이후 청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알력에 대해서는 Mancall, 각주 58의 책, pp. 27~28 참조. 참고로, 순치제(順治帝, r. 1643~1662) 연간에 있었던 청·러 충돌에 대한 청나라 측 사료는 매우 빈약하다.

85) 『승정원일기』 효종 9년 2월 19일 병술. “皇帝勅諭朝鮮國王 今羅禪犯我邊境 擾害生民 應行征勦 茲發滿兵 前往需用 善使鳥創手二百名 王即簡發 並將一切應用之物 全行備辦 令的當官員統領 限于五月初間 送至寧固塔 特諭”

86) 『효종실록』 20권 9년 3월 3일 경자; 『승정원일기』 효종 9년 3월 4일 신축. “(備邊司)又啓曰 寧固塔入送軍兵糧餉藥丸等舉行節目磨鍊 別單書入 以此分付監兵使處 而標信符符 令政院依例稟旨 發遣宣傳官 何如 答曰 依啓”

87) 『臚錄類抄』 交隣 3, 효종 9년 무술 3월 초4일. 1658년 2차 원정시의 절목은 『비변사등록』의 해당 연도 부분이 결락 상태라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신유가 이끄는 조선 원정군은 5월 2일에 출발하여 두만강을 건넌고, 9일에 영고탑에 도착하였다. 10일에 청의 본군에 합류하여 청군의 지휘 하에 들어갔으며, 11일에는 조선군 포수 200명이 각기 8분대로 나뉘어 청군에 분산, 배치되었다. 12일에 연합군은 목단강을 따라 운항을 시작하여 5월 15일에 송화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도달하였다. 거기서 송화강 상류에서 건조한 대형 선박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보름 정도 체류하였다. 이 사이에 연합군은 현지인 정보망을 통해 러시아군 선단이 본대와 선발대로 나뉘어 흑룡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다는 것과 그 둘 사이의 간격이 약 5일 정도 운항할 거리라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또한 상류에서 러시아 선단이 내려오고 있다는 첩보를 북경으로부터 입수하였다. 6월 2일에 선박이 도착하자 군사를 재편성한 뒤, 5일에 출항하여 송화강을 따라 흑룡강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연합군 선단의 규모는 지휘선 4척, 중대형 선박 36척, 중소형 선박 12척 등 모두 52척이었다.⁸⁸⁾

한편 스테파노프가 이끄는 540여 러시아(코사크)군은 1657년 겨울을 흑룡강 하류 쿠민스키(Kuminsky) 요새에서 지내고, 1658년 봄이 되자 매년 그랬듯이 현지인들로부터 모피를 징수하고 흑룡강 상류의 러시아 행정관을 만나기 위해 흑룡강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하였다. 도중에 현지인들을 통해 중국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첩보를 접한 스테파노프는 180명의 대원을 척후 선발대로 삼아 앞서 올려 보내고 자신은 본대를 이끌었다.⁸⁹⁾

규장각도서 No. 15080의 『등록유초』에 해당 절목이 있는 것을 반윤홍이 발견하여 1990년에 학계에 소개하였다(반윤홍, 각주 3의 논문). 이 절목의 전문은 반윤홍의 논문에도 실려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것을 참고하였다.

88) 이 문단의 내용은 『북정록』 5월 초1일부터 6월 초5일까지 내용 참고. 한편 병력은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계산하면, 조선군 260명을 포함하여 약 2,5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연합군은 흑룡강 진입을 앞두고 작전회의를 열었다. 대부분의 장수들은 선불리 진입하였다가 만약 상류에서 내려오는 적과 하류에서 올라오는 적의 협공을 당할지도 모르니 진입하지 말고 사태를 관망하자고 하였으나, 총사령관의 단독 결정에 따라 결국 흑룡강으로 진입하였다.⁹⁰⁾ 이어 곧바로 20여리 내려가다가 강중에 닻을 내리고 있던 스테파노프 선단을 발견하였다. 당시 스테파노프의 본대는 대형선박 11척 규모였는데, 연합군 선단을 보자 즉시 10여리쯤 내려가 강안으로 붙어서며 포진하였다.⁹¹⁾

연합군이 계속 접근하여 피차 사정거리에 들자 포격전과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수적으로 열세인 러시아군은 총탄을 이기지 못하고 배 안으로 숨거나 강에 뛰어들어 물으로 상륙하는 등 조직적인 응전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연합군은 배를 더욱 붙여 접근전을 전개하다가 사상자가 발생하자 곧 화전(火箭) 공격을 감행하여 러시아 선박 7척을 전소시켰다. 날이 어두워지자 러시아 선박 4척을 연합군이 느슨하게 포위한 형세로 싸움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러시아군은 야음을 틈타 모두 한 척으로 옮겨 타고는 그 배를 몰고 도주하였는데, 연합군은 상류 쪽에서 내려올지도 모르는 또 다른 러시아군 선단(스테파노프의 선발대 약 180명 또는 별개의 선단)을 예상하여 추격하지 않았으며, 이틀 후에는 서둘러 다시 송화강으로 돌아와 경계태세에 들어갔다.⁹²⁾

89) 朴泰根 역, 『17世紀 露・中關係資料集』, 제1권, 제103호, 1660년 9월 4일(朴泰根, 각주 3의 책, 170~171쪽). 이하 「박태근의 번역자료」로 약칭. 아쉽게도 필자는 해당 러시아 원문 자료를 아직 구해보지 못하였다.

90) 『북정록』 6월 27일. “...諸將皆以爲 若過黑龍之後 大軍自上流下來遮絕 則上下受賊 進退維谷 不若留防黑龍江口 觀勢進退之爲萬全 獨大將以爲 不可以此有所沮止 但當前進 剿滅現在之賊 上下受賊 非所慮也 翌日行過黑龍...”

91) 『북정록』 6월 초10일 중합.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지휘관 스테파노프를 포함하여 220명이 전사하였고, 무사히 하류로 도주한 배 한 척에 승선한 인원은 95명이었으며, 나머지 살아남은 병사들은 물에 올라 뿔뿔이 흩어졌다.⁹³⁾ 연합군 피해는 전사 120여명(조선군 전사 8명 포함), 부상 230여명(조선군 부상자 25명 포함)이었으며,⁹⁴⁾ 러시아군의 무수한 장비를 노획하였다.

한편 연합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스테파노프에게 돌아오던 러시아군 선발대는 무수히 많은 연합군 선단과 파손된 러시아군 선박을 발견하자 그대로 다시 상류 쪽으로 도주하였다.⁹⁵⁾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판단한 연합군은 흑룡강 상류로 추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곧 영고답으로 귀환하였다. 거기서 소탕전을 위해 더 주둔하라는 청군 사령관의 요구가 있었으나, 신유는 애초의 임무를 완수한 이상 더 머물 이유가 없음을 들어 집요하게 로비하여 마침내 허락을 받아내고 철군 길에 올라 8월 27일에 회령으로 귀환하였다.⁹⁶⁾

지금까지 두 차례 나선정벌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나선정벌을 맞아 조선 조정이 보인 태도의 큰 특징은 이전 사례들과는

92) 『북정록』 6월 초10일~13일, 27일.

93) 「박태근의 번역자료」, 171쪽; DAI, v.4, #64, 1659년 10월 3일, p. 176. DAI 심문조서에는 전사자가 270명으로 나와 있으나, 220명 전사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전체 병력 540명 중 선발대로 미리 떠난 180명을 제외한 360명이 실제 전투에 참가하였을 텐데, 그 중에서 생존자 95명 및 일부 육상 도주자 수를 고려할 때, 270명 전사는 계산이 맞지 않는다. 반면에 220명 전사로 보면, 생존귀환자 95명, 육상 도주자 45명의 계산이 가능하다. 이 육상 도주자 중 일부는 다음날 새벽 연합군의 수색, 소탕작전에 희생되었다.

94) 『북정록』 6월 초10일, 16일.

95) 「박태근의 번역자료」, p. 171.

96) 『북정록』 6월 25일~8월 27일.

달리 파병 여부에 대한 조정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1654년과 1658년 두 차례의 경우 모두 청나라 차관이 서울에 와 파병을 요구하자마자 효종은 그 자리에서 파병 결정을 내렸으며, 신료들도 그에 대해 반론을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 굳이 조정의 논의가 있었다면, 파병 여부 논란이 아니라, 청의 차관을 맞이하는 의전 문제나⁹⁷⁾ 군량의 보급 문제였다.

실제로, 1654년 봄에 청의 차관이 예부의 자문을 들고 서울에 와 징병을 요구했을 때 효종은 그 자리에서 즉각 파병을 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정군 사령관의 인선까지 끝냈으며,⁹⁸⁾ 비변사에서도 기일에 맞추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파병절목을 바로 그날로 완성하였다.⁹⁹⁾ 이 과정에서 파병 여부를 놓고 조정 신료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개진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전혀 없다. 오히려 조선은 칙서에 순응하여 이미 군사를 국경에 대기시키고 있는데 청의 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기일을 지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를 해량해 달라는 주문을 북경에 속히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¹⁰⁰⁾ 압도적이었다.

2차 원정의 경우에도, 청의 징병칙서와 예부의 자문을 받자마자 효종은 그 자리에서 출병을 결정하였고,¹⁰¹⁾ 비변사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파병절목을 바로 다음 날 완성하는 민첩성을 보였다.¹⁰²⁾ 이 2차 원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일본식 조총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는 퇴근하지 말도록 비변사 유사당상에게 특명을 내리

는 등¹⁰³⁾ 화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이던 효종은 청의 2차 징병을 당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응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이때도 조선 조정이 파병 여부를 놓고 논의한 흔적은 사료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1차 원정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식량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민하는 정도였다. 즉 1차 원정 때에 조선군은 영고탑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열흘 치 군량만 준비하였고 영고탑에 도착한 후 귀환할 때까지 모든 군량을 청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¹⁰⁴⁾ 이번에는 출발 때부터 이미 석 달 치 군량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정 일정이 더 길어질 경우 계속해서 추가 지원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⁰⁵⁾ 그렇지만 이런 군량 문제가 파병 여부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분위기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식량 보급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신료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어려움 때문에 파병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이다. 재야 양반사회의 파병 반대 상소도 전혀 없었다.

이렇듯 나선정벌을 위한 청의 파병 요구에 접하여 조선 조정이 보여준 ‘순응성’과 ‘적극성’은 병자호란 이후 조선 조정이 청의 징병에 대하여 보였던 미온적인 태도와 비교해 볼 때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효종과 신료들은 청의 파병 요구에 단 한 번의 거절

97) 『승정원일기』 효종 9년 3월 3일 경자.

98) 『효종실록』 12권 5년 2월 2일 계해.

99) 『비변사등록』 효종 5년 갑오 2월 초2일. “啓曰 羅禪赴征軍兵抄送節目 別單書啓矣 師期頗急 監兵使處 宣傳官下去時 以此分付何如 答曰允…”

100) 『효종실록』 12권 5년 2월 5일 병인; 『비변사등록』 효종 5년 갑오 3월 13일.

101) 『효종실록』 20권 9년 3월 3일 경자.

102) 『등록유초』 교린 3, 효종 9년 3월 4일 무술.

103) 『비변사등록』 효종 8년 정유 3월 초8일. “傳曰, 今日內倭鳥銃百柄 不能盡爲擇執於館所 則備邊司有司堂上 皆有重罪 以此嚴飭”

104) 『通文館志』 9:23b, 紀年, 효종대왕 5년 갑오,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而近緣北路凶歉 道途窮遠 厘辦十日糧以送 等情咨復 回咨內 奉旨 着戶部發給寧古塔官糧食用”

105) 『통문관지』 9:26a, 효종대왕 5년 갑오. “差北虞候申瀏 爲領將 率哨官二員 …帶三月糧 往待境上 專差行司直李芬 咨報禮部 回咨內 軍期遲速 豈能遽定 將兵餉計 至回日 陸續接運”. 실제로 조선군은 영고탑으로 귀환한 후 군량이 떨어지자 청군으로부터 식량을 꾸어 조달하다가 본국으로부터 추가 군량을 지급받아 몇 배로 갚기까지 하였다(『북정록』 7월 14일, 24일, 8월 초2일).

의사 표명도 없이 왜 이처럼 적극적으로 응하였을까?

조선의 출병 동기에 대한 기존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① 효종의 북벌 기도를 견제하기 위한 징병임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이 청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즉각 출병하였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설명이¹⁰⁶⁾ 거의 정설처럼 되어 있다. 이 밖에도 ② 삼전도 화약(和約) 중에 정명(征明)을 위해 청이 징병하면 조선은 응한다는 조항 때문이라는 설명¹⁰⁷⁾ 및 ③ 청이 주도하는 수직적 국제질서 하에서 청의 징병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아예 체념하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¹⁰⁸⁾ 있다.

①의 경우는 당시 청이 조선 조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세히 알고 있었고, 인사문제에까지 개입하였던 정황을 고려할 때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사료적 뒷받침이 없이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라는데 그 한계가 있다. 나선정벌을 위한 징병의 동기가 정녕 조선의 군비 확충을 견제하려는 의도였다면, 고작 1, 2백 명 규모의 병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은 효종 즉위 직후 왜구를 구실로 성을 쌓는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바로 특별 사신을 보내 직접 조사까지 한 바 있다.¹⁰⁹⁾ 뿐만 아니라, 조선의 입장에서 보아도 북벌의 타도 대상은 청나라인데, 단지 북벌 준비를 숨기기 위해 효종이 전격적으로 파병을 결정하고 온 조정이 적극 따랐다는 설명은 무언가 석연치 않다. 명분이 목숨보다 중요한 유교사회에서, 즉 과정(동기)이 결과보다

더 중요시되는 명분론적 유교사회인 조선에서 북벌운동의 핵심 명분을 저버리고 효종과 신료들이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였을까? 더욱이 효종대의 북벌론은 호란 이후 위기에 처한 국내 질서와 정치적 입지를 확립하기 위한 대내적 성격이 강하였는데,¹¹⁰⁾ 즉 북벌론 자체가 곧 정치적 명분이었는데, 그 명분을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의 논리적, 현실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②의 경우에는 출병의 법적 근거로 일견 타당해 보이기는 한다. 그렇지만 나선정벌은 명을 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법조문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녕 이 법조문 때문에 출병한 것이라면 왜 이전에는 정명전(征明戰) 참여에 그토록 미온적이었는지가 설명이 안 된다. 또한 당시 조정 신료들이 삼전도 약조의 조문 하나하나에 충실했다고 보는 것도 무리다. 주지하듯이, 파병, 공녀(貢女), 여진인 쇄환 등 어느 것 하나 조선 조정은 청의 요구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③의 경우가 가장 타당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효종 대는 청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볼 생각 자체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었다. 조정의 인사문제마저 청이 좌지우지하는 등, 효종 대에 청은 마음만 먹으면 조선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

106) 稻葉岩吉, 각주 1의 논문(상), 6~7쪽; 申基碩, 각주 4의 책, 234~236쪽; 崔韶子, 각주 2의 논문, 405~406쪽.

107) 朴泰根, 각주 4의 논문, 242쪽; 반윤홍, 각주 3의 논문, 131쪽.

108) 朴泰根, 각주 4의 논문, 242쪽 및 252쪽.

109) 『효종실록』 5권 1년 8월 27일 무신.

110) 효종대의 북벌운동을 이런 면에 초점을 두어 고찰한 연구로는 金世英, 「朝鮮孝宗朝 北伐論 研究」, 『白山學報』 51, 1998 참조. 한편 북벌론을 대하는 효종과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李京燦, 「朝鮮孝宗朝의 北伐運動」, 『淸溪史學』 5, 1988 참조. 한편, 대부분의 학자들은 효종의 북벌 의지에 대해서 그 '순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그러나 8년 동안이나 심양과 북경에 인질로 있으면서 종군 경험도 있는 효종이 과연 북벌이 정말 가능하다고 순진하게 믿었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청에 우호적이던 형 소현세자가 아버지 인조의 미움을 받다가 끝내 요절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또 왕위계승문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효종이야말로 국내정세의 흐름과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읽고 그 타개책으로 북벌을 내세웠을 가능성이 더 높다.

다.¹¹¹⁾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청이 징병하였을 때 조선 조정이 취할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적이다.

그런데 본고의 논지와 관련하여 볼 때, 비록 선택의 여지가 없는 출정이었지만, 조선이 나선정벌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던 첫째 배경으로 정벌의 대상이 명이 아니라 다른 오랑캐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앞 소절에서 살폈듯이, 비록 청의 압력이 거셀지라도 그 출병의 목적이 정명(征明)인 경우에 조선 조정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거절하거나 매우 미온적으로 임하였다. 반면에 정명이 아닌 경우에는 비교적 적극성을 보여주었는데, 옹도 정벌이 그 좋은 예다. 즉 누구를 치기 위한 출정인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나선정벌의 경우에는 그 상대가 ‘오랑캐’라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오랑캐(청)의 요구에 의한 출정이라는 심리적 부담이 남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격할 대상이 ‘군부’가 아니고 다른 오랑캐(러시아)였으므로 조선 조정의 정신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던 것이다. 요컨대 조선 조정은 청의 파병 요구를 접하면서 이중적 심리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그 하나는 오랑캐(러시아)를 정벌한다는 자부심이요, 다른 하나는 오랑캐(청)의 요구에 의한 출정이라는 현실적 자괴감이었다.

이에 더하여 당시 조선 조정이 이 문제를 조선의 안위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즉 러시아의 세력이 계속 커질 경우, 그것이 조선의 북변인 두만강 일대에 직접 영향을 미쳐 장차 나라의 큰 우환이 될 것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효종과 신료들이 공감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청의 1차 파병 요구 당시 조선

조정은 러시아(나선)의 실체에 대해 잘 몰라 그저 영고탑 근처에 사는 별종으로 알고 출정하였는데,¹¹²⁾ 이전부터 조정 신료들은 영고탑과 후춘(厚春) 일대 오랑캐들의 세력 확대가 필연적으로 조선의 국경을 위협할 것이라는 점을 익히 우려하고 있었다. 1차 출정이 있기 일 년 전에 이미 예조판서 이후원(李厚源, 1598~1660)은 후춘 부락이 강성해지면 조선의 우환이 될 것이라 우려한 바 있으며,¹¹³⁾ 민정중(閔鼎重, 1628~1692)은 청의 영고탑 출병 칙서가 서울에 도착할 즈음에 송준길(宋浚吉, 1606~1672)에게 서신을 보내 조선의 북변과 인접한 영고탑 부락이 날로 강성해져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¹¹⁴⁾ 따라서 러시아를 영고탑 일대에 출몰하는 오랑캐의 별종으로 이해하던 조선 조정으로서의 러시아 정벌에 동참하라는 청의 요구를 굳이 꺼릴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4. 신유의 대외인식과 『북정록』

앞 소절에서는 나선정벌에 임한 조선 조정의 적극적인 태도를 분석하고, 그 내면에 이중적인 심리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그런 심리상태는 당시 조야에서 얼마나 지배적이었을까? 특히 원정

112) 『효종실록』 12권 5년 2월 2일 계해.

113) 『효종실록』 3년 8월 13일 임자. “…臣曾忝咸鏡監司 備知北路之事矣 厚春部落日益熾盛 異時北京微弱 不能制伏 則其爲我國患必矣…”

114) 『老峰先生文集』 6:4ab “…然虜情回測 不可推知 而寧古乃吾關北相接處 部落最盛 識者慮之久矣 實恐國家之禍…”. 『韓國歷代文集叢書』 421-422권, 서울: 경인문화사, 1993, 474~481쪽.

111) 李廷喆, 56의 논문, 111~112쪽.

군 사령관 당사자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다행히 2차 원정군 사령관이었던 신유(1619~1680)는 출정일기 등 몇몇 자료를 남겼으므로, 이번 소절에서는 그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해 보자.

신유도 당시 조정 신료들의 생각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 자신이 ‘오랑캐’의 징병에 따라 다른 ‘오랑캐’를 치러 나선 착잡한 심경을 글로 남겼기 때문이다. 오랑캐(러시아)를 치기 위한 출병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 위안을 삼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랑캐(청)의 요구에 응해 출정하여 그 지휘를 받는다는 사실까지 상쇄해 주지는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원정에 임하면서 신유는 한편으로는 사명감에 불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침울함을 느꼈던 것이다. 나선정벌을 대하는 조선군 사령관 신유의 이중적 심리상태는 그가 쓴 진중일기인 『북정록』의 문체뿐만 아니라 그가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개선하면서 지은 두 수의 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시를 살펴보자.

배 안에서 잠 못 들고 호가(胡笳)소리 들으니,
고국은 아득히 만 리 밖에 멀도다.
오로지 경각간에 달려갈 마음뿐이니,
어전에 보고 마치면 곧 내 집에 돌아가리.¹¹⁵⁾

이 첫 시에는 개선을 앞둔 장군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비단 신유뿐만 아니라 개선장군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라도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요컨대 이 시는 신유가

115) 『통상공실기』 1:1b 「北征凱夜述懷」, “客船無寢聽胡笳 故國茫茫萬里賒 惟有此心頃刻去 玉階朝罷又還家”

갖고 있던 두 상충 심리 중에서 오랑캐를 물리친 고조감에 바탕을 둔 시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고조감, 즉 오랑캐를 정벌하였다는 심리와 인식은 신유의 지인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보인다. 신유의 부고를 듣고 많은 이들이 만사(輓詞)를 썼는데, 현재 50편이 『통상공실기』에 전한다. 그 중에서 신유가 무찌른 러시아를 가리키는 용어로 ‘오랑캐’를 지칭하는 단어를¹¹⁶⁾ 직접 쓰거나 ‘오랑캐’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을¹¹⁷⁾ 쓴 만사는 모두 33개에 달한다. 즉 신유와 동시대를 살았던 허다한 文武 지식인들도 신유의 나선정벌 승첩을 높이 평가하였는데, 그 근본 이유는 그가 무찌른 대상이 오랑캐였기 때문인 것이다. 실제로 당시 ‘신유’ 하면 ‘오랑캐를 평정한 장수’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신유의 명성은 오랑캐를 격퇴시킨 그의 공적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만약 신유가 명나라를 치러 출정하여 큰 공을 세우고 (명을 정벌하고) 개선하였다면 이런 식의 칭송이 가능하였을까? 단연코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그 근거로 강홍립과 임경업에 대한 당대의 상반되는 평가를 꼽을 수 있다. 강홍립은 심하의 원정(1619)에 참여하였다가 패하자 후금에 항복하였고, 정묘호란(1627) 때 후금군을 인도하여 조선에 돌아온 인물로, 당시 조정에서 강홍립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드세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¹¹⁸⁾ 반면에, 임경업

116) 사례들을 모두 열거하면, 북만(北蠻), 낭(狼), 군협(群獵), 갈구(羈狗), 추로(醜虜), 북로(北虜), 용(戎), 적(狄), 북적(北賊), 용강(戎羌), 추류(醜類) 등이다.

117) 사례들을 모두 제시하면 음산(陰山), 금황(金隍), 대막(大漠), 북막(北漠), 북세(北塞), 황사적(黃砂積), 연산(燕山) 등이다.

118) 비슷한 예로, 금주 전투에 참전하여 청 태종의 칭찬을 듣고 귀환한 유림(柳琳)에 대해 실록 사관은 “유림은 청국의 칙서를 얻은 뒤부터 득의양양하게 스스로 과시하는 빛이 있었고 유공자를 조사할 때 자기 마음대로 등급을 정하였으므로 식자들은 그와 사귀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고 썼다(『인조실록』 42권 19년 10월 22일 갑자). 비록 유림의 오만함과 부정을 이유로 들며 비난하였지만,

은 비록 정명(征明)에 나서기는 하였지만, 은밀히 명과 내통하고 청의 명령에 따르지 않다가 그로 인해 나중에 고초를 겪은 인물로 알려져, 후대에 현창사업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¹¹⁹⁾ 말할 것도 없고, 민간에까지 그의 전기소설이 널리 회자되고 심지어 신격화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¹²⁰⁾

나선정벌이 조선의 파병 역사에서 갖는 독특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랑캐를 치러 출정한다는 것은 매우 설득력 있는 파병의 명분인데, 더욱이 그것이 상국(上國, 중화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명분은 더욱 튼튼해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상국 황제의 칙서를 거부하면서까지 파병을 반대하던 광해군이 몰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반면에 오랑캐인 청의 요구를 받고 상국을 치러 나가는 출정이라면 그 명분은 땅에 떨어지는 정도를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병자호란 직후 조선의 조야가 느꼈던 자괴감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자기모순의 정체성 위기에서 다소나마 빠져나올 수 있는 빌미를 나선정벌이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오랑캐를 치기 위한 원정이라는 점이 모든 문제를 해

결해 줄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비록 오랑캐를 치는 정벌이지만 그 실질적 동기는 같은 오랑캐인 청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이중 심리는 신유의 두 번째 시에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역만리 출정에서 성공하는 건 세상에 드문 일이건만
(그걸 성공한) 이 나그네 마음은 어찌하여 또 다시 장탄식이고.
이번 원정은 예전의 심하(瀋河)의 원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니,
죽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김공(金公)이 오히려 부럽도다.¹²¹⁾

이것은 오랑캐의 요구에 응한 출정이라는 부정적 심리상태를 극적으로 표현한 시다. 실제로 이 시의 1행과 2행에서 신유는 그 어렵다는 해외 출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에도 마음속에서 자꾸 슬픈 탄식이 터져 나오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3행과 4행에 명쾌하게 드러난다. 3행에 보이듯이, 신유는 이번 출정이 심하 원정과는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심하의 원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심하 원정은 1619년(광해군 11년) 초에 명나라가 후금 원정을 단행하면서 조선에 파병을 요청하자 그에 응하여 강홍립(姜弘立, 1560~1627)이 이끄는 조선군 13,000명이 명을 도와 참전하였던 원정을 가리킨다. 조선군은 요동에서 명군과 합류하여 그 지휘를 받았는데, 후금의 기습공격을 받아 거의 전 부대가 궤멸되었고, 조선군도 반 이상이 전사하였다. 도원수 강홍립 이하 약 4,000명은 항전을 포기하고 후금에 투항하였다.

121) 『통상공실기』 권1:1b 「北征奏凱夜述懷」, “萬里成功世所稀 客心何事復長唏 今行自異瀋河役 却羨金公死未歸”

사실은 정명전(征明戰)에서 청 태종의 칭찬을 듣고 돌아온 것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해설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119) 조선 후기 국가 차원의 현창사업에 대해서는 『忠愍公林將軍要覽』, 서울: 충민공 임경업장군기념사업회, 1977, 82쪽에 일목요연하다. 정조의 어제비명(御製碑銘)에 대해서는 같은 책, 98~103쪽 참조. 한편 박정희 유신정권 때 출판된 이 요람 자체도 후대의 선양사업 중 하나일 것이다.

120) 임경업 관련 유적과 민간 전설에 대해서는 李慶善, 『韓國의 傳記文學』, 서울: 민족문화사, 1988, 5~29쪽. 임경업 소설의 유행 및 그 연구사 정리는 강현모, 『한국 설화의 전승 양상과 소설적 변용』, 서울: 역락, 2004, 237~260쪽. 임경업의 신격화에 대해서는 주강현, 「西海岸 漁業生産風習 - 漁業生産力과 林慶業 神格化 問題를 中心으로」, 『역사민속학』 1, 1991 참조.

그렇다면 강적 러시아를 상대로 승첩을 이룬 신유가 개선을 기뻐하기는커녕 이처럼 시름에 잠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명을 도운 출정이 아니라 청을 도운 출정이었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신유의 이러한 고민은 그가 마지막 4행에서 스스로 김공(金公)을 부러워한다고 고백하면서 절정을 이룬다. 3행과 4행이 서로 연결되어 대구를 이루는 문맥을 고려하여 김공이 누구인지 유추해보면, 김공은 심하의 전역에서 전사한 선천군수(宣川郡守) 김응하(金應河, 1580~1619)가 분명하다.

김응하는 강홍립과는 달리 마지막까지 후금군과 싸우며 선전하다가 끝내 장렬하게 전사한 인물로, 당시 조선 조정은 조선군의 항복으로 인해 명의 질책을 들을 것을 우려해 김응하 선양 작업을 거국적으로 전개하였고, 특히 명의 사신들이 왕래하는 사행로 주변에 김응하 사당을 건립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그를 기리는 작업을 추진하였다.¹²²⁾ 따라서 당시 김응하라고 하면 조선의 양반사회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그 지명도가 높은 인물이었다.

그런데 신유는 바로 그 김응하와 자신을 극단적으로 비교하며 상심하고 있다. 즉 그는 청을 도운 이번 출정(나선정벌)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명을 도운 출정(심하원정)에서 패하여 죽은 것보다 못하다는 자기 고민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신유는 개선장군으로서 충분히 기분이 고양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을 도와 출정한 자신의 처지를 극단적으로 스스로 비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 또한 당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심리의 한 단면이었다. 신유를 위한 만사에조차 이런 표현이 적지 않게 나오기 때

문이다. 한 예로, 이조판서 이원정(李元禎, 1622~1680)이 쓴 만사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남해(南海)를 통제하니 고래같은 파도도 잠잠해졌고
서관(西關)에 부임하니 호부절(虎符節)이 드높았네.
연산석(燕山石)에 새기기로 일찍이 마음에 정했건만
초검(楚劍)에 먼지 쌓여 계획이 허사 되었네.¹²³⁾

위 인용문의 전반부는 장군에 대한 상투적인 칭송인데, 후반부에는 이루지 못한 어떤 구체적인 일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연산은 흉노의 땅 이름으로, 전한 때 북흉노를 친 한나라 장수가 연산의 돌에 공적을 새겼다고 전하므로, 위 인용문의 3행은 무장으로서 신유가 품었던 오랑캐 정벌, 즉 북벌의 의지를 묘사하고 있다. 반면에 4행의 초검은 초패왕(楚霸王) 항우(項羽)의 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항우처럼 신유도 웅지를 성취하지 못했음을 비유하는 표현이다.¹²⁴⁾

마찬가지 예로 공조판서 유혁연(柳赫然, 1616~1680)이 쓴 만사를 들 수 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마음에 웅지 있어 머리가 희도록 칼을 잡았네.
그 뜻은 황룡(黃龍)에 두었으나 괴로움을 술로 달랬네.¹²⁵⁾

123) 『통상공실기』 2:3ab “…統戎南海鯨波息 推轂西關虎節高 石勒燕山心早許 塵棲楚劍計許拋…”

124) 필자는 이 만사를 해석함에 있어 朴泰根, 각주 3의 책, 134쪽에 있는 주해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125) 『통상공실기』 2:3b “…心雄白首猶看劍 志在黃龍痛飲觴…”

122) 이에 대해서는 한명기, 각주 21의 책, 273~275쪽 참조.

여기서도 황룡은 요(遼, 거란)의 태조가 발해를 평정하고 설치한 부명(府名)으로,¹²⁶⁾ 만주 곧 오랑캐 땅을 가리킨다. 유혁연 또한 북벌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신유를 애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개 만사에서는 비록 고인의 공적이 하찮을지라도 다소 과장하여 애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신유는 러시아 ‘오랑캐’를 무찌른 큰 공적이 있음에도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오히려 북벌을 이루지 못한 것만을 개탄한 이원정과 유혁연의 만사는 당시의 사회분위기와 관련하여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즉 당시까지 약 350여년에 걸친 조선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원정(나선정벌)을 성공리에 완수하였음에도, 나선정벌의 승첩이 갖는 의미가 북벌이라는 거대 담론에 쉽게 묻혀버릴 정도로 미미하였던 것이다. 신유는 이런 사회분위기를 익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품었을 것이므로, 어쩌면 위에서 살핀 두 시는 개신장군 신유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내면의 소리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신유의 공적을 평가할 때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었는가도 살펴보면 재미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유의 행장(行狀)은 시사해 주는 바 크다. 이영세(李榮世)가 쓴 행장에서는 신유의 나선정벌을 언급하면서 러시아 오랑캐를 무찌른 얘기는 단 한 줄의 형식적인 언급으로 그치고, 영고탑으로 귀환한 후 소탕전을 위해 더 머무르라는 청군 사령관의 명령을 신유가 지혜롭게 거부하고 조기 귀환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찬양한 점이 이채롭다.¹²⁷⁾ 고인의 행적을

126) 朴泰根, 각주 3의 책, 135쪽.

127) 논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장 중 1658년의 전역(戰役)을 다룬 내용을 다 옮기면 다음과 같다. 『통상공실기』 2:17ab “甲戌四月 領兵赴寧古塔 討叛胡 指麾方略克奏膚功 及還清將曰 尙有遺孽 當更駐數月 調兵給餉 公曰 賊若未破 雖經年防戍 亦所不辭 今既剖巢燠穴 仍留塞外 不幾於河上之逍遙乎 自會寧徂寧古 川原阻絕 倘遇霖潦 則輸運紅腐之米 竟爲無用之物 且秋序若盡 邊地早寒 士卒凍死

다소 부풀려 기록해도 무방한 행장에 굳이 있는 공적조차 제대로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정작 전공에 대해서는 단 한 줄로 짧게 기술하고, 오히려 청장(淸將)의 제의를 거절한 점을 유독 부각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당시 분위기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이런 형태의 행장 기록은 당시 지식인들이 갖고 있던 나선정벌에 대한 시각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나선 오랑캐를 무찌른 그 자체보다 오히려 청의 요구를 거절하여 끝내 관철시킨 행위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하는 시대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신유가 칭송을 받는다면 그것은 나선정벌 자체보다는 청에 대항하였기 때문으로, 영고탑 근처의 한 오랑캐를 정벌한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이 행장에 강하게 깔려있는 것이다. 각주 127)에 인용한 원문의 전체 문맥을 놓고 볼 때, 효종이 정녕 기뻐한 근본 이유도 승첩 그 자체보다는 청의 요구를 거절하고 조기 귀환한 것이 된다.

이런 식의 인식과 평가가 당시 조선의 조야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대세였는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자료 두어 개를 가지고 그것을 쉽게 일반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설사 이런 인식이 큰 흐름은 아니었을지라도, 청의 지휘를 받아 러시아를 정벌한 일을 찬양하기보다는 못 이룬 북벌의 꿈을 개탄하는 것이 망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신유 주위에 적지 않았다는 증거로는 손색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런 심리는 신유 자신의 속마음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 개선을 앞두고 쓴 두 편의 시에 그대로 절절이 녹아났던 것이다.

不亦哀乎 辭甚剴切 淸將許歸 八月班師 上嘉之 特陞嘉善”

신유의 이런 생각은 그가 『북정록』을 쓰면서 청나라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선택한 용어의 유형을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조선의 양반지식인들은 전통적으로 명나라 사람에 대해 명인(明人)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개 당인(唐人), 한인(漢人), 화인(華人), 중국인(中國人), 상국인(上國人), 천조인(天朝人) 등으로 불렀다. 이는 명을 하나의 이웃나라로 보기보다는 유일한 문화국이요, 종주국으로, 즉 천자의 나라로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여진족(후에 만주족으로 통합)에 대해서는 후금이 건국한 17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대개 야인(野人), 호인(胡人), 노적(奴賊) 등으로 비하하여 불렀다. 그러나 삼전도의 항복 이후 현실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나라 사람들을 중국인이나 중화인으로 부르지도 않았다. 매우 중립적인 청국인(淸國人)이나 북국인(北國人)이라는 용어를 골랐으며, 형편에 따라서는 여전히 호인(胡人)이나 호로(胡虜)로 부르기도 하였다. 명나라 북경에 다녀 온 사신들이 기행문 제목을 조천록(朝天錄)이라 한 것에 비해, 청나라 북경에 다녀온 경우에는 연행록(燕行錄)이라 한 것도 마찬가지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신유 자신은 『북정록』에서 청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을까? 『북정록』 전체를 조사해 본 결과, 신유가 불특정 청나라 사람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를 쓴 경우는 모두 27번인데, 그 중 청인(淸人)이 19번으로 압도적이고, 호(胡) 또는 호인(胡人)이 5번,¹²⁸⁾ 피(彼) 또는 피배(彼輩)가 3번이다. 그런데 청나라 군속일지

라도 만주족이 아닌 경우에는 서촉지인(西蜀之人)¹²⁹⁾ 또는 한인(漢人)¹³⁰⁾ 등으로 표기함으로써 인종을 분명히 구별하였다. 특정 인물을 가리킨 경우에도 그 사례들을 열거하면, 청장(淸將), 청장자(淸將者) 대장(大將), 대장자(大將者), 장호(將胡), 부수(副帥), 부장(副將), 성주자(城主者), 청차(淸差), 차인(差人), 차호(差胡), 통관배(通官輩) 등으로 불렀다. 요컨대 신유는 청과 조선 사이에서 어떤 상하관계도 느낄 수 없는 상대적인 용어를 쓰거나, 아예 직함을 그대로 적은 것이다.

특히 청군 사령관 사리호달(沙爾虎達)을 분명히 가리키는 경우는 『북정록』에 모두 45번 나오는데, 대장자(大將者)가 19번, 대장(大將) 16번, 장호(將胡) 6번, 청장(淸將) 또는 청장자(淸將者) 3번 등이다. 여기서 특히 대장자라고 쓴 점이 눈에 두드러진다. 조선에서 명나라 장수들을 대개 당장(唐將) 또는 천장(天將)으로 불렀던 점을 감안할 때, 신유가 청군 사령관을 대장으로 부르기보다는 대장자, 즉 ‘대장이라는 자’로 부른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 속에는 대장을 대장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신유의 내면세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신유가 비록 조선군 사령관일지라도 일단 청군에 합류하여 그 지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슷한 예로, “…去十六日 大將者定送偵探船一隻 十九日 又送騎胡由陸偵探…”(5월 21일)의 경우를 보자. 여기서도 밀줄 친 기호(騎胡)가 현지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정탐의 임무를 띠고 말을 타고 나갈 정도라면, 현지인이라기보다는 청군 소속 병사 중 그 지역 출신으로 보는 것이 순리적이다. 한편, 나머지 세 경우는 모두 호인이 청군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그 중 한 예를 들면, 전투장면에 대한 기술에서 “…賊之隱伏者亦放砲 于時我軍與胡人 若干死傷…”(6월 10일)이라고 하여 청군 병사들을 분명히 호인으로 적고 있다.

129) “…則答云 潛水軍乃西蜀之人 名數則一百名 而能潛行三十餘里…”(5월 17일).

130) “(造船)匠人則皆是漢人 名數則六百名…”(6월 초2일) 및 “…戰船沙格 皆是漢人而不許回還 造家而入…”(6월 27일).

128) “十二日 晴 曉頭行船 午後下陸上宿 沿江上下 未曾有人居 地名與道里遠近 胡人亦不詳知…”(5월 12일)의 경우, 밀줄 친 호인(胡人)이 토착민을 가리키는지 청나라 군사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강이 영고담에서 멀지 않은 목단강 상류로 연합군 선단이 출항한 부근임을 감안할 때, 영고담 주변 토착민들이 목단강 상류 지리를 잘 모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 호인(胡人)은 출정을 위해 영고담에 도착한 청나라 만주족 병사들을 가리키는

하에 들어간 이상 청군 사령관은 신유의 직속상관이 된다. 그런데도 신유는 그를 대장이라고 불러주기보다 “소위 대장이라는 자”라는 표현을 고집하였던 것이다. 대장으로 표기한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일기 전반부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다가 중·후반부에서 일정한 패턴 없이 대장자와 뒤섞여 나오는 점으로 보아, 그 중 일부는 일기를 쓰다가 무의식중에 실수로 ‘자(者)’를 빠뜨린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혼용 자체가 신유 자신의 혼란스러운 심리상태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승리를 거둔 후에 귀환 여부 및 군량 문제로 청군 지휘부와 마찰을 빚는 장면에서 청군 사령관을 장호(將胡)라는 표현으로 새롭게 부르는 점도¹³¹⁾ 재미있다. 이는 신유의 감정이 실린 결과일 것이다. 비슷한 예로, 영고탑 성주를 칭할 때에도 신유는 ‘성주’라 불러주지 않고 ‘소위성주자(所爲城主者)’라고 하였다.¹³²⁾ 이 또한 신유의 감정이 실린 표현으로 보인다. 신유가 영고탑에 도착하였을 때 청군 사령관은 이미 출발을 한 뒤라 대신 성주를 만났는데, 신유는 그 자리에서 (강압에 못 이겨) 성주라는 자에게 고두례(叩頭禮)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히 기분이 상했을 수 있다. 다음날 정작 청군 사령관을 만났을 때 고두례 없이 상견례만 했던 점을¹³³⁾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한편 원정에서 돌아온 이후에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 일종의 후기(後記)인 「행중약기견문(行中略記見聞)」에 보면, 청 사령관을 칭하는

131) 첫 사례는 “…八月望後 則江水流漸云 九月初間 叢回寧古塔之設 萬萬不似 或以爲 糧餉運來之後 世難還爲載去 未必非餘米奪取之計云 將胡腹中 惟藏賊心 此說亦不無所見也”(7월 초3일)이다.

132) “…因與同入衙門 則所爲城主者 引接立於庭中 行叩頭禮…”(5월 초9일).

133) “…至大將幕次 引立於庭中 行相見禮 亦說茶禮而罷”(5월 초10일).

표현이 갑자기 확연히 달라진다. 사령관(도원수)을 더 이상 대장이나 대장자로 부르지 않고 그저 괴호(魁胡)로 칭했으며, 도원수와 맞서 조선군이 조기 귀환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적극 도왔던 부원수마저도 부호(副胡)로 칭하였다. 부원수의 이름은 알 수 없으나, 그는 북경에서 파견된 장수였다. 그는 원정 내내 도원수와 마찰을 빚었는데, 신유에게는 매우 우호적이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북정록』에서 신유는 그를 북경부수(北京副帥) 또는 북경부장(北京副將)이라고 칭했으며, 한 번도 부수자(副帥者)나 부장자(副將者)로 부르지 않았다. 특히 앞에 반드시 북경을 넣어 강조한 것이 이채롭다. 그런데 귀국 후에 갑자기 호칭을 부호(副胡)로 바꾼 것이다. 영고탑 주둔 청군도 더 이상 청인(淸人)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영고지호(寧古之胡)라 칭하였다. 이는 신유의 의식체계 속에서 청인은 곧 ‘오랑캐’라는 인식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런 의식체계에 사로잡혀 있던 신유가 개선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시를 지은 것은 비록 역설적이지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진중일기를 쓰면서도 청나라 사람에 대해 청인 내지는 호인으로, 즉 비교적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단어를 고른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다. 아울러 이러한 인식의 틀은 신유를 위한 만사와 행장에서 보이듯이, 신유만의 독특함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지식인 사이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결국 조선후기 양반 지식인들의 중국관(청나라 인식)은 중국에 있는 제국을 절대적인 상국(중화)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대국 정도로 인식하였던 고려인의 중국관 및 15세기 조선인의 중국관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¹³⁴⁾ 이점은 10세기 이후 한중관계에서 16세기의 조명관계(군부

134) 고려인의 ‘중국’ 인식에 대해서는 김순자, 「고려말 대중국 관계의 변화와 신흥 유신의 사대론」, 『역사와 현실』 15, 1995; 都賢喆, 「高麗末期 士大夫의 對外觀

· 신자관계)가 예외적으로 특이한 경우였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¹³⁵⁾ 이런 면에서 볼 때, 신유의 『북정록』은 비단 전투상황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대외인식과 관련하여 오늘날 역사가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5. 맺음말: 18세기 기억 속의 나선정벌

지금까지 나선정벌(1654, 1658)을 통해 병자호란 이후 조선 양반 지배층의 내면세계를 그들의 대외인식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조선 시대 500년 간 해외파병을 놓고 그 여부나 절차를 의논한 사례는 의외로 많다. 그런데 각각의 경우를 사례별, 시대별로 살펴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선 조정의 태도에 나타난 변화의 패턴을 읽을 수 있다. 15세기에는 대명의리가 아직 힘을 쓰지 못하였으나, 16세기 초부터는 줄곧 군신, 부자관계에 기초한 대명의리가 모든 논의의 바탕에 깔려있었다. 실제로 17세기 전반 광해군대의 파병여부 논쟁은 명·청 교체의 문턱에서 대명의리라는 가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발생한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병자호란 이후 청의 정명전(征明戰) 동참 강요에 고심하였던 조정의 태도는 대명의리론이 여전히 대세를 이룬 국내정세와 이미 가시화된 명·청 교체라는 국제정세와의 마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의 주제인 나선정벌(1654, 1658)을 조선왕조의 전체 틀 속에서 거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 광해군 대의 논쟁이 명·청 교체의 격변기 초입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나선정벌은 그 격변기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즉 나선정벌은 명·청 교체로 대표되는 17세기 중반의 격변기가 끝나고 청이 주도하는 새 시대로 완전히 들어설 즈음에 발생한 사건으로, 조선의 해외파병사 및 대외인식의 변천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계제(階梯)가 되었던 것이다.

나선정벌에 임하면서 조선 조정은 대명의리에 매몰되어 있던 이전과는 달리 비교적 적극성을 보였다. 비록 오랑캐인 청의 요구에 의한 출병이었지만, 정벌의 대상이 군부(명)가 아니라 다른 오랑캐(러시아)였기 때문이다. 군부(명)와 국가(조선)의 원수인 청나라의 요구에 따른 출정이라는 점이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전 사례들에 비하면 정신적 부담이 한결 가벼웠던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대명의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었다. 군부를 죽인 원수의 지휘를 받아 작전에 임한다는 부담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 조정은 나선정벌에 임하면서 이중적 심리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 하나는 오랑캐(러시아)를 정벌한다는 자부심이요, 다른 하나는 오랑캐(청)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자괴감이었다. 이런 심리상태는 이후 조선이 청이 주도하는 새 국제질서 하에서 느낄 이중 심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은 북벌이라는 담론과 결합하여 매우 재미있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즉 효종 재위 10년간 효종의 정통성을 받쳐준 큰 논리가 바로 북벌이었는데, 막상 그 북벌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의 요구에 따라 러시아를 치러 출정한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비록 다른 오랑캐를 친다는 것으로 위안

—華夷論을 중심으로」, 『震檀學報』 86, 1998 참조. 조선초기(15세기) 양반신료들의 대명관에 대해서는 계승범, 각주 10의 논문 참조.

135) 조명관계가 중국적 책봉·조공제도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였다는 점은 계승범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계승범, 각주 26의 논문, 31~35쪽 참조.

을 삼을 수는 있었지만, 원정 기간 내내 청의 지휘를 받아 작전에 임한 사실은 조선의 조야에 아픈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2차 원정 사령관 신유의 심리도 바로 그런 것이었다. 본문에서 살폈듯이 『북정록』에 드러난 신유의 대청관(對淸觀)이나 개선을 앞두고 그가 쓴 두 편의 시는 이런 이중적 심리상태를 생생히 보여 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점 때문에 나선정벌은 북벌과 묘한 함수관계를 맺으며 얽히게 되는데, 북벌이라는 담론이 사실상 종말을 고하는 17세기 말 숙종 때에 이르러 나선정벌을 대하는 조선 조야의 시각이 새롭게 바뀌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북벌운동이 비록 17세기 중후반을 풍미하였지만, 그것은 애초부터 현실성이 거의 없었던 정치선전의 성격이 짙었으며, 그것마저도 17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사실상 그 의미를 잃었다. 그래도 그것이 정치적 선전으로만 끝나지 않고 무언가 실제로 이루었다는 자기만족이 필요한 시점에서 나선정벌의 새 해석이 그 틈을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북벌 논의가 사실상 종말을 고하는 계기이기도 하였던 경신환국(庚申換局, 1680)으로부터 10년이 지난 1690년에 숙종(r. 1674~1720)이 내린 신유의 제문 내용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먼 예전 무술년 북녘 변방에 미친개같이 사나운 자들이 있어,
이빨로 사람을 물어 죽여도 능히 제압할 수 없었는데.
출정한 군대는 군세고 날랐으며 바람은 불고 날은 맑아,
소굴을 쳐부수고 불태우니 그 위엄에 적의 활과 창이 떨었고,
개선하여 돌아와 승첩을 아뢰니 더욱 더 聖寵 입어 발탁되었도다.¹³⁶⁾

136) 『통상공실기』 2:2ab “…奧在戊戌 北鄙有獠 血人于牙 有不能制 出師桓桓 風揮

숙종이 신유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이 사제문(賜祭文)의 주제는 이전의 만사나 행장과는 사뭇 다르다. 못 이룬 북벌의 꿈을 상투적 이나마 한탄하지도 않았으며, 청의 장기주둔 요구를 거절한 신유의 용기와 지략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없다. 오히려 몇몇 신료들이 신유의 만사나 행장에서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나선정벌의 전공만을 크게 치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제문은 어쩌면 이제 숙종 자신이 북벌론을 공식적으로 접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선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효종(r. 1649~1659)과 현종(r. 1659~1674)이 북벌이라는 시대적 담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면,¹³⁷⁾ 숙종은 그런 아픈 과거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새로운 세대였다. 따라서 양란으로 인해 흐트러진 국가의 이념과 체제를 재건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숙종은 굳이 더 이상 북벌이라는 명분에 집착할 필요가 없었다. 못 이룬 북벌의 꿈에 연연해 할 절실한 이유도 없었다. 다만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북벌이라는 담론과 관련하여 숙종이 해야 할 일은 이루지 못한 북벌을 패배적인 자세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당시 조야에서 새로운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던 소위 ‘조선중화사상’¹³⁸⁾ 곧 ‘소중화론’

日舒 剖穴燠巢 威讐穹廬 班師獻凱 益應寵擢…”

137) 효종 대의 북벌 준비는 이미 주지하는 바이며, 현종 대에도 북벌 논의가 있었다. 특히 현종 자신이 1641년에 심양관소에서 태어난 사실은(『현종실록』 부록 「顯宗大王行狀」) 현종 및 현종의 시대(1659~1674)가 북벌이라는 시대적 담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태생적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38) 이 학설에 대해서는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서울: 일지사, 1998 참조. 그러나 필자는 정옥자가 제시한 자궁적인 ‘조선중화사상’의 기본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의 기저에는 모화적 대명의리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아무리 조선의 자부심을 내세울지라도 그 바탕에서 대명의리론을 빼버린다면 ‘조선중화사상’ 자체가 공중분해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화적(의존적) 소중화론이었지, 결코 자존적(독자적) 소중화론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조선후기

의 틀로 재해석하는 것이었다. 비록 북벌 그 자체를 성취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주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룩한 것이 있다는 가시적 성과물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북벌론의 시대’를 건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성과물 중 하나가 바로 나선정벌이었다. 비록 청을 정벌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도 제압하기 힘들었던 또 다른 ‘북쪽 오랑캐’ 러시아를 조선의 힘으로 정토하였다는 심리적 전이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숙종이 내린 제문 내용을 보면, 나선정벌이 청나라 ‘오랑캐’의 정병에 마지못해 순응한 출정이었음을 적시하는 문구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청나라도 이루지 못한 사업을 조선의 힘으로 이룩하였다는 자긍심이 드러나 있다. 이제 나선정벌은 청이 주도한 사업에 조선이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선이 조선의 필요에 의해 일으킨 사업으로 둔갑되었으며, 그것은 ‘북벌의 시대’를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지극히 가시적인 성과물로 포장되어 새로운 ‘기억’으로 되살아났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억의 재조정’은 신유가 죽었을 당시(1680)부터 이미 서서히 시작되었던 것 같다. 바로 신유의 묘지명이 그것이다. 신유는 경신환국이 있기 두 달 전인 1680년(숙종 6년) 정월에 62세를 일기로 병들어 죽었는데,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이 지은 그의 묘비명 중에 적의 세력이 신장될 경우 본국의 북변이 우려되어 왕이 출병을 명했다는 내용이 나온다.¹³⁹⁾ 이 묘비명은 그 내용의 사실

여부 검증을 떠나, 나선정벌의 출병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거의 유일한 자료인데, 청의 외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고 오로지 조선의 필요에 의해 출병이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이현일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선정벌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전기가 되었던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숙종 이후에도 나선정벌을 보는 조선인의 시각은 이런 추세로 계속 나아갔다. 나선정벌을 언급한 18세기의 사찬서(私撰書) 중에서 정벌의 배경이나 역할에서 청나라의 중요성은 더욱 감소하고, 대개 조선 대 오랑캐의 쌍방구도로 설명하는 흐름이 대세를 이루었다. 18세기의 대표적 사찬서인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이익(李翊, 1629~1690)은 나선정벌을 두 번 다루었고,¹⁴⁰⁾ 19세기 중엽의 대표적인 사찬서인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저자 이규경(李圭京, 1788~?)은 「나선변증설(羅禪辨證說)」에서 당시 가능한 거의 모든 자료를 섭렵, 검토한 뒤 나름대로 고증을 시도하였다.¹⁴¹⁾ 그런데 이 두 자료 모두 청나라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거나 청병(淸兵)하였다는 간단한 기술로 그치고, 대체로 조선의 입장에서 조선의 북변에 새로 등장한 오랑캐 별종을 대하는 자세로 나선을 묘사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작자 미상의 역사소설로, 가공인물 배시황(裴是愴)을 2차 나선정벌의 주인공으로 삼아 전투장면과 병력의 규모를 허구와 과장으로 윤색한 한글소설 『배시황전』의 구성과 묘

지식인들이 ‘존화록(尊華錄)’이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책은 쓸지언정 어느 누구도 ‘존조선록(尊朝鮮錄)’ 내지는 ‘존아록(尊我論)’이라는 제목의 글을 쓸 수 없었던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만 ‘조선중화사상’의 사상적 본질 여하에 상관없이, 그런 추세가 18세기를 휩쓴 것은 사실이므로, 본고에서는 단지 그 표현을 차용할 뿐이다.

139) 『葛庵先生文集』 권23, 「統制使申公墓碑銘」. “…戊戌夏 曰可部落擾北海上 清人

屢戰皆敗 請兵於我 上慮賊勢鴟張 爲我北邊憂 命公往討之 公承命卽行…” 민족문화추진회 온라인 공개 자료.

140) 『성호사설』,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8, 권1, 天地門, 「黑龍江源」 및 권8, 人事門, 「車漢日記」.

141) 『오주연문장전산고』 天地編, 地理類, 人種, 「羅禪辨證說」. 민족문화추진회 온라인 공개 자료.

사도 이와 다르지 않다.¹⁴²⁾

이를 종합해 보면, 18세기 이후 나선정벌을 대하는 조선인들의 기억 속에는 이미 청나라가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청나라가 사라짐으로써 이제 나선정벌은 처음부터 조선과 러시아 양국 간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그 결과 조선인들은 이제 누구도 나선정벌에 대해서 정신적 부담을 갖지 않게 되었다. 나선정벌 이야기는 민간에서 널리 읽히는 소설로까지 탈바꿈하기에 이르렀다. 굳이 청나라를 언급한 부분이 있다면, 청이 러시아에게 연전 연패하여 조선에 도움을 청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내용뿐이다. 청나라도 못하는 것을 조선군이 가서 무찔렀다는 이런 식의 배경설정은 이제 조선인들이 청에 대해서 내면적 우월의식을 느낄 수 있는 계제가 되었으며, 오랑캐를 정토한 북벌이라는 ‘실천적’ 기억으로 조선인의 마음속에 되살아났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병자호란 이후 조선인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가 되었던 두 가지, 곧 ① 오랑캐에게 굴복한 수치심과 ② 현실적으로 북벌을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자괴감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소재를 나선정벌이 제공하였던 것이다. 신유와 동시대인이 함께 고민하였던 나선정벌의 내면적 상처가 세월이 흐른 뒤 어느새 바로 그 상처를 치유하는 약재로 사용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조선후기 병자호란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갖가지 자구노력 중에서 나선정벌에 대한 기억의 틀을 바꾸는 작업은 이렇게 한 몫을 하였던 것이다.

142) 한글 『배시황전』은 朴泰根, 각주 4의 책, 173~185쪽에 실려 있는 것을 참고하였다.

19세기 兵書 『孫子髓』 연구

조 혁 상*

1. 서 론
2. 『孫子髓』의 저자 趙義純
3. 『孫子髓』의 편찬배경
4. 『孫子髓』의 내용과 그 의미
5. 결 론

1. 서 론

1869년(고종 3)에 간행된 『손자수(孫子髓)』는 병인양요 때 참모군관을 겸임하고 후에 훈련도감 천총 내금장, 경상좌도와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도총부 부총관, 군무사당상, 금위대장, 좌변포도대장, 동지삼군부사 등을 역임한 무신(武臣) 조희순(趙義純: 1814~1890)이 제

주목사 재직 당시 완성한 저서이다. 조선에 대한 외세의 침략 위협이 점차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던 19세기 중엽에 편찬된 『손자수』는, 당시대 조선의 사대부가 지녔던 병법에 대한 관념과 전쟁수행에 대한 방법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텍스트이다.

『손자수』는 중국의 대표적인 병서인 『손자병법』의 주해서로, 기존에 나와있던 여러 주석서의 오류를 규명하여 그 정수를 밝힌 역작이다. 본문의 내용은 『무경칠서(武經七書)』 계통의 『손자병법』 판본을 근간으로 하여 시계(始計), 작전(作戰), 모공(謀工), 군형(軍形), 병세(兵勢), 허실(虛實), 군쟁(軍爭), 구변(九變), 행군(行軍), 지형(地形), 구지(九地), 화공(火攻), 용간(用間) 등의 13개 편장으로 되어 있으며, 각 편장은 원문과 주석, 그리고 모두(冒頭)와 부록(附錄)으로 구성된 안설(案設)로 구분되어 있다.

『손자수』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 점을 시사해준다. 조선 말기의 난국 상황에서 『손자병법』의 재해석이 지닐 수밖에 없었던 군사적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손자수』가 주목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 19세기 당시 정계에 있던 엘리트 무관이 『손자병법』에 대한 어떠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식을 경영하여 텍스트 저본을 완성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과, 조희순이 『손자병법』에 대한 체계적인 재해석과 분석을 통해서 국방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 점이다. 『손자수』의 분석은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9세기에 『손자수』라는 저작이 편찬되기까지, 조선에서는 수많은 병서들이 편찬되었었다. 이러한 병서 편찬의 궤적에서 마지막 선상에 있는 『손자수』가 군사사 연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에 대해 일단 고찰해도록 하자.

15세기에 정도전의 『진법(陣法)』이 편찬된 이래, 조선시대에는 108종류에 이르는 수많은 병서가 편찬되었다. 이 중 이름만 전해지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

는 것은 36종이며, 현재 전해지는 병서는 72종이다.¹⁾ 이러한 조선시대의 병서에 대한 통합적 정리는 조선후기부터 편찬되기 시작하여 1908년(융희 2) 출판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115 「병고(兵考)」 2 <병서(兵書)>조(條)에서 개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약 40여종 병서의 서명(書名)과 서문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²⁾ 그 안에는 『손자수』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병서들을 바탕으로 한 조선 무학(武學)의 전통은 『손자병법』의 주해서인 『손자수』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1409년(태종 9)에 간행된 『십일자주손자(十一家註孫子)』, 양성지(梁誠之) 등이 1460년(세조 6)에 교정한 『손자주해(孫子註解)』, 1717년(숙종 43)에 간행된 명나라 병법가 유인(劉寅)의 『손무자직해(孫武子直解)』 등의 뒤를 이어서 1869년(고종 6) 3월에 간행된 책이 바로 조희순의 『손자수』이다. 이 책은 유년시절부터 병서(兵書)에 관심이 깊었던 조희순이 무신으로서의 실무 경험을 거치면서 『손자병법』의 주(註)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 기존의 여러 주석서의 잘못을 규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주석한 것으로, 19세기 무신의 병법에 대한 이해도 수준과 전쟁수행 방법론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시계, 작전, 모공, 군형, 병세, 허실, 군쟁, 구변, 행군, 지형, 구지, 화공, 용간 등의 13개 장에 첨부되어 있는 조희순의 분석은, 대부분 병법의 원론적인 입장에 입각해서 작성된 것이다. 그는 각 장에서 원문 아래 주석을 단 다음, 각 편장의 모두(冒頭)와 부록(附錄)에 자신의 안설(案說)을 부기하였다. 책의 서두에는 조희순 본인과 김학성(金學性),³⁾ 남병길

(南秉吉)⁴⁾의 서(序)가 있으며, 원문 아래 주석에서는 조조(曹操), 왕릉(王凌), 장자상(張子尙), 가후(賈詡), 맹씨(孟氏), 심우(沈友), 이진(李筌), 두목(杜牧), 왕석(王皙), 장예(張預), 가림(賈林), 매요신(梅堯臣), 진호(陳皞), 두우(杜祐), 하씨(何氏), 해원(解元), 장오(張鏊), 이재(李材), 황치(黃治), 손호(孫鎬)의 주를 붙였으며, 소순(蘇洵), 왕기(王沂), 당순지(唐順之), 왕세정(王世貞), 진심(陳深), 이지(李贄), 매국정(梅國楨), 초굉(焦燮), 랑문환(郎文煥), 육굉조(陸宏祚) 등의 『손자병법』에 대한 비평을 참조하였다.⁵⁾

『손자수』는 당시 개인문집을 편찬할 때 애용되던 전사자(全史字)⁶⁾로 인쇄되었는데, 이점은 『손자수』가 관찬(官撰)이 아닌 조희순

3) 김학성(金學性): 1807(순조 7)~1875(고종 12). 본관 청풍(淸風). 자 경도(景道), 호 송석(松石). 1849년 철종 즉위 후는 호조·예조·형조·공조의 판서와 광주 부유수·우참찬 등 요직을 거침. 대원군 집권 후에도 계속 중용되어 1864년 판의금부사·규장각제학·예문관제학·홍문관제학·상호군(上護軍)·좌찬성 등의 청요직(淸要職)을 맡아 강관(講官)과 실록편찬 등의 제술관(製述官)을 함. 또, 예조판서·평안도관찰사·판중추부사 등을 역임했고 시강원의 우빈객(右賓客)으로 지내다가 사망. 시호는 문헌(文獻). 편서는 『청풍김씨세보(淸風金氏世譜)』가 있음.

4) 남병길(南秉吉): 1820(순조 20)~1869(고종 6). 본관 의령(宜寧). 일명 상길(相吉), 『손자수』의 서문에서는 상길이라는 이름을 사용함. 자는 자상(字裳), 호는 육일재(六一齋) 또는 혜천(惠泉). 관직은 예조판서, 형조판서에까지 달하였으며 관상감제조도 겸함. 수학과 천문학의 대가였으며, 저서는 『시헌기요(時憲紀要)』·『성경(星鏡)』·『산학정의(算學正義)』 등임. 병법뿐만 아니라 수학에도 조예가 깊던 조희순이 1867년(고종 4)에 『산학습유(算學拾遺)』를 편찬했을 때, 그 서문을 써주기도 했다.

5) 상기 주석에 거론된 인물들의 명단을 검토해보면, 결국 조희순의 『손자수』가 당시까지의 『손자병법』에 대한 수많은 중국 측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편찬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명단을 근거로 하여 19세기 초중엽까지 조선으로의 중국 병서 유입 실태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6) 전사자(全史字)는 1816년(순조 16)에 박종경(朴宗慶)이 청조 건륭(乾隆)의 취진판(聚珍板) 전대(全代) 정사(正史) 활자체를 바탕으로 주조한 동활자(銅活字)로, 주로 개인문집 편찬에 사용되었다. 후일 흥선대원군 집정 당시 운현궁에서 책

1) 강성문, 「조선의 병서와 병학사상」, 『한민족의 군사적 전통』, 봉명(鳳鳴), 2000, 175~180쪽.

2) 노영구, 「조선후기 병서와 전법의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2002, 4쪽.

개인의 출판 저작물이었음을 의미한다. 1869년(고종 6) 당시 제주목사로 부임해있던 조희순은 그와 친분이 있던 남병길에게 부탁하여 이를 출간한다.

2. 『孫子髓』의 저자 趙義純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때 참모군관을 역임한 후, 1868년(고종 5) 8월부터 1872(고종 9) 6월까지⁷⁾ 흥년의 구휼을 위해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조희순은,⁸⁾ 그의 재임기간이던 1869년(고종 6) 3월에 『손자수』를 출간하였다.

1814년(순조 14) 5월 23일에 출생한 조희순의 본관은 평양(平壤)이며, 자는 덕일(德一), 호는 학해당(學海堂)이다. 충숙공(忠肅公) 조정익(趙廷翼)의 후손이며, 아버지는 진사 조존영(趙存榮)이다. 그는 유년시절에 『경서(經書)』는 입신의 근본이요, 『사기(史記)』는 처사의 거울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병서와 상수학을 독학했다. 1839년(헌종 5)에 충량무과(忠良武科)에 합격하여 비국랑(備局郎)으

를 인쇄할 때 사용되었기에 ‘운현궁자(雲峴宮字)’라고 불리기도 했다.

7) 『승정원일기』의 1872년 4월 4일조에 조희순이 신병(新病)을 이유로 체직을 신청한 점과 『담라기년』과 『제주실기』의 기록에서 조희순의 후임인 이복희가 1872년(고종 9) 4월에 부임한 점, 그리고 『승정원일기』의 1872년 6월 6일조에 조희순이 제주목사로서 공마를 실은 선척의 책임자를 문책하도록 하는 장계를 올린 점으로 미루어볼 때 조희순이 1872년 6월까지 제주에서 목사의 인수인계 절차를 끝마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승정원일기』 1872년 7월 1일 조에 고종이 ‘전 제주목사’인 조희순을 소견했다는 부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8) 조희순은 그의 제주목사 부임 23년 후인 1891년 9월 제주방어사 정용기(鄭龍基)의 후임으로 도입(到任)한 제주목사 겸 찰리사(察理使) 이규원(李奎遠: 1833~1901)의 장인이기도 하다.

로 불렸으며, 선전관에 임하고 도총도사훈련첨정(都摠都事訓練僉正)을 역임했다. 1844년(헌종 10) 10월부터 1849년(헌종 15) 2월까지의 정평부사(定平府使)로 재임했으며, 1852년(철종 3) 6월에는 나주영장으로 승진하여 1853년(철종 4) 11월까지 근무하였고, 1854년(철종 5) 7월부터 1855년(철종 6) 12월까지의 해산진첨사(海山鎭僉使)를 지냈다. 1862년(철종 13) 5월부터 12월까지 영남 소요가 경기까지 연급되어 공주영장에 옮겨 부임하였으며(동년 5~6월간 충청중군을 겸직), 난민을 감화시킨 공을 문충공 정원용(鄭元容)이 상주하여 방어품계로 승진하게 된다.

1864년(고종 1) 정월에는 포폐(逋弊)가 극심한 죽산부(竹山府)에 부임하여 1866년(고종 3) 11월까지 죽산부사(竹山府使)로 있었으며, 1866년(고종 3) 10~11월 병인양요 당시에는 신헌(申摠)이 대장이 되어 양화진(楊花津)에 주둔할 때, 조희순은 명을 받아 참모군관을 겸임하였다.⁹⁾ 이 해 12월 부령(富寧)부사로 임명되었으나 그 다음해 1월에 병으로 교체되었고, 이후 훈련도감 천총(千摠), 내금위장(內禁衛將)을 지내다가 병고로 인해 체차된다. 1868년(고종 5)에는 좌부승지가 되었다가 그 해 10월부터 1872(고종 9) 4월까지 제주진병마수군절제사(제주목사) 겸 전라도수군 방어사를 지내면서 제주도의 기근을 성공적으로 구휼하였다. 1873년(고종 10)에 금위영 기사별장(騎士別將)과 좌승지를 지냈고, 윤6월에는 경상좌도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다가 고질병이던 담벽증(痰癖症)이 심해져서 바로 개차되었다.

9) 신헌은 병인양요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1862년 민보(民堡)를 중심으로 한 방어전략인 『민보집설(民堡輯說)』을 초안하여 조정에 올린다. 정약용의 『민보의』를 전제하고 『성수서』와 『보약』을 인용하여 정리한 『민보집설』은 1867년 2월에 간행되었는데, 후일 대원군에 의해 채택되어 1876년 조정에서 민보령(民堡令)이 반포되지만 실질적인 민보 설치의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정해은, 『한국 전통 병서의 이해』, 군사편찬연구소, 2004, 490~500쪽).

이 해 7월부터 1874년(고종 11) 4월까지의 강화중군을 역임했으며, 가선대부에 승자되었다. 1874년(고종 11)에는 진무영(鎭撫營) 중군(中軍)과 좌승지, 도총부 부총관을, 1875년(고종 12)에는 동지중추부사를, 1876년(고종 13) 3월부터 1878년(고종 15) 5월까지의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겸 경성도호부사(鏡城都護府使)를 역임하였다. 1878년(고종 15)에는 어영청 중군과 동지중추부사를, 1879년(고종 16)에는 금군별장과 부총관을 지내고, 1880년(고종 17)에는 남양부사에 제수되어 1881년(고종 18) 6월까지 근무했다. 1881년(고종 18) 9월에는 부총관에 단부되었고, 11월 12사(司)를 7사로 개편할 때 통리아문(統理衙門)이 설치되자 경리통리기무아문사(經理統理機務衙門事)로 군무사(軍務司) 당상경리사(堂上經理事)에 임명되었으며, 그 뒤 군무사를 3국으로 분장하는 군무사분국절목(軍務司分局節目)에 따라 참모국(參謀局)을 담당하였다. 1882년(고종 19) 6월 임오군란으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득세하자 대원군에 의해 발탁되어 금위대장(禁衛大將)이 되었으며, 대원군정권이 붕괴한 다음인 8월 5일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임명되었고, 또한 동지삼군부사(同知三軍府事)를 겸임하였으며, 공조참판(工曹參判), 1883년(고종 20)에는 지훈련원사(知訓練院事)를 역임했다. 1887년(고종 24)에는 다시 남양부사(南陽府使)를 지냈으며, 그 후 수년간 고향에 은거하다가 1890년(고종 27) 10월 23일에 77세로 별세했다. 1906년 후손들에 의해 장지가 충청남도 홍성군 용봉산의 용봉사 절터로 이장되었다. 처는 문화 유씨(文化 柳氏)였고, 3남 2녀를 두었다.

저서인 『손자수』와 『산학습유(算學拾遺)』는 출간되어 세상에 전해졌고, 나머지 저작들인 『중농병유예별집(重農兵遊藝別集)』과 『임하소식(林下小識)』, 『건원고(建元考)』, 『당번진표(唐藩鎮表)』 등은 가장(家藏)되었다.

조희순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일생이 무(武)라는 하나의 코드로 점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년 시절부터 병서를 탐독했고, 무과에 급제하여 조정의 여러 내외직을 역임하면서 무신(武臣)으로서의 경력을 쌓아온 조희순은, 자신이 평소에 탐독하던 병서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들 조지현(趙贊顯)¹⁰⁾에 대한 병법 훈육을 위해 『손자병법』에 대한 주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조희순은 『손자수』를 완성했고, 최종적으로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을 지낸 김학성(金學性)과 판의금부사인 동시에 당대의 유명한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남병길(南秉吉)의 서문을 덧붙였다. 김학성(金學性)과 남병길(南秉吉)은 1868년 당시 정3품 무반직인 상호군(上護軍)을 행(行)¹¹⁾으로 겸직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조희순이 병서인 『손자수』의 서문을 부탁했을 것으로 보인다.

3. 『孫子髓』의 편찬배경

1869년 『손자수』가 집필되던 당시의 조선은, 제너럴 서먼호 사건과 병인양요, 오페르트 일당의 남연군 묘 도굴사건 등을 거치면서 외세의 침입에 대한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조선의 현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낭설로 인해 도성의 관리들조차도

10) 조지현(趙贊顯) : 1840(헌종 6)~1919. 1862년(철종 13)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1866년(고종 3) 말직의 무신 벼슬인 운총권관(雲籠權管) 겸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를 지냈다. 이후 훈련원판관과 첨정, 삼군부 종사관 등을 거쳐 풍천부사(豐川府使), 정주목사(定州牧使), 의주관찰사(義州觀察使) 등을 역임했다.

11) 행(行)은 계급이 높은 자가 계급보다 아래인 직책을 겸직할 때 쓰이는 관직 용어이다.

피난가는 일이 자주 발생할 만큼¹²⁾ 혼란이 가중되어 가던 때에, 조선의 사대부 계층은 국가적인 위기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으며, 『손자수』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서 편찬되었다.

한국 군사사에 있어서 『손자수』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손자수』라는 텍스트가 어떠한 이유에서 편찬되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김학성과 남병길이 쓴 『손자수』의 서문과, 조희순 자신이 직접 서술한 자서(自序)를 아울러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김학성(金學性: 1807~1875)의 서문을 보도록 하자. 김학성은 조희순으로부터 『손자수』의 서문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책을 읽어본 뒤에 서문을 통해 『손자수』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해 놓았다.

병법이라는 것은, 선비가 알지 못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지형과 유수의 형상은 복희씨와 문왕에 시초가 있고, 甘費의 辭는 우왕과 주공에 가법이 있으니, 이는 오래된 것이다. 태공이 병법서를 짓고, 오자가 병법을 이야기한 것은 반드시 도덕인의를 칭한 것이며, 공자의 文事武備와 맹자의 地利人和는, 모두 천고에 깎아내 버릴 수 없는 병법서(韜鈴. 韜鈴의 誤記)이다. 한나라와 송나라의 여러 유자들이 군대의 일을 말하고 전략을 짤 적에 옛 것을 본받아서 절충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유자로서 병법을 알지 못한다면 通儒라 할 수 없다. 예전 손무의 저서 13편에서는 모든 공수 전비의 요체가 知彼知己, 知天知地の 이치에 실려있다. 소위 남을 다스리고 남에게 다스림 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군대를 형용하는 극의

가 형상이 없다는 등의 말은 모두 우리 유교의 정론에서 나온 것인데, 다만 사리와 철계가 오간의 은밀한 묘책을 더욱 변화시킬 따름만은 아니다. 그 장구의 분류와 좋은 뜻의 평론은, 제가의 주석에서 이미 갖추었다. 최근 조희순군이 찬한 주석을 열람해보니, 근본이 유술에 있고 무경을 참조하여 변별하기 어려운 것은 옛 주를 천착하였고, 절충한 것은 여러 주장의 동일점과 차이점이었으며, 사이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전인들이 아직 발하지 못한 것이 많았던 부분을 발명했다. 멀리 갈래길을 곧게 하여 질서가 정연하게 함이 항해의 분침같았다. 아! 조군은 武名이 있으면서 儒學을 행하는 자이다. 책에 있어서 읽지 않은 것이 없고, 읽어서 그 진정한 본의를 깨달으며, 견식이 멀리까지 미쳤다. 묘한 것이 스스로 체득한 신명함이 있었고, 진량이 병가를 논하는 것과 진덕수가 진을 연습하는 것보다 더욱 뛰어났으며, 옛날 작자의 미세한 속 내용을 분석한 것을 바로잡아서 한 분야를 갈무리하였으니, 비록 후세의 진경지라 일컬어도 분수에 넘치는 말이 되지는 못한다. 나에게 증정을 해서 책에 서문을 써주기를 요구하였다. 내가 자유의 시서는 모씨전의에서 취하였고, 정현의 예소는 진씨통고에서 산정하였다고 여겼는데,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으로써 돌아보건대 어찌 이것을 질정하고 조제하겠는가? 그리하여 내가 스스로 섭렵한 중에 얻은 것이었다. 간략하게 병가의 본말을 서술하여 유자가 알지 못해서는 안되는 점을 밝혔다. 오기가 말하기를, ‘충신을 가지고 갑주로 삼고, 예의를 가지고 방패를 삼는다’라 하였다. 대저 갑주와 방패로 충신과 예의를 숭상하는 것은 용병의 근본이 되니, 병서를 읽는 자는 또 이를 알지 못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淸風後人 김학성 쓰다.¹³⁾

12) 황현·임형택 역, 『역주매천야록』 상, 문학과지성사, 2005, 58쪽.

13) 兵者, 士不可以不知也. 地水之象, 權輿於義文, 甘費之辭, 家法於禹周, 此尙矣. 太公著畧, 吳子談兵, 必稱道德仁義, 仲尼之文事武備, 孟氏之地利人和, 皆千古不刊之韜鈴. 漢宋之諸儒, 言兵事策戰畧也. 莫不尊俎而折衷之, 則儒而不知兵, 非通儒

병법이라는 것은, 선비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병법에 있어서 지형과 유수의 형상은 복희씨와 문왕에 그 시초를 두고, 『서경』 「감서」와 「비서」의 사(辭)는 우왕과 주공에 가법이 있으니, 이는 오래된 전통이다. 강태공이 병법서인 『육도(六韜)』를 저술하고, 오자가 병법을 이야기한 것은 반드시 도덕인의를 칭한 것이며, 공자가 말한 ‘문을 일삼고 무로 방비하는[文事武備]’ 것과 맹자가 말한 ‘지형의 이로움과 사람들의 화합[地利人和]’은 모두 천고에 깎아내 버릴 수 없는 병법서의 구절이 되는 것이다. 김학성은 이 구문에서 병서가 유학의 경전과 통하고, 유학의 경전도 역시 병서와 통함을 드러내면서 문과 무의 영역을 초월하여 문무겸전(文武兼全)의 전통이 텍스트 속에 현존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김학성은 한나라와 송나라의 여러 유자들이 병법에 관한 일을 말하고 전략을 짤 적에 옛 것을 본받아서 절충하지 않은 것이 없었음을 밝히고, 유자로서 병법을 알지 못한다면 통유(通儒)라 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통유는 모든 방면에 능통한 선비로, 문무겸전(文武兼全)의 소양을 갖춘 박학다식한 유가적 지식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也。昔孫武著書十三篇，凡攻守戰備之要，在於知彼知己知天知地之理，所謂致人不致於人，形兵之極，至於無形等語，皆出自吾儒正論，非特四利七計尤變五間之秘妙而已。其章句之分疏，旨義之訂翼，諸家匯解，已備矣。近閱趙君義純所撰註釋，本諸儒術，參以武經，辨難舊註之穿鑿，折衷羣言之同異，間附己意。發前未發者，多迂直歧逕，井井若航海之分針。噫！趙君武名而儒行者也。於書無不讀，讀而悟其真諦，見識迢邁。妙有自得之神，而尤長於同甫之論兵・西山之演陣，分析古作者微奧，釐爲一家之藏，雖謂之後世子雲，未爲侈語也。要余訂定，弁之于卷。余以爲子游之詩序，取舍於毛氏箋義，康成之禮疏，刪正於秦氏通考，而余所未嘗學者，顧安所質劑於此乎。然竊自有得於涉獵中，畧敘兵家源委，以明儒者不得不知，起云儒有忠信以爲甲冑，禮義以爲干櫓。夫甲冑干櫓之尚忠信・禮義，是爲用兵之本，讀兵者又不可不知此也。清風後人 金學性書。

손무의 저서 13편에서 모든 공수 전비의 요체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며[知彼知己], 하늘을 알고 땅을 아는[知天知地] 이치에 실려있다. 소위 남을 다스리고 남에게 다스림 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군대를 형용하는 극의가 형상이 없다는 등의 말은 모두 유교의 정론에서 나온 것이며, 다만 사리(四利)와 칠계(七計)가 다섯 종류의 첩자인 오간(五間)의 은밀한 묘책을 더욱 변화시킬 따름만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 장구의 분류와 좋은 뜻의 평론은 제가의 주석에서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최근 조희순이 찬한 주석을 김학성 자신이 열람해보니, 근본이 유술에 있고 무경을 참조하여 변별하기 어려운 것은 옛 주를 천착하였고, 여러 주장의 동일점과 차이점을 절충하였으며, 사이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예전 사람들이 아직 조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밝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여러 갈래인 길을 하나로 통합시켜 대로로 만든 것과 같았는데, 마치 항해를 할 때 분침이 북쪽만을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조희순은 다독하고 그 진정한 본의를 심득하였으며, 견식이 멀리까지 미쳤다. 조희순 스스로 신묘함을 체득한 것이, 동보 진량(陳亮)이 병가를 논한 것과 서산 진덕수(眞德秀)가 진을 연습하는 것보다 더욱 뛰어났으며, 옛날 작자의 미세한 속 내용을 분석한 것을 바로잡아서 한 분야를 갈무리하였으니, 비록 후세에서 양(梁)나라의 명장인 진경지(陳慶之)라 일컬어도 분수에 넘치는 말이 되지는 못한다고 김학성은 평하고 있다. 조희순이 김학성에게 이 책을 증명하고 서문을 써주기를 부탁하자, 김학성이 스스로 『손자수』를 섭렵해서 읽어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서문을 썼는데, 『손자수』는 간략하게 병가의 본말을 서술하여 유자가 알지 못해서는 안되는 점을 밝혔다고 말하고 있다. 오기(吳起)가, ‘충신을 가지고 갑주로 삼고, 예의를 가지고 방패를 삼는다’라고 한 말처럼, 대저 갑주와 방패로 충신과 예의를

숭상하는 것이 용병의 근본이 된다는 점을 김학성은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다음은 조희순의 자서(自序)이다. 그는 서문에서 무가(武家)의 맥을 이은 아들 조지현(趙贄顯)의 병서 공부를 위해 『손자수』를 집필했음을 밝히고 있다.

방외적이면서도 뜻있는 선비가 있었다. 매 가을밤 고요할 때 지는 낙엽이 창을 두드리고 대나무의 서늘함이 침범하는데, 등불을 대하여 수심에 잠겼다가 검을 보고 잔을 끌어당기고, 고인의 서책 수 권을 빼내서 보다가 마침내 책상을 치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마음 속에 맺혀있던 기운을 펼쳤다. 당시에 그 사람이 읽은 것은 반드시 병서였다. 이미 제가가 범람하였는데 널리 읽고 요약해보니, 그 사람이 읽은 책이 또 반드시 손자에 귀결됨을 나는 알았다. 온 천하에 기호를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음에서 말미암은지라. 그러므로 당 태종도 또한 말하길, 여러 병서 가운데 손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 하니, 이는 곧 주석이 유독 많기 때문이다. 위진에서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두 80여가가 있었는데 조맹덕이 으뜸이라고 일컬어지며, 손자와 오기의 용병에 그칠 뿐만 아니라, 또 겸하여 문장의 시초와 병사에 대해 말 밖의 뜻을 많이 얻었으니, 후세의 말 잘하는 선비들이 거의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왕왕 티가 옥을 가리지 못하니, 어찌 붓을 휘둘러댈 적에 득의한 후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힘써서 다스리기를 괴롭게 할 겨를도 없었는가? 劉寅의 설은 지극히 천근하였으나 비난이 없을 수 있었는데 지금 편벽되게 무학에 나열을 하니, 어찌면 간행할 때에 다른 선본이 미처 동쪽으로 오지 못했기 때문인가? 내가 평소 병가를 좋아하였고, 국가의 전쟁 역사를 읽는 것에 이르게 되면 아직까지 일찍이 여러 번 반복하여 승패의 행적을 헤아려보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손자』에서 참고하여 징험했다. 나보다 앞서 鄧廷羅가 『兵鏡』

을 찬함이 있어서 다시 육자의 서언으로서 손자의 이론에 덧붙였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보다 먼저 이탁오의 참동에 관한 저술이 있어서 병서로 지을 것을 아득하게 생각한지 오래되었다. 말년에 깊이 걱정하는 병이 있어, 당세에 뜻이 없게 되었다. 병을 산재에서 요양하며 용이하게 한가로움을 얻었는데, 아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학문에 뜻을 두어 아버지의 공부를 배우고자 청하기를 매우 부지런히 하여, 간본의 운해를 취하여 해석하고 시험삼아 읽어보게 했다. 순수하고 박잡한 것을 검하여 거두었으나, 절충에 결함이 있었다. 괴롭게도 어기가 시들고 의성이 마땅하지 않았다. 또 아들의 성격이 좁고 비뚤어져 구차하게 따를 수 없었으니, 내가 스스로 헤아리지 못해서 매양 손을 볼 때마다 소삭하여 본받아 과제를 부과했다. 대개 이 자기를 100번 거듭하는 공부가 있게 되면, 어찌면 한 가지는 얻는 우가 있을 것이다. 편이 이미 이루어지자, 달려와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주 서로 그렇다고 긍정하며 말하길, ‘내가 어릴 때 이에 뜻을 두어서 열람한 것이 또한 많습시다. 손자 1책에 흠이 있는 것이 주를 다는 자의 원통함이 되었으니, 천년 후에도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자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대가 엮은 이 책 중 오로지 궁구함을 미루어 마음을 써서 글을 쓴 곳은, 거의 피부를 벗겨서 정밀하게 골수로 들어갑니다. 어찌 이로써 이름하지 않습니까?’라 하였다. 내가 거의 웃으며 수긍하고, 드디어 이름하여 말하길 ‘손자수’라 했다.¹⁴⁾

14) 自序：有崎人志士。每秋夜渚寂，落葉撲窓，竹涼乍侵，悄對螢燈，看劍引杯，抽古人書讀數篇，竟爲之拍案掀髯以紓其胸中湮鬱之氣。當此之時，吾知其所讀者，必兵書也。既而泛覽諸家，博而約之，則吾又知其必歸於孫子。由天下有同者焉。故唐文皇亦云：諸兵書無出孫子，是則註釋之所以獨多也。魏晉迄明，凡八十餘家，曹孟德而爲稱首，不止用兵，髣髴孫吳，兼又文章權輿與午多得言外之意。有非後世能言之士，所可幾及。然往往瑕不掩瑜，豈以下筆在得意後，務於矜伐，而未暇攻苦歟。劉寅說極淺近可無譏，而今偏列於武學，豈刊行時，他善本末。及東來歟。余少喜兵家言讀史至有國戰守，未嘗不三復，擬以勝敗之迹，參徵於孫子。先我而鄧廷羅有兵鏡之撰，更思以六子之緒言，翼附於孫子，先我而李卓吾有參同之述，爲盲然綴作者久之。晚

방외적이면서도 뜻있는 선비인 기인지사(畸人志士)는 매 가을밤 고요할 때 지는 낙엽이 창을 두드리고 대나무의 서늘함이 침범하는데, 등불을 대하여 수심에 잠겼다가 검을 보고 술잔을 끌어당기고, 고인의 서책 수 권을 빼내서 보다가 마침내 책상을 치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마음 속에 맺혀있던 기운을 글로 펼쳤다. 당시에 그가 읽은 책이 반드시 병서인 것을 조희순은 안다. 여러 제가들의 범람하는 설을 널리 읽고 요약하다보니, 그 사람이 읽은 병서가 반드시 손자에 귀결되었음을 조희순은 또 알게 되었다. 천하에 무(武)에 뜻을 같이하는 동지인 기인지사(畸人志士)는 비단 조희순 자신의 동지일 뿐만 아니라, 병법을 연구하는 무인(武人)인 조희순 자신의 모습을 타자화시켜 투영한 은일적(隱逸的) 병법가(兵法家)인 것이다.

당 태종은 병서 가운데 『손자병법』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주석이 유독 많기 때문이다. 위나라와 진나라에서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두 80여가가 있었는데 조맹덕이 으뜸이라고 일컬어지며, 손자와 오기의 용병에 겸하여 문장의 시초와 병사에 대해 언외의 뜻을 많이 얻었으니, 후세의 말 잘하는 선비들도 미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왕왕 티가 옥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잘못이 있었다. 『무경칠서직해(武經七書直解)』와 『삼략직해(三略直解)』를 쓴 명나라 병법가 유인(劉寅)의 설은 지극히 수준이 낮았으나 비난이 없을 수 있었는데, 지금 편벽되게 무학에 나열을 하니 어찌면 간행할 때에 다른 선본이 미처 동쪽으로 오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

有幽憂之疾，無意於當世，養疴山齋，容易得閒，兒子頭角稍長，有志學裘，請業甚勤，取刊本彙解試使讀之。而粹駁兼收，欠於折中，語氣萎蕤，苦不當意性。又編掇，不能苟從，竊不自揆，每手疏數，則而課之。蓋以百已之工，容有一得之愚耳。編既成，有騁談之客，亟相然可曰：吾少志於此，閱亦多矣。孫子一書欠爲註家所窺，千載之下，莫有白者。今子是編專推究用心下字處，幾乎剝其膚而精入髓矣。盍以是名之。余笑而首肯，遂名之曰：孫子髓。

겠다고 조희순은 추측하였다. 조희순이 평소 병가를 좋아하였고, 국가의 전쟁 역사를 읽는 것에 이르게 되면 아직까지 일찍이 여러 번 반복하여 승패의 행적을 헤아려보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손자』에서 참고하여 징험했다. 조희순이 자신보다 앞서 명나라의 등정라(鄧廷羅)가 『병경(兵鏡)』을 찬함이 있어서 다시 육자(六子)의 머리말을 참조하여 손자의 이론에 덧붙였다고 생각했었는데, 먼저 이탁오(李卓吾), 즉 이지(李贄)가 참동에 관한 저술을 쓴 것을 보고 조희순 스스로 병서로 지을 것을 아득하게 생각한지가 오래되었다.

조희순은 말년에 깊이 걱정하는 병이 있어, 당세에 뜻이 없게 되었다.¹⁵⁾ 병을 산재에서 요양하며 용이하게 한가로움을 얻었는데, 그의 아들 조지현이 자라면서 학문에 뜻을 두어 아버지의 공부를 배우고자 부지런히 청하여, 간본의 운해를 취하여 해석하고 시험삼아 읽어보게 했다. 그리하여 순수하고 박잡한 것을 겸하여 거두었으나, 절충에 결함이 있었다. 괴롭게도 어기가 시들고 의성도 마땅하지 않았다. 또 아들 지현의 성격이 좁고 비뚤어져 구차하게 따를 수도 없었으니, 조희순이 스스로 헤아리지 못해서 매양 손을 볼 때마다 소삭하여 본받아 과제를 부과했다. 편이 이미 이루어지자, 달려와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희순과 자주 서로 그렇다고 긍정하며 말하였는데, ‘내가 어릴 때 이에 뜻을 두어서 열람한 것이 또한 많습니 다. 『손자병법』 1책에 흠이 있는 것이 주를 다는 자의 원통함이 되었으니, 천년 후에도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자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대가 엮은 이 책 중 오로지 궁구함을 미루어 마음을 써서 글을 쓴 곳은, 거의 피부를 벗겨서 정밀하게 골수로 들어잡니

15) 조희순의 고질병이었던 담벽증(痰癖症)을 말한다. 그는 이 때문에 제주목사 부임 당시에도 체직을 신청하였으며, 그 외에도 누차 병으로 인해 고생했다는 기록이 『승정원일기』에 자주 보인다.

다. 어찌 이로서 이름하지 않습니까?’라 하였다. 조희순이 거의 웃으며 수긍하고, 드디어 ‘손자수(孫子髓)’라고 명명했다.

마지막 글은 남병길(南秉吉: 1829~1869, 남상길(南相吉))의 서이다. 남병길은 서문에서 『손자수』의 주를 주석과 비평의 두 종류로 분류하고, 각기 장단점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구양수의 말을 인용하여 병법의 묘리를 확연하게 하였고, 조희순이 손자의 깊은 뜻을 심득하여 『손자수』를 지은 것이 마치 달마대사의 제자인 혜가가 달마로부터 불법을 제대로 전수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극찬하였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 책에 『손자수』라는 제목을 붙인 것임을 설명하였다.

손자수는 조 학해당이 주해한 것이다. 무릇 무서는 백대동안 병법을 이야기해온 것의 원조이니, 그러므로 역대의 주본이 매우 많다. 주석은 曹操와 王淩, 張子尙, 賈詡, 孟氏, 沈友, 李筌, 杜牧, 王皙, 張預, 賈林, 梅堯臣, 陳皞, 杜祐, 何氏, 解元, 張鑒, 李材, 黃治, 孫鎬, 紀變의 것이 있으며, 비평은 蘇洵, 王沂, 唐順之, 王世貞, 陳深, 李贄, 梅國楨, 焦竑, 郎文煥, 陸宏祚의 것이 있는데, 여러 논의들이 각기 득실이 있다. 구양수가 일권기를, 병법에는 궁구할 수 없는 것으로 기습을 삼아서, 마땅히 그 실을 쓴 것이 많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가장 이치에 맞다. 대개 이 책은 제가들의 논의를 철집하여 그 정수를 쓰고 손자의 깊은 뜻을 심득하여, 혜가가 달마의 진수를 얻은 것 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이 때문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내가 그 잔본이 유전됨을 애석하게 여겨 드디어 인쇄하여 그 책으로 하여금 세상에 오래 전하게 하니, 또한 후학들로 하여금 그 생취·훈련·권모·운용의 기술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 기사 3월 상순 의녕 남상길 쓰다.¹⁶⁾

16) 孫子髓者趙學海堂所注解也。夫武書爲百代談兵之祖，故歷代注本極夥，注釋有曹操

남병길은 자신이 『손자수』 원고의 유실을 염려하고 또한 후학들에게 병법에서의 생취, 훈련, 권모, 운용의 기술을 교육시키고자 이 책의 편찬에 직접 관여하였다. 이는 조희순이 제주도에 제주목사로 부임해있는 상황에서, 남병길이 조희순의 부탁을 받아서 편찬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4. 『孫子髓』의 내용과 그 의미

『손자수』는 그 항목에 있어서 (1) 시계(始計), (2) 작전(作戰), (3) 모공(謀工), (4) 군형(軍形), (5) 병세(兵勢), (6) 허실(虛實), (7) 군쟁(軍爭), (8) 구변(九變), (9) 행군(行軍), (10) 지형(地形), (11) 구지(九地), (12) 화공(火攻), (13) 용간(用間) 등 『손자병법』의 13개 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각 편장은 원문과 주석, 모두(冒頭)와 부록(附錄)으로 구성된 안설(案設)로 구분되어 있다. 『손자수』의 모두는 각 편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안내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록은 원문의 주석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손자수』는 19세기까지 출간된 중국과 국내의 병서를 총망라하여

・王淩・張子尙・賈詡・孟氏・沈友・李筌・杜牧・王皙・張預・賈林・梅堯臣・陳皞・杜祐・何氏・解元・張鑒・李材・黃治・孫鎬・紀變，批評 有蘇洵・王沂・唐順之・王世貞・陳深・李贄・梅國楨・焦竑・郎文煥・陸宏祚，而諸論各有得失。歐陽修謂兵以不窮爲奇，宜其說者之多 其言最爲有理也。盖此書綴輯諸家之論，筆其精粹，深得孫子之奧旨，如慧可之得達磨髓。然是以命名焉。余惜其流傳殘本，遂付繡梓，俾壽于世，亦使後學知其生聚訓練權謀運用之術云爾。己巳(1869)三月 上澣 宜寧 南相吉 序。

종합정리한 서적으로, 조선시대 전통 군사학의 최고 수준을 반영하는 병학 주석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인이면서도 문(文)에 조예가 깊었던 조희순은, 『십일가주손자(十一家註孫子)』와 『손자주해(孫子註解)』, 『손무자직해(孫武子直解)』 등 『손자병법』에 대한 각종 병서와 주석서를 총정리한 『손자수』에서 당대에 통용되고 있던 군사지식에 대하여 맹목적 추종이 아닌 엄정한 분별을 가하였다. 병법의 본질을 호도한 중국 주석가들을 배격하고, 병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을 산정하여 종합한 조희순의 『손자수』는, 조선시대의 병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주목받아야 할 중요한 업적이다.

지금부터 조희순이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손자병법』을 분석하여 『손자수』를 정리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손자수』의 모두(冒頭)를 일람해보기로 하자. 조희순은 『손자수』의 각 편장마다 있는 모두(冒頭)에서 각 편장이 유기체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는 각 모두에서 『손자수』의 각 편장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밝히면서, 아울러 모두의 말미에서 『손자병법』의 순서대로 배치된 『손자수』 해당 편장의 제목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순서에 따라 배열되었는가를 드러내고 있다.

기존의 『손자병법』에 대한 제가들의 연구결과를 종합 분석한 내용이 집약적이고도 간결하게 서술된 『손자수』 각 편장의 모두(冒頭)는 조희순 자신이 각 편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19세기 조선의 고위 무관이 지녔던 『손자병법』에 대한 분석 시각을 반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부터 『손자수』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기로 한다.

(1) 始 計

무릇 군대를 일으키고 군대의 形象을 움직이려면, 임금과 재상이 더불어 廟堂의 위에서 모의하고 적과 아군의 正황을 계측한 다음, 勝氣를 보고 이에 거병해야 한다. 그러므로 싸우지 않는 경우는 있으되 싸우면 반드시 이기니, 그 법은 즉 五事와 七計이다. 그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의 승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승부를 알 수 있으니, 그러므로 첫 부분을 ‘始計’라 한 것이다.¹⁷⁾

군대를 일으켜서 군대의 형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임금과 재상이 묘당(廟堂)에서 전쟁의 계책을 논의하고 적과 아군의 정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계측한 다음, 이길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따진 후에 실제로 거병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친다면, 아군이 불리한 상황이거나 전쟁을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싸우지 않는 경우는 있으나,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도자와 백성의 뜻이 합치된 도(道)·계절에 따른 기상상황인 천(天)·전투장소에 따른 지형상황인 지(地)·지휘관의 능력과 자질인 장(將)·전쟁에 필요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법과 제도 시스템인 법(法) 등을 지칭하는 오사(五事), 즉 아군의 전력 분석과, 군주의 비교 우위[主孰有道]·기상과 지형의 유리함[天地孰得]·법령의 시행여부[法令孰行]·병력의 강함[兵衆孰強]·군대의 훈련정도[士卒孰練]·포상과 징벌제도의 명확함[賞罰孰明] 등을 지칭하는 칠계(七計), 즉 적군과의 전력 비교 계책을 면밀히 따져보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승산의 여부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통해 승부를 알 수

17) 凡欲興師動衆，君相與訐謀於廟堂之上，校計皮我之情，見勝乃舉。故有不戰，戰必勝，其法則五事七計也。隨其得算，多小以知勝負，故首始計。

있기 때문에 이 장이 ‘시계(始計)’라는 제목을 가지게 되었음을 조희순은 명시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오기(吳起), 위자(尉子), 이정(李靖)의 주와 『맹자(孟子)』, 『좌전(左傳)』, 『삼략(三略)』의 내용을 언급하며 시계 편장을 분석하였고, 부록에서는 위자(尉子), 이정(李靖), 조조(曹操)의 주를 차용했다.

(2) 作 戰

이미 계측하여 승산이 많다면, 이제는 군대를 일으킬 만하다. 다만 십만 군사(의 형상)가 날로 천금을 소비하고, 나라는 장거리 수송으로 가난해지며, 기세는 오랜 주둔에서 꺾이니, 비록 적의 군대를 격파하고 적의 장수를 죽이는 공이 있더라도 제후들이 그 폐해를 이용하여 우리를 향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반드시 적으로부터 양식을 탈취해서 사용하는데, 신속함을 귀함으로 삼는다. 연후에 이에 적을 이기고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소위 이익에 합당하게 움직이고, 이익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순서로 ‘作戰’을 둔 것이다.¹⁸⁾

전쟁을 이미 계측해보아서 승산이 많다면, 이제는 군대를 일으켜 볼 만하다. 하지만 전시 경제활동에 있어서 십만이나 되는 군사를 유지하는데 드는 금전적 비용과 수송물자의 소용, 그리고 전투의 지체에서 생기는 무기력증 등이 장애요소가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8) 既校計而得多算，斯可興師矣。但十萬之象，日費千金，國貧於遠輸，氣挫於久頓，則雖有破軍殺將之功，而諸侯起而乘其弊。故必因糧於敵，而以速爲貴。然後乃能勝敵而益強。所謂合於利而動不合於利而止也。故次作戰。

적의 군대를 격파하고 적 군대의 장수를 죽이는 공이 있더라도, 아군의 제후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소지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임전을 하는 현지에서 적으로부터 양식을 신속하게 탈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후에야 적을 이기고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이는 이익에 합당한지의 여부에 따라 군을 운용하는 실리적인 방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손자병법』에서 ‘시계(始計)’의 다음 순서로 ‘작전(作戰)’을 편장으로 둔 것이다.

본문에서는 오기(吳起)의 주와 『좌전(左傳)』, 『삼략(三略)』의 내용을 언급하며 작전 편장을 분석하였고, 부록에서는 조조(曹操), 여혜향(呂惠鄉), 황황굉(黃皇肱)의 주를 차용했다.

(3) 謀 攻

군대는 흉한 것이고 전쟁은 위태로운 것이니, 부득이할 때만 그것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비록 묘당의 회의에서 승산의 계책이 많아, 미리 그 노고와 비용을 헤아려 군대의 위세가 적국에 떨치더라도, 혹 내실이 텅 빌 것을 염려한다. 그 때문에 느긋하고 태연하면서 나아가지 않는 것은 다만 사람과 물자를 상할까 두려워서만이 아니다. 반드시 힘써서 적을 공격하기를 도모하되, 노중련이聊城을 취할 때와 한신이 全燕을 함락시킬 때처럼 해서 화살과 살책을 낭비하는 근심이 없고, 땅을 넓히고 백성들을 복종시키는 실익이 있어야 이에 상책이 된다. 그러므로 다음 순서로 ‘謀攻’을 둔 것이다.¹⁹⁾

19) 兵凶戰危，不得已用之。故雖多算勝於廟堂，而預料其勢費，兵威震於敵國，而或慮於內虛。所以優游恬淡而不進者，非止恐傷人物而已。必務以謀攻人，如魯連之取聊城・韓信之下全燕，無亡矢遺鏃之患，而有拓土服衆之實，斯乃上着也。故次謀攻。

전쟁과 군대의 속성이 원래 대량살상과 파괴를 주로 하기 때문에, 군대는 흉한 것이고 전쟁은 위태로운 것이니, 부득이한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시계’와 ‘작전’의 상황이 모두 성공적이어서 군대의 위세가 적국에 떨치게 되더라도, 국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용병이 아니어서 내실이 비어버릴까 염려한다. 그 때문에 느긋하고 태연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바로 나가지 않는 것이 병력과 군수물자의 피해를 두려워해서만은 아닌 것이다. 총력을 기울여서 적을 공격할 것을 도모하되, 노중련이 편지 한 통으로 연(燕)나라의 장군을 자살하게 하여 요성(聊城)을 취할 때와 한신이 이좌거(李左車)의 계책을 받아들여 전연(全燕)을 함락시킬 때처럼 묘계를 써서 군대의 전력을 낭비함이 없이 국토를 넓히고 적의 백성들을 복종시키는 실제적인 이익이 있어야 군대의 전략이 상책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계(始計)와 작전(作戰)의 다음 순서로 ‘모공(謀攻)’을 둔 것이다.

본문에서는 위자(尉子), 오기(吳起), 이정(李靖)의 주와 『시경(詩經)』과 『역경(易經)』, 『좌전(左傳)』, 『사마법(司馬法)』의 내용을 언급하며 모공 편장을 분석하였고, 부록에서는 조조(曹操), 김천인(金千仞)의 주를 차용했다.

(4) 軍 形

군대의 가장 뛰어난 전쟁은 적의 계책을 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교린국을 치는 것이다. 만약 치는 것이 적의 계책과 교린국에 미치지 못했는데, 또한 이미 습전이 되었다면 오직 전쟁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 앞의 3편은 모두 싸우지 않으려는 뜻이었고, 부득이함에 이르러 싸우게 되었다면 또한 반드시 만전의 계책을 세워

적을 제압해야 하며 요행에서 승리를 구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먼저 아군의 이길 수 없는 점을 파악하여 적의 이길만한 점을 상대한다. 남고 부족한 것에 따라 軍形을 이루어 끝내 스스로를 보전하고 승리를 온전히 취하는 것이니, 어찌 智略이 없이 勇功으로 이름을 날리고 돌아오는 것에 힘쓸 수 있겠는가? 먼저 승리하고서 나중에 싸우는 것이니, 이에 대해서 군대가 비로소 軍形을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 순서로 ‘軍形’을 둔 것이다.²⁰⁾

군대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전쟁은 적의 계책을 쳐서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은 교린을 맺은 주변국을 쳐서 병합하는 것이다. 만약 적의 계책을 쳐서 이길 수도 없고 교린국을 쳐서 병합할 상황이 되지 못했는데도 싸움이 벌어졌다면, 오직 전쟁만이 있을 따름이다. 앞서 말한 시계(始計)와 작전(作戰), 모공(謀攻)은 모두 싸우지 않고도 적을 이길 수 있는 뜻이 담겨있지만, 부득이하게 실제로 싸우게 된다면 또한 반드시 만전의 계책을 세워서 적을 제압할 뿐 요행으로 승리를 구하면 안된다. 그러므로 먼저 아군의 취약점을 판단하여, 적의 강점을 파악하고 상대하는 것이다. 전력이 남으면 공격하고, 전력이 부족하면 수비하는 방식에 따라 군형(軍形)을 이루어 끝내 스스로를 보전하고 승리를 온전히 취할 수 있으니, 어찌 지략을 세우지 않고 실전에서만 용맹을 떨쳐서 공을 이루어 이름을 날리고 돌아오는 것에만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방식으로 군형을 이루는 것은, 곧 먼저 승리하고서 나중에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계(始計)와 작전(作戰), 모공(謀攻)의 다음 순서로 ‘군형(軍形)’

20) 上兵伐謀，其次伐交。而若伐未及謀交，亦已合則惟有戰耳。故前此三篇，皆不欲戰之意，至於不得已而戰，亦必制敵於萬全，不可求勝於僥倖。故先爲不可勝，以待敵之可勝。形之以有餘不足，而終能自保全勝，寧可無智名勇功而務歸。先勝後戰，於是乎兵始形矣。故次軍形。

을 두었다.

본문에서는 오기(吳起), 이정(李靖), 당태종(唐太宗), 왕수인(王守仁), 위자(尉子)의 주와 『육도(六韜)』, 『삼략(三略)』, 『사마법(司馬法)』의 내용을 언급하며 군형 편장을 분석하였고, 부록에서는 이전(李筌), 매요신(梅堯臣), 가림(賈林), 왕석(王皙), 조조(曹操), 두목(杜牧), 왕세정(王世貞), 김천인(金千仞)의 주를 차용했다.

(5) 兵 勢

군대가 이미 형태를 갖추어 地勢에 따라 제대를 적절히 배치하였으면, 반드시 分數로 그것을 다스리고, 形名으로 그것을 가지런히 하며, 奇正으로 그것을 변화시키고, 虛實로 그것을 형용한다. 연후에 작전을 펴면 안정되고 수비하면 견고해지며, 싸우면 이기게 된다. 分數가 분명하므로 적의 다스려짐을 어지러움으로 삼을 수 있고, 虛實이 자세하여 적의 견고함을 흠으로 삼을 수 있으며, 奇正이 相生하므로 적군이 먼저 합치되었다가 나중에 적군에게 곤약이 오기도 하며, 形名에 따라 용맹한 자와 겁많은 자가 가지런하게 된다. 그리하여 형세에 따라서 적과 싸울 수 있으니, 마치 둥근 돌을 천 길의 산에서 굴리는 것 같아서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 순서로 ‘兵勢’를 둔 것이다.²¹⁾

군대가 이미 형태를 갖추어 지형의 세에 따라 제대를 적절히 배치하였으면, 반드시 부대편성제도인 分수(分數)대로 병력의 수를 나

누어서 그것을 다스리고, 전투대형과 지휘·통제계통인 形명(形名)으로 그것을 가지런히 하며, 기습과 정공법인 奇正(奇正)으로 그것을 변화시키고, 적의 약점인 虛(虛)와 적의 강점인 實(實)을 따지는 虛實(虛實)로 그것을 형용한다. 이러한 연후에 작전을 펴면 안정되고 수비하면 견고해지며, 싸우면 이기게 되는 것이다. 아군 제대의 분수가 분명하기 때문에 적의 제대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虛實이 자세하여 적의 견고함에 흠집을 낼 수 있으며, 기습과 정공법을 함께 사용하여 아군의 용맹한 자와 겁많은 자 모두를 가지런하게 전장에 투입한다. 그리하면 형세에 따라서 적과 싸울 수 있으니, 마치 둥근 바위가 천 길 높이의 산에서 굴러오는 것과 같아서 적이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시계(始計)와 작전(作戰), 모공(謀攻), 군형(軍形)의 다음 순서로 ‘병세(兵勢)’를 둔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정(李靖), 위자(尉子), 오기(吳起)의 주를 언급하며 병세 편장을 분석하였고, 부록에서는 증교(曾皎), 허동(許洞), 두우(杜祐), 조조(曹操), 장예(張預), 기섭(紀燮), 소길(蕭吉), 진호(陳皞), 왕세정(王世貞), 이정(李靖)의 주를 차용했다.

(6) 虛 實

李靖은 말하기를: ‘奇正으로 적의 虛實을 궁구하기 때문에, 기정과 虛實이 서로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전편에서는 기정에 대해서 상세하였고, 虛實에 대해서는 약간 그 단서만 열어놓았으므로 이 편에서 드디어 虛實에 대해서만 오로지 논하려고 한다. 처음에 적의 虛實을 살핀다고 하였는데, 그 묘용을 미루어 적의 虛實을 조정하는데 이르면 적병들의 목숨을 내 손으로 쥐고 있는 것이니, 이것이 용병의 극치이다. 그리하여 기정에 뛰어나면 순순히 이끌어갈

21) 兵已成形, 而稱衆因地, 則必分數以治之, 形名以齊之, 奇正以變之, 虛實以形之. 然後以陳則定, 以守則固, 以戰則勝. 分數明, 故能以治爲亂. 虛實審, 故能以堅爲瑕, 奇正相生, 故可先合而後阨之, 形名以齊勇怯. 故可任勢而戰人, 如轉圓石於千仞之山, 而莫之禦矣. 故次兵勢.

수 있는 것이지 교묘하게 속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다음 순서로 ‘虛實’을 둔 것이다.²²⁾

『이위공병법(李衛公兵法)』의 저자인 명장(名將) 이정(李靖)은 기습과 정공법인 기정(奇正)으로 적의 허실(虛實)을 궁구하기 때문에, 기정과 허실이 서로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편인 ‘병세(兵勢)’에서는 기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였으나, 허실에 대해서는 약간 그 단서만 열어놓는 정도로 설명해놓았으므로, 이 편에서는 허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처음에는 적의 허실을 살피다가, 그 묘용을 미루어 적의 허실을 아군의 의지대로 조정하는데 이르면 적병의 생사를 아군이 관장할 수 있게 되니, 이것이 용병의 극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정에 뛰어나면 전쟁을 순순히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일 뿐, 기정 자체가 교묘하게 속이는 방편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편장들의 다음 순서로 ‘허실(虛實)’을 둔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정(李靖), 위자(尉子)의 주와 『삼략(三略)』의 내용을 언급하며 허실 편장을 분석하였고, 부록에서는 이탁오(李卓吾), 주록강(朱鹿岡)의 주를 차용했다.

(7) 軍 爭

始計는 아직 싸우지 않았을 때 승부를 예측하는 것이다.作戰은 일에 앞서서 노력과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謀攻은 앞서서 군대를 운용하여 적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모두 군대의 기틀이 되는 모

의이지만, 군대의 일은 아니다.軍形은 군대가 형태를 드러내는 것이다.兵勢는 소리와 기세가 펼쳐지는 것이다.虛實은 변화하여 지극해지고 신묘하게 바뀌어, 지극히 고무시키는 것이다. 마치 포정의 기술이 어느 것이나 음절에 맞고, 오나라 계찰이 본 것이 韶와 箛에 충분해서, 예악에 대한 말이 또한 여기에서 그칠 수 있었던 것과 같다. 그러나 날갯죽지를 들어올리더라도 깃털이 빠져있다면, 어찌 온전한 새가 되겠는가? 그러므로 軍爭 이하는 두루 모아서 차례를 매기기를 대부분 종류대로 따랐고, 혹 문장이 가끔 이어지지 않더라도 중요한 대목의 글자[字眼]를 따라 제목을 삼았으니, 미리 편목을 새겨서 신경써서 엮어 처음과 끝이 서로 관통하여 한 호흡에 지은 책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軍爭篇이 이익을 쫓되 四治를 붙여놓았고, 九變篇이 임기응변에 통달하였으니 五危를 경계로 했다. 군대의 주둔과 적군을 살피는 것을 함께 논의하였는데, 治兵을 딸려놓아 이것을 따르고 있고, 六地와 六敗가 서로 이어졌으니 장수의 도리를 붙여놓았다. 경계할 때는 노여움을 삼가하여 조금도 火攻篇에는 관련됨이 없어야 하고, 마땅히 은미하게 살피서 정보를 모아야 하므로, 그리하여 오로지 用間篇에서 논한 것이다. 이는 모두 군대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안목을 갖춘 자라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주석가들이 억지로 건강부회한 것은 유독 무엇을 위해서인가? 九地 1篇에 이르러서는 마음 속에 생각한 것이 더욱 교묘하여 연구한 문장[機杼]을 별도로 내었는데, 마치 천리마가 태항산에서 곤액을 꺾고 배가 呂梁의 폭포를 지나는 것 같이, 반드시 죽을 지경이 되어야 살아나고, 거의 위험한 지경이 되어야 편안해지는 것이다. 兵家에서 秘藏하던 것을 남김없이 드러내어 전체의 책을 만들었으니, 본문의 뒤에 딸린 문장은 장자[蒙莊]의 天下篇, 반고[孟堅]의 敘傳과 동일한 결론을 맺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한 部の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편이니, 알지 못해서는 안되는 것이다.²³⁾

22) 李靖曰：奇正者所以致敵之虛實，奇正虛實相因者也。前篇詳於奇正，而虛實則微啓其端，故此篇遂專論之。始言審敵虛實，而推其妙用，至於致敵虛實，則敵人之命操之在我，乃用兵之極致也。然善於奇正，則可馴致，而非有謬巧也。故次虛實。

조희순은 이 모두에서 이제까지 나온 편명의 의미를 요약한 다음 군쟁편(軍爭篇)을 설명하고 있다. 시계(始計)는 아직 싸우지 않았을 때 승부를 예측하는 것이다. 작전(作戰)은 일에 앞서서 노력과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 모공(謀攻)은 앞서서 군대를 운용하여 적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군대의 기틀이 되는 모의이지만, 실제적으로 작전에 참가하는 군대의 일은 아니다. 군형(軍形)은 군대가 형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병세(兵勢)는 병사들의 함성과 기세가 펼쳐지는 것이다. 허실(虛實)은 변화하여 지극해지고 신묘하게 바뀌어, 병사들의 사기를 지극히 고무시키는 것이다. 마치 포정의 칼 쓰는 기술이 어느 것이나 음절에 맞고, 오나라 계찰이 본 것이 순임금의 음악인 소(韶)와 소(箒)에 충분해서, 예악에 대한 말이 또한 여기에서 그칠 수 있었던 것과 같다. 그러나 날갯죽지를 들어올리듯 큰 지모를 펼친다고 해도 세부방침인 깃털이 빠져있다면, 어찌 병법이라는 온전한 새가 모양을 갖추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군쟁(軍爭)’ 이하는 두루 모아서 차례를 매기기를 대부분 종류대로 따랐고, 혹 문장이 가끔 이어지지 않더라도 중요한 대목의 글자[字眼]를 따라 제목을 삼았으니, 미리 편목을 새겨서 신경써서 엮어 치음과

끝이 서로 관통하여 한 호흡에 지은 체는 아닌 것이다. 이는 군쟁편 이하가 앞서 논한 여섯 가지 편장 내용의 하위개념임을 밝힌 부분이다.

그러므로 군쟁편에서 이익을 쫓되 치기(治氣), 치심(治心), 치력(治力), 치변(治變)의 사치(四治)를 붙여놓았고, 구변편(九變篇)에서 임기응변에 통달하였으되 장수가 조심해야 할 오위(五危)를 경계로 했다. 행군편(行軍篇)에서는 군대의 주둔과 적군을 살피는 것을 함께 논의하였는데, 치병(治兵)을 팔려놓아 이것을 따르고 있고, 지형편(地形篇)에서는 육지(六地)와 육패(六敗)를 서로 이었으되 장수의 도리를 붙여놓았다. 경계할 때는 노여움을 삼가하여 조금도 화공편(火攻篇)에 관련됨이 없어야 하고, 마땅히 은미하게 살펴서 정보를 모아야 하므로, 그리하여 오로지 용간편(用間篇)에서 논한 것이다. 이는 모두 군대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안목을 갖춘 자라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주석가들이 억지로 말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부회한 것은 유독 무엇을 위해서였던가를 조희순은 비판하고 있다. 구지(九地) 1편에 이르러서는 마음 속에 생각한 것이 더욱 교묘하여 연구한 문장[機杼]을 별도로 내었는데, 마치 천리마가 태항산에서 소금마차를 끄느라 곤액을 겪고 배가 높이가 3천 길이나 되고 물거품이 40리 여량(呂梁)땅의 폭포를 지나는 것 같이, 반드시 죽을 지경이 되어야 살아나고 거의 위험한 지경이 되어야 편안해지는 것이다. 조희순은 병가(兵家)에서 비장(秘藏)하던 것을 남김없이 드러내어 전체의 책을 만들었으며, 『손자수』 본문의 뒤에 딸린 문장, 즉 부록은 장자(蒙莊)의 책 『장자(莊子)』의 제일 마지막 편장인 천하편(天下篇), 반고(孟堅)의 『한서(漢書)』 100권인 서전(敘傳)과 동일한 방식으로 각 편장의 결론을 맺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한 편장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니, 알지 못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조희순은

23) 始計，未戰而校勝負也。作戰，先事而計勞費也。謀攻，坐運而服人也。皆兵之機謀，而非兵之事也。軍形，兵有形也。兵勢，聲勢張也。虛實，則變而極矣，神而化矣，鼓舞之至矣。如庖丁之技，莫不中音，季子之觀，止於韶箒，言亦可以止。此然六韜舉，而毛毳闕，何以成全鳥。故軍爭以下，綴拾撰次，多以類從，文或不屬，而隨舉字眼爲題，非預立篇目，刻意結構，首尾相貫，一氣呵成之體也。故軍爭之趨利，而附以四治，九變之達權，而戒以五危。處軍相敵並論，而治兵從之，六地・六敗相屬，而將道廁焉。致警愼于愠怒，殊無涉於火攻，宜微密以鉤情，故專論乎用間。此皆言兵之所不可無而具，眼者所易見也，註家之強欲牽合，亦獨何哉。至於九地一篇，匠心益巧，別出機杼，如驥困太行，船經呂梁，必死而生，幾危而安。兵家秘藏，發露無餘，爲全書，殿後文字，與蒙莊之天下，孟堅之敘傳，同一收結法。此乃一部之分段，而不可不知者也。

강조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오기(吳起), 범려(范蠡), 이정(李靖)의 주와 『사마법(司馬法)』, 『좌전(左傳)』의 내용을 언급하며 군쟁 편장을 분석하였고, 부록에서는 왕봉주(王鳳洲), 장예(張預), 두목(杜牧)의 주를 차용했다.

(8) 九 變

이 편은 장수가 마땅히 임기응변에 통달해야지, 일상적인 법식에 구애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논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九變과 五利를 논하였으니, 九變은 대부분 해로운 처지에 있으면서 이로움을 생각하는 일이고, 五利는 이로운 처지에 있으면서 해로움을 염려하는 일이니, 모두 변하여 마땅함에 나아가는 것들이다. 진실로 능히 이로움과 해로움의 사이를 오갈 수 없다면, 이는 제후를 독려하여 패왕으로 만들지 못하는 군대인 것이다. 또 性癖에 치우쳐서 五危의 경계를 범하는 것을 면할 수도 없게 된다.

○ 九變이라는 것은 九地の 變이다. 그 명목과 법은 이미 본편에서 상세히 논의하였는데, 이것은 도리어 通變을 논한 것이니, 중요시하는 것이 통변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일이 말하지 않고 다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일만 간략하게 말하였다. 대개 이것은 별도로 九變을 찾을까 염려해서이니, 마치 후편에서 이른바 圯·衢·圍·死 등의 구지의 변을 말한 것과 같다. 다만 散地·輕地·交地는 그다지 변이 될 수 없고, 爭地에 대해서는 또 오로지 별도로 이것만 논한 것이 있으므로, 그 남은 것에 나아가서 빠진 것을 거론하는 것이지 거듭 숫자의 바깥이라 하여 끝내 빠뜨리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九地の 論이客气 되었다. 다만 絶·衢·重·輕·圍·死라는 것들을 요약한 것은 또한 중히 여긴 것이 客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약한 것이 다만 네

가지인데, 다시 絶地 조를 가져다가 연속하여 五利에 붙여서 경계를 나누지는 않았으니, 마땅히 독자의 의혹을 증가시킬 만하다. 그래서 張賁이 군쟁편의 끝 여덟 구를 가지고 絶地無留와 합쳐서 9개로 만들고, 圯·衢·圍·死로써 九地를 錯簡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따로 九變이 있는 것이지 이른바 따로 九地の 變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五利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

鄭靈이 말하기를: ‘圯地無舍부터 地有所不爭에 이르기까지 아홉이 되고, 無舍로부터 不爭까지가 變이 되며, 중간에 無舍, 無留, 不由가 一리가 되고, 合交가 1리가 되며, 謀戰이 1리가 되고, 不擊이 1리가 되며, 不攻·不爭이 1리가 되는데, 군주의 명령이 이 아홉 가지 중에 두루 붙어있으니, 이것이 구변 중 다섯 가지이며 五利의 네 가지를 합쳐서 구변이 된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다시 구변의 가운데 物이 되어, 그 한 가지가 남는다. 구변의 전체와 비교해서 오히려 그 네 가지가 남아있게 되니, 장차 어찌 끝을 내야 하는가? 소위 오리라는 것이 또 어찌 합쳐져서 절도없기가 이와 같단 말인가?

何氏가 말하기를: ‘圯地無舍에서 君命有所不受에 이르기까지 그 수는 10이다’라 하였는데, 君命과 地事는 같은 부류가 아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정씨의 설을 따라야 한다.

王鳳洲는 또 하씨의 설을 따랐는데, 이에 말하기를: ‘九라는 것은 數의 지극한 끝이요, 變이라는 것은 용병의 변법에 아홉 가지가 있는 것이다. 구지의 변이라는 것은 구지를 만나서 처리함에 변법이 있다는 것이니, 별도로 구변의 명칭을 다르게 하고자 한 것이 다’라 하였다. 劉寅은 다시 장분의 설을 따랐다.

아! 바닷가에서 저 혼자 비린내를 쫓아다니는 것이 비록 이상하기는 하지만 사람을 해치지 않는데, 나는 다만 병서만 읽을 줄 알면서 남의 나라를 그르칠 자가 비단 趙括만이 아닌 것을 두려워할 따름이다.²⁴⁾

이 편은 장수가 전장 상황에서 마땅히 임기응변에 통달해야지, 일상적인 법식에 구애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논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전투시 피해야 할 아홉 가지 상황인 구변(九變)과 전투시 변칙을 택하는 다섯 가지 상황인 오리(五利)를 논하였으니, 구변은 대부분 해로운 처지에 있으면서 이로움을 생각하는 일이고, 오리는 이로운 처지에 있으면서 해로움을 염려하는 일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변화하여 전쟁의 마땅함에 나아가는 것들이다. 군대의 전법이 진실로 능히 이로움과 해로움의 사이를 오갈 수 없다면, 이는 제후를 독려하여 패왕으로 만들지 못하는 군대인 것이다. 또 장수가 성벽(性癖)에 치우치게 되면, 지나치게 용기만 내세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죽음을 당할 수 있고[必死可殺], 반드시 살고자 하다가 적에게 사로잡히며[必生可虜], 분을 이기지 못하여 급하게 행동하면 수

24) 此篇論將宜達權，不可拘守常法也。故首論九變五利，九變多在害思利之事，五利是在利思害之事，皆變而適宜者也。苟不能權於利害，是不能役諸侯，而爲霸王之兵也。且不免徧於性，而犯五危之戒也。

○ 九變者，九地之變也。其目與法，既詳本篇，而此却論通變，則所重在變，不在地。故不復一一，只約最緊數事。蓋恐別尋九變，若曰此卽後篇所云：圯・衢・圍・死等，九地之變耳。第散・輕・交地，無甚爲變，而爭地又有專論，故就其餘，而舉絕遺，重不欲以數外，而終沒也。故於九地之論爲客。只約絕・衢・重・輕・圍・死者，亦所重在客也。所約止四，而復攙絕地，聯屬五利，而不分畛域，宜讀者之滋惑也。故張賁以軍爭篇終八句，合絕地無留爲九，而以圯・衢・圍・死，爲九地錯簡，是別有九變，而非所謂九地之變也。然五利猶得全矣。

鄭靈曰：‘白圯地至地有所不爭爲九，自無舍至不爭爲變，中間以無舍・無留・不由爲一利，合交爲一利，謀戰爲一利，不擊爲一利，不攻不爭爲一利，而君命則遍寓于九者之中，是九變之五，合五利之四，而爲九變矣。’五利復爲九變中物，而剩其一矣。然則較九變之全，尙餘其四，將何究竟。所謂五利，又何合並無節，若是耶。

何氏謂：‘圯地無舍至君命有所不受，其數十矣。’而君命與地事不類。故當從鄭說。

王鳳洲又從何氏說，乃曰：‘九者，數之極也，九變者，用兵之變法，有九也。九地之變者，遇九地而處之，有變法也，欲別異九變之名。’劉寅復從張賁說。

噫。海上逐臭嗜，雖異而無害於人，吾恐徒能讀而誤人國者，非止趙括而已。

모를 당하고[分速可侮], 지나치게 성품이 깨끗하면 치욕을 당하며[廉潔可辱], 병사에 대한 애정이 지나쳐서 아군의 희생을 우려하면 번민이 많아지는[愛民可煩] 오위(五危)의 경계를 범하는 것을 면할 수도 없게 된다.

구변(九變)이라는 것은 구지(九地)의 변(變)이다. 그 명목과 법은 이미 본편에서 상세히 논의하였는데, 이것은 도리어 변통함을 논한 것이니, 중요시하는 것이 변통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일이 말하지 않고 다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일만 간략하게 말하였다. 대개 이것은 별도로 다른 곳에서 구변(九變)을 찾을까 염려해서이니, 이것은 마치 후편인 11편 구지(九地)에서 이른바 비지(圯地)・구지(衢地)・위지(圍地)・사지(死地) 등 구지의 변을 말한 것과 같다. 다만 산지(散地)와 경지(輕地)・교지(交地)는 그다지 변(變)이 될 수 없고, 쟁지(爭地)에 대해서는 또 오로지 별도로 이것만 논한 것이 있으므로, 그 남은 것에 나아가서 빠진 것을 거론하는 것이지 거듭 숫자의 바깥이라 하여 끝내 제외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지(九地)의 의론이 주(主)가 되는 구변의 논에 비해서 객(客)이 된 것이다. 다만 구지편에서 절(絶)・구(衢)・중(重)・경(輕)・위(圍)・사(死)라는 것들을 요약한 것은 또한 중히 여긴 것이 객(客)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약한 것이 다만 네 가지인데, 다시 절지(絶地) 조를 가져다가 연속하여 오리(五利)에 붙여서 경계를 나누지는 않았으니, 마땅히 독자의 의혹을 증가시킬 만하다. 그래서 장분(張賁)이 군쟁편의 끝 여덟 구를 가지고 절지무류(絶地無留)와 합쳐서 9개로 만들고, 비지(圯地)・구지(衢地)・위지(圍地)・사지(死地)로써 구지(九地)를 잘못 섞어버린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따로 구변(九變)이 있는 것이지 이른바 따로 구지(九地)의 변(變)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리(五利)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

정령(鄭靈)이 말하기를: ‘비지무사(圯地無舍)부터 지유소부쟁(地有所不爭)에 이르기까지 아홉이 되고, 무사(無舍)로부터 부쟁(不爭)까지가 변(變)이 되며, 중간에 무사(無舍), 무류(無留), 불유(不由)가 1리(一利)가 되고, 합교(合交)가 1리가 되며, 모전(謀戰)이 1리가 되고, 불격(不擊)이 1리가 되며, 불공(不攻)과 불쟁(不爭)이 1리가 되는데, 군주의 명령이 이 아홉가지 중에 두루 붙어있으니, 이것이 구변 중 다섯 가지이며 오리(五利)의 네 가지를 합쳐서 구변이 된다’고 하였는데, 오리가 다시 구변의 가운데 물(物)이 되어, 그 한 가지가 남는다. 구변의 전체와 비교해서 오히려 그 네 가지가 남아있게 되니, 장차 어찌 끝을 내야 하는가? 소위 오리라는 것이 또 어찌 합쳐져서 절도없기가 이와 같단 말인가? 이 부분에서 조희순은 정령이 구변과 오리를 합친다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하연석(何延錫)은 말하기를: ‘비지무사(圯地無舍)에서 군명유소불수(君命有所不受)에 이르기까지 그 수는 10이다’라 하였는데, 군명(君命)과 지사(地事)는 같은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조희순은 구변에 대해 설명한 정씨의 설을 일부 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왕봉주(王鳳洲)는 또 하씨의 설을 따랐는데, 이에 말하기를: ‘구(九)라는 것은 수(數)의 지극한 끝이요, 변(變)이라는 것은 용병의 변법에 아홉 가지가 있는 것이다. 구지의 변이라는 것은 구지를 만나서 처리함에 변법이 있다는 것이니, 별도로 구변의 명칭을 다르게 하고자 한 것이다’라 하였다. 유인(劉寅)은 다시 장분의 설을 따랐다.

조희순은 바닷가에서 비린내나는 고기를 쫓아서 낚시질하는 것이 비록 이상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데, 중국의 병학자들 중 병서를 잘못 해석하여 주를 달아서 남의 나라인 조선

을 그르칠 자가 비단 전국시대 조나라의 졸장인 조괄(趙括)만이 아닌 것을 경계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조희순은 중국의 제가들이 단 주석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손자수』를 작성한 것이다.

이 편의 본문과 부록에서는 인용 주나 서적이 나오지 않는다. 필요한 부분은 모두에서 충분히 언급했기에 본문과 부록에서는 생략한 것으로 사료된다.

(9) 行 軍

이 편은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의 네 가지 이로움과 적군을 살피는 32가지 조목을 논하였으니, 모두 근엄하고 순정해서 속임수가 전혀 없고, 그 다음으로는 생각없이 적을 업신여기는 것을 경계하였으니, 오직 힘을 모아 적을 헤아리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 다음은 治兵의 방법이니, 문장이 비록 이어지지 않는으나 모두 行軍의 요체로, 이것을 일러 ‘뒤섞어만든 글’이라고 해도 또한 옳도다.²⁵⁾

이 편은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의 네 가지 지형상의 이로움과, 지형과 관련해서 적군을 살피는데 있어서 필요한 32가지 조목을 논하였다. 모두 근엄하고 순정해서 속임수가 전혀 없고, 아무 생각없이 적을 업신여기는 것을 경계하였으니, 오직 힘을 모아서 적의 군세를 헤아리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치병(治兵)의

25) 此篇論處軍四利，相敵三十二條，皆謹嚴醇正，絕無狙詐之術，次則戒其無慮易敵，而惟以併力料敵爲貴。次則治兵之法也，文雖不屬，而皆行軍之要也，謂之渾就文字，亦可。

방법인데, 문장이 비록 이어지지 않는으나 모두 행군(行軍)의 요체이다. 이것을 일러 ‘뒤섞어서 만든 글[渾就文字]’이라고 평해도 또한 옳다고 조희순은 판단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위자(尉子)의 주와 『좌전(左傳)』, 『삼략(三略)』, 『사마법(司馬法)』의 내용을 언급하며 행군 편장을 분석하였고, 부록에서는 가림(賈林), 장예(張預)의 주를 차용했다.

(10) 地 形

이 편은 六地 아래에 六敗를 이었으니, 종류 별로 따른 것이다. 必勝必敗의 구 아래에 이어서 승패의 기틀에서는 차라리 君命을 어길 수도 있다고 논한 것은 빌어다가 이은 것이다. 다음으로 治兵을 논한 한 단락은 비슷한 류도 아니고 빌어다가 붙인 것도 아니지만, 前篇에 다 말하지 못한 뜻을 거둬 편 것이다. 끝에 다시 거두어들여서 지형에까지 이른 것은, 저것과 이것을 참고하여 결론지은 것이니, 처음과 끝이 서로 바라보게 하는 뜻이 있다.²⁶⁾

이 편은 통형(通形), 괘형(掛形), 지형(支形), 애형(隘形), 험형(險形), 원형(遠形)이라는 육지(六地) 아래에 주병(走兵), 이병(弛兵), 함병(陷兵), 붕병(崩兵), 난병(亂兵), 배병(北兵)이라는 육패(六敗)를 이었으니, 종류별로 따른 것이다. 필승필패의 구 아래에 이어서 승패의 기틀에서는 차라리 군명(君命)을 어길 수도 있다고 논한 것은 차용해서 이은 것이다. 다음으로 치병(治兵)을 논한 한 단락은 비슷

한 류도 아니고 차용해서 붙인 것도 아니지만, 前篇(前篇)에 다 말하지 못한 뜻을 거둬 편 것이다. 끝에 다시 거두어들여서 지형에까지 이른 것은, 저것과 이것을 참고하여 결론지은 것이니, 前篇에 논한 처음 내용과 본편에 논한 끝의 내용이 서로 바라보게 하는 뜻이 있다.

본문에서는 오기(吳起)의 주와 『사마법(司馬法)』의 내용을 언급하며 지형 편장을 분석하였고, 부록에서는 특별히 다른 주를 차용하지는 않았다.

(11) 九 地

蘇洵은 용감한 자와 겁많은 자, 용기와 겁이 반반인 사람 등 세 등급의 사람을 가설해서 간쟁하는 것을 비유했는데, 지금 이것을 빌려서 병법에 비유한다. 대개 耳目을 통일시키고 용기와 겁이 동등할 때 기세에서 구하여 기세로써 적과 싸우는 것은, 비유하자면 용기있는 사람이 상을 탐하는 것과 같다. 기세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며 힘을 다스리는 것을 더하여, 文을 武에 가지런하게 함에 이르는 것은, 비유하자면 용맹과 겁이 반반인 자가 두려워하며 따르는 것과 같다. 사지에 빠뜨리는 것은 겁쟁이가 호랑이에게 쫓기는 것과 같다. 이것은 병가의 가장 높은 경계로써 다시 위로 한 층 오를 곳이 없고, 또한 곧 가장 위험한 경계여서 다시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니, 이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또 감히 대변에 말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어려워하고 삼가하여 저서가 끝날 때에 이르러서야 겨우 말을 꺼낸 것이다. 이미 말을 하고 나서는 또 스스로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방법만 가르치고, 함부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거둬 말하여, 한 번만 말하지는 않은 것이다. 말을 다 드러내서 남김이 없는 후

26) 此篇六地之下，承以六敗，類從也。必勝必敗句下，仍論勝敗之機，寧違君命，借接也。次治兵一段，則非類非借，而申前篇未盡意也。末復收到地形，參之彼已而結之，有首尾相顧意。

에 그치기를 기약해야 하므로, 이것이 손자의 고심이었던 것이다. 군대를 옮기는데 처해야 할 땅이 모두 아홉 가지인데, 얕은 데에서부터 점점 깊은 데로 들어가서, 死地에 이르러서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다가 홀연히 살 길을 내었으니, 비단 몹시 위태로운 것을 면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의거하여 공을 세울 수도 있고 의를 세울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군대가 위태로운데 빠진 뒤에야 승패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이니, 배우는 자는 마땅히 깊이 음미하고 사색해야 할 것이다.²⁷⁾

『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鈔)』 권16의 <간론(諫論) 하(下)>에서, 소순(蘇洵)은 용감한 자와 겁많은 자, 용기와 겁이 반반인 사람 등 세 등급의 사람을 가설해서 간쟁하는 것을 비유했는데, 지금 조희순은 이것을 빌려서 병법에 비유했다. 대개 이목(耳目)을 통일시키고 용기와 겁이 동등할 때 기세에서 구하여 기세로써 적과 싸우는 것은, 비유하자면 용기있는 사람이 상을 탐하는 것과 같다. 기세와 마음, 힘을 다스려서 문약함을 무강(武強)함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은, 비유하자면 용맹과 겁이 반반인 자가 두려워하며 따르는 것과 같다. 사지에 빠뜨리는 것은 겁쟁이가 호랑이에게 쫓기는 것과 같다. 이것은 병가의 가장 높은 경계로써 다시 위로 한 층 오를 곳이 없고, 또한 곧 가장 위험한 경계여서 다시 앞으로 한 발 더 나아

갈 수 없는 것이어서 함부로 말하거나 감히 대변에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워하고 삼가하여 저서가 끝날 때에 이르러서야 손자가 겨우 말을 꺼낸 것이라고 조희순은 이해하고 있다. 이미 말을 하고 나서는, 또 스스로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방법만 가르치고, 함부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지 않을 수는 없다[引而不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손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한 것이다. 군대를 옮기는데 처해야 할 땅이 모두 아홉 가지인데, 얕은 데에서부터 점점 깊은 데로 들어가서, 사지에 이르러서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다가 홀연히 살 길을 내었으니, 비단 몹시 위태로운 것을 면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의거하여 공을 세울 수도 있고 의를 세울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군대가 위태로운데 빠진 뒤에야 승패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이니, 배우는 자는 이 장을 마땅히 깊이 음미하고 사색해야 한다고 조희순은 보고 있다.

본문에서는 『사마법(司馬法)』, 『삼략(三略)』, 『좌전(左傳)』, 『역경(易經)』의 내용을 언급하며 구지 편장을 분석하였고, 부록에서는 가림(賈林), 두목(杜牧), 매요신(梅堯臣), 오기(吳起), 유인(劉寅)의 주를 차용했다.

(12) 火 攻

근래에 화공법이 크게 행해져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불을 사용한다. 초황과 독연기와 맹화유의 재료가 어찌 갈대를 묶어서 기름을 부은 용구와 같겠는가? 지뢰와 대포와 火箭의 기구가 어찌 곡물을 쌓은 것을 불살라서 그 불을 끄는 틈을 타는 것과 같겠는가? 하물며 다시금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내웅을 기다림이 없이 아군의 뜻대로 쏘니, 화기와 화염이 미치는 곳이 들판과 성을 가

27) 老蘇設勇者・怯者・勇怯半者三等人，以喻諫爭，今借以喻兵。蓋一耳目，齊勇怯，求之於勢，以勢戰人，譬則勇者之貪賞也。加以治氣・治心・治力，以至令文齊武，譬則勇怯半者之怵而從之也。陷死地，則怯者之迫於虎也。是兵家最高地位，更無上一層，亦即最危境界，更無前一步，所以不可輕言，亦不敢遽言也。故其難其慎，直至著書將竟，纔肯說出。既已說出，則又不容引而不發。故屢言不一言。期至披露無餘而後已，此孫子之苦心也。行兵所處之地凡九，而由淺漸深，至死地而無復所往矣，忽然開出生路，不惟免於危亡，且可藉以立功立事。此正所謂衆陷於危，然後能爲勝敗者也，學者宜深味而玩索也。

득 채움에 있어서라? 이것이 고급의 큰 변화이다. 機器가 변하면 쓰는 것도 그에 따라야 하니, 이 편에서 논한 것이 거의 옛날 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외물에 구애받지 않는 주관에 있는 선비는 법에 빠지지 않으니, 그 뜻을 잘 미룬다면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근래에 화공법이 크게 행해져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불을 사용한다는 부분은, 1866년(고종 3)에 통상 거절을 기화로 난동을 부리다가 화공에 의해서 격파된 미국 선박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지칭한 말이다.²⁹⁾ 1847년에 편찬된 중국의 세계지리서 『해국도지(海國圖志)』 권1 「주해편(籌海篇)」〈의수(議守)〉에서도 서양의 침략에 직면하여 포격(砲擊)과 화공을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을 주목해볼 때, 당시 화공법이 중국과 조선에서 서양 세력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방법으로 인식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³⁰⁾

초황과 독연기와 맹화유의 재료는 갈대를 묶어서 기름을 부은 용구보다 훨씬 낮고, 지뢰와 대포와 화전(火箭)의 기구는 곡물을 쌓은

28) 近世火法大行，戰必以火。硝磺・毒煙・猛火油之料，何如灌脂束葦之具。地雷・大砲・火箭之器，何如燔其積聚。乘其救火耶。況復不拘躔離，無待內應，發之自我，而氣燄所及，盈野盈城。此古今之大變也。機變而用亦隨之，此篇所論，幾於陳跡。然圓機之士，勿泥於法，而善推其意，則亦足以發矣。

29) 당시 평안도관찰사 박규수는 겸중군 백낙연과 서윤 신태정 휘하의 교졸들을 독려하여, ‘혹은 포격으로, 혹은 화공으로[或以砲擊，或以火攻]’으로 셔먼호를 섬멸하고자 했다. 하지만 셔먼호 측에서 밧줄로 엮은 그물을 교묘히 설치하여 조선 측에서 이용한 화선(火船)의 접근을 막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패한다. 이후 박규수는 평양 외성의 은거한 선비인 이수열의 의견을 참고하여, 강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렸다가 셔먼호가 좌초되었을 때 뿔감을 실은 화선들을 이용해서 일제히 공격하여 화공법으로 승리를 쟁취한다(김명호, 『초기 한미관계의 재조명』, 역사비평사, 2005, 54~58쪽).

30) 상계서, 55쪽.

것을 불살라서 그 불을 끄는 틈을 타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적의 진지에서서의 내응을 기다림이 없이 아군의 뜻대로 쓸 수 있는 화기(火器)들은, 적의 들판과 성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조희순이 주목한 화공법에 있어서의 고급의 큰 변화이다. 조희순은 화공 기기(機器)의 변화에 주목하고 그 용법도 그에 따라야 하는데, 『손자병법』의 화공편에서 논한 내용들이 거의 옛날 방식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외물에 구애받지 않는 주관에 있는 선비[圓機之士]는 한정된 법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손자병법』 화공편의 진의를 잘 미룬다면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조희순은 밝히고 있다.³¹⁾

이 편장의 모두는 조희순이 『손자병법』의 시대적 활용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손자수』를 저술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손자병법』의 전술과 『손자수』 편찬 당시의 전술이 가지는 간극을 조희순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그는 이의 극복을 위해서 『손자병법』의 일차적인 내용에만 천착하지 말고 독자가 외물에 구애받지 않는 주관에 있는 선비[圓機之士]의 태도를 견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본문에서는 위자(尉子)의 주와 『사마법(司馬法)』의 내용을 언급하며 화공 편장을 분석하였고, 부록에서는 장예(張預)의 주를 차용했다.

31) 『손자수』의 편찬 직후인 1871년에 제주목사 조희순은 조정에 화공법과 관련된 장계를 올린다. 이 장계에서 그는 제주도의 경우 바다를 방어하는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무예를 거루는 일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별총수(別銃手)에 대해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의 규례대로 포과(砲科)를 설치하고, 매년 한 번씩 과장(科場)을 열어 수석한 사람을 직부전시(直赴殿試)할 것을 건의하였다(『승정원일기』, 1871년 10월 18일조).

(13) 用 間

幾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의 기미이고 길흉이 미리 드러난 것이니, 속에 쌓인 것치고 겉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누각에 올라 뫼땅을 도모할 적에 野老의 눈을 가릴 수 없었고, 밀실에서 赦免을 논의할 적에도 먼저 시정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는데, 더구나 이 속마음이 용색과 언어에 드러남에 있어서라. 이 때문에 결눈질로 보면 그 말이 이미 누설되었음을 알 수 있고, 말이 방자한 것을 들으면 그 마음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로부터 미루어보건대 총명한 사람은 아직 드러나기 전에 보아서 간첩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耳目도 제대로 부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간첩이겠느냐. 그러하니 재화를 탐하는 것과 위엄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을 면하기 어렵고, 말로는 부정해도 얼굴로는 긍정하는 것은 드러나기가 더욱 쉽다. 진실로 혹 간첩이 책임자가 아니라면, 정보를 캐고자 하지만 도리어 아군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므로 ‘성인의 지혜가 아니면 간첩을 쓸 수 없고, 인의가 아니면 간첩을 부릴 수 없으며, 미묘함이 아니면 간첩의 실정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니, 뒤에 간첩을 쓰는 자는 또한 스스로 헤아려야 할 것이다.³²⁾

기(幾)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의 기미이고 길흉이 미리 드러난 것이니, 속에 쌓인 것치고 겉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제(齊)나라

의 지휘관들이 누각에 올라 이웃 소국(小國)인 거(莒)나라 침략을 도모할 적에 시골 늙은이들의 안목까지는 속일 수 없었고, 궁중의 밀실에서 사면(赦免)을 논의할 적에도 그 내용이 먼저 시정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는데, 더구나 이 속마음이 용색과 언어에 드러나는 경우는 어떠하겠는가? 이 때문에 결눈질로 보면 그 말이 이미 누설되었음을 알 수 있고, 말이 방자한 것을 들으면 그 마음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로부터 미루어보건대 손자(孫子)와 같이 총명한 사람은 아직 드러나기 전에 보아서 간첩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이목(耳目)도 제대로 부리지 못하기에 간첩도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 그러하니 재화를 탐하는 것과 위엄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면하기 어렵고, 말로는 부정해도 얼굴이 긍정하는 것은 드러나기가 더욱 쉽다. 진실로 혹 간첩이 책임자가 아니라면, 정보를 캐고자 하지만 도리어 아군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므로 ‘성인의 지혜가 아니면 간첩을 쓸 수 없고, 인의가 아니면 간첩을 부릴 수 없으며, 미묘함이 아니면 간첩의 실정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니, 뒤에 간첩을 쓰는 자는 스스로 헤아려야 한다고 조희순은 보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정(李靖)의 주를 언급하며 용간 편장을 분석하였고, 부록에서는 오기(吳起)의 주를 차용했다.

5. 결 론

조희순의 저서 『손자수』를 평가할 때,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하는

32) 幾者, 動之微, 吉凶之先見者也, 未有蓄於中, 而不見乎外者. 故登樓謀莒, 而莫掩野老之目, 密室議赦, 而先播市人之耳, 矧茲樞機形於色辭乎. 是以見側目, 則知其說之已泄, 聽言肆, 而察其情之懼我. 由此推之, 明者見於無形, 而無待乎間, 愚者不能役耳目, 而況間乎. 然貪貨怵威, 難免於常情, 言挑色聽, 尤易於宣露. 苟或間非其人, 則欲以鉤情, 希不輸情. 故曰: ‘非聖知, 不能用間, 非仁義, 不能使間, 非微妙, 不能得間之實’, 後之用間者, 其亦有以自量矣.

점은 『손자수』의 편찬이 당시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일단 일차적으로 조희순은 그의 서문에서, 단지 자신의 아들에게 병법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손자수』를 집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사 조희순이 겸사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러한 의도에서 이 책을 썼다고 밝혔을지라도, 『손자수』가 지니는 역사적 의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후학의 몫일 따름이다.

『손자병법』이 지닌 원론적인 내용의 분석에 충실한 『손자수』는, 19세기까지 조선에 유입된 병서와 그 병서에 나타난 병학가들의 면모를 선조들이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앞서 남병길의 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손자병법』에 대한 제가들의 주석과 비평을 종합정리한 저서인 『손자수』는 19세기 당시 정계에 있던 고위 무관이 『손자병법』에 대한 어떠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식을 경영하여 텍스트 저본을 완성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추후 주석과 비평에서 언급된 인물들의 저작에 대한 궤적을 추적해보면, 19세기까지 조선에 유입된 병학적 지식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손자수』 편찬의 또다른 의의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근거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 1866년의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병인양요, 1868년 오페르트 일당의 남연군 묘 도굴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서양의 조선에 대한 위협이 계속적으로 대두되자, 조선에서는 서양의 침입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1866년 병인양요 당시 신현(申攄) 밑에서 참모군관을 지낸 조희순 자신의 실무경험이 근거에 깔려있는 병서인 『손자수』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시대 조선의 사대부가 지녔던 병법에 대한 구체적인 관념과 그들이 공유하고 있던 전쟁수행에 관한 방법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뜻깊은 텍스트이다.

외세의 침입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방안은 당시대 조선의 지식인과 관료들에게 있어서 크게 유념해야 할 문제였다. 『손자병법』의 주석서인 『손자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편찬되었으며, 이는 외적에 대한 실질적 대비책인 민보(民堡) 설치에 대한 서적이나 『손자병법』에 대한 다른 주해서³³⁾³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군사적 학술활동의 일환이었다.

『손자수』의 서두에는 조희순과 김학성(金學性), 남병길(南秉吉)의 서(序)가 수록되어 있는데, 세 서문의 공통점은 조희순의 문무겸전(文武兼全)과 『손자수』의 주석서적인 성격에 대한 설명뿐이고, 당시에 있어서의 외세에 대한 강렬한 저항의지 같은 것은 그 안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왜 조희순이 『손자수』와 같은 병법 주해서를 편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당시대의 시대상을 살펴본다면, 그 근원적인 이유가 외세의 침입에 대한 방비에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33) 『손자수』 편찬 직후인 1871년에 간행된 이유원(李裕元)의 『임하필기(林下筆記)』 5, 6권 「괘검여화(掛劍餘話)」는 문신인 굴산 이유원이 예전에 현종의 명을 받아서 『손자병법』에 현토(懸吐)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다. 그 내용은 손자의 주요한 병법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일화를 역사 속에서 간추려 항목별로 실어 놓은 것으로, 굴산이 추후에 보여주는 군사에 대한 지식은 여기에서 기본적인 힘을 얻었으리라 짐작된다(함영대, 『임하필기』 연구,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대학원, 2000, 12쪽 참조).

34) 이남규(李南圭)의 『수당집(修堂集)』 5권에는 이청렬(李清烈)이 지은 『증해손무자(增解孫武子)』의 서문인 <증해손무자서(增解孫武子序)>가 실려있고, 7권에는 발문(跋文)인 <서증해손무자후(書增解孫武子後)>가 실려있다. 『증해손무자(增解孫武子)』는 『손무자작해』의 증해본으로, 『손자수』이후에 제작되었다. 무반집안 출신이며, 구한말 삼대 시인의 하나로 유명한 강위(姜瑋)도 『손무자주평(孫武子註評)』을 지었다. 『손자수』의 출판을 전후해서, 『손자병법』에 대한 주해서들이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1868년(고종 5)에 조선정부는 강화도에 각 군영을 통솔하는 최고 군령기관인 삼군부(三軍府)를 설치하고, 병인양요로 파괴되었던 강화부의 성첩과 관아 및 무기를 수리하였으며, 별기사(別騎士)와 별무사(別武士) 등 800여 명을 배치한다.³⁵⁾ 이러한 국방 강화의 경향은 1871년 신미양요 때까지 계속 이어지지만, 결국에는 신미양요 당시 미 함대의 침입에 의해 350여 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와 대비해서 미군의 피해가 부상자 단 2명인 점을 감안해볼 때, 이러한 부분은 19세기 조선의 군사적 방어 시스템이 근대 서구열강의 침입에 대해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계속되는 침략적 행태는, 당시대 조선인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끔 했다. 조선의 현 상황에 대한 유언비어로 인해 도성의 관리들조차도 피난가는 일이 자주 발생할 만큼 혼란이 가중되어가던 때에, 조선의 문반·무반인 사대부 계층은 국가적인 위기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으며, 『손자수』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서 편찬된 것이 확실하다. 조희순 자신의 겸양 때문에 그는 이를 『손자수』의 서문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아들 지현의 병학 교육용 정리서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했을 따름이다.

20세기 최고의 군사평론가 중 한 사람인 프로이센의 리텔하트는 『손자병법』을 극찬하며 서유럽의 대표적인 전략서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보다도 훨씬 우월하다고 평가하였고, 군의 운용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모택동과 호치민도 『손자병법』의 영향을 받았으며, 걸프전 당시 다국적군을 승리로 이끈 슈워츠코프 장군도 『손자병법』을 탐독하였다. 게다가 <로스엔젤레스 타임스>의 보도에 의

하면 걸프전 당시 미 해병대는 『손자병법』책은 물론이고 그 내용을 수록한 녹음테이프까지도 휴대했다고 하며, 이라크군도 구 소련을 통해 『손자병법』을 공부했다.³⁶⁾

현대전의 시대인 20세기에도 『손자병법』이 각광을 받으면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19세기에 있어서 조선시대의 마지막 『손자병법』 분석서였던 『손자수』의 의미를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다. 비록 『손자수』 편찬 직후 발생한 신미양요에서, 서구 제국주의의 신무기 활용과 조선군에게 생소한 새로운 방식의 전투 패러다임이 적용되었던 점으로 인해 당시대 『손자수』의 편찬이 적극 빛을 발하지는 못했지만, 그 편찬의도를 확인해 볼 때 『손자수』에서는 병서로서의 분명한 생명력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19세기 조선 군사사에 있어서 『손자수』 연구의 필요성을 반증해준다.

35) 김명호, 『초기 한미관계의 재조명』, 역사비평사, 2005, 297쪽.

36) 모리야 아쓰시(이정환 역), 『불패전략 최강의 손자』,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02, 18~19쪽.

러일전쟁기 한국 무관들의 참전과 그 성격

조 건*

1. 머리말
2. 개전 전후 러일의 군사적 갈등과 무관들의 동향
3. 개전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무관들의 동원
4. 맺음말

1. 머리말

1904년 2월 8일 제물포에 정박하고 있던 러시아 군함에 대한 일본의 포격으로 러일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3월 16일 대한제국 장교 유동열(柳東說)과 김응선(金應善)이 일본군에 배속된 채 평안도 진남포에 상륙했다. 당시 유동열은 일본

근위기병연대 제3중대, 김응선은 근위보병 제1연대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위 부대에서 각각 견습사관으로 배속근무 중 전쟁발발과 함께 종군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 후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함경북도 북청에서 한국군 출신 러시아 장교가 한국인 병사 500여명을 거느리고 일본군과의 교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¹⁾ 그는 김인수(金仁洙)라는 자로 원래 한국군 참령에 임명되었으나 러시아에 귀화한 것을 트집잡은 일본 공사관 측의 집요한 방해로 한국군 군적을 박탈당한 상태였다.

20세기 벽두에 터진 제국주의 국가 간의 전쟁에 피침략국의 군인들이 양 교전국 군대에 각각 소속되어 총구를 겨누게 된 것이다. 과연 이들 대한제국 무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러일전쟁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에 대한 주도권 쟁탈이었고,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한국은 일제의 보호국이 되었다. 개전 이전 한국정부는 두 제국주의 열강의 전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립화를 시도하고 불합리한 한일밀약의 체결을 거부하려고 노력했으나 일본의 강제와 열강의 무관심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한반도는 개전 최초의 전장이 되었고, 함경북도의 동해안 일대는 종전 때까지 계속적인 교전으로 피해를 입었다. 또한 개전 직후 공수동맹(攻守同盟)의 성격을 띤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가 일본에 의해 강제 조인되었다. 러일 양국은 각자의 국익을 위해 한국 북부에 무단으로 군대를 주둔시켜 한국민과 영토를 유린했다. 전시기 내내 교전 양국에 의한 수탈과 동원에 신음해야 했던 것이다. 러일전쟁은 러시아·일본 양국의 한국에 대한 명백한 침략전쟁이었다.

* 동국대학교 강사

1) 『대한매일신보』, 1904년 10월 12일 잡보, 「령술한민」.

러일전쟁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 성과는 모두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²⁾ 이들 대부분은 러시아와 일본, 교전 양국에 초점을 맞춘 전쟁사 또는 군사사적 연구이거나, 개전 원인 및 과정, 그리고 결과를 국제적 관계 속에서 보려는 외교사적 관점이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이들을 천착하다 보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한국의 상황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러일전쟁이 우리의 국권을 놓고 벌인 제국주의 국가 간의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에게 실제적인 파급을 주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러일전쟁으로 입은 피해나 국권의 실질적인 강점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전쟁에 맞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고, 또 한국민이 어떠한 상황에 놓인 채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³⁾

2) 러일전쟁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전반에 대해서는 金元洙의 글이 참고가 된다. 그는 국내 러일전쟁 연구의 한계로, 첫째 러시아 측과 일본 측 연구가 서로 평행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둘째 한국 입장에서 전쟁의 성격과 전개과정을 고찰한 연구가 미비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점이 나타나는 것은 우선 양측이 서로 다른 사료와 주장에 편승하는 경향성이 너무 짙고, 다음으로 전쟁 당사국의 담론 및 구미의 국제관계사에 너무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원수, 「한국의 러일전쟁연구와 역사교육의 과제-개전원인을 보는 시각-」, 『歷史教育』 90, 2004년.

3) 러일전쟁 전후 당시 한국 정부와 한국민의 동향 및 한반도 내 정황에 관한 연구 성과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정창렬, 『露日戰爭에 대한 한국인의 대응』, 『로일전쟁 전후 일본의 한국침략』, 일조각, 1986; 유해신, 「러일전쟁기 일본군의 한국 주둔과 저항」, 서울대 군사학과 석사논문, 1989; 서영희, 「러일전쟁기 대한제국 집권세력의 시국대응」, 『역사와 현실』 25, 1997; 심현용 편, 『러일전쟁과 한반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러일전쟁기 제2전장 한반도의 지상전-정주전투와 압록강전투를 중심으로-」, 『군사』 51, 2004; 「러일전쟁 시기 러·일 양국구의 한반도 내 군사활동」, 『아시아문화』 21호, 2004; 한철호, 「한국: 우리에게 러일전쟁은 무엇인가」, 『역사비평』 69, 2004; 李盛煥, 「韓國の中立政策と日

이러한 인식을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과 러시아군에 종군한 한국 무관들의 실체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한국 무관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출세욕이나 성향 탓만은 아니었다. 그들의 참전은 피침략국의 군인이 저야 하는 직무였고 한편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였던 것이다. 그리고 청일전쟁이후 10여 년간 일어났던 열강의 한국에 대한 주도권 쟁탈이 빚은 비극적인 군상이었다.

요컨대 러일전쟁 당시 한국 무관들의 갈등은 청일전쟁이후 을미사변, 아관파천 등을 거치면서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자국의 이권과 한국에 대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 쟁투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혼란과 분열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러일전쟁 시기까지의 한국 무관들에 관해서는 우선 러시아 측 자료를 통한 연구 성과들이 주목된다. 즉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파견과 활동을 통해 이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고,⁴⁾ 나아가 구체적인 활동 및 한국 군대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검토했으며,⁵⁾ 이를 토대로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에 맞서 연합군의 형태로 교전을 치른 한국 군대에 관한 고찰⁶⁾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자료를 적극 활용한 연구가 두드러

露戰爭」; 菅野直樹, 「日露戰爭と日韓非公式チャンネルの展開」 이상 日露戰爭研究會 編, 『日露戰爭研究の新視点』, 成文社, 2005; 구대열, 「다모클레스의 칼?-러일전쟁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대응-」; 김현철, 「러일전쟁 전후 한국인들의 일본관」; 심현용, 「조러연합군과 러일전쟁 전후 군사협력-기원, 구상, 시도-」 이상 정성화 외, 『러일전쟁과 동북아의 변화』, 선인, 2005; 조재곤, 「1904~5년 러일전쟁과 국내 정치동향」, 『국사관논총』 107호, 2005; 이승희, 「청일·러일전쟁기 일본군의 군용전신선 강행가설 문제-한국 파견 「臨時憲兵隊」를 중심으로-」, 『日本歷史研究』 21집, 2005.

4) 이민원, 「19세기말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활동과 역할」, 『군사』 44, 2001.

5) 심현용, 「주한러시아 군사교관단(1896-1898) 활동보고서 해제」, 『군사』 48, 2003; 심현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김영수, 「러시아 군사교관 단장 뿌짜파와 조선군대」, 『군사』 61, 2006.

졌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측에서 참전한 한국무관들의 실체를 밝히고 한국과 러시아가 군사교류를 통해 또 다른 형태의 독립이 가능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러시아가 일본의 적국이었다는 면에 치중하여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역할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한국이나 일본 자료와의 종합이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일본군 측에 참전했던 한국무관들에 대해서는 이기동(李基東)이 한국인 일본 육사출신자들에 대해 기술한 저서⁷⁾ 등에서 일본식 군사교육을 받은 무관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고, 이후 여러 연구자들의 저작 속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사례가 있었다. 더불어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유학했던 한국 출신 무관들에 관한 문헌들⁸⁾이 참고가 된다.

본 연구는 러일전쟁 교전 양국의 한국 침략과정에서 행해진 강제와 한국정부의 대응, 그리고 그 속에 얽힌 한국 무관들의 전쟁동원⁹⁾

6) 심현용, 「조러연합군과 러일전쟁 전후 군사협력-기원, 구상, 시도-」, 정성화 외, 『러일전쟁과 동북아의 변화』, 선인, 2005.

7) 이기동, 『悲劇의 軍人들』, 일조각, 1982.

8) 鈴木一, 「日本陸軍士官學校に留學した大韓帝國學生」, 『東京都傷痍軍人會10週年史』, 1962; 山崎正男 編, 『陸軍士官學校』, 秋元書房, 1969; 佐佐木春隆, 「日本陸軍士官學校留學生名簿」, 『朝鮮戰爭/韓國編』 上, 原書房, 1976.

9) 이 글에서는 러일전쟁 중 행해진 한국민에 대한 러일 양국 군대의 행위를 궁극적으로 ‘수탈’과 ‘동원’의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관들의 전쟁참여도 ‘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의 참전이 강제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본문에서 언급하겠지만, 진러 성향의 무관들과 일본 육사 15기생들의 경우 본인들의 의지가 작용했고, 나머지 기수들도 한국정부의 명령에 의해 참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무관들의 전쟁 참여가 피침략국에게 강요된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것에 주목했다. 당시 한국 무관들이 러시아와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

실태를 살피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을 통해 추후 러일전쟁이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이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러시아 측에 참전한 무관들의 구체적인 행적과 전쟁 참여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앞으로 계속된 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2. 개전 전후 러일의 군사적 갈등과 무관들의 동향

(1) 을미사변과 무관들의 동향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 승리 후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획득하고, 무엇보다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는 듯 했다. 그러나 열강에 의한 삼국간섭은 일본에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실감케 했다. 결국 일본은 모처럼 획득하게 된 조선에서의 지배권만이라도 확고히 하기 위한 모험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삼국간섭을 주도한 러시아가 조선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이 선택한 모험은 배일적 성향을 견지하며 러시아와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던 민비를 정치권 밖으로 축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을미사변¹⁰⁾으로 현실화되었다.

라도 개전과 함께 피침략국의 군인으로서 각각의 성향에 따라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전쟁 참여의 의미로 ‘종군’, ‘참전’ 등의 낱말을 혼용하기도 했다.

10) 을미사변의 명칭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필자도 ‘乙未事變’이라는 용어가 사건을 축소하고 실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꺼리는 바가 있다. 다만

을미사변을 계획할 당시 일제는 이 사건을 한국군 간의 분쟁으로 기만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훈련대 출신 군인들을 동원했다. 이들 훈련대 출신 군인들은 당시 일본 군사교관 구스노세[楠瀬幸彦]로부터 일본식 군사교육을 받은 자들이었다. 당시 군사교관은 교육받는 군인들의 기상에서부터 취침 때까지 모든 일상을 규제하고 있었다. 군사교육은 단순히 신식 무기의 사용 및 선진 군제를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사교관의 출신국에 대한 문화와 문물의 습득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었다.¹¹⁾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그 나라에 대한 우호적인 성향을 갖게 했다.

따라서, 훈련대가 을미사변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¹²⁾ 훈련대 무관들이 사변에 소극적이거나 참여하고 있었고 그 배경에 구스노세(楠瀬) 등 일본인의 영향과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성향이 자리하고 있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¹³⁾ 실제 정부에

본고에서는 사건을 은폐·왜곡코자 하는 일제의 의도를 더욱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을미사변은 최근 ‘민비 시해사건’, ‘민황후 시해사건’, ‘명성황후 시해사건’, ‘민비학살사건’ 등등 연구자 각자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불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민교는 ‘閔妃’라는 용어가 한국 측에서 왕비의 호칭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明成皇后’라는 칭호도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 추증될 당시의 것이므로 시기와 상통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민중전’, ‘민왕후’라는 용어가 오히려 적당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서민교, 『일본에서의 명성황후 연구동향과 과제』, 오영섭·장영숙 편, 『다시보는 명성황후』, 여주문화원, 63쪽).

- 11) 심현용, 『주한러시아 군사교관단(1896-1898) 활동보고서 해제』, 『군사』 48, 2003 참조.
- 12) 훈련대의 사변 참여 여부에 관해서는 이민원의 연구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민원은 훈련대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적극적인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리고 현장에 ‘동원’된 것도 일본 측의 계략에 의한 것이었다는 논지를 폈다. 이민원, 『명성황후시해와 아관파천』, 국학자료원, 2002, 65~95쪽. 그러나 이들의 적극성 여부는 좀 더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도 훈련대의 이러한 성향을 문제삼아 부대 존폐를 일찍부터 거론하고 있었는데, 훈련대 군인들의 사변 참여는 단순히 친일적 성향으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 부대 존폐 논의에 맞선 불만의 표시이기도 했다.

당시 사변에 참여한 훈련대의 규모와 인명은 禹範善, 李斗璜 등 지휘관급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헌병사령관 하루다[春田景義]가 히로시마(廣島)에서 육군사관 고다마[兒玉源太郎]에게 보고한 1895년 10월 26일자 문건에 훈련대 무관으로 을미사변에 참여한 인물들이 尾張丸을 타고 히로시마의 似島에 도착했음이 발견된다.¹⁴⁾ 이 문건에 기록된 한국 무관들은 성창기, 왕유식, 조희범,¹⁵⁾ 권학진,¹⁶⁾ 이대규 등 다섯 명이다. 그리고 성창기, 왕유식, 권학진의 이름 위에 ‘○’ 표식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 13) 일본이 三浦梧樓, 岡本柳之助를 포함한 을미사변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서 행한 예심의 결정서에는 사변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 당시 同國의 형세가 점점 불운에 기울고, 궁중의 전횡이 날로 심하여 망령되게 국정에 간섭하고, 우리 정부의 啓誘로 인해서 조금 개량의 실마리를 찾았던 政憲을 문란하게 하고, 드디어 우리 육군사관이 진력하여 이루어 놓은 훈련대를 해산하고, 그 사관을 내쫓고 처벌하려고 하는 등 자못 우리나라를 소외하는 形迹이 있을 뿐만 아니라 ... 이것은 다년간 우리나라의 노력과 자재를 소비하고, 동국을 위하여 경영한 호의를 저버리고, 내정의 개량을 방해하며, 국가 독립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단지 동국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제국도 역시 해를 받는 것 적지 않음으로 인해서 속히 그 폐해를 제거하고 ...”(『國權恢復運動判決文集』, 總務處 政府記錄保存所, 1995, 416~417쪽).

이 예심결정서가 일본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훈련대에 대한 입장과 조치, 그리고 당시 일본의 위기의식을 엿보기에 충분하다. 즉 훈련대의 폐지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소속 무관들의 불만이 일어날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참고로 히로시마지방법판소에서 예심을 거쳤던 을미사변 관련자들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석방되었다.

- 14) 「朝鮮內亂事件-第四回報告」, 『日本の 韓國侵略史料叢書』 21권, 국학자료원, 1991년.
- 15) 문건에는 趙義範으로 오기되어 있다. 후일의 趙性根이다.
- 16) 후에 權泰翰으로 개명하였다.

문건은 표식이 붙은 인물들이 훈련대 소속 군인들로 을미사변에 참여한 자라는 설명을 부기했다. 물론 이들은 이미 8월에 일본 유학명령이 하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행을 사변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할 수만은 없다.¹⁷⁾

하루다(春田)의 문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尾張丸에 타고 있던 무관들이 모두 도일 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이들의 일본행이 유학명령의 수종 외에 다른 목적을 띠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10월 26일은 사변이 일어난 지 보름 남짓 지난 시점이다. 이들이 한국을 출발한 것은 10월 23일이었다.¹⁸⁾ 사변이 발생한 지 2주일 후 사변 참여자들이 유학 명목으로 한국을 떠날 수 있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히로시마에 도착하고 며칠 후인 29일 외무대신 사이온지(西園寺)가 고무라(小村)에게 이들 무관들에 대한 정보 및 단속 여부를 묻고 있는 점이다.¹⁹⁾ 이것은 이들 무관들의 유학에 대하여 양국 정부가 충분한 정보 교환을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짐작컨대 양국 간에 이들의 유학에 관한 확정된 일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이 탔던 尾張丸은 당시 일본 정부가 사변 가담자를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심사하기 위해 자국으로 소환한 미우라[三浦梧

樓]와 구스노세 등이 타고 있던 배였다. 과연 이것은 우연의 일치였을까. 자료의 내용이 확실치 않아 이들의 도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단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이들이 유학 외의 목적을 띠고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사실이 있다.

이왕 일본의 군사학을 배우기 위해 떠난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은 1896년 7월 8일 조선정부로부터 귀국 명령을 받은 것이다.²⁰⁾ 이 명령은 조선정부가 이미 그해 5월에 무관학교의 교관 충원을 이유로 귀국에 대한 협조를 일본정부에 타진한 뒤에 내린 것이었다.²¹⁾ 그런데 1895년 10월 도일할 당시와 귀국할 당시의 수명자(受命者)에 차이가 있는 것은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²²⁾ 무관학교 교관 충원을 이유로 한 귀국 명령은 이상한 점이 있다.

무관학교는 왕유식 등이 졸업한 훈련대 사관양성소가 훈련대와 함께 폐지되자 그에 대신하여 1896년 1월 초급무관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설립당시 무관학교에는 교장과 그 부관 각 1명, 의관 1명, 교두 1명, 그리고 영위관급 교관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외 조교, 번역관, 번역관보, 주사, 전어생 등이 있었으나 이는 하사관급 이하이거나 주임 또는 관임급 관료로 규정되었다.²³⁾ 요컨대 왕유식 등에게 귀국명령이 내려졌을 당시 이미 무관학

17) 1895년 8월 14일 유학명령을 받은 자는 副尉 成暢基, 副尉 申羽均, 參尉 趙義範, 參尉 安泰承, 參尉 權學鎭, 參尉 王瑜植, 參尉 李大珪 등 총 7명이었다(『大韓帝國官報』, 1895년 8월 15일자). 신우균의 유학명령은 곧바로 취소된 것이 확인된다. 안태승이 일본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다.

18) 「王妃弑害事件 조사와 뒤처리로 왕래한 전보」 1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7권, 국사편찬위원회.

19) 「王妃弑害事件 뒤처리로 왕래한 전보」 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7권, 국사편찬위원회.

20) 『大韓帝國官報』, 1896년 7월 10일자. 귀국 수명자는 성장기, 조희범, 권학진, 왕유식, 이대규, 金商說이었다. 조희범은 이때 귀국명령을 따르지 않아 면관되었다. 그러나 그는 1897년 6월 일본 육사를 졸업한 뒤 이듬해 8월 징계를 면하고 다시 부위에 임명되었다(『大韓帝國官員履歷書』, 575쪽).

21) 「士官學校入學の朝鮮人退學の件」, 『壹大日記』, 明治29年 6月.

22) 주19)의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정부가 협조를 요청한 자는 성장기, 조희범, 권학진, 왕유식, 이대규, 김상열이었다. 그런데 조희범은 육사 진학을 희망하여 조선정부의 허가를 얻어 귀국하지 않았고, 대신 박장화가 병으로 인해 육사를 자퇴하고 귀국하게 되었다고 한다.

23) 朴志泰 編, 「武官學校 官制(1896. 1. 11)」, 『大韓帝國期政策史資料集』 VI-교육-,

교는 설립되어 있었다. 또한 귀국명령을 받았던 여섯 명 중 실제 무관학교 교관으로 임명받은 자는 권학진, 왕유식 두 명뿐이었고 그것도 1898년 7월에 이르러서이다.²⁴⁾ 무관학교 교관이 일본 유학생들을 급히 불러들일 만큼 필요했다고 보기 힘들다. 이상한 점은 또 있다.

경시청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국인 朴莊和(24세)・朴牖和(26세)・王瑜植(27세)의 3명은 慶應 의숙의 생도 玄學圭(26세)・朴廷秀(26세) 및 무역상 文弘錫(35세) 등과 함께 神戸 출항의 信濃川丸에 타고 본월 25일 오후 8시 30분 아카마가세키[赤間關; 現 下關-필자]항에 도착하여 26일 오후 8시 10분 귀국함. 정박 중에는 始終 주의 시찰했는데 상륙도 하지 않고 특이점은 없었음.²⁵⁾

위 문건은 1896년 6월 27일 야마구치현 현지사 오오우라[大浦兼武]가 사이온지에게 보낸 것이다. 박장화는 당시 자비로 세이쵸(成城) 학교에 유학하고 있던 자였고, 박용화는 1882년 12세의 나이로 게이오 의숙에 입학한 이래 계속해서 체류하고 있던 중이었다. 왕유식이 1895년 10월 말에 함께 도일했던 무관들이 아닌 박장화, 박용화와 함께 일본 경시청으로부터 간첩 혐의를 받으며 별도로 귀국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는 더욱 의혹을 질게 한다.

조선 장교 학생 王瑜植, 金商說, 朴莊和(私費生) 등은 지난 달(4월) 28일 이래 통학치 않고 있는데 成城 학교에서 동 27일 오후 외출하였다가 귀교치 않음.²⁶⁾

선인문화사, 1999년, 32~34쪽.

24) 『大韓帝國官報』, 1898년 7월 5일자.

25) 「間諜 嫌疑者 朴莊和・朴牖和・王瑜植의 動靜 報告」, 『要視察韓國人舉動』 1, 國史編纂委員會, 2001년.

1896년 초부터 세이쵸 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던 유학생 중에서 왕유식, 김상열, 박장화가 4월 28일 학교를 외출한 후 무단으로 귀교치 않았다는 것이다. 1895년 10월 尾張丸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던 무관들은 군사학 교습 이외에 다른 밀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²⁷⁾

어찌됐든 을미사변은 일본과 친밀한 무관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군다나 앞서 언급했듯 사변 참여 군인 중 일부가 다시 일본 육사에 진학하여 이들의 일본에 대한 우호도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을미사변이 있는 지 두 달도 채 안 된 1895년 11월 28일 소위 ‘춘생문 사건’이 발생한다. 을미사변 이후 일본의 군사적 굴레로부터 고종을 탈출시키려는 의도에서 경복궁의 춘생문(春生門)과 북장문(北牆門)을 통해 대규모 병졸들이 궁궐로의 침입을 시도하였던 것이다.²⁸⁾ 춘생문 사건은 탈출 계획의 사전 유출과 친위대 군사

26) 「在成城學校朝鮮學生ノ件」, 『貳大日記』, 明治29年 5月.

27) 몇 년 후의 일이지만 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간 목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 정부에서 육사 출신 무관들을 이용해 ‘國事犯’에 대한 암살을 기도했던 것이다. 즉 1902년경, 유학시절 행적이 문제가 되어 수감 중에 있던 김형섭 등에게 정부가 사면을 미끼로 이준용・유길준・박영효 등 일본에 망명하고 있던 인사들에 대한 암살을 종용한 적이 있었다. 결국 암살은 무위로 돌아가고 김형섭 등은 일본 현지에서 체포되었는데 이들의 행적이 1896년 무관들의 일본 행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왕유식 등의 무관들에게도 당시 일본에 망명하고 있던 을미사변 관련자의 살해 명령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대가로 이들에 대한 면죄가 거래된 것은 아닐까. 명확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추측해 볼 수 있다. 김형섭 등의 암살 기도에 대해서는 市川正明編, 「金亨燮大佐回顧錄」, 『日韓外交史料』 10卷, 原書房, 1981년, 221~229쪽에 기재되어 있고, 이기동의 앞의 책, 88~94쪽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8) 춘생문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고할 수 있다. 洪景萬, 「春生門事件」, 『李在藥博士還曆記念韓國史學論叢』, 한울, 1990; 한철호, 「아관파천의 전주곡, 춘생문 사건의 진상과 그 영향」, 『내일을 여는 역사』 19호, 서해문집, 2005; 김

들의 거센 저항으로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나 을미사변과 달리 일본에 우호적이지 않은 무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군 내부에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집단의 존재를 알리는 사건이었다. 요컨대 1895년 말부터 1896년 초까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반일 성향의 무관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파견으로 더욱 두드러진다.

(2) 친러 성향 무관들의 성장

일본은 1894년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의 승리, 그리고 이듬해 을미사변을 통해 대조선 정책을 강경 일변도로 진행했고 이로써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 그러나 을미사변은 오히려 일본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 민비의 시해와 뒤이은 단발령이 한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을미의병이 일어나는 등 항일의식이 팽배해졌던 것이다. 또한 일본의 만행은 고종에게도 큰 위협으로 작용했고 결국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듯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을 거치며 조선에 대한 주도권이 일본에서 러시아로 옮겨가는 동안 일어난 변화 중의 하나가 바로 훈련대의 폐지다. 훈련대는 이전부터 친일 성향이 문제가 되어 존폐가 논의되다가 결국 1895년 9월 폐지되었다.²⁹⁾ 훈련대의 폐지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소속 군인들의 불만이 커졌음은 자명하다.

한국 정부의 훈련대 폐지 결정은 그렇지 않아도 축소된 일본의

영향력을 재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을미사변은 일본의 이러한 조바심과 폐지가 결정된 훈련대 군인들의 불안감이 상충된 결과였다. 다른 한편 일본은 자신들의 모략을 위해 훈련대 출신 군인들의 불안감을 이용했다고도 할 수 있다. 어찌됐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주도권 획득 시도는 을미사변이라는 만행과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실패하게 되었다.

아관파천 이후 정부는 군사부문의 개혁을 서둘렀다. 우선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무단 침입과 청일전쟁, 그리고 을미사변을 거치면서 무기력해진 군사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했다. 최소한도의 군사력 회복 없이는 고종의 환궁도 불가능했다. 이런 관점에서 추진된 것이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초빙이었다.

러시아 군사교관단은 1896년 10월 단장 뿌짜파를 선두로 제물포를 통해 입국했다. 뿌짜파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방안을 입국 이전에 이미 수립하고 서울에 도착한 뒤 이에 따라 친위대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친위대는 주로 궁궐수비의 목적으로 양성되었으며 이것이 일단락된 시점에 고종의 환궁은 가능했다. 그러나 환궁 이후 군사교관단의 추가 파견을 놓고 국내외 갈등이 심화되었고, 1897년 7월 우여곡절 끝에 파견된 2차 파견단마저 1898년 초 철수함으로써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파견은 중지되었다.³⁰⁾ 이로써 러시아식 군사교육을 받은 친러계 무관들도 더 이상 양성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나마 계속해서 친러 성향을 견지했고 친일계 무관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성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듯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무관들이 궁극적으로 러일 간의 전쟁에서 조국에 대한 서로

영수, 「춘생문사건 주도세력 연구-궁내부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의 형성을 중심으로-」, 『사람』 25호, 수선사학회, 2006.

29) 「訓練隊廢止에 관한 건(1895. 9. 13)」, 『大韓帝國期政策史資料集』 IV-군사·경찰-, 선인문화사, 1999년, 78쪽.

30)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파견과 활동, 그리고 철수에 대해서는 이민원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19세기말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활동과 역할」, 『군사』 44, 2001년).

다른 지향점을 지닌 채 맞서게 되었던 것이다.

친러 무관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부류는 역시 러시아 군사교관단에 의해서 양성된 친위대와 시위대 병력이 주류가 될 것이다.³¹⁾ 그런데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연구는 러시아 군사교관단 자체의 파견과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들이 양성한 한국 무관들의 실체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된 바가 없었다.

친러 무관들의 실체는 1897년 4월에 가또(加藤) 변리공사가 오오쿠마(大隈) 외무대신에게 보냈던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부터 러시아 교관이 훈련시킨 병사로 요사이 왕궁 호위를 위한 1개 부대를 조직해서 시위대라고 이름 붙였고, 지난 달 26일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대는 5중대로 편제하고 대대장에 參領 1명, 餉官에 1·2·3 등의 軍司 중 2명, 부관에 부위 2명, 旗官에 참위 각기 1명, 중대장에 정위 5명, 소대장에 부참위 20명, 正校 5명, 副參校 70명, 旗卒 5명, 병졸 9백명을 두고, 그 曲號隊(음악대를 말함)에 副校 1명, 曲號手 5명, 鼓手 10명, 養馬所에 養馬兵 4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관을 임명하고 사관 30명 중 러시아식 훈련을 받은 사관생도 17명, 기타 과반은 러시아어 통역 또는 함경도 출신자로 이를 충당했습니다. 이를 구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령 張基濂·부관 洪秉晉·旗官 李東暉(함경도인 병사는 咸이라 쓴다), 一等軍司 鄭泰奭·同 申昌熙, 正尉 趙復熙·同 李錫薰·同 全佑基·同 金龍三(咸·통변)·同 趙聖遠(同上)·副尉 李寅八(同上)·同 趙奉得(同上)·同 金興磷·同 李啓禧(咸, 이하 17명은 러시아

식 훈련을 받은 생도)·同 舍在洽·同 李守鳳·同 朴有泰(咸)·同 金仁洙(咸·通)·同 張駟遠·同 李昌根(咸)·同 鄭春元(同上)·參尉 金學洙·同 崔鳳奎(咸)·同 金炳道(咸·通)·同 朴圭煥·同 金盛根(咸)·同 崔在翊(咸·通)·同 沈相潤·同 朴興燁(咸)·同 陸永錫(同上)

이 대대의 조직은 처음부터 러시아파로 편제할 계획에서 나왔으므로 러시아식 훈련을 받은 자는 물론 기타라고 할지라도 대체로 그들과 친밀한 자를 채용했던 것입니다. ...³²⁾

가또공사는 시위대 중 위관급 이상 30명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들의 계급·출신·통역 여부를 기록했다.³³⁾ 그리고 시위대를 애초에 러시아파로 편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기재가 없더라도 친러적 성향을 견지한 자들이 대부분임을 말하고 있다. 위 문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함경도 출신이거나 러시아식 군사훈련을 받은 자, 또는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軍司(군사)를 제외한 시위대 장교 중 함경도 출신이면서 러시아식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함경도는 러시아와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말미암아 일본보다는 러시아에 우호적인 지역이었다. 가또가 문건에 함경도 출신자를 별도로 기록한 것도 그 지역 출신자의 성향이 대부분 친러적이었던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또한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7명 모두가 함경도 출신인 것도 지역적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31) 친위대는 아관파천 이후 궁궐수비와 수도경비를 담당했던 부대였다. 그러다가 1897년 3월 시위대가 창설되면서 시위대는 궁궐을 친위대는 수도경비를 각각 분담하게 되었다.

32) 「侍衛大隊 新設에 관한 건」,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1권.

33) 부관이 부위급으로 2명 편제되어 있으나 명단에는 洪秉晉 만이 부관으로 기재되었다.

<표 1> 시위대에서 양성된 러시아계 무관(1897년 4월 현재)

계급	성명	분류	함경도	러시아식 훈련	통역	그 외	비고
參領	張基濂					○	
正尉	金龍三		○		○		
	趙聖遠		○		○		
	趙復熙					○	
	李錫薰					○	
	全佑基					○	
副尉	舍在洽			○			
	李守鳳			○			
	張駟遠			○			
	李啓喜		○	○			
	朴有泰		○	○			
	李昌根		○	○			
	鄭春元		○	○			
	李寅八		○		○		
	趙奉得		○		○		
	金仁洙		○	○	○		
	洪秉晉					○	
	金興磷					○	
參尉	李東暉		○				
	金學洙			○			
	朴圭煥			○			
	沈相潤			○			
	崔鳳奎		○	○			
	金盛根		○	○			
	朴興燁		○	○			
	陸永錫		○	○			
	金炳道		○	○	○		
1等 軍司	崔在翊		○	○	○		
	鄭泰奭					○	
	申昌熙					○	
계			16	17	7	8	

가또는 실제 러시아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도 시위대 장교 모 두는 러시아에 우호적인 성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또의 견해는 지나치게 일본 측의 입장에서 시위대를 파악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시위대 대장 장기림은 1871년 무과에 급제하고 1896년 1월 참령으로 진급한 뒤 강화진위대장으로 있으면서 을미의병 토벌에 참여했는데,³⁴⁾ 당시 유수의 의병진을 공격하여 많은 원성을 샀다. 이후 1897년 시위대 대장에 보임되었으나 같은 해 8월 친위 제1연대 제3대대로 전임되었고, 계속 군직에 있으면서 1905년 12월 육군 보병 부령으로 진급했으나 1907년 군대 해산 당시 퇴임했다.³⁵⁾ 장기림은 러시아와 특별한 인연이 없었으며 오히려 의병 토벌로 인해 ‘친일 주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퇴임 이후 대한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1909년 12월에는 서울인민대회를 개최하여 일진회를 성토하고 정부에 동회의 해체를 건의하는 등 항일 운동을 벌였다.³⁶⁾ 병합 이후에는 천도교 경성교구장으로 신도들과 함께 3·1 운동에 참여하고 독립 자금을 모금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³⁷⁾ 서대문감옥에서 사망했다.³⁸⁾

장기림이 시위대 대장으로 임명된 것은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의병토벌 등의 활동을 공로로 인정받았기 때문인 듯하다. 즉 그가 의병 토벌에 앞장섰던 것은 군인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장기림이 의진의 의병장들과 교환한 서신 등에서도 보이

34) 「陛下明禮宮へ出御ノ件等報告」, 『駐韓日本公使館記録』 11권.

35) 『大韓帝國官員履歷書』, 국사편찬위원회, 258쪽.

36) 「合邦問題ニ關スル集報」, 『統監府文書』 8권.

37) 「三一運動과 國權恢復團」,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9권.

38) 「獨立運動의 形便」, 『韓國獨立運動史資料-臨政編 IV』 4권.

듯 그는 ‘국가가 혼란한 시기 의병이 봉기하는 것은 나라를 더욱 어지럽히는 일’이라 생각했다.³⁹⁾

요컨대 일본은 시위대를 친러적 성향의 군대라 파악하고 소속 군인들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시위대는 친일적이지 않은 군대라고 하는 편이 더욱 옳을 것이다.

물론 시위대가 편제될 당시 구성원들 중 친러적 성향을 견지한 장교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일본의 우려대로 이들 중 일부는 지속적으로 항일 활동을 했으며 러일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그 대표적 인물로 김인수를 들 수 있다.

김인수는 <표 1>에서도 보이듯 함경도 출신으로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었으며 일찍이 러시아식 군사훈련을 받은 자였다. 이후 그는 1902년경 대한제국 참령 신분으로 러시아에 귀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는 이를 문제 삼아 김인수의 해임을 외부에 요청했었다. 일본 측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결국 해임되기는 했으나 그의 면관은 1904년 7월, 즉 러일전쟁이 발발하고도 한참이 지나서였다.⁴⁰⁾ 만일 김인수가 귀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정부 입장에서든 묵과할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그의 귀화 여부를 떠나 일본에게 있어 친러 성향을 갖고 있는 한국 무관들의 존재가 충분히 위협적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김인수의 행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계속해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3) 일본 육사 유학과 친일 성향 무관들의 성장

을미사변 전후부터 러일전쟁까지 10여년에 걸쳐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유학했던 한국 무관들은 사관후보생 8기, 11기, 15기 등 세 기수에 최초의 육사 유학생 박유광(朴裕宏), 그리고 정식 입교는 아니었지만 한국군 부령신분으로 군사학 연구를 위해 유학했던 이병무를 포함 총 42명에 달한다. 이들은 정부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부분이었지만 더러는 사비를 들여 유학한 사례도 있었다.⁴¹⁾

지금까지 밝혀진 최초의 한국인 일본 육사 유학생은 박유광이다.⁴²⁾ 그러나 친일 무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특별과정으로 일본 육사 8기생들과 함께 교육받았던 왕유식 등 11명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듯 을미사변과 그로 인한 반작용으로 추진된 아관파천으로 이들의 유학생생활과 한국 내에서의 생활은 그다지 순탄치 않았다.

비록 훈련대 출신 무관들이 친러 정부 하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일본 육군사관학교에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한국 출신 유학생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듯 일본이 훈련대가 폐지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한국 출신 무관들을 유학생으로 받아들여 자국의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시킨데 반해 러시아는 을미사변 이후 시행해 오던 군사교관단의 파견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축소시키고, 나아가 폐지하게 된다.

39) 「參領 張基濂의 告示」·「장기림이 上將所에 보낸 편지」, 『독립운동사자료집』 1권.

40) 『高宗實錄』, 1904년 7월 27일.

41) 육사 8기생에 해당하는 박장화와 이병무는 사비생이었다. 15기생 중 유동렬, 박두영, 이갑, 남기창도 사비생이다. 鈴木一, 「日本陸軍士官學校に留學した大韓帝國學生」, 『東京都傷痍軍人會10週年史』, 1962, 17쪽.

42) 박유광은 1888년 5월 제학 중 자살했다. 그의 행적과 자살에 관해서는 이기동이 앞의 책 5~9쪽에 기술한 내용을 참조할 만하다.

<표 2> 러일전쟁 이전 일본 육사에 유학했던 한국 무관들⁴³⁾

기수	성명	유학기간	비고
·	박유굉	1883. 1. 7~ 1888. 5. 27	자살
·	이병무	1895. 5. 7~ 1896. 3. 10	
8기 (특별 과정)	성창기 권학진(권태한) 이대규 왕유식 박장화 김상열	1896. 1. 7~ 1896. 4. 22	
	조희범(조성근) 이희두	1896. 1. 7~ 1897. 7. 1	依命 退學
	박의병 최병태 장명근	1896. 1. 7~ 1896. 4. 1	病退
11기	김규복 노백린 김교선 이기옥 김성은 윤치성 임재덕 어담 조택현 김형섭 방영주 김희선 김홍남 권호선 김관현 장홍익 강용구 김홍진 김봉석 장인근 권승록	1898. 12. 1~ 1899. 11. 21	
15기	김응선 김기원 남기창 유동열 박영철 이갑 박두영 전영현	1902. 12. 1~ 1903. 11. 30	

즉 훈련대를 통한 친일계 무관들의 양성이 중단된 이후에도, 일본은 군사 유학을 통해 지속적으로 친일적 성향을 가진 한국 무관을 양성한 반면, 러시아는 군사교관단장 뿌짜파와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었고⁴⁴⁾

이는 친러계 무관들의 형성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 초반 정보와 병참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여 러시아가 한반도 북부에서 효과적인 군사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전쟁 직후 일본군에 의해 서울이 무력 점령되고 한일의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의 무관들은 일본 측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1904년 3월부터 다수의 무관들을 일본군대 접대위원으로 임명하여 일본군에 종군케 했고 개전 당시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던 무관들 또한 일본군 현지 사단에 배속된 채 종군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비록 정부의 명령은 없었지만 한반도 북부에서 러시아 측에 종군하여 교전을 벌이는 한국 무관들이 있었다.

지금까지 살핀 친러 또는 친일 성향의 무관들은 전쟁 전까지 한결같은 대한제국의 군인들이었다. 비록 충돌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분명한 당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그때그때 국내에서 빚어진 상황에 의해 경도된 부분이 컸다. 실제 친러적·친일적이라는 분류는 결과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행한 매우 단순한 구분에 불과하다. 요컨대 한국 무관들을 친러 또는 친일로 구분 짓는 것은 이들의 파벌적 행태를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고 그러한 성향이 왜 형성되었으며 형성된 성향이 어떻게 전시 상황에서 갈등으로 빚어지는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43) 鈴木一의 앞의 책 및 『大韓帝國官員履歷書』 등을 참조함.
44) 뿌짜파는 해외에 파견되는 군사교관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해당 국가, 즉 한국의 청년자제들을 러시아에 유학시켜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거듭 주장했다고 한다(김영수, 「러시아군사교관 단장 뿌짜파와 조선군대」, 『군사』 61, 2006년, 98~102쪽).

3. 개전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무관들의 동원

(1) 일본군의 군사 점령과 개전 초 정부의 대응

러일 간의 교섭이 서로의 입장 차만을 확인한 채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양국은 점차 전쟁 준비에 돌입하였다. 당시 일본 측에서 교섭을 기만적으로 진행했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증명되었지만, 실제 1904년 2월 초의 개전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다. 다만 삼국간섭 이래 절치부심하며 지속적인 군비 증강과 정신 무장을 병행한 일본과는 달리, 국내 정치의 문란과 국제 관계의 불안, 그리고 긴 병참선 등을 감안할 때 러시아가 먼저 개전할 가능성은 적었다. 그리고 일본은 이러한 러시아의 어려움을 너무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전쟁은 2월 8일 제물포항에 머물고 있던 러시아 군함에 대한 소규모 충돌⁴⁵⁾과 뒤이은 일본군 임시파견대의 상륙으로 시작되었다. 임시파견대는 제1군에 소속된 12사단의 각 연대에서 한 개 대대씩을 차출하여 조직된 부대였는데, 이튿날인 2월 9일 아침까지 상륙을 완료하고, 즉시 서울로 진입했다. 이 부대는 1903년 12월 이미 그 편성 요령이 결정되어 있었으며, 한국 특히 서울이 중립지대로 선포되는 것을 막고 한국 정부를 군사적 지배 아래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⁴⁶⁾

45) 러일 해군 함대 간의 최초 충돌은 2월 8일 오후에 시작되었으나 이날은 별다른 교전없이 러시아 함대가 제물포항으로 퇴각하면서 끝났다. 다음날 정오경 제물포 외해에서 시작된 본격적인 교전 역시 러시아 함대의 패퇴로 마무리되었다. 제물포 외해에서의 해전에 대해서는 러시아 로스투노프 외 전사연구소 편, 『러일전쟁사』, 건국대학교출판부, 2004년, 126~131쪽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요컨대 전쟁 개시 이전부터 한일밀약의 체결에 힘썼던 일본은 한국 정부의 중립화 시도를 막기 위해 상륙 다음날 ‘특설부대’를 통해 서울을 점령하고, 군사적 위협 아래 같은 달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한국 내 군용 통신 및 교통망 보호를 위해 군율을 시행하고⁴⁷⁾ 이와 별도로 서울 일대와 함경도 일원에는 실질적인 군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반 사항을 관할하기 위해 한국주차군을 편성하고 주차군사령관에게 업무를 일임하였다.⁴⁸⁾

한일의정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군이 군략상 필요하다는 명분만 붙이면 모든 부분의 전쟁 지원을 감당해야 했다. 전쟁 수행과 관계없는 사안이라도 편의에 따라 한국 정부와 한국민에게 필요한 토지와 물자, 그리고 인력을 요구할 수 있었다.⁴⁹⁾

일본군은 이렇게 일방적인 통제책을 강요해 놓고 군용전선과 군용철도의 소통을 방해하는 자나 그러한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

46) 임시파견대의 파견 배경과 행동에 대해서는 大江志乃夫, 『日露戦争と日本軍隊』, 立風書房, 1987년, 360~364쪽을 참고할 수 있다.

47) 「軍律(明治37年7月2日; 韓駐參第259號)」, 金正明 編, 『日韓外交資料集成 別冊 1-朝鮮駐軍軍歴史』, 巖南堂書店, 1967년, 177~178쪽 참조.

48) 「韓國駐軍司令官へ訓令の件」, 『滿密大日記』 明治37年 3월(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문헌코드 C03020072200).

49) 러일전쟁과 관련한 일본의 토지 수탈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성과가 있다. 尹炳旻, 「舊韓末 駐韓日本軍에 대하여-露日戦争 이후의 對韓軍事的侵略-」, 『郷土 서울』 27,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66; 李亮, 「明治末期韓國における日本の軍用地收用政策(上)」, 『九州史學』 98, 1990; 송지연,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軍用地 收用과 한국민의 저항-서울(용산), 평양, 의주를 중심으로」, 『梨大史苑』 30, 1997;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는 자를 사형에 처했다. 전선과 철도 연선 촌락에 보호위원을 두고 관리토록 했으며 이후 전선이나 철도가 절단되면 절단 당시의 보호 위원에게 책임을 묻도록 정했다. 심지어는 구류기간 중 필요한 물품과 식품을 피구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일본군의 한국 민에 대한 군사 점령은 만행, 그 자체였다.⁵⁰⁾

이에 그치지 않고 1905년 1월 한국주차군사령관은 한국 정부에 서울 및 그 부근의 치안경찰권을 한국주차군이 집행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군율의 내용 및 적용 지역을 확대하여 공포하기에 이른다. 한국 정부가 지극히 문란하고 권력 남용이 심하여 한국 경찰기관을 추호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⁵¹⁾ 군율 적용 지역은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군용 건축물 및 군수 시설에까지 확장되었다.⁵²⁾ 규정도 수차례 변경되는 동안 더욱 구체화되어 1905년 7월에는 7개항으로 구성된 「韓國駐劄軍軍律」과 부칙, 그리고 9개항으로 이루어진 「軍律違犯審判規程」이 공포되기에 이른다.⁵³⁾

개전 직후 서울 점령과 한일의정서의 조인, 그리고 군율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강압은 무단적이고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한국주차군의 편성 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러시아와의 전쟁 수행에 있어 배후의 치안 안정 및 병참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에서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빠른 시간 내에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전쟁이 끝난 지 1년

이 지난 1906년 8월에도 「韓國駐劄軍軍律」을 개정 공포했던 것으로 알 수 있다.⁵⁴⁾

이렇듯 한국 내 필요한 지역에 임의대로 군율을 시행한 것 이외에도 1904년 7월 서울 일대에 군사경찰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함경도 내 일본군 점령지역에서 군정을 시행했다. 군율과 달리 군사경찰과 군정 실시 지역에서는 군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일반의 집회를 금지하고 신문·잡지 등의 여론을 사전 검열하고 정지 또는 폐간할 수 있었다.⁵⁵⁾ 또한 군정이 시행 중인 함경도 일대에서는 해당지역 일본군 지휘관이 한국 정부의 현직 관리를 감독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임면권까지 간섭하고 있었다.⁵⁶⁾

개전 전후 중립화 시도 및 한일밀약의 거부 등 한국 정부도 전쟁을 피하고 국권을 온전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서울 및 한반도 각지를 점령한 일본군에게 더 이상의 저항은 허용되지 않았다. 한일의정서의 체결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군의 전쟁 수행을 위해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러일전쟁 당시 한국 무관들의 전쟁 참여는 이렇게 강압적인 상황 하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1904년 4월 1일 하야시 공사가 고무라 외무대신에게 보낸 전문에 따르면 당시 외부 참사관이던 구완희(具完禧)를 일본군의 복상을 위

50) 군율의 시행에 관해서는 서민교, 「근대 일본의 조선주둔군에 대한 고찰」, 『일본의 한국침략과 주권 침탈』, 경인문화사, 2005년, 379~382쪽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51) 金正明 編, 위의 책, 181쪽.

52) 金正明 編, 위의 책, 179쪽.

53) 같은 달 永興灣과 鎮海灣 등 일본군의 주요 요충지에는 이와 별도의 군율을 공포하기도 했다. 金正明 編, 위의 책, 183~196쪽 참조.

54) 1906년 8월의 군율은 이전보다 훨씬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일본군의 점령에 조금이라도 반대되거나 저촉되는 행위는 감금·추방·태·과료 등의 처벌이 따랐다. 김정명 편, 위의 책, 196~197쪽.

55) 「韓國駐劄憲兵隊長へ訓令(明治37年7月20日)」, 김정명 편, 위의 책, 212~213쪽 참조.

56) 「軍政施行ニ關スル內訓(明治37年10月9日; 韓駐參第268號)」, 김정명 편, 위의 책, 227쪽 참조.

해 의주군수 겸 북진군접응관으로 임명시키고 이를 돕기 위해 경성 영사관 순사 田賀를 동반하게 했다고 한다.⁵⁷⁾ 이를 통해 개전 직후 일본이 한국 북부 중요 지역의 관리 임용에 적극 개입하고 자국 군대의 전쟁 지원을 위해 한국 무관들을 동원하는 한편 그의 감시를 위해 일본인 순사를 함께 파견시키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응하여 정부도 앞서 북진군접응관 임명을 시작으로 1904년 4월 중순에는 다수의 일본군대접대위원(日本軍隊接待委員)을 임명했다. 이들은 일본군의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불편함이 없도록 봉사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모두 대한제국의 무관들로 구성되었다. 일본군대접대위원과 일본국진북군대접응관은 각각 경성병참사령부와 의주병참사령부 예하에서 일본군의 병참 및 첩보, 그리고 대민 업무에 종사하였다.

정부는 1904년 3월 28일 의주군수였던 구완희를 일본국진북군대접응관(日本國進北軍隊接應官)으로 임명한다.⁵⁸⁾ 그리고 1904년 4월 12일에는 일본군대 접대위원장으로 보병 참령 현영운(玄暎運)을 임명하고 접대위원으로 보병 정위 조성근(趙性根)·공병 정위 김성은(金成殷)·보병 부위 유철영(柳哲永)·동 장기원(張璡遠)·동 노백린(盧伯麟)·동 김태원(金泰元)·포병 부위 어담(魚潭)·헌병 부위 윤명수(尹明秀)·보병 참위 이범승(李範承)·동 우중현(禹鍾鉉)을 임명했다.

일본군대 접대위원장 육군보병참령 玄暎運

57) 「具完喜 北進軍接應官任命과 通辯 田賀巡查同伴 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3권, 224쪽. 구완희가 일본국진북군대접응관으로 정식 임명된 날짜는 1904년 3월 28일이다(『大韓帝國官報』, 1904년 3월 30일).

58) 『大韓帝國官報』, 1904년 3월 30일.

일본군대 접대위원

육군보병정위 趙性根 육군공병정위 金成殷 육군보병부위 柳哲永
육군보병부위 張璡遠 육군보병부위 盧伯麟 육군포병부위 魚潭
육군보병부위 金泰元 육군헌병부위 尹明秀 육군보병참위 李範承
육군보병참위 禹鍾鉉

이상 4월 12일

일본국 진북군대접응관 屬員 前주사 具夏祖 前 교관 鄭元朝

이상 4월 13일

京郷各隊軍物及文簿 조사위원장 군부협관 玄暎運

京郷各隊軍物及文簿 조사위원

군부관방원 趙(?)漢淸 군부기사 吳禎善 군부기사 金鼎禹

육품 韓敬烈 육품 朴德秀 육품 金敎準

이상 4월 13일⁵⁹⁾

위에서 보이듯 정부는 접대위원과 진북군대접응관 외에도 주로 한반도 북부에서 일본군의 병참지원을 담당할 경향각대군물급문부(京郷各隊軍物及文簿) 조사위원들도 임명했다. 이들은 정부의 공식 임명에 의해 일본군에 협력하게 된 경우지만 실제 일본군이 주둔하거나 이동하는 지역의 관리들도 그에 필요한 제반 물자를 조달토록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많은 한국인이 동원되어 피해를 입었다.

처음 접대위원이 임명될 당시 접대위원장과 조사위원장은 현영운이 겸임하고 있었으나 1904년 4월 17일 접대위원장에 이희두(李熙斗)가 임명되면서 현영운은 경향각대군물급문부 조사위원장의 직무만 수행하게 되었다. 이희두의 임명과 함께 보병 참위 황학수(黃學秀)·박동원(朴東元)·장태진(張泰鎭)이 접대위원에 추가로 보임되

59) 『大韓帝國官報』, 1904년 4월 16일.

었고, 보병 정위 이극선(李克善), 보병 부위 이홍직(李弘植)·유창호(柳彰浩) 등은 일본국진북군대접응관으로 임명됐다.⁶⁰⁾

접대위원들은 서울과 한국 북부에서 업무를 계속하다가 한국에서의 주요전투가 종료된 그 해 말 대부분 원 소속으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진북군대접응관은 그 뒤에도 계속 추가로 임명되고 전쟁 종료 시점까지 일본군 지원 업무를 계속했다. 그 추이를 『大韓帝國官報』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국진북군대접응관 정3품 洪淳旭

이상 5월 6일⁶¹⁾

일본국 진북군대접응관 고원 이영식 박승룡, 손현수

이상 6월 3일⁶²⁾

일본국 진북군대접응관 고원 평안북도 관찰부 주사 백낙삼

이상 6월 30일⁶³⁾

일본국 진북군대접응관 의주군수 육군 보병 참령 申羽均(구완희 해임)

이상 3월 18일⁶⁴⁾

접대위원들이 1904년에 업무를 종료하고 복귀한 것과 달리 진북군대접응관들은 1905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일본군의 병참업무를 도와야 했다.

60) 『大韓帝國官報』, 1904년 4월 25일.

61) 『大韓帝國官報』, 1904년 5월 9일.

62) 『大韓帝國官報』, 1904년 6월 6일.

63) 『大韓帝國官報』, 1904년 7월 2일.

64) 『大韓帝國官報』, 1905년 3월 22일.

진북군대접응관에 임명된 신우균의 경우 1905년 1월 보병 참령 신분으로 의주군수에 임명된 후 다시 3월 18일자로 진북군대접응관에 보임되었다. 3월 18일은 봉천이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한 직후였다. 즉 주요 전장은 이미 북만주 일대에 형성되어 있었던 때였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봉천을 함락시켰다고 해도 당시 인도양에서 접근해 오고 있던 러시아 제2태평양분함대와의 해전에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다. 오히려 전장이 확대되면서 예상 밖의 극심한 사상자와 개전과 비교해 열악해진 보급 상황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났다. 결국 의주를 비롯한 한국에서의 병참업무가 갖는 중요성은 전쟁이 끝나는 시점까지 줄어들지 않았다. 결국 진북군대접응관과 雇員들은 포츠머스 강화조약으로 전쟁이 종료되 고도 한참 지난 1905년 12월 30일 정식 해임되었다.⁶⁵⁾

(2) 러일 양측에 의한 무관들의 동원

① 일본군 측에 참전한 육사출신 무관들의 동향

러일전쟁은 러시아와 일본 두 열강의 제국주의 전쟁이었지만 한국군 출신 무관들의 활약도 자못 두드러진다. 특히 일본 측에 종군했던 무관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 공적심사를 위해 작성한 문건에는 일본군 부대장의 ‘훈적명세서(勳績明細書)’가 다수 첨부되어 있다. 훈적명세서는 일본이 전쟁에 승리한 후 공로자를 포상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록된 내용의 적극성을 과도하게 부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 훈적명세서의 기록을 통해 이들 한국 무관들이 단순 병참 업무만이 아닌 정보활동과 나아가 직접 전투에도 참

65) 『大韓帝國官報』, 1906년 1월 3일.

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은 훈적명세서를 토대로 참전한 무관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은 정부에 의해 접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일본군에 직접 종군하는 형태로 참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 측이 작성한 훈적명세서를 잘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3> 러일전쟁 당시 일본 측에 동원된 한국 무관

성 명	종군당시 관직 및 계급	종군 및 소관부대	종군 및 참전기간	일본육사 기수	이후 주요행적	비 고
李熙斗	육군부령	경성병참사령부	1904년 2월~	사관후보 8기		일본군대 접대위원장 ⁶⁶⁾
趙性根	보병참령	경성병참사령부	1904년 2월~	"		일본군대 접대위원
魚 潭	포병참령	경성병참사령부	1904년 2월~	11기		"
盧伯麟	보병정위	경성병참사령부	1904년 2월~	"		"
張寅根	보병소위	제8사단 보병제32연대	1904년 10월~	"		통역/ 島田張一
金鴻南	"	제8사단 보병제31연대	1904년 10월~ 1905년 6월	"		통역/ 鴻池又次
金寬鉉	"	제8사단 보병제17연대	1904년 10월~	"		통역/高山光 之助/부상
尹致晟	기병소위	제8사단 기병제8연대	1904년 10월~ 12월	"		통역/ 福山猛虎
權承錄	(육군통역)	후비제2사단	1904년 11월~	"		통역/ 權寧鐸
朴榮喆	기병참위	근위기병연대 제1중대	1904년 3월~ 7월	15기		
柳東說	"	근위기병연대 제3중대	1904년 3월~ 8월	"		

66) 최초의 접대위원장은 玄映運이었다. 『大韓帝國官員履歷書』, 384쪽, 국사편찬위원회.

성 명	종군당시 관직 및 계급	종군 및 소관부대	종군 및 참전기간	일본육사 기수	이후 주요행적	비 고
朴斗榮	포병참위	근위야전포병연대	1904년 3월~ 7월	"		
金應善	보병정위	근위보병 제1연대	1904년 3월~ 8월	"		
李 甲	"	"	1904년 3월~ 8월	"		
金基元	보병참위	근위보병 제2연대	1904년 3월~ 8월	"		
南基昌	"	"	1904년 3월~	"		
全永憲	"	"	1904년 3월~ 7월	"		
金泰元	보병정위	경성병참사령부	1904년 2월~	비육사		일본군대 접대위원
劉康烈	포병부위(?)	"	"			"
柳哲永	보병부위	"	"			"
張琪遠	"	"	"			"
黃學秀	보병참위	"	"			"
柳冀聖	"	"	"			"
張泰鎭	"	"	"			"
朴東元	"	"	"			"
李範承	"	"	"			"
申羽均	보병참령	의주병참사령부	1905년 1월~			의주군수 겸 일본군 진북 군대 접응관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입수한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의 『敍勳』 卷4 外國人2(勳206)과 『敍勳』 卷7 外國人5止(勳209)의 문건 및 山崎正男 編, 『陸軍士官學校』, 秋元書房, 1969; 李基東, 『悲劇의 軍人들』, 一潮閣, 1982 등을 참고하여 작성함.

※ 계급은 훈적명세서에 기록된 것임.

※ 종군 및 참전기간은 임명일이 아닌 실제 전장에 투입된 날을 기준으로 함.

첫째, 훈적명세서가 있는 27명 중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자가 17명으로 전체의 60%가 넘는다는 점이다. 일본 육사 출신자들의 성장은 개인적인 출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주도면밀한 친일과 양성계획을 떠오르게 한다. 예를 들어 사관후보생 8기들이 일본 육사에서 수학한 것은 1896년 이후이다. 즉 아관파천 이후에 육사를 졸업한 것이다. 또한 11기생들의 경우에도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던 1895년 이후 일본에 유학했다. 이렇듯 국내에서 일본의 세력이 약화된 시기에도 계속적으로 한국 무관들이 일본에 유학하고 있었다는 점은 친일 성향 인사들의 지속적인 양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 일본 육사의 기수별로 볼 때 8기, 11기, 15기 출신의 무관들이 참전하고 있는데 이들의 종군 배경이 각 기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 종군 배경에서 보이는 차이점을 통해 당시 국내의 정세를 비춰볼 수 있다는 점이다.

<표 3>을 참고로 하여 접대위원이나 진북군대접응관 외에 러일전쟁에 참전한 일본 육사 11기생들과 15기생들의 참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 육사 11기생들을 살펴보자. 1904년 7월 15일 일본 경시총감 安立綱之가 고무라 외무대신에게 보낸 손병희의 동향에 대한 보고서에 같은 달 12일 장인근이 무장한 채 손병희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다.⁶⁷⁾ 참전하기 전 손병희를 찾아 작별인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장인근을 비롯해 함께 체류하고 있던 김홍남, 김관현, 윤치성, 권승록 등 11기생들은 1904년 7월경 일본정부로부터 종군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동경에 머물다가 제8사단에

67) 「要視察外國人ノ舉動關係雜纂-韓國人ノ部-韓人ノ動靜」, 『要視察韓國人舉動』 3, 국사편찬위원회.

배속해서 종군하라는 명령을 받고는 아오모리현(靑森縣) 히로사키(弘前)로 이동했다.⁶⁸⁾ 제8사단은 개전 당시까지 계속 주둔지에 있다가 나중에 제2군에 편제되어 히로시마에 집결한 후 만주로 이동한 부대인데 여기에 11기생들이 합류했던 것이다. 제2군은 5월경에 히로시마를 떠나 진남포를 거쳐 대련 위쪽의 염대오(鹽大澳)에 상륙, 여순과 득리사, 개평, 요양, 그리고 봉천 등에서 전투를 치렀다.⁶⁹⁾

이들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일본군에 의해 아직 여순항이 함락되기 전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요동반도 일대부터 시작해서 봉천회전에 이르기까지 주요 전장에서 전투에 참여하게 됐다. 장인근의 훈적명세서에서 이러한 정황을 유추할 수 있다.

勳績明細書

勳功 丙

육군통역 島田張一(한국보병소위 張寅根)

위자는 明治37년 9월 11일 보병 제32연대에 배속되어 10월 9일 淸으로 건너가 黑溝臺 및 奉天 부근 회전에 참여했다.

ㄱ. 明治38년 1월 25일 暗夜 降雪을 개의치 않고 小新庄子에서, 그리고 26일에는 狼洞溝에서 연대 본부의 중요한 여러 물품 운반을 감시하고, 27, 8일 寒威, 특히 凜烈의 때에도 제1대대 소속 육군

68) 11기생 중 권승록은 다른 동기들과 달리 한국 북부에서 일본 北韓軍 후비제2사단에 편제되어 함경도 일대에서 종군했다. 「韓國人勳績明細書」, 『敍勳』 卷7 外國人5止, 1910년.

69) 당시 일본 제2군에는 구스노세가 병참감으로 잠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가 직접 교육했던 조성근 등이 한국군 참령이 되어 일본군 접대위원으로 경성병참사령부에서 일하고 있었으니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고 해도 지금의 입장에서 쓸쓸한 재회가 아닐 수 없다. 구스노세는 1904년 6월 병과를 살려 제4군이 편성됐을 때 포병부장으로 진임했다. 1913년 육군대신을 역임한 뒤 이듬해 전역했다. 福川秀樹, 『日本陸軍將官辭典』, 芙蓉書房出版, 2001, 270~271쪽.

3등주계 小畑信夫와 협력하여 溫食給養을 위해 여러 차례 맹렬한 총포탄을 무릅쓰면서 제일선을 왕복했다. 29일 적을 격퇴시킨 후 연대가 숙영 등을 할 때에도 열심히 힘써 연대에 많은 편익을 주는 등 그 공적이 훈공 병에 해당한다.

ㄴ. 明治38년 3월 1일 연대가 月堡子를 점령한 후 제3대대 소속의 육군 2등주계 小西延壽와 제일선 부대에 왕복하며 전투원의 급양에 힘썼다. 동월 2일 이후 연대에 續行하여 중요 물품의 운반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도로 상의 부상병을 간호하고 혹은 숙사 설비에 분주하는 등 그 공적이 훈공 병에 해당한다.

ㄷ. 奉天戰 후 연대가 여러 차례 숙영지를 이동할 때 숙영지의 정찰 숙사설비 등을 신속히 하는데 임무를 다하고 또한 檢疫 및 보안규정 등의 勵行에 노력하는 등 그 공적이 훈공 갑에 해당한다.

이상 3항의 성적에 의해 훈공 병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한다.

明治38년 11월 11일

보병 제32연대 부관 육군 보병대위 中村好⁷⁰⁾

사후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만주 일대에서 배속연대와 함께 복상하며 참전하고 있는 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장인근이 배속된 보병 제32연대는 러일전쟁 당시 제8사단에 편제되어 있었다. 제8사단은 제3군의 예비대로 후방근무를 명받았으나 전장이 확대되면서 치열한 교전을 거듭했다. 특히 제32연대의 피해가 심각해서 최초 참전 당시 3천을 헤아리던 병력이 귀환 당시 천명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⁷¹⁾

주목할 점은 장인근이 배속될 당시 부여받은 직책명 옆에 표기된 ‘한국 보병 소위’라는 계급이다. 당시 대한제국의 정식 계급에는 소위가 존재하지 않았다. 왜 그가 대한제국의 계급에도 없는 소위라는

계급으로 일본군 현지 사단에 배속되어 참전하게 된 것일까.

장인근과 동기인 11기생들의 러일전쟁 종군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동기생인 어담이나 노백린이 경성에서 일본군대 접대위원으로 전쟁에 협력한 반면 장인근 등 5명은 1904년 10월 이후에 일본군 현지 사단에 배속된 채 종군했다. 둘째, 장인근 등의 훈적명세서에는 이들이 한국군 출신이라는 것을 명시하면서도 앞에서 보았듯 일본군의 계급인 소위가 표기되어 있다. 셋째, 이들 5명은 통역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모두 일본식 이름을 사용했다.

일본군에 직접 배속되어 종군한 11기 5명이 이렇게 특수한 사정을 가지게 된 것은 이들의 유학시절 행적과 관련이 있다.⁷²⁾ 11기생들은 1899년 11월에 육사를 졸업하고 6개월 간 일본 현지 사단에 배속되어 근무했다. 그런데 당시 정부에서는 이들을 일본인처럼 소위로 임관할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또한 처음으로 일본 육사를 정식 졸업한 11기생들은 한국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친일적 성향의 인물들로 분류되어 있었다. 결국 1900년 6월 견습사관 임기가 끝났을 때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 어디에서도 처분을 받지 못한 이들은 어떠한 지원도 약속받지 못한 채 고아신세로 남겨지고 말았다.

망명객 아닌 망명객 신세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11기생들이 택한 첫 번째 선택은 정부에 직접 호소하기 위한 대표단을 꾸려 귀국하는 일이었다. 어담, 노백린 등은 바로 이때 귀국하여 정부와 교섭을

70) 「明治37・8年戰役 韓國人勳績明細書」, 『鉞勳』卷4 外國人2, 1908년.

71) 椎野八束 編, 『日本陸軍連隊總覽』, 新人物往來社, 1990년, 94쪽.

72) 소위 ‘革命一心會 사건’으로 알려진 11기생들의 일본 내 동향에 대해서는 市川正明 編, 『金亨燮大佐回顧錄』, 『日韓外交史料』10卷, 原書房, 1981년에 그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있고, 이기동의 앞의 책에도 같은 내용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이기동, 앞의 책, 52~107쪽 참조). 여기서는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건 전말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벌였던 부류로 비록 귀국에 따른 두드러진 성과는 없었지만 일본에 남겨진 동기생들과는 이후 다른 행보를 걷는다.

귀국한 대표단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일본에 남겨진 일파들 사이에 모략이 싹텄다. 장호익, 조택현, 권호선 등이 주동이 되어 혁신정부 수립을 위한 쿠데타를 모의했고 대다수가 이에 동조했다. 물론 쿠데타는 모략단계 그쳤지만 나중에 이 모의는 이들의 발목을 잡는 함정이 되었다.

후에 일본에 남겨졌던 11기생들은 모두 귀국하여 군직에 임명될 수 있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학 때의 모의가 정부에 의해 발각되어 몇몇은 처형되고 몇몇은 망명 아닌 망명을 택해야 하는 비운을 또다시 맞게 되었던 것이다. 위 <표 3>에 장인근을 비롯한 5명이 다른 동기생들이나 15기들과 달리 일본 현지에서 일본군 소위 명목으로 직접 종군하게 된 것은 이들의 당시 상황이 망명객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당시 정식 한국군 장교로 일본군에 배속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일본 육사를 나온 유망한 청년 장교들이었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이들의 능력을 방치할 까닭이 없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들을 일본군 소위로 변칙 임관시키고 통역의 직책을 부여하여 뒤늦게 참전하는 제8사단 등에 배속시켜 전장에 투입했던 것이다. 일본이 한국군 출신 11기생들을 자국 군대에 종군시켜 참전케 한 것은 아래 15기생들의 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15기생들의 참전 정황을 살펴보자.

15기생들이 종군했던 근위사단은 전쟁이 시작되는 때 히로시마에 집결해 있다가 제1군에 편성되어 1904년 3월 히로시마 우지나항(宇品港)을 출발 진남포에 상륙했다. 아직 평양 부근 및 정주 일대에는 러시아군이 주둔해 있었다. 이들은 진남포 상륙이후 압록강까지 러

시아군과 소규모의 접전을 펼치며 북상했으며 압록강 도하 이후에는 구련성, 봉황성, 그리고 수남 일대에서 전투를 펼쳤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15기생들은 일본 육사를 졸업한 뒤 견습사관 근무를 마치기 직전이었다. 이들의 참전은 정식 한국군 장교이자 일본 현지 사단에 배속된 견습사관이라는 이중의 전장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다. 여기에 본인들의 희망도 크게 작용했다.

나는 당시 근위기병연대 견습사관으로 재근 중이었다. 2월 5일 사단사령부로부터 빨간색 封筒에 동원령이 전달되어 왔다. 연대에서는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넘쳤다. … 나를 비롯한 근위사단 학생 8인[朴榮喆, 朴斗榮, 金應善, 金基元, 全永憲, 南基昌, 李甲, 柳東說 등 일본 육사 15기동기생 8명을 지칭함-필자]은 당시 외국인이자 학생이었던 관계로 留守師團에 남게 된다면 이 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쳐 버리는 것은 물론 애써 고학한 보람도 없이 힐난의 대상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8인이 連署하여 데라우치 육군대신에게 사단을 따라 모두 출정하고 싶다는 뜻을 출원했던 것이다. 이것이 다행히도 받아들여져 일본의 견습사관과 동일한 대우로 출정하게 되었다. 한편 급여는 通譯 명의로 지급되게 되었고, 服裝과 馬裝같은 것은 일본 사관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⁷³⁾

위 박영철의 회고에 따르면, 15기생들이 졸업한 후 일본군 사단에 견습사관으로 근무 중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에 참전의 뜻을 직접 육군대신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종군을 허락했는데 직급과 급여, 그리고 복장 등을 일본군 사관과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근위사단에 배속되어 한국 북부 및 만주

73) 朴榮喆, 『50年の回顧』, 118쪽.

각 지에서 참전한 뒤 한국 정부의 환국 명령으로 1904년 8월경 모두 복귀했다.

요컨대 일본 현지사단에 배속되어 참전한 한국군 출신 무관들의 경우 통역 명목으로 일본군 사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종군하고 있었다. 다만 11기생들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정식 장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군 당시 한국군 계급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② 러시아 측에 참전한 무관들의 동향

필자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친러 성향의 무관들은 주로 1897년 가또의 보고서에 보이는 시위대 장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러일전쟁과는 큰 관련을 맺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김용삼⁷⁴⁾이나 이동휘 등 항일운동을 계속하는 경우는 확인되지만 전쟁에 직접 참여한 경우는 발견할 수 없었다.⁷⁵⁾

이에 본고에서는 김인수를 중심으로 러시아 측에 참전한 무관들의 대략적인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인수에 대해서는 기왕에 몇몇 연구에서 잠시 언급된 적이 있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

탕으로 그의 행적을 좀 더 규명하도록 하겠다.

김인수의 출생 및 청소년기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1897년 부위 임명과 함께 시위대대 소속을 명받은 기록이 처음이다.⁷⁶⁾ 다만 앞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 함경도 출신이고 일찍이 러시아식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1897년 부위에 임명된 것으로 보아 그는 뿌짜파를 단장으로 한 러시아 군사교관단에 의해 군사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시위대에 소속되었다는 것 외에 다시 그의 행적은 묘연해 진다.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1903년이였다.

1903년 1월 원수부 군무국총장 육군 부장 이봉의(李鳳儀)는 당시 외부대신 임시서리 이하영(李夏榮)에게 김인수의 전어관(傳語官) 임명에 관한 주한일본공사 하야시의 조희가 있었음을 보고했다.⁷⁷⁾ 당시 하야시는 러시아로 귀화한 김인수가 대한제국의 군인으로 임명될 수 없음을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김인수가 늦어도 1902년 말경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때는 한국군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 귀화하고 또 어떻게 다시 대한제국 군적을 가질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일본은 계속해서 러시아 국적을 가진 대한제국 장교의 면관을 요구했는데, 중요한 점은 이것이 분명 정부의 입장에서 곤란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인수가 군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면관된 것은 1904년 7월이 되어서였다.⁷⁸⁾ 결국 정부는 전쟁이 시작하고도 한참 지나서야 그를 공식적으로 해임한 것이다.

74) 김용삼은 1907년 군대해산 당시 참령으로 퇴임하고는 한동안 구체적인 행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1911년 7월 '배일파'의 우두머리로 烟秋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문건이 보인다(「6月21日以降本藤通譯官カ嚴仁燮ヨリ得タリ情報(1911.7.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西比利亞(3)』,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자료).

75) 러일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에 대해서는 심현용이 전시기 한반도 내 군사활동을 조명하면서 한인의용군의 활동에 관해 기술한 것이 있다(심현용, 「러일전쟁 시기 러·일 양국군의 한반도 내 군사활동」, 『아시아문화』 21호, 2004년). 이것은 주로 러시아 측 자료에 보이는 한국인들의 군사활동을 조명한 것으로, 사료 사이사이에 밝혀진 한국군인들의 면면은 좋은 참고가 된다. 다만 이들의 활동에 대해 앞으로 더욱 밝혀낼 소지가 많다.

76) 『大韓帝國官報』, 1897년 3월 24일.

77) 『각사등록 근대편』, 1903년 1월 19일.

78) 『고종시대사』 6집, 1904년 7월 27일.

물론 그가 공식적으로 면관된 1904년 7월까지 실질적인 군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⁷⁹⁾ 같은 해 8월에 이미 함경도 고원에서 러시아군의 통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날아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왕 로국정탐으로 혐의가 잇든 참령 김인수씨는 지금 고원에 래도한 로병 중에 잇서 통변하여 준다고 조선신보에 기재하였더라.⁸⁰⁾

또한 같은 달 함흥 일대에서는 김인수가 러시아군의 ‘향도관’으로 ‘대장 김인수’라 불리며 전신선 복구를 담당했고,⁸¹⁾ 10월경에는 러시아 기병 27기를 거느리고 함남 이원 일대에 출몰했으며,⁸²⁾ 한국인 500여 명을 영솔하고 북청 일대에 주둔하고 있다는 등의 소식이 전해졌다.⁸³⁾

함경도 일대에서 행해지던 항일 전투는 1905년 초 여순이 함락되고 일본이 병력을 증파, ‘북한군(北韓軍)’을 편성한 뒤 두만강의 러시아 국경으로의 진격을 본격화하면서 열세에 빠진다.⁸⁴⁾ 이에 따라

김인수 등의 전쟁 기간 중 활약도 종적을 감추었다.

그러나 그는 전후에도 계속해서 항일 활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6년 8월경 블라디보스톡에 체류 중인 이용익(李容翊)과 연락을 유지하며 활동하다가,⁸⁵⁾ 1907년 11월 귀경 가산을 정리한 뒤⁸⁶⁾ 의병전쟁에 투신했다는 기사가 있다.⁸⁷⁾ 또한 병합 당시 송왕령(宋王嶺)에 체류하다가,⁸⁸⁾ 1919년 4월경에는 하바로브스크 근교에 거주하면서 최재형(崔才亨)과 함께 항일 독립군 조직에 힘쓰고 있었다.⁸⁹⁾ 그리고 같은 해 노령 적위군 내의 러시아 소장으로 조선인 부대 사령관을 맡고 있다는 기록도 있다.⁹⁰⁾

그가 최재형과 활동하게 된 것은 당시 연해주 일대에서의 최재형의 입지를 보았을 때 일면 필연적인 점이 있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듬해인 1920년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과 함께 연해주 일대의 항일운동이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최재형도 곧 사망하게 됨으로써 김인수의 행적 또한 묘연해진다. 그의 나이도 40대 중반을 훌쩍 넘겼을 터이다.

79) 심현용에 따르면 김인수는 대한제국군의 부령으로 1904년 2월 일본군의 서울 점령을 피해 러시아로 건너간 뒤 러시아를 위한 정보 수집과 빨치산 활동에 참여했다고 한다(심현용, 앞의 논문, 27쪽). 그가 면직 전에 이미 러시아로 망명했음을 말해준다. 다만 그는 망명할 당시 부령이 아닌 참령이었다.

80) 「김씨통변」, 『대한매일신보』, 1904년 8월 11일.

81) 「함흥로병」·「김최향도」, 『대한매일신보』, 1904년 8월 31일.

82) 「아병동정」, 『대한매일신보』, 1904년 10월 3일.

83) 「령솔한민」, 『대한매일신보』, 1904년 10월 12일. 심현용의 글에는 3,000명으로 구성된 러시아 기병대를 통솔했다는 자료가 소개되었다(심현용, 앞의 논문, 26~27쪽). 그러나 당시 김인수의 존재가 러시아 측에서 볼 때 중요했다고 하더라도 3,000명이나 되는 러시아 기병대의 대장이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향도, 즉 인솔자 역할이 잘못 기술된 것이 아닌가 한다.

84) 북한군의 편성과 함경도 일대에서의 전투에 관해서는 谷壽夫, 『機密日露戰史』, 1966년, 561~571쪽을 참조할 수 있다.

85) 「블라디보스톡 在留 李容翊의 動靜에 관한 건」, 『日本の 韓國侵略史料叢書』 1권.

86) 「김씨거취」,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6일.

87) 「의장집곡」,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17일.

88) 「伊藤公加害被告事件搜查報告書進達ノ件(1910.1.6)」,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 XV, 국가보훈처, 400쪽.

89) 「獨立運動에 관한 건: 露領, 圖們江方面, 鴨綠江方面(1919.4.4)」,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7)』, 국가보훈처 소장자료.

90) 「최재형의 아들 페토르 崔」, 『독립운동사자료집』 10, 374쪽.

(3) 일본 육사 출신 무관들의 전쟁동원과 그 성격

지금까지 대한제국 무관들의 러일전쟁 참여를 중심으로 그 전후 행적을 살펴보았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 필자는 이들의 참전을 동원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했다. 이들 중에는 대한제국 군인이 아닌 침략국의 일원으로 참전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 자신만의 의지가 아닌 국내외 정세에 의해 불가피한 면이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음으로는 대한제국 무관들의 전쟁 참여에 대해서 일본 육사 출신 장교들을 대상으로 그 성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일본 육사에서 교육받았던 자들 중 이희두와 조성근·김성은·노백린·어담 등은 접대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희두와 조성근은 특별과정으로, 그리고 김성은·노백린·어담은 육사 11기생들과 함께 교육받았다. 접대위원 전체로 보면 육사 출신자들의 비중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당시 육사 출신의 대부분이 참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접대위원에 임명된 장교들은 일본 육사 8기와 11기를 졸업한 자들이다. 8기생은 11명, 11기생은 21명이다. 그리고 8기생 중 개전 시 군직에 있었던 자는 성창기, 권태한, 왕유식, 김상열, 조성근, 이희두 등 6명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⁹¹⁾ 다만 이들은 당시 연령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모두 정위나 참령급으로 접대위원으로 임명되기에는 다소 계급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11기생들은 개전 당시 크게 두 가지 상황에 처해 있었다. 첫 번째는 육사에서 수학 한 후 일찍 귀국한 경우로 노백린·어담·임재덕

·윤치성·김성은·김규복 등 6명이 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혁명일심회(革命一心會)’ 사건에 연루된 15명이 있다. 우선 일찍 귀국한 6명 중 일찍 병사한 김규복⁹²⁾을 제외하고 복무 중이던 5명 중 노백린과 어담·김성은은 접대위원으로, 윤치성은 일본 제8사단에 직접 종군하여 참전했다.⁹³⁾ 혁명일심회 관련자 중 김홍진·권호선·장호익·조택현은 사형에 처해졌고, 김교선·김형섭·방영주·김희선은 전쟁기간 중 유배형을 치르고 있었다. 이밖에 장인근·김홍남·김관현이 일본군 8사단에⁹⁴⁾ 권승록이 후비 제2사단에 종군해서 참전했다.⁹⁵⁾

더불어 개전 당시 15기생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견습사관으로 있던 박영철 등 5명은 모두 일본 현지에서 참전했다. 확인되지 않는 몇몇을 제외하고 일본 육사 출신자 중 대부분이 접대위원 또는 일본군대에 직접 종군한 형태로 참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들의 참전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첫째, 접대위원 등으로 참전한 무관들은 비록 대한제국 정부의 명령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순전히 일본의 무단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둘째, 육사 11기생들과 15기생들의 경우 본인들의 의지가 작용한 것은 사실이나, 11기생들의 경우 과거의 혁명 기도 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이 강요된 측면이 크고, 15기생들의 경우에도 전쟁이 심화되면서 참전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들의 자발성을 부인

92) 이기동, 앞의 책, 61쪽.

93) 「明治37・8年戰役 韓國人勳績明細書」, 『敍勳』 卷4 外國人2, 1908년. 임재덕의 개전 당시 행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94) 「明治37・8年戰役 韓國人勳績明細書」, 『敍勳』 卷4 外國人2, 1908년.

95) 「韓國人勳績明細書」, 『敍勳』 卷7 外國人5止, 1908년. 이기옥, 강용희, 김상설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91) 박의병·최병태·장명근은 재학 중 중퇴했고, 이대규는 행적이 불분명하다. 다른 사람들의 행적은 『大韓帝國官員履歷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할 수는 없다.

셋째, 러일 어느 쪽이든 이들의 참전 배경에는 원치 않는 전화에 휘싸인 조국의 불합리한 현실이 있었다는 점이다.

접대위원들이 복귀한 뒤 일본군 병참사령관 立永勝三郎은 대한제국 육군부령 이회두를 비롯한 일본군접대위원 16명의 포상을 한국 외무대신 이하영에게 건의했다.⁹⁶⁾ 그런데 정부는 ‘다수 인원을 一例로 서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⁹⁷⁾ 비록 접대위원들을 정부가 임명했지만 강제로 동원되어 우리와 하등 관련이 없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들을 정부차원에서 포상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 진짜 이유였을 것이다.

4. 맺음말

한국정부는 한일밀약의 거부와 중립화라는 두 가지 방편을 통해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일본은 정부의 중립화 시도를 끊임없이 방해했으며 더불어 끈질기게 한일밀약의 체결을 추진했다. 결국 러일 양국의 개전 직후 중립화 시도는 무효가 되었으며 한일의정서가 공수동맹의 형태로 체결되었다. 한일의정서 체결이후 일본은 군용지 명목으로 막대한 토지를 수탈하고, 통신망 확충을 위해 전국 각지의 전신선을 장악했으며, 군수품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철도 부설, 그리고 직접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한국의 무관들을 동원했다.

96) 「일본군접대위원에 대한 감사문」, 규23138(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자료).

97) 「內閣及表勳院說明書」, 규18041(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자료).

한국 무관들은 청일전쟁 이후부터 러일전쟁에 이르는 10여 년간 한국의 주도권을 다투는 러시아·일본 두 열강으로 인해 서로 다른 성향을 견지하는 집단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러일전쟁 당시 서로 다른 교전국 군대에 동원되어 갈등을 겪는 결과를 낳았다.

친러계 무관들은 아관파천 이후 진행된 정부의 러시아 군사교관단 초빙으로부터 그 연원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러시아식 군사교육을 통해 러시아에 우호적인 성향을 지니게 됐으며 이후 뿌짜파에 의해 설치된 시위대에 주로 배속되었다. 시위대 장교 중 많은 수가 함경도 출신이거나 러시아식 군사교육을 받았고, 더불어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점은 이 부대의 성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일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원하지 않았고 실제 한국 정부도 필요한 만큼의 군대를 양성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았다. 결국 군사교관단의 파견은 중지되었고 더 이상 친러계 무관들은 양성되지 않았다. 반면에 일본은 을미사변 이후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도 한국 무관들을 자국의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시켰고 이는 지속적인 친일계 무관 양성이라는 점에서 실효를 거두었다.

러일전쟁이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되고 이틀 만에 서울이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하자 한국 정부는 그 동안 힘써왔던 중립화 시도와 한일밀약의 거부를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공수동맹 성격의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했으며, 군용 교통·통신망 보호 명목으로 요충지에 군율을 실시하고, 서울을 비롯한 근교에는 군사경찰제를, 함경도 일대에는 군정을 실시했다. 한반도 전역이 실질적인 일본의 군사 점령 하에 들어갔던 것이다.

개전과 함께 무관들의 행적은 육사 출신자를 주로 하는 친일계 무관들과 김인수 등을 대표로 하는 친러계 무관들로 나뉘었다. 전자가 정부의 명령에 의해 일본군대접대위원이나 일본국 진북군대접응관, 그리고 일본군 사단에 배속되어 참전한 데 반해, 김인수는 개전 직후 러시아로 망명하여 러시아군의 일원으로 한국 북부의 함경도 일대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치렀다.

그러나 러일전쟁 당시 일본 측에 참전한 무관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친일적 성향을 견지했던 것은 아니다. 역시 러시아 군사교관단에 의해 양성된 시위대 장교들도 친러적 성향에만 경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청일전쟁으로부터 러일전쟁에 이르는 10여 년간 우리가 겪었던 혼란과 어지러운 국제 정세만큼이나 한국 무관들의 이합집산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결국 전쟁에서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참전했지만 그 본질은 제국주의 열강 간의 침략전쟁에 피침략국의 일원으로 동원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태평양전쟁기 일본군 제10방면군의 편성과 한국인 군사동원

황 선 익*

- 1. 머리말
- 2. 대만방위전략의 강화와 제10방면군의 편성
- 3. 관동군·‘조선군’의 이동과 대만 주둔
- 4. 한국인 군사동원의 실상과 희생
- 5. 맺음말

1. 머리말

청일전쟁 후 일본의 식민지가 된 대만은 50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남진거점으로서 일본군의 중국 침략, 동남아·태평양지역 침략의 전략적 거점이 되었다. 대만지역은 일본군의 병참기지가 되었으며,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일본 본토 방위의 최전방으로서 중요시되었다.

* 국민대학교 강사

대만은 중국 남부 및 동남아시아, 남부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필리핀과 홍콩이 1천km 이내에 있어 일본 본토, 오키나와를 잇는 요지에 위치했다. 때문에 일제의 침략전선이 서쪽으로 미얀마·태국·인도, 남쪽으로 수마트라·자바·뉴기니아, 동쪽으로 하와이·미드웨이로 확장되면서 대만은 일본군의 군수기지이자 ‘南方軍’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였다. 1944년 이후 일본군이 연합군에 절대적 열세로 물리게 되면서 대만의 전략적 위치는 다시 부상하게 됐다. 즉 이때까지 대만지역은 일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담당했지만, 동·남쪽에서 연합군이 밀려오면서 필리핀과 함께 일본 본토를 방어하는 최전선으로 부각되었다.

일본군 제10방면군은 1944년 9월 미군의 대규모 공격이 전망되는 가운데 본토방위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편성되었다. 제10방면군은 대만을 기점으로 오키나와에 주둔한 제32군을 포함하고 있었다.¹⁾ 제10방면군의 가장 큰 특징은 대만 주둔 일본군보다는 만주, 조선 등에서 차출된 각 부대들을 근간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대만방위를 담당하던 대만혼성여단이 제48사단으로 재편되어 중국 대륙, 필리핀 등지로 파병되면서 중국 동북지역에 주둔하던 제9·12·71사단이 대만으로 이동해왔고, 필리핀 및 뉴기니아로 이동하던 제19·20사단 등의 일부 병력이 대만에 잔류하여 독립혼성여단으로 편

1) 제32군은 대본영 직속으로 발족하였으나 1944년 5월 5일 방위총사령부(사령관 東久邇宮稔彦) 서부군 예하로 들어왔다가, 1944년 7월 11일 대만, 상해, 난세이(南西)제도 삼각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대만군사령관 예하 제10방면군으로 편입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작전에서 대만군의 직접적인 지휘보다는 대본영과 관련이 깊었다(강정숙, 「일제 말기 오키나와 다이토(大東)제도의 조선인 군 ‘위안부’들」,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0, 2004. 9, 263쪽). 게다가 1945년 4월부터 오키나와에 미군이 상륙하면서 10방면군과 32군의 연락체계 또한 끊어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제10방면군의 주요 주둔지인 대만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성되었다. 이와 함께 대만에서 제50사단, 제66사단 및 각 독립혼성 부대가 편성되면서 종전 무렵 대만에는 약 30만명의 병력이 주둔하게 되었다.²⁾ 이렇듯 관동군 및 조선군의 병력이 대만으로 이동해오면서 이에 속해 있던 한인들도 대만으로 이동해왔지만, 그 규모와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본 논문에서는 태평양전쟁기 대만의 전략적 위상 변화와 부대 배치 등을 밝히기 위해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第十方面軍作戰記錄』³⁾ 등의 종전 전후 작전일지류와 각종 부대사, 한국인·일본인 병사의 수기를 활용하였다.

또한 국내에 생존한 대만지역 지원병·학도병·징병자에 대한 구술자료를 채록, 참고하였다. 일본군 출신 생존자들은 이제 대부분 80대 중반이 되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본군 시절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같은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어도 소속부대에 대한 명칭 등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전쟁말기 일본군이 통칭, 약칭번호, 지역별 연번 등 여러 가지 부대명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생존자들의 구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의

편제변화와 부대이동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일본 第一復員局, 防衛研修所 등이 작성한 각종 부대편람과 ‘전투서열’을 참고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⁴⁾ 그리고 해방 직후 일본군 각급부대장이 작성한 부대명부를 바탕으로 편철된 ‘留守名簿’ 등을 참고했다. 40~50만명 이상의 한국인 군사동원의 실상을 살펴볼 수 있음에도 이러한 ‘일제 강제연행자명부’는 여러 가지 한계로 연구에 활용되지 못했다. 해당 명부들의 활용을 제약하는 원인은 우선 명부상의 나타나는 각급 부대들의 소속과 배치, 성격 등에 대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사단 규모로, 혹은 중대급으로 구분된 명부상의 제부대 편제를 먼저 이해해야만 명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태평양전쟁동안 일본군은 무수한 편제의 변화를 겪었다. 전선이 변화하면서 각급 부대가 증강, 소멸해 가는 중에 각 부대들의 소속과 배치가 변하였다.

일반적으로 태평양전쟁은 일본과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간의 전면전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은 일본의 식민지, 반식민지 하에 있던 수많은 국가와 민족을 전선으로 끌어들였으며, 때문에 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의 국가와 민족이 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자국의 영토가 戰場이 된 만큼 여타 국가들에 비해 태평양전쟁에 대한

2) 引揚援護廳, 『引揚援護の記録』 資料編, 1950. 한편 해방 직후 작성된 「臺灣の現況」(外務省管理局總務部南方課, 1945.2.10)에서는 ‘육군 200,000명, 해군 37,500명, 총계 400,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료에 따라 20만~30만명으로 병력을 추산하고 있는데 이처럼 크게 오차를 보이는 것은 종전 직후 대만으로 복귀된 부대들의 정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는 ‘沖繩—臺灣’문서군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 문서군에 오키나와 및 대만 관련 자료들이 분류되어 있는데, ‘臺灣’ 관련 자료는 67건이 있다(2007년 10월 현재). 그러나 일반적으로 검색되지 않는 자료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인다. 『第十方面軍作戰記錄』 또한 그런 경우였다. 자료를 제공해 준 방위연구소 山村 建, 浜田 秀 연구원에게 감사드린다.

4) 일본군 각 부대정보에 관해서는 다음이 참고된다. 大内 那翁逸 編, 『舊帝國陸軍部隊一覽表』, 埼玉: 大内出版, 2002; 大内 那翁逸・津野田 喜長 共編, 『舊帝國陸軍編制便覽 第一卷』, 埼玉: 大内出版, 2003; 大内 那翁逸・津野田 喜長 共編, 『舊帝國陸軍編制便覽 第二卷』, 埼玉: 大内出版, 2004; 『帝國陸軍編制總覽』, 東京: 芙蓉書房, 1987; 秦旭彦 編, 『日本陸海軍總合事典』,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1. 부대서열에 관해서는 厚生省 援護局, 『南方・臺灣方面陸上部隊略歷 第一回追録』, 1962. 3; 厚生省 援護局, 『臺灣方面部隊略歷』, 1961. 12; 『ソロモン・ニューギニア・比島・臺灣 方面部隊略歷(司令部)』, 靖國神社 偕行文庫 所藏 396.1코 등이다.

관심과 연구가 활발한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태평양전쟁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몇몇 연구를 통해 태평양전쟁기 한국인의 군사동원 문제 등이 다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매우 척박한 실정이다.⁵⁾

태평양전쟁과 한국인과의 밀접한 관계는 제10방면군의 편성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전쟁 말기 대만전선에 배치되거나, 사망한 한국인은 2천~3천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⁶⁾ 그럼에도 이들이 어떻게, 얼마나 대만전선에 배치됐으며, 어떤 작전을 수행했는지 등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물론 이것이 대만전선에 국한된 것만도 아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태평양전쟁기 대만의 전략적 위상 변화와 일본군의 재편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의 작전변화에 따른 편제변화와 그에 따른 부대 이동 등을 자료별로 고증하면서 한국인 군사동원 추이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유수명부 외에 ‘피징용사망자명부’ 등을 통해 대만지역 한국인 군인·군속의 희생배경과 실상을 구명하도록 할 것이다.

5) 강정숙, 위의 글; 황선익, 「일제강점기 대만지역 한인사회와 강제연행」,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4집, 2005; 김도형, 「태평양전쟁기 격전지와 조선인 희생자에 관한 연구-뉴기니아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6. 12; 신주백, 「한국근현대사와 오키나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0, 2007. 3; 김도형, 「태평양전쟁기 격전지와 조선인 희생자에 관한 연구-필리핀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7. 10.

6) 황선익, 위의 글 참조.

2. 대만방위전략의 강화와 제10방면군의 편성

(1) 일본군의 대만주둔과 ‘대만군’의 역할

청일전쟁에서 패한 청조는 1895년 일본과 시모노세키(下關)조약을 맺으며 대만 및 펑호열도를 일본에 할양했다. 그러나 청일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은 한편으로 또다른 무력충돌을 빚게 했다. 대만의 일본 할양 소식이 들려오자, 대만 내에서는 중국계 대만인들에 의한 대만 민주국이 성립되며 각지에서 대규모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대만에 군대를 파병하여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이로써 일본군의 대만 주둔이 시작되었다.⁷⁾

항일세력의 진압을 위해 파병한 대만 주둔 일본군은 2개 사단 규모였다. 군인 5만명, 군부 2만 6천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일본군은 일년 만에 항일세력을 강력하게 진압한 뒤, 1896년 3개 혼성여단 규모로 축소하였다.⁸⁾ 1898년에는 대만수비혼성여단을 구성하던 6개 연대를 폐지하고 제7여단을 철수했다. 그리고 대만 주둔군 편제를

7) 大江志乃夫는 이를 ‘대만식민지정복전쟁’으로 규정했으며, 일본의 대만 항일세력 탄압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했다. 제1기 1896년 5월 영토를 군사적으로 제압할 때까지, 제2기 군사적 제압하에 무장봉기에 의한 중국계 평지주민의 게릴라적 저항을 이어가던 1902년까지, 제3기 산지계 원주민에 대한 군과 경찰의 포위망이 축소된 1915년까지이다(大江志乃夫, 「植民地領有と軍部-とくに臺灣植民地征服戦争の位置づけるめぐって-」, 『歴史學研究』 480, 1978).

8) 이때 대만 주둔 일본군은 대만지역을 북·중·남부로 크게 삼분한 3개의 대만수비여단(臺北-대만수비보병 제1·2연대(東京·仙臺 편성) 및 기병·포병·공병 1개 중대, 臺中-대만수비보병 제3·4연대(名古屋·大阪 편성) 및 기병·포병·공병 1개 중대, 臺南-대만수비보병 제5·6연대(廣島·熊本 편성) 및 기병·포병·공병 1개 중대) 및 제7여단(宜蘭 주둔, 大阪 편성)과 要港포병 2개 대대(基隆·馬公)로 구성되었다.

3, 4개 대대를 기간으로 하는 제1·2·3혼성여단과 要港中砲 2개 대대로 개편하였다. 이후 대만 주둔 일본군은 1907년 11월 대만제1수비사령부(臺北), 대만제2수비사령부(臺南), 要港中砲 2개 부대(基隆・馬公)로 재편되었다. 이때의 부대 개편으로 대만 주둔군의 병력은 다소 축소되었지만, 대만제1·2수비대에 속한 대만보병제1·2연대는 일본 천황으로부터 군기를 부여받으며 정식 보병연대로 창설되었다.⁹⁾ 대만보병제1·2연대는 일본 본토 병력의 교체가 아닌 상주병력으로 구성되었다. 항일세력의 진압을 주목적으로 한 대만 주둔 일본군은 차츰 상주병력의 감축과 편제개편을 거치며 대만 내 치안유지와 대만 방위를 담당하는 것으로 성격이 바뀌어갔다.

대만 주둔 일본군에서 주목할 것은 초기 육해군에 대한 통수권이 대만총독에 있었던 점이다. 대만총독은 육군 중(대)장에서 親任되었으며, 정치적, 군사적 수장으로서 대만통치를 담당했다. 게다가 1896년 3월 반포된 「법률 제63호(약칭 六三法)」를 통해 대만총독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律令’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¹⁰⁾ 이로써 대만총독은 대만지역의 최고행정장관 겸 육·해군 통수권자로서 행정·입법·사법 및 군사권을 장악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었다.¹¹⁾

1910년대를 거치며 일본군은 식민지 지배를 위해 전면적으로 군사체제를 재편했다. 육군은 한반도 내 2개의 상주사단 신설을 계속적

으로 제기하였고, 일본 帝國議會는 1915년 6월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1918년 조선주차군사령부 대신 조선군사령부가 창설되었고, 그 예하에 제19사단과 제20사단이 신설되었다.¹²⁾ 그런 가운데 대만총독부의 지휘를 받던 대만 주둔 일본군은 ‘대만군’으로 재편되었다.¹³⁾ 대러시아작전의 수행을 위해 ‘조선군’이 강화된 것과 달리 대만군은 남사할린(樺太) 주둔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수비대로써 통상 독립의 방어에 임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¹⁴⁾

일본은 1919년 대만총독이 지닌 육해군 통수권을 새로 개설한 대만군사령관에게 이임했다.¹⁵⁾ 그리고 육군중(대)장만이 취임할 수 있었던 대만총독 자리에 문관이 임용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대만총독부육군부가 폐지되고 대만군사령부가 신설되었다. 초대 대만군사령관으로는 후일 7대 총독을 지내는 明石元二郎가 임명됐다. 대만군사령관은 육군 대·중장으로 임명했으며, 천황의 직접 휘하에

12) ‘조선군’의 상주화 과정에 대해서는 임종국,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I』, 서울: 일월서각, 1988; 채영국, 「3·1운동 전후 日帝 ‘朝鮮軍’의 동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집, 1992; 유한철, 「일제 ‘한국주차군’의 한국 침략과정과 조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집, 1992; 白奇寅, 「明治初 韓國侵略에 대한 日本軍部の 役割」, 『軍史』 第30號, 1995; 신주백, 「1910년대 日帝의 朝鮮統治와 朝鮮駐屯 日本軍- ‘朝鮮軍’과 憲兵警察制度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09, 2000 등이 참고된다.

13) 학계 일반에서 대만 주둔 일본군은 ‘대만군’으로 지칭되고 있다. ‘대만군’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일제강점기 대만본도 및 팽호열도에 주둔한 일본군을 뜻하며, 좁은 의미로서는 1919년 편성되어 1944년 9월 제10방면군으로 개편되기 전까지의 대만 주둔 일본군을 지칭한다. 그러나 ‘대만군’은 주체적으로는 대만인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군대이므로 어느 시기에 한정하더라도 대만 주둔 일본군이라 불러야 함당하다. 다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10방면군 이전 대만 주둔 일본군은 ‘대만군’으로 축약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4) 大江志乃夫, 위의 글, 21쪽.

15) 평시편성시 대만군 사령관은 대체로 중장이었다. 대만군사령관 19명 중 15명이 대만군사령관 임기 후 수년내에 대장이 되어 다시 요직에 오르는 등 대만군사령관은 주요 진급코스 중에 하나였다.

9) 古野直也, 『臺灣軍司令部 1895~1945』, 東京: 圖書刊行會, 1991, 138쪽.

10) 손준식, 「일본의 대만 식민지 지배」, 『아시아문화』 제18호, 2002, 13쪽(黃昭堂, 『臺灣總督府』, 臺北: 前衛出版社, 1994, 217~220쪽).

11) 대만 총독은 군정 및 육해군 군인 군속의 인사에 관해서는 육해군 대신, 방어 작전 및 동원 계획에 관해서는 참모총장 혹은 해군 군령부장의 구분 처리를 받았다. 총독부에는 총독관방, 육군 막료, 해군 막료, 민정국, 재정국이 설치되었다.

있었다. 대만군사령관은 대만에 있는 육군 제부대(헌병대를 제외한)를 통솔하며, 대만의 방위를 담당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군축 여론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군 또한 육군 감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1922년 야마나시(山梨半造) 군축이 행해졌고, 1925년 우가키(宇垣一成) 군축이 실시되었다. 계속된 군축으로 육군 4개 사단이 폐지되었지만, 이는 한편으로 군비의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군비의 근대화는 우선 항공력의 확장으로 나타났다.¹⁶⁾ 대만군 또한 일본군의 전체적 군축·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며, 1925년 5월 1일 2개였던 수비대사령부가 1개로 통일되는 한편 대만항공대(松山, 高雄, 屏東)가 편성되었다. 이후 대만군 내 항공대의 비중은 점점 높아졌으며, 지상군의 주요 임무에는 항공기지 및 항공대 수비가 추가되었다.¹⁷⁾

1930년대 들어 일본군의 대륙침략이 표면화되는 가운데 대만군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전까지 대만군은 대체로 전력을 유지하며 대만을 북·중·남부로 나누어 대만방위를 담당했다. 대북지역을 담당한 대만보병1연대는 宜蘭에 1개 중대, 蘇澳에 1개 소대, 臺中에 1개 대대를 분견했다. 대남지역을 담당한 대만보병2연대는 臺東에 1개 중대, 玉里에 1개 소대, 花蓮에 약 1개 대대를 분견했다. 대만군의 배치는 대체로 1937년 9월까지 이를 유지했다.¹⁸⁾

1936년 9월 해군대장 출신인 고바야시 세이조(少林躋造)가 대만총독에 임명되었다. 고바야시 총독은 취임 후 ‘황민화·공업화·남진

기지화’의 3대 시정방침을 표방하였다.¹⁹⁾ 중국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대만은 대중국침략의 교두보로써 주목되기 시작했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은 1937년 9월 7일 台灣守備隊 근간인 重藤支隊(重藤千秋, 1937. 8. 2 취임)를 중국 대륙에 투입했다. 상해파견군의 예하로 들어간 重藤支隊는 이후 上海, 南京 침략에 참가했다. 1937년 9월 12일에는 대만군 4천 3백명, 13일 1천 2백명이 기류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즈음 重藤支隊가 대수송부대를 편성하기 위해 대만인 850명을 징용했다.²⁰⁾ 重藤支隊는 1938년 2월 22일 中支那派遣軍에 전속되었다. 그리고 수비대사령관이 重藤少將에서 波田少將(波田重一, 1938. 3. 1 취임)으로 바뀌고 波田支隊로 명칭이 바뀌면서 중국 중부에서 계속 활동했다. 이후 중국 파병 대만군은 台灣混成旅團으로 개칭되었다. 대만군은 육군중장 안토(安藤利吉)을 사령관으로 하는 제21군의 지휘 하에 편입되었다.

1938년 12월 23일 일본 각의는 해남도 남쪽, 필리핀의 팔라완섬 서쪽에 있는 新南群島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2월 28일 천황이 이를 승인했다. 일본군의 해남도 및 동남아방면 침략이 예견되는 가운데 1939년 2월 10일 일본 육해군이 대만으로부터 출격하여 해남도 침략을 개시했다. 해남도 점령의 주목적은 남방 침략의 군사기지의 확보와 자원약탈이었다.²¹⁾ 대만혼성여단은 동년 11월에 운남, 광둥 및 윈장루트 공격에 출동하기 위해 광둥성 欽縣에 상륙했다.²²⁾ 1940년 11월 대만혼성여단은 보병제48여단으로

16) 요시다 유타카, 최혜주 역, 『일본의 군대』, 서울: 논형, 2005, 140~141쪽.

17) 대만항공대는 1927년 비행제8연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제8비행사단이 되어 대만, 오키나와 규슈를 잇는 항공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8) 古野直也, 위의 책, 140쪽.

19) 손준식, 위의 글, 21쪽.

20) 近藤正己, 『總力戰と臺灣』, 東京: 刀水書房, 1998, 351쪽.

21) 佐藤正人, 「국민국가 일본의 영토와 주변」,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328쪽.

22) 末光欣也, 『日本統治時代の臺灣』, 臺北: 致良出版社, 2004, 86~87쪽.

개편되어 필리핀, 자바, 티몰 등지로 파병되며 ‘外征軍’이 되었다.

1940년 들어 대만은 전진기지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940년 11월 중반 육군부는 남방작전 발동에 따른 대만의 전력적 중요성에 관하여 향후 시책의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기지준비를 추진하기 위해 대만과견반을 파견했다. 12월 6일 대만과견반원 瀨島龍三 대위가 참모본부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대만은 남방작전 전반의 기지로서 특히 필리핀전의 기지로서 중대한 가치가 있으며, 대필리핀, 대네덜란드 관계에 있어서 선박기지 뿐 아니라 병참기지, 정보기지, 통신중계지로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만 내 중요항구인 기륭, 고웅에 약 50만톤의 급수, 급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히 고웅의 급수, 급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립공병 제28연대(선박공병)을 편성하여 대남 부근으로 이동시켜 작업을 완수시키도록 계획했다. 이와 함께 동경과 자바간의 통신연락을 위해 대만 내 무선통신 시설을 증강시키고, 정보기관을 확충하고자 했다.²³⁾ 이에 따라 1940년 12월 중순 대만군사령부 내에 대만군연구부가 창설됐다. 대만군연구부는 각 병종부대의 남방작전시 전투법 및 진중업무, 남방 각국에 대한 정보 및 지리조사, 남방작전에 따른 병기·경리·급양·위생·방역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였다.²⁴⁾

1940년 11월 30일 태평양전쟁 직전 대만을 근거지로 하는 제48사단이 창설됐다. 제48사단은 대만보병제1·2연대와 제6사단에서 분리된 보병제47연대(熊本 大分)를 기반으로 편성되었다. 제48사단은 대만에 보충대를 두고 태평양전쟁 최전선에 투입되었다. 1941년 12월 22일 린가엔灣(루손섬 서부)에 상륙한 48사단은 마닐라, 바탕섬 등

지에서의 필리핀 전투와 자바, 발리 섬 등지에서의 인도네시아 전투 등을 수행했다.²⁵⁾ 제48사단을 포함한 제14군의 태평양전선 투입에 대만은 교두보 역할을 담당했다.²⁶⁾

(2) 대만의 전략적 부상과 제10방면군의 편성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한 일본군의 전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이후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의 반격이 거세져갔다. 1943년 마킨·타라와, 1944년 2월 과잘레인·트럭, 3월 팔라우 등을 탈환한 연합국은 동에서 서으로 해군병력이, 남에서 북으로 육군병력이 중심이 되어 진군하였다. 그런 가운데 대만지역 또한 미군의 공습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1943년 11월 25일 중국대륙으로부터 날아온 미공군기가 신죽항공기지를 공격했다. 이미 재중국 미공군이 遂川부근의 비행장 정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징후를 감지한 일본군으로서는 대만이 실제 폭격권에 들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다.²⁷⁾

대만 방면으로의 위협이 거세져 감에도 불구하고 이 무렵 대만 및 남서제도(오키나와 열도 등)에는 요새부대 외에 방비병력이 거의 없었다. 대만에는 대만군 사령부에 제48사단의 각 보충대 및 기륭, 팽호도, 고웅의 각 요새 및 약간의 요지 방공부대가 있었을 뿐이었고, 남서제도에는 서부군의 관할로 奄美大島, 中城灣, 船浮의 각 요새 부대가 소재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후, 1944년 1월 5일 각 요새

23) 防衛廳防衛研修所 戰史室, 『大本營陸軍部 <2>』, <戰史叢書>, 東京: 朝雲新聞社, 1968, 147쪽.

24) 防衛廳防衛研修所 戰史室, 『大本營陸軍部 <2>』, 148~49쪽.

25) 新人物往來社 戰史室, 『日本陸軍歩兵連隊』, 東京: 新人物往來社, 1990, 315쪽. 제48사단은 각 격전지를 옮겨 다니면서도 南方總軍의 비장병력으로써 온존한 채 티모르섬에서 패전을 맞았다.

26) 존 키건 지, 류한수 역, 『제2차 세계대전사』, 서울: 청어람미디어, 2007, 399쪽.

27) 末光欣也, 위의 책, 359쪽.

및 대만군 예하에 특설 경비대(중)대가 설치되었으며, 해군에는 대만의 고웅경비부, 마공방면 특별근거지대 및 제14연합항공대 중의 고웅, 신죽, 대만 각 항공대가 소재하게 되었다.²⁸⁾

대본영은 대만 방면 항공부대에게 이제까지 맡고 있던 ‘적의 제국 본토에 대한 공습 방지 및 해상 교통 보호를 위해 중국과건군사령관에게 협력하고 동남중국에 대한 작전 실시’ 임무를 해제하고 대만 방위에 전념토록 했다.²⁹⁾ 1944년 3월 22일에는 대만군의 전투 서열을 명하여 대만군을 작전군으로 개편하고 예전의 대본영 직속인 제32군을 신설하여 남서제도의 방위를 강화하는 한편 대만군과 32군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해갔다.³⁰⁾ 그리고 태평양방면을 잇는 요충지로서 대만을 새삼 주목하고, 이를 구체화할 10호작전을 수립했다.

대본영은 10호작전을 통해 “종래 무방비에 처해있던, 대만, 남서제도에 ‘皇土’방위와 전쟁수행상 절대 중요시 되어야 할 남방과 본토간의 교통확보”³¹⁾를 꾀하기 위해 태평양-대만-남서제도의 연락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한 것이다.³²⁾ 이를 위해 대본영은 대만과 남서제도, 태평양방면으로의 교통로 확보를 위한 항공작전을 준비하고,

28) 防衛廳防衛研究所 戰史室, 『大本營陸軍部 <8>』, <戰史叢書>, 東京: 朝雲新聞社, 1974, 139~140쪽.

29) 防衛廳防衛研究所 戰史室, 『大本營陸軍部 <9>』, <戰史叢書>, 東京: 朝雲新聞社, 1975, 114쪽.

30) 防衛廳防衛研究所 戰史室, 『大本營陸軍部 <8>』, 254쪽.

31) 第一復員局, 『第十方面軍作戰記錄(臺灣及南西諸島)』, 1946. 8, 15쪽.

32) 10호작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침이 세워졌다. ① 대만군 및 제32군은 남쪽의 황토방위 및 남방권과의 교통확보 등을 위해 해군과 협정하여 대만방면에서 남서제도방면까지 작전준비를 강화하고 먼저 적의 기습에 대비하고, 정세의 전환에 따라 적의 공략기도를 격퇴할 태세를 갖추는 것. ② 본 작전 준비는 항공작전준비를 최중점으로 하여 다른 사항은 이에 종속된다. ③ 본 작전 준비 중 적의 기습대응의 처치는 속히 이를 정비하여 전반적 작전준비는 1944년 7월을 목표로 한다(防衛廳防衛研究所 戰史室, 『大本營陸軍部 <8>』, 257~264쪽).

항공기지를 조성, 엄호하기 위한 지상부대의 증파를 계획하였다. 지상부대는 항공기지뿐 아니라 함선정박지에 대한 엄호를 담당하게 되었다.

대본영은 우선 4월 중순 기류, 고웅 두 항구를 정비하고, 다음과 같이 대만 및 남서제도 방면에 지상병력을 편성하기로 했다.

－ 대만지역

- 5월 3일: 종래의 48사단 보충대를 기간으로 제50사단을 창설한다. 제50사단은 대만에 사령부를 두고, 대북주를 포함한 대만 서해안의 방위를 책임진다. 독립혼성 제46여단은 화련에 사령부를 두고 화련항청과 대동청의 방위를 책임진다. 이와 함께 제50사단은 宜蘭・淡水・臺南・鳳山・枋寮・恒春 부근 해안, 독립혼성 제46여단은 花蓮, 臺東 부근 해안에 있는 비행장 시설을 축성 작업도록 한다. 독립보병 제302대대는 바탕섬, 화련항 및 대동육군병원을 책임진다.

- 5월 20일: 대만군 통신대

－ 남서제도

- 6월 하순: 제9, 24, 62사단(沖繩), 제28사단(宮古島)
- 6월 26일: 제68여단(신죽 부근 등)
- 7월 11일: 제32군은 대만군 예하로 들어가고 대만군 및 제3군 사령군을 강화한다.³³⁾

대본영은 위와 같이 대만 및 남서제도의 방비를 보강하기로 하고, 7월 22일 독립혼성 제46여단을 기간으로 제66사단을 임시 편성하도록 발령했다.

한편 대본영은 남서방면에서 이어지는 연합군의 공격에 따라 대

33) 第一復員局, 『第十方面軍作戰記錄(臺灣及南西諸島)』, 1946. 8, 20쪽.

소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1943년부터 관동군 병력의 절반가량을 남방전선으로 차출하는 가운데 관동군 예하 10사단이 대만으로, 9·24·28사단 등이 오키나와 및 남서제도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국(주로 관동군)에서 제68여단, 독립속사포대대, 독립야포병대대, 독립유선중대, 전차 제25연대 등의 부대들까지 이 지역으로 轉用되었다.³⁴⁾ 결국 관동군의 1/4에 달하는 병력이 대만 및 남서제도 방면으로 이동되면서 관동군의 전력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관동군의 대소전략은 지구전체제로 전환되게 되었다.³⁵⁾

일본군은 1944년 6월 마리아나(Mariana) 제도에서 패전하면서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되었다. 마리아나에 설치된 미군의 항공 기지는 대만 지역은 물론 일본 본토까지 직접 공습권에 두고 있었다. 일본 대본영 측은 1944년 7월 28일 ‘육해군의 향후 작전지도 대강’을 수립하며 최후결전을 준비하며 ‘捷号’작전을 하령했다. 첩호작전은 제1호 필리핀, 제2호 대만 및 남서제도, 제3호 일본 본토, 제4호 쿠릴열도 및 北海道에서의 최후결전을 대비하는 것이었다.

이때 대본영은 연합군의 공세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었다.

- (1) 적은 서부 필리핀 또는 오키나와를 직접 공격할 공산이 크고, 중국군(미군)과 제휴하여 중국 본토의 항공기지를 설정하려고 할 것이고, 먼저 대만에 진공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34) 防衛廳防衛研修所 戰史室, 『大本營陸軍部 <9>』, 1975, 29쪽.

35) 1943년 10월 치지하열에 있던 제2방면군 사령부 등이 차출된 후, 1944년 8월까지 남방으로 동원된 관동군 병력은 9개 사단에 달했다(1944년 2월 27·14·29사단, 1944년 6월 9·28사단, 1944년 7월 1·8·10·24사단 등) 관특연으로 70만까지 팽창했던 관동군 병력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대소련 전략은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임종국, 위의 책, 115쪽.

- (2) 적의 대만 進攻은 일부 병력이 화련항, 대동, 향춘 지구내에 비행장 일부를 공격하고 함께 주력을 남부대만에 진공시킬 것인데, 屏東 부근 飛行場群을 영유하고자 기도할 것이다.
(3) 대만진공 시기는 9월 중순 이전에는 곤란할 것이다.³⁶⁾

이에 따르면 대본영 측은 비로소 연합군이 대만으로의 상륙을 시도할 수 있으며, 대만에 상륙하게 된다면 해당지역은 대만의 동부 및 남부지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연합군의 상륙을 너무나 쉽게 허용한 일본군은 9월 이후로 예상되는 연합군의 대만 상륙을 대비하며 본격적으로 대만군의 편제개편과 지상부대 배치를 준비하였다.³⁷⁾

1944년 9월 22일 대본영은 대만군을 제10방면군으로 재편하였다. 군사령관에는 육군대장 安藤利吉이 취임하였다. 제10방면군은 대만군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지만, 이전 대만군과는 전혀 다른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제10방면군은 대만 및 오키나와 방위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상호연계가 중시되었지만 대본영과의 관계, 연합군의 오키나와 상륙 등으로 현실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룰 수 없었다.³⁸⁾

36) 第一復員局, 『第十方面軍作戰記錄(臺灣及南西諸島)』, 1946. 8, 39쪽.

37) 대본영은 사이판에서의 패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에 대한 敗因을 ‘① 항공작전의 절대적 가치 ② 함포사격에 대한 재확인 ③ 전장기동교통의 곤란성 증가 ④ 화력장비의 절대적 현격 ⑤ 대전차 처리의 곤란’의 다섯 가지로 크게 분석했다(第一復員局, 『第十方面軍作戰記錄(臺灣及南西諸島)』, 1946. 8, 43~44쪽).

38) 제32군의 제10방면군 편입은 한편으로 효율상의 문제를 낳았다. 전황의 변화에 따라 둘은 지리적으로 연결되기 어려웠고, 병력관계에 있어서도 불균형적이었다. 대만군 사령부는 방면군적 기능을 유지하기에는 편제가 작고, 병력이 극히 적었던 반면 제32군은 병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편이었다. 때문에 32군이 10방면군으로 편입된 후에도 32군은 작전상 대본영과 직접 연락되는 경향이 이어

1944년 9월 제10방면군이 편성되어 대만을 중심으로 한 대만-남서제도방면의 군체제가 확립되었지만, 미군의 필리핀 공세가 이어지며 대만-남서제도 방면의 위협은 더욱 고조되었다. 게다가 오키나와 피습 상황의 보고를 받은 해군부와 연합함대는 미 고속항모 기동부대의 전력이 공격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10월 12일 새벽부터 대만 각지의 함선, 항공기지 등은 격심한 공격을 받았다. 대만을 공습한 연합군 항공기는 12일 약 1,300대, 13일 약 1,400대, 1일 약 550대의 규모로 종래에 볼 수 없었던 대규모 공습이었다. 대만지역에 대한 첫 전면적 공습이었기에 대만의 민심 또한 동요되어 혼란을 보였다.³⁹⁾ 연합함대 사령부는 ‘기지항공부대 첩 1호 및 첩 2호 발동’을 발령하고, 대만 각 기지로부터 항공부대를 발진시켰다. 당시 대본영 측은 이 작전을 통해 연합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큰 전과를 올렸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만해안(臺灣沖)항공전으로 명명된 이 전투는 대본영 측의 허위발표였음이 차후 밝혀졌으며,⁴⁰⁾ 오히려 미군은 대만, 필리핀 레이테만에서 양동작전을 펴며 필리핀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이제 대만은 연합군 상륙권의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었다.

1944년 10월 20일 연합군이 루손섬에 상륙하자, 대본영은 대만에 주둔하던 제10사단을 필리핀전선으로 이동시켰다.⁴¹⁾ 당시 대만 내에

서 최정예사단이던 10사단이 빠져나가면서 대만지역 일본군의 방위력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대본영은 대만지역 방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타 지역 주둔군을 이동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제일 먼저 고려된 것이 오키나와 주둔 병력이었다. 10방면군은 32군에 1개 사단의 차출을 지시하였다. 1개 사단의 선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11월 17일 대본영은 제9사단의 대만 전출을 명했다.⁴²⁾

오키나와 서남부에 주둔하고 있던 제9사단은 1944년 12월 28일 오키나와 나하항을 통해 차례로 대만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일부 상급 장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병은 필리핀 방면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⁴³⁾ 실제 병력은 基隆에 입항하여 1945년 元旦을 기쁨의 소학교에서 맞았다.⁴⁴⁾ 제9사단은 신죽주의 수비에 임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1945년 1월 5일 新竹에 사단사령부를 설치한 제9사단은 보병제7연대-신죽지구, 보병제19연대 竹南지구, 보병제35연대 신죽주 湖口지구 방위를 담당했다.⁴⁵⁾

1944년 12월 30일 제10방면군사령관 安藤利吉 대장이 대만총독에 임명됨으로써 대만은 군사령관과 총독이 이위일체 체제가 확립되었다.⁴⁶⁾ 한편 1945년 초 제10방면군은 지상사단 7개(9, 12, 50, 66, 24, 28, 62), 독립혼성여단 5개 및 비행사단 1개로 구성되게 되었다. 그

졌다(防衛廳防衛研修所 戰史室, 『大本營陸軍部 <9>』, 136쪽).

39) 防衛廳防衛研修所 戰史室, 『大本營陸軍部 <9>』, 311~314쪽.

40) 末光欣也, 앞의 책, 359~360쪽.

41) 제10사단 예하에는 보병제10·39·63연대 등이 있었다. 10사단은 일본군 내에서도 전투력이 높은 부대로 평가받으며, 1940년 이후 중국 三江省 佳木斯에서 대소방위를 담당하고 있었다. 1944년 7, 8월 대만으로 이동한 10사단 병력은 5개월간 대만 방위에 임하던 중, 1944년 12월 필리핀전선 투입을 하령받았다. 12월말 루손섬 린가엔만 산 페르난도항에 도착한 10사단은 이후 필리핀 전선에서 미군과 교전을 벌이다 종전을 맞았다(『ソロモン・ニューギニア・比島・臺灣 方

面部隊略歴(司令部)』, 靖國神社 偕行文庫 所藏, 396.1코; 新人物往來社 戰史室, 『日本陸軍歩兵連隊』, 東京: 新人物往來社, 1990, 227·243~245쪽).

42) 第九師團戰史編さん委員會, 『第九師團戰史』, 第10師團, 221~222쪽.

43) 9사단은 관동군에서도 주력군 중 하나였다. 1944년 7월부터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9사단의 대만 차출은 제32군의 방위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44) 第九師團戰史編さん委員會, 앞의 책, 223쪽.

45) 第九師團戰史編さん委員會, 앞의 책, 235쪽.

46) 防衛廳防衛研修所 戰史室, 『大本營陸軍部 <10>』, <戰史叢書>, 東京: 朝雲新聞社, 1975, 42~43쪽.

중 지상사단 3개(24, 48, 62)와 독립혼성여단 5개가 제32군 병력으로 남서제도에 배치되었고,⁴⁷⁾ 대만에는 제9, 50, 66사단이 배치되고 있었다.

3. 관동군·‘조선군’의 이동과 대만 주둔

(1) 제12·71사단의 대만 배치와 이동

1944년말 필리핀에서 대패하고 있던 일본군은 태평양에서의 제공권 및 제해권을 상실한 상태였다. 일본 본토는 물론 오키나와, 대만 어느 곳으로 연합군의 상륙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大本營은 미군의 진격로를 크게 ‘① 필리핀 → 동중국해, ② 중부태평양 →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 ③ 북동방면 → 북해도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향후 연합군의 진격 예상시기와 경로를 1~2월 오가사와라 제도, 2~3월 동남중국, 3~4월 대만 남서제도, 4~5월 상해’로 전망하고 있었다.⁴⁸⁾

오키나와 및 대만방면으로의 연합군 상륙이 예견되는 가운데大本營은 관동군 병력을 남하시켜 대만 방위의 임무를 부여했다.大本營은 12월 10일 군령육군 제159호를 통해 12사단의 재편 및 대만 이동을 통보했다.⁴⁹⁾ 본래 12사단은 대소전을 준비하던 부대로 중국 목단강성 동녕현에 주둔하고 있었다. 12월 20일 부대편성을 완료한

12사단은 12월말부터 동녕현을 출발하여 여순으로 이동했다.

제12사단은 24, 46, 48연대를 기간으로 하는 보병사단이었다. 부대의 전략이 對蘇전에서 對美전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병사들에 대한 기초훈련도 변경되었다. 징병1기로 성자구306부대(48연대)에 배치된 이규복은 星子溝에서 눈발을 행군하고 숙영하는 혹한기훈련을 받았다.⁵⁰⁾ 3개월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그는 여순, 대련으로 이동하였다. 여순에서는 50명이 탈 수 있는 소형선정을 이용하여 상륙하는 해안상륙훈련과 육박전훈련, 바다에 빠졌을 때의 대처요령⁵¹⁾ 등을 교육받았다.⁵²⁾

이때까지 일반 병사들은 자신들이 대만으로 이동하리라 생각치 못했다. 12월말이 되자 신체검사가 이루어지고, 병사들의 손발톱, 머리카락을 집으로 보내는 결사의식을 치른 후, 말 한마디 못하는 ‘병 어리면회’를 했다.⁵³⁾ 그런지 몇일 되지 않아 병사들에게 여름 군복이 지급되면서⁵⁴⁾ 병사들은 자신들이 ‘남방전선’으로 이동하리라 짐작하게 되었다.

1944년 12월말 성자구를 출발한 12사단은 여순, 경성을 거쳐 부산으로 이동했다. 이동 중 경성에서 설을 맞았고, 이때 병사들에게는 양갱과 생선통조림이 나눠지는 ‘설 대접’이 있기도 했다.⁵⁵⁾ 부산의

47) 防衛廳防衛研修所 戰史室, 『大本營陸軍部 <9>』, 3~4쪽.

48) 防衛廳防衛研修所 戰史室, 『大本營陸軍部 <10>』, 1975, 7쪽.

49) 厚生省 援護局, 『臺灣方面部隊略歴』, 1961. 12, 22~23쪽.

50) 이규복 구술, 황선의 채록, 경남 진주 자택, 2005년 3월 4일. 이규복은 1944년 9월 나남 입대영장을 받아 10월 2일 입대하였다. 1주일간 나남에서 대기한 그는 이후 동녕현 성자구제306부대로 자대배치되었다.

51) 주로 바다에 빠졌을 시 상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요령 등이었다. 대부분의 증언자들은 상어는 자신보다 신체가 긴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므로, 혼도시를 풀러 길게 늘이도록 상관으로부터 교육받았다고 한다.

52) 이규복 구술, 황선의 채록, 경남 진주 자택, 2007년 10월 12일.

53) 김만송 회고(강용권, 『강제 징병자와 종군위안부의 증언』, 서울: 해와달, 2000, 180쪽).

54) 이중호 회고(강용권, 위의 책, 85쪽).

여자고등학교 등지에서 10~14일간 대기한 후 1월 25일 부산을 출발한 48연대 병력은 일본 모지에 도착했다. 모지에서 선단을 정비한 병력은 다시 남해, 황해를 거쳐 동중국해, 대만해협을 지나 2월 6일 대만 기류에 도착했다.⁵⁶⁾

48연대의 경우 별탈없이 기류에 도착했지만, 이에 앞서 이동한 24연대와 46연대는 대만해협에서 연합군 잠수함의 공격을 받았다. 24연대에 배속됐던 이중호에 따르면, 9척 중 5척의 선박만이 기류에 도착할 수 있었고 5척 중 2척 또한 잠수함공격으로 인해 검은 연기를 뿜으며 상륙했다고 한다.⁵⁷⁾ 때문에 뒤이어 기류에 도착한 48연대의 ‘히후가마루’ 등은 반쯤잠긴 수많은 배들로 정박에 곤란을 겪었다.⁵⁸⁾

한편 모지에서 세척의 배에 분승하여 대만으로 이동 중이던 46연대는 규슈에서 대만해협을 지나는 사이 잠수함공격을 받았다. 연대주력을 태운 秀明丸은 항해 중 선박고장으로 하카다(博多)에 정박하여 공격을 피했지만, 제3대대가 탄 馬來丸은 가고시마의 枕崎沖에서, 제2대대의 쿠라이도丸은 대만해협에서 각각 미군의 잠수함에 의해 침몰했다. 결국 두 개 대대를 잃고 대만에 도착한 연대는 高雄을 거쳐 오카야마(岡山)지구로 이동하여 진지구축 중 중전을 맞았다.⁵⁹⁾

쿠라이도환은 1월 22일 모지를 출항, 한국 남해안, 서해안, 중국 연안의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여 대만해협까지 1주일이나 걸렸다. 1월 29일 새벽 어뢰 2발을 맞고 쿠라이도환에는 1,419명의 병력이 탑

승하고 있었다. 대만 富貴角燈台 서쪽 약 35리상에서 공격을 받은 쿠라이도환은 서서히 침몰했는데 이로 인해 2백명 이상이 즉사했다.⁶⁰⁾ 『쿠라이도환 승선전몰자명부』를 통해 5명의 사망자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당시 사상자에는 많은 ‘身元不明’자가 있어 더 많은 한국인이 희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⁶¹⁾

우여곡절 끝에 병력의 상당수를 잃고 대만에 상륙한 제12사단은 臺南, 高雄지구에 진주하여 제40군 휘하에서 대만방위를 담당하였다.⁶²⁾

1945년 1월 8일 육군 대신은 제10방면군 관리 하에 제40군사령부를 신설했다. 방위 작전을 통솔하게 된 제40군은 嘉義에 사령부를 두고 대만의 서남부 방위를 담당하게 되었다.⁶³⁾ 이와 함께 대본영은 팽호도, 기류, 고웅 각 요새 부대를 독립혼성여단으로 강화하고, 독립혼성여단 두 개를 신설하여 화련항, 대동지구에 배치하기로 했다.⁶⁴⁾ 이는 대만 주요 항구의 방위력을 향상시키고, 해안지대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본영은 3월말까지 지상 병력을 사단 5개, 독립혼성여단 6개 규모로 확충할 구상을 갖고 관동군 예하 71사단을 대만으로 이동시켰다.

제71사단은 소만국경을 담당하던 琿春수비대가 전신이었다. 1942년 5월 보병 87·88·140연대를 기간으로 편성된 71사단은 佳木斯

55) 이중호 회고(강용권, 앞의 책, 85쪽).

56) 厚生省 援護局, 『臺灣方面部隊略歴』, 1961. 12, 22~23쪽.

57) 당시 그가 탄 배에는 3천 명의 병력이 승선했다고 한다(이중호 회고).

58) 이규복 구술; 김만송 회고.

59) 『地域別 日本陸軍連隊總攬(歩兵編)』, 新人物往來社, 1990, 224쪽.

60) くらいど丸生存者戰友會, 『嗚呼 臺灣海峽波高し』, 長崎: 出島印刷所, 1981, 40~41쪽.

61) 전몰자명부상 사망자는 보병46연대 제5중대 소속 金田朱榮·梅原桓壽·安川正雄, 공병제18연대 소속 渡辺相乾, 新井載乾가 확인되며 이 배에 타고 있었지만, 생존한 이로는 보병제46연대 보병포중대 소속 海本利植가 확인된다(くらいど丸生存者戰友會, 위의 책, 90·94·101쪽).

62) 十二師團司令部, 『第十二師團戰史資料』, 防衛廳 防衛研究所 소장자료 沖台-臺灣-9.

63) 防衛廳防衛研修所 戰史室, 『大本營陸軍部 <10>』, 1975, 42~43쪽.

64) 防衛廳防衛研修所 戰史室, 『大本營陸軍部 <9>』, 1975, 536쪽.

등지에 주둔하고 있었다. 제71사단 또한 대소전 투입예정이던 부대로 1945년 1월 17일 제71사단 동원 편성 하령에 따라 제10방면군으로 편입, 대만으로 이동했다.⁶⁵⁾

김수덕은 1944년 가을 만주 주둔 71사단에 배속되었다. 길림에서의 3개월 훈련 후 그는 3909부대(140연대)에 배치되었다. 이때 부대에는 31명의 한국인이 있었다고 한다.⁶⁶⁾ 140연대는 1945년 1월 25일 가목사를 출발하여 부산으로 이동했다.⁶⁷⁾ 부대는 부산에서 약 1개월간 체류하며 낙하훈련을 받았다. 부산에서 대만까지 이동하던 동안 잠수함 공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연합군 비행기의 공습이 수차례 있어 대피하기도 하였다.⁶⁸⁾ 2월 19일 140연대는 대만 기류에 상륙했다.⁶⁹⁾ 2월 21일 嘉義로 이동한 연대는 이곳 경비를 맡다가 종전을 맞았다.⁷⁰⁾ 그 외 71사단 병력은 사령부를 臺中에 두고, 주로 대중주 大甲溪 이남의 방비를 담당했다.⁷¹⁾

이와 같이 관동군 예하 12사단과 71사단이 차례로 대만으로 이동해 오으로써 10방면군의 전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이후 대본영은 2월 1일 대만군관구사령부를 신설했는데 그 사령관, 참모장, 참모부장 등은 제10방면군의 사령관들이 겸임했다.

65) 大阿久宣尙, 『ソ満國境から臺灣まで』, 東京: 勝龍社, 1978, 176쪽.

66) 김수덕 구술, 황선의 채록, 전북 군산시 자택, 2007년 10월 19일.

67) 가목사 출발 당시 140연대의 병력은 연대 본부, 3개 대대(대대는 일반중대 3, 기관총중대 1, 대전포소대 1), 연대포중대, 속사포중대, 통신중대였다(厚生省 援護局, 『臺灣方面部隊略歴』, 1961. 12, 37쪽).

68) 김수덕 구술. 구술자는 부산에서 약 1개월가량 체류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2월 19일에 부대가 기류에 도착한 것으로 짐작컨대 부산 체류기간은 2~3주로 판단된다.

69) 大阿久宣尙, 앞의 책, 198쪽.

70) 厚生省 援護局, 『臺灣方面部隊略歴』, 1961. 12, 37쪽.

71) 厚生省 援護局, 『臺灣方面部隊略歴』, 1961. 12, 34~35쪽.

(2) 제19·20사단의 전선이동과 대만 주둔

1944년부터 대만 인근 해협의 제해권은 연합군이 완전히 제압하고 있었다. 지리적으로 필리핀 등 남방지역으로의 선단이동은 대부분 대만 부근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일본군은 잠수함공격을 피하기 위해 조선, 중국, 대만의 연안을 따라 선단을 이동시켰고, 그나마도 주간에만 이동하도록 명령했다. 게다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합국 잠수함이 발견되면 횡대로 길게 늘려 선단을 운용했지만 일본군 선단의 피해는 끊이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연합군의 공격으로 뿔뿔이 흩어진 선박 등은 대만해안으로 기항하게 되었다. 조선군 제19사단과 제20사단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제19사단은 1944년 11월 16일에 임시동원령이 내려지고 20일자로 남방군 산하 제17방면군의 직할병단으로 편입되었다.⁷²⁾ 징병1기로 입대하여 나남19사단 75연대에 배속된 석청수는 12월 2일 회령을 출발했다. 필리핀 전선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이후 부산을 거쳐 일본 모지에 도착한 75연대는 일주일간 대포, 탱크, 말 등을 선박에 싣고, 선단을 새로이 꾸렸다. 당시 선단은 6천명을 실은 수송선 5척과 호위 전투함 5척, 비행기로 구성될 정도로 대규모였다.⁷³⁾ 기류에 도착한 선단은 미 해군의 공습정보에 3시간만에 기류를 떠났지만 곧 폭격기의 공습을 받게 되었다. 결국 선단은 대만 해협의 삼각섬 부근에 정박하여 대공사격으로 맞대응하다가 3일후 바시해협을 지나 필리핀의 산 페르난도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⁷⁴⁾

72) 임종국, 앞의 책, 103쪽.

73) 석청수 회고(강용권, 앞의 책, 40쪽).

74) 석청수 회고.

1943년 일본군에 지원한 김병연은 중대 200명 중 1/10정도가 한국인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회령에서 1년 10개월간 있는 동안 秋期 훈련 외 별다른 전투나 훈련은 받지 않았다. 1944년 11월 20일 부산으로 이동한 그는 7층의 15,000톤급 ‘靑葉丸’을 타고 모지로 갔다.⁷⁵⁾ 모지에서 보름을 지낸 후, 멜버른丸으로 배를 바꿔 탄 75연대 병력은 10여 척의 선단을 구성하여 44년 12월 20일 모지를 출발, 약 열흘만에 고웅에 도착했다. 본래 연대는 대만 남부에서 ‘다이하츠(大發)’라는 소형 쾌속정에 1개 소대씩 태워 필리핀으로 이동시킬 계획이었으나 미군의 공격으로 포기하고 수개월간 대만에 체류하게 되었다.⁷⁶⁾

76연대에 배속된 최동준은 부산에서 수송선 大興丸을 타고 일본九州에 도착했다. 규슈에서 병력이 보강되어 수송선 멜버른丸에 4,000명, 대홍환에 4,000명이 분승하였는데 수송선 좌우로는 구축함 6척이 선단을 호송했다. 배 안에서 ‘비율빈 敵前 상륙을 수행한다’는 통고를 받은 병력은 요동반도, 산둥반도, 양자강 하구를 지나 45년 1월 8일 대만 고웅항에 입항했다.⁷⁷⁾ 3일 후 다시 고웅을 출발한 선단은 바시해협에서 연합군 잠수함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선단과 떨어진 대홍환은 결국 마카오에서 5일간 선박을 수리한 후 필리핀 상륙을 포기하고 다시 고웅에 입항했다.⁷⁸⁾

75) 이후 아오바마루(靑葉丸)는 필리핀으로 병력수송 중 침몰됐다(김도형, 「태평양전쟁기 격전지와 조선인 희생자에 관한 연구-필리핀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7. 10, 17쪽).

76) 김병연 구술, 황선의 채록, 서울 영등포 자택, 2007년 10월 19일. 김병연은 소속 부대를 회령의 8503 혹은 8305부대 회고했지만, 회령주둔 부대임을 감안하면 19사단 75연대 8505부대로 판단된다(大內 那翁逸・津野田 喜長 共編, 『舊帝國陸軍編制便覽 第二卷』, 埼玉: 大内出版, 2004 참조).

77) 최동준 회고(1・20同志會, 『1・20學兵史記』 제2권, 서울: 三進出版社, 1988, 80쪽).

이렇듯 19사단은 44년 12월말부터 수차에 걸쳐 필리핀 전선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연합군의 공격으로 주력 대부분은 수송 중 수몰되거나 대만에 기착, 잔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75연대의 석청수의 경우처럼 원래 계획대로 필리핀전선에 배치되는 경우가 오히려 적었던 것이다. 76연대에 배속된 채을석 또한 1945년 1월 1일 고웅에 안착했지만, 이틀 후 필리핀으로 이동하던 중 연합군 함대의 대규모 공격으로 중국 山頭를 거쳐 고웅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그나마도 잠시 고웅 연안에서 다시 공습을 받아 선박은 침몰됐으며 그는 겨우 뗏목을 붙잡고 고웅으로 살아올 수 있었다. 이때 고웅에 정박해 있던 선박들은 대부분 공격받았고 일부는 침몰됐다고 한다. 결국 19사단의 주력부대는 대만에 갇힌 셈이었다.⁷⁹⁾

대만으로 동원된 생존자 중 다수는 20사단 예하 용산 22부대를 거쳐 대만으로 이동했다.⁸⁰⁾ 필자가 구술을 채록한 징병 1기 생존자들의 대부분은 1924년생이거나 호적상 1924년생으로 誤記된(문희덕) 이들이었다. 이들은 대개 1944년 9월 입영 영장을 받았다. 주요 훈련내용은 한강에서의 추위적응훈련과 폭탄을 안고 전차로 뛰어드는 ‘육박전’ 연습이 대부분이었다. 기본적인 군사훈련은 입대 전 연성소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대체로 생략되었다.⁸¹⁾ 기초군사훈련을 3

78) 최동준 회고.

79) 채을석 회고(강용권, 앞의 책, 50쪽).

80) 필자는 10방면군 출신 생존자 10명에 대한 구술조사를 실시했다. 출신부대별로는 20사단 5명[홍범기(경기 연천)・서정태(경기 연천)・이인학(경기 안성)・문희덕(경기 장단)・노완석(경남 창녕)], 12・19・66・71사단 각 1명[이규복(경남 사천)・김병연(경기 개성)・안복승(황해 평산)・김수덕(전북 군산, 징병 당시 만주거주)], 해군 군속 1명[김영호(경남 부산)]이었다. 이에는 생존자들의 출신지 분포 또한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사단으로 배치된 생존자들은 모두 용산 22부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들은 대만 배치 후 독립혼성 103여단에 배속되었다.

개월만에 마친⁸²⁾ 12월 중순 신체검사를 치른 신병들에게 반소매의 하복이 지급되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남방전선으로 이동할 것을 직감했지만, 부대 내 감시는 더욱 삼엄해졌다.⁸³⁾ 보병 제20사단은 1943년 1월부터 동부뉴기니아전투에 투입되고 있었다.⁸⁴⁾ 그러나 1944년 이후 20사단 본대로의 병력투입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그런 가운데 징병 1기를 중심으로 한 용산 22부대 병력은 부산, 일본을 거쳐 대만으로 이동했다.⁸⁵⁾

용산 22부대의 대만 이동 또한 순탄하지 않았다. 9척 가량의 수송선과 호위함으로 구성된 수송선단은 1945년 1월 1일 일본 모지를 출발했다. 선단이 상해를 지나 대만해협에 들어설 무렵 연합군 잠수함의 공격을 받았다.⁸⁶⁾ 뒤, 옆의 배가 잇따라 어뢰에 의해 침몰되는

81) 서정태 구술, 황선익 채록, 경기도 고양시 자택, 2007년 10월 11·18일; 이인학 구술, 황선익 채록, 경기도 안성시 자택, 2007년 10월 11일.

82) 본래 일본군의 신병 기초군사훈련은 6개월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말기 병력의 부족으로 현역병들의 6개월 군사훈련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83) 문희덕 구술, 황선익 채록, 경기도 파주시 자택, 2007년 10월 18일.

84) 이때 파견된 20사단 병력은 약 2만 5천명으로 이 중 1/10가량이 한국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도형, 「태평양전쟁기 격전지와 조선인 희생자에 관한 연구-뉴기니아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6. 12.

85) 편제상 용산 22부대(朝鮮 222, 통칭번호 2053)는 유수 제20사단 보병 78연대이다. 78연대 본대는 이 무렵 뉴기니아 등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용산 주둔 22부대는 유수부대가 된 셈이다. 통상 보병부대의 본대가 외지로 파병되면 보충담당지에 남은 부대는 유수사령부로서 기능하게 되고, 원 주둔지에서 보충된 병력은 본대로 보내지게 된다. 그러나 20사단, 특히 78연대의 경우 본대의 뉴기니아 투입 이후 유수부대의 기능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짐작컨대 유수 78연대 보충대인 용산 22부대는 1944년 이후 실질적으로 남방군이나 조선군의 보충대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86) 선단의 구성은 3열 중·횡대, 9척의 수송선이 이동하고 그 좌우에 호위함이 운항했다고 한다. 서정태의 경우 자신이 탄 배가 가운데 앞줄 배였고 맨 처음 공

가운데 연합군 전투기의 기총사격이 가해지면서 사상자 수는 더욱 늘어갔다.⁸⁷⁾ 수송선 9척 중 2척이 팽호도 馬公을 거쳐 고웅항으로 입항했다.

이렇듯 본래 필리핀 등 ‘남방’전선에 투입예정이던 부대들이 대만 인근 해협에서 연합군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그 중 일부가 대만에 일시 대기상태로 있게 되었다. 이들 부대는 본대와의 연락이 끊어진 채 대만에 잔류하게 되었다.

한편 대본영은 종래 대만방위에 필요한 병력이 약 8개 사단이라고 판단했지만 전황상 이러한 병력 보충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따라서 대만의 인적, 물적 戰力を 재편성하여 새로운 혼성여단을 편성했다. 2월 17일에는 독립혼성 100·102·103여단이 신설되었다.⁸⁸⁾ 이들 신설부대에는 남방으로 이동 중이던 체류부대·인원 및 대만 재주일본인 등이 충당되었고, 이 외에 정원의 20~40%에 달하는 대만 인이 동원되었다.⁸⁹⁾

격받아 침몰한 배는 뒷배였다고 구술하고 있다. 이는 이인학의 ‘처음 공격받은 배는 뒷배였다’는 증언과도 일치한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처음 공격 받은 배에 선단 사령관이 탑승하고 있었고, 또한 일본군 ‘위안부’가 타고 있었다는 증언이다(서정태, 이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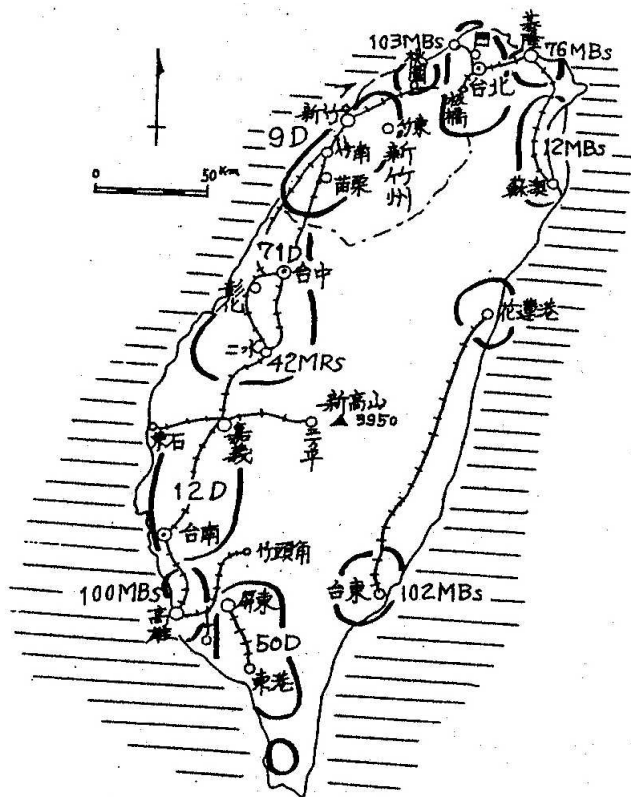
87) 서정태는 이때 손가락관통상을 당해 고웅육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대북육군병원, 일본 小倉육군병원, 온양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온양육군병원에서 상이 공상 8급을 받은 그는 원대로 복귀하여 제17방면군 경성사관부보병제1보충대(구 용산 22부대)로 배치되었다. 이후 인천육군조병창에서 근무하던 중 해방을 맞았다(서정태 구술).

88) 防衛廳防衛研究所 戰史室, 『大本營陸軍部 <9>』, 1975, 3~4쪽.

89) 본래 일본군은 식민지 출신인의 부대 내 비율을 일정한도로 제한하고 있었다. 예컨대 조선인출신의 부대 내 비율은 제1선부대에서 20%, 후방부대에서 40%, 근무부대에서 80%를 한도로 했다(大濱徹也, 小澤郁郎, 『帝國陸海軍事典』, 東京: 同成社, 1984, 17쪽). 그러나 대만의 경우 때에 따라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10방면군의 병력증강은 먼저 관동군 병력의 차출로 시작되었다. 관동군 병력의 10방면군 투입이 계획적인 것이었다면, 조선군 병력의 대만 주둔은 예정된 것이 아니었다. 10방면군은 부족한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임시 체류중인 19, 20사단 병력을 기간으로 독립혼성 제103여단 등을 편성했다. 그런 가운데 대만에는 2천명 이상의 한국인 군인·군속이 동원되었다.

[그림 1: 10방면군의 대만 배치상황]



출전: 第九師團戰史編さん委員會, 『第九師團戰史』, 第10師團.

4. 한국인 군사동원의 실상과 희생

(1) 한국인 병력의 동원실태와 성격

식민지 조선에서의 군사동원은 1938년 ‘육군 특별지원병제’로 시작됐다. 이후 1943년 학도병, 1944년 ‘징병제’ 및 ‘해군 특별 지원병’ 등으로 한인 청년의 전시동원은 가중되어 갔다. 징병령은 조선에서 1942년 5월의 징병실시준비명령으로 1944년부터, 대만에서는 1945년부터 실시되었다. 이에 앞서 특별지원병제가 조선에서 1938년 4월, 대만에서 1941년 시작되었다. 1944년도 현역 징병자들은 1944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미 부대 배치가 완료되었다. 1945년도 징병 대상자 가운데 현역병 판정을 받은 조선인은 3월부터 징병되었다.⁹⁰⁾ 한국인 군사동원은 군인 뿐 아니라 군속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었다.⁹¹⁾

대만지역으로 동원된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일제 강제연행자명부’⁹²⁾ 등의 구 일본군 소속 한인명부가 주목된다. 한편 일본군 소속 한국인은 해방 후 중국군에 신병이 인도되었는데, 이들이 귀환 직전 작성한 『十字星盟友會會員錄』 또한

90) 신주백, 「일제의 강점과 조선주둔 일본군(1910~1937년)」, 『일제 식민지배의 구조와 성격』, 서울: 경인문화사, 2005, 303쪽.

91) 강창일,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조선인 군사동원」, 『한일간의 미청산과제』,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299쪽.

92) ‘일제 강제연행자명부’는 식민지시기 말기 강제동원된 한국인이 등재되어 있는 명부이다. 『朝鮮人勞者に關する調査結果』 등 일제 노무동원에 관한 명부와 『軍人軍屬名簿』, 『留守名簿』, 『兵籍戰時名簿』 등 군사동원에 관한 명부가 있다. 국가기록원은 ‘일제 강제연행자명부’ 총 544권, M/F 26롤(약 48만명분)에 대한 정보를 전산 정리하였으며, 최근 개인 이력이 기재되어 있는 명부나 ‘군위안부’ 명부 외의 명부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llection/viewJapaneseIntro.do> 참고).

동원된 한인의 실상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국가기록원 소장 ‘일제 강제연행자명부’에는 대만지역으로 동원된 한인이 중국 대만제10방면군(유수명부 109) 1,431명, 중국선제8비행사단(유수명부 68) 178명, 중국선박선박군(유수명부 98) 892명, 피징용사망자명부(1-10) 452명, 군속선원명표 14명, 임시군인군속계 112명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유수명부 안에서도 중복된 이름이 나타나며, 각 명부들간에 다소 중복된 이가 있음을 감안하면 대만으로 동원된 한인은 최소 2천명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⁹³⁾

‘일제 강제연행자명부’ 중 부대단위로 편철되어 있는 『留守名簿』 중 『第十方面軍留守名簿』에는 총 1,431명의 한국인이 등재되어 있다. ‘유수명부’에는 이들의 생년과 출신지(본적), 배치부대 등이 기재되어 있다. 『第十方面軍留守名簿』에 등재되어 있는 한국인들을 배치된 부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⁴⁾

93)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인원이 기재되어 있는 『유수명부』, 「제10방면군」의 경우 1,431명 중 230명 가량이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명부’는 해당 명부 안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명부의 성격상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유수명부』의 경우 소수지만 사망자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피징용사망자명부』에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군속이 다수를 차지하는 『유수명부』, 「중국선박선박군」과 『임시군인군속계』, 『군속선원명표』가 중복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일제 강제연행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만 동원 한인의 수는 2천명~2천 5백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이는 ‘명부’상의 수치일 뿐 전시동원의 특성상 이보다 많은 수가 동원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94) 이 표는 ‘유수명부’상의 부대별 소속인수와 중복인원을 제외한 후의 실질인원을 정리한 것이다. 유수명부에 일부 중복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소속부대 안에서 이중기재되어 있거나, 타부에 이중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실질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중복자를 솟아내는 작업이 필요했다. 여기서는 성명(창씨명), 생년월일, 출신지를 감안하여 중복자를 검출하고, 중복자는 ‘1/중복횟수’로 계산해 보았다. 이 표에서는 10방면군 예하 제8비행사단과 군속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1: 제10방면군 소속 한국인의 부대별 배치상황>

사 단	통칭 (편성지)	소속부대(부대번호)		총원	실질 인원	주둔지
제9사단	武 (金澤)	사령부	사령부(1515)	3	3	대만
		보병	제7연대(1524)	1	1/2	대만
		육상근무	95중대(6917)	3	2	중지
		소 계		7	5 1/2	
제12사단	劍 (久留米)	사령부	사령부(8713)	3	3	대만
			제2야전병원(21114)	21	20 1/2	신죽
			위생대(21115)	6	6	의란
			병마창(8789)	1	1	대만
		보병	제24연대(8703)	40	38	대만
		보병	제46연대(8705)	26	24	대만
		보병	제48연대(8707)	39	32 1/2	대만
		공병	제10연대(8745)	20	16	대만
		야포병	제24연대(8722)	7	6	대만
		치중병	제18연대(8751)	3	3	대만
		소 계		166	150	
제50사단	蓬 (臺灣)	사령부	사령부(19700)	5	5	대만
		보병	제301연대(19701)	5	4	조주
		공병	제50연대(19706)	3	3	조주
		치중병	제50연대(19708)	5	4	조주
		통신대	(19707)	1	1	조주
		소 계		19	17	
제66사단	敢 (臺灣)	사령부	제독대(12899)/보병 249연대 기관총대대-이중기재	15	14	대만
			병마창(21113)	9	4 1/2	대만
		보병	제304연대(1786)	13	7 5/6	대만
		보병	제305연대(1787)	13	7	대만
		보병	제249연대(7167)	18	13 1/3	대만
		공병대	(1789)	4	3	의란
		소 계		72	49 2/3	

사 단	통칭 (편성지)	소속부대(부대번호)		총원	실질 인원	주둔지
제71사단	命 (滿洲)	사령부	사령부(13250)	15	15	대남
			제독대(13291)	1	1/2	대남
			제1야전병원(13295)	14	7 1/4	대남
			병마창(13298)/산포병(13282)	8	4 1/2	대남
		보병 제87연대(13285)		87	83 1/2	대남
		보병 제88연대(13272)		97	86	대남
		보병 제140연대(13299)		40	39	대남
		공병 제71연대(13273)		25	13 3/4	대남
		산포 제71연대 제1중대(13282)		11	10	대남
		치중병 제71연대(13293)		7	5	대남
		통신대 제71연대(13271)		7	5	대남
		소 계		312	271 2/3	
제75 혼성여단	興 (丸龜)	독립보병 560대대(12852)		1	1	신죽
		독립보병 제561대대(12853)		1	1/2	신죽
		소 계		2	1 1/2	
제76 혼성여단	律 (廣島)	독립보병 제567대대(21119)		8	8	기룡
		독립보병 제565대대(12862)		2	1	기룡
		중포병 제13연대(12864)		13	13	기룡
		소 계		23	22	
제100 혼성여단	盤石 (高雄)	사령부 고옹요새 사령부(21111)		2	2	고옹
		제30연대(12870)		7	6	고옹
		소 계		9	8	
제102 혼성여단	八幡 (新開)	독립보병 제466대대(12886)		2	5/6	대만
		소 계		2	5/6	
제103 혼성여단	破竹 (福岡)	사령부	사령부(21101)	24	12 2/3	담수
		독립보병	제468대대(21102)	197	155 5/6	담수
		독립보병	제469대대(21103)	145	130 1/12	담수
		독립보병	제470대대(21104)	92	80 5/6	담수
		포병대(21106)		46	25 1/6	담수
		치중대(21108)		92	82 1/3	담수
		통신대(21107)		20	19 1/3	담수
		수색대(21105)		54	46 5/6	담수
		병기군무대(21109)		3	1 5/6	담수
		소 계		673	554 7/12	

사 단	통칭 (편성지)	소속부대(부대번호)		총원	실질 인원	주둔지
제112 혼성여단	雷神 (蘇澳)	제33연대(21116)		7	5	의란
		소 계		7	5	
제10방면군 사령부 및 기타부대	臺灣 (臺灣)	사령부	사령부	26	13 1/2	대만
			야전화물창(12805)	6	6	대만
			대북 육군병원(21123)	1	1	대만
			기룡 육군병원(21124)	3	3	대만
			태남 육군병원(21125)	1	1	대만
		독립보병 제648대대(21122)		6	6	대만
		독립공병 제42연대(12883)		56	54	대만
		고사포 제161연대(4550)		2	1 1/2	대북
		야전기관포 87중대(12872)		1	1/2	대만
		야전기관포 제91중대(12898)		1	1	대만
		특경 507대대(13869)		4	3 1/2	대만
		특설경비 제537대(13874)		1	1	대만
		특설경비 539대대(13876)		1	1	대만
		특설경비 제552대대(4588)		1	1	대만
		독립정진 제1대대(12895)		1	1/2	대만
		해상정진 제8전대(16784)		2	1	도가좌
		독자 354중대 유수명부(12893)		1	1	대만
		가편제1제2기관포대		2	2	
		대만군관구사령부		1	1	
		대만부로수용수		7	6	고옹
		대만제5307부대		2	1 1/2	대만
		대만철도사령부		1	1/4	
		제10방면군 제22병참병마창 제13827부대		1	1	대만
		제10유격대대 본부		2	1	
		대남지구 헌병대		1	1/2	
		대동지구 헌병대		6	5 1/2	
		화련항지구 헌병대		1	1/2	
		소 계		139	115 1/4	
		총 계		1,431	1,201	

<표 1>를 통해 한국인의 부대별 배치상황을 알 수 있다. 배치상황을 사단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혼성 제103여단	554 4/12명
보병 제71사단	271 2/3명
보병 제12사단	150명
사령부 및 기타 부대	115 1/4명
보병 제66사단	49 2/3명
보병 제50사단	17명
보병 제9사단	5 1/2명
독립혼성 제76여단	22명
독립혼성 제100여단	8명
독립혼성 제112여단	5명
독립혼성 제75여단	1 1/2명
독립혼성 제102여단	5/6명

먼저 가장 많은 수가 독립혼성 103여단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독립혼성여단은 통상 일반 보병사단의 절반 규모에도 되지 않는 데⁹⁵⁾ 독립혼성 103여단의 경우 제10방면군 절반에 가까운 수를 차

95) 독립혼성여단은 보병부대 외에 기병, 포병, 공병 등이 여단급으로 편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용되던 부대이다. 독립혼성여단은 그 편성장비도 작전지의 상황에 의해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단사령부, 독립혼성대대 3~6개, 포병대, 공병대, 통신대 등의 각 부대로 구성되지만, 때때로 보병연대, 독립혼성연대, 그 외의 부대 등이 상이하게 편제되어있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독립혼성 여단이 처음 편성된 것은 만주침공이 일단락한 1934년으로, 중일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 수가 증가하여 중일전쟁 중 21개에 이르렀다. 이후 독립혼성여단은 1943년 22개, 1944년말 50개, 종전 시에는 99개에 달했는데 실제로는 125개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高市近雄, 『旅団クラス獨立部隊銃ざらい』, 東京: 山本堂印刷所, 1986, 1쪽).

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독립혼성 103여단의 편성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립혼성 103여단은 필리핀 방면으로 수송예정이던 부대 중 고웅항에 체류하게 된 제19사단(虎兵團)의 병력 일부를 기반으로 편성되었다. 즉 고웅에 체류중이던 75연대 3대대, 76연대 2·3대대, 25산포연대 5중대, 치중병19연대 1중대, 19사단 방역급수대, 제2야전병원 및 사단통신대 등이 임시독립혼성 제101여단을 거쳐 독립혼성 제103여단으로 개편된 것이다.⁹⁶⁾ 1945년 2월 17일 편성하령을 받은 여단은 42독립공병연대까지 흡수했다. 이후 독립혼성 103여단은 고웅, 대북지구 방비를 담당했다.⁹⁷⁾

후생성 원호국이 작성한 南方・臺灣방면 부대약력에 따르면, 103여단 예하 독립혼성 468대대는 제19사단 제75연대 제3대대를 기간으로, 독립혼성 469대대는 19사단 76연대 제2대대를 기간으로, 독립혼성 470대대는 19사단 76연대 제3대대를 기간으로, 독립혼성 103여단 수색대는 19사단 수색제19연대 중 일부 병력으로 편성됐다.⁹⁸⁾ 그러나 용산 22부대 출신 구술자들을 유수명부상에서 찾아보면 부상으로 후송된 서정태를 제외한 이들이 독립혼성 103여단에 배속되었음이 확인된다.⁹⁹⁾ 따라서 유수 20사단 병력이던 용산 22부대 출신

96) 이때 방역급수대, 제2육군병원 등은 제외되었다.

97) 1945년 2월 23일 103여단은 제12사단 예하에서 고웅주 岡山 부근의 경비를 담당하다가 5월 23일 제66사단장의 지휘로 들어가 대북주 담수 부근의 방위를 담당했다(厚生省 援護局, 『南方・臺灣方面陸上部隊略歴 第一回追録』, 1962. 3, 472~473쪽).

98) 厚生省 援護局, 『南方・臺灣方面陸上部隊略歴 第一回追録』, 1962. 3, 474~481쪽. 『유수명부』를 통해 19사단 소속으로 확인된 김병연(황선의 구술), 문현상 확인되는 채을석의 경우, ‘남양비도제14방면군직할19사단’ 및 ‘10방면군 독립혼성103여단’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다.

99) 홍범기는 469대대, 이인학은 469대대, 노완석 103여단 통신대임을 확인할 수

한국인들 중 일부가 대만으로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관동군 예하에서 10방면군으로 편성이동 해온 71사단과 12사단의 경우 71사단이 12사단의 1.8배가량 많다는 점이다. 이는 두 부대의 이동과정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71사단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무탈하게 대만으로 이동해 왔지만, 12사단은 46연대 수송선 2/3가 침몰되는 등 연합군의 격심한 공격을 받았다.

다음으로 50사단, 66사단의 경우 1944년 5월, 7월에 대만에서 편성된 부대로 대만 거주 일본인과 대만인이 많이 배속된 부대였다. 이 사단들에서는 17명, 50명의 한국인이 확인된다.¹⁰⁰⁾ 반면 9사단에는 한국인이 거의 없었다.

한편 학도병으로 동원되어 일본 하마다(浜田)부대에 배치됐던 안복승은 66사단 249연대에 배치됐다. 당시 안복승은 학도병 출신 정경석과 같은 부대에 있었는데 이 외에도 다수의 학도병이 66사단 소속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¹⁰¹⁾

연변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술조사에 따르면 만주에 거주하던 이들이 관동군 예하 12사단으로 배속됐음이 파악된다.¹⁰²⁾

있다.

100) 이에 대해서는 대만 거주 한국인이 현지징집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1943년말 대만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2,775명이다(臺灣總督府, 『臺灣戶口統計 1943年』, 1944. 3).

101) 안복승 구술, 황선익 채록, 경기도 고양시 자택, 2007년 10월 11일; 1·20同志會, 앞의 책, 50쪽.

102) 연변지역 군사동원에 대한 구술자료로 『강제 징병자와 종군위안부의 증언』(강용권, 해와달, 2000)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만으로 동원된 4명의 구술담이 실려 있는데 함북 거주자 2명이 19사단에, 길림에 거주하던 이 2명이 12사단에 배속된 것으로 나오며, 유수명부에서 확인된다.

(2) 대만전선 한국인의 희생

대만전선의 특징 중 하나가 10방면군의 편성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대만 인근 해협에서 많은 병력이 수몰된 점이다. 때문에 대만에서 일본군은 연합군과 지상전을 벌인 적이 없지만, 다수의 사상자를 내었다. 국가기록원 ‘일제 강제연행자명부 컬렉션’에서 사망자인원수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¹⁰³⁾

<표 2: 대만지역 한국인 사망자 수 및 사망지역>

	대만 (1)		대북		대남		고웅		기룡		안평		신죽		도원		마공		팽호도		바시 해협		대만 해협	
	육	해	육	해	육	해	육	해	육	해	육	해	육	해	육	해	육	해	육	해	육	해	육	해
함북	33						2														2			
함남	23	10					2														4	12		1
평북	3																					13		
평남	5	5	1				1															8		
황해	7																							
강원	42	3	1				27				2		1		1									
경기	43	9	2		1		21				11													
충북	17						14				1		1								4	3		
충남	17	4					12				5		1				1	1			2	9		
경북	29	8	1				9				4										2			
경남	28	7	4				4		1		1				1		1			1	5			
전북	27	4	2																			7		
전남	106	17			1			1													5	18		
	380	67	11	0	2	0	92	1	1	0	24	0	3	0	2	0	1	1	1	1	24	70	0	1
총계	447		11		2		93		1		24		3		2		2		2		94			1

103) 국가기록원 일제강제연행자명부컬렉션에서는 ‘동원지’ 검색이 가능하여 지역별 동원양상의 개략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컬렉션에서 ‘대만’에서 ‘사망’한 인원을 검색하면 (1)과 같으며, 이 외는 세부지역으로 검색했을 때 파악되는 수치이다.

대만에서 사망한 한국인은 450여명으로 파악된다. 이는 『괴징용사 망자명부』의 한국인 사망자수와 대략 일치한다. 사망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대만과 필리핀을 잇는 고웅 및 바시해협에서 대부분이 사망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사망이 단순히 수송과정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1944년 9월 이후 연합군에 의한 대만 폭격이 계속되면서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다.¹⁰⁴⁾ 1945년 들어 더욱 심해진 미군의 폭격은 군사시설 및 공업지구를 집중적으로 폭격하였다. 3월 9일에는 일월담수력 발전소가 폭격당하고 3월 16일에는 대북, 3월 17일에는 대만 전토에 100기가 넘는 미군폭격기 B-24의 폭격이 행해졌다.¹⁰⁵⁾ 폭격은 종전 무렵까지 계속되었고, 대북의 상징인 대만총독부와 대만은행 등도 파괴되었다.¹⁰⁶⁾

대만 및 남서제도가 연합군의 상륙 가시권에 들어온 때 대본영은 2월 3일 군령을 통해 제10방면군의 임무와 관련하여 “내공하는 적을 격파하기 위해 대만, 남서제도에 대한 적공해 기지의 추진을 타파”하고, “확보해야 할 요역 중 특히 대만 및 오키나와 본도는 큐슈·남선 및 양자강 하류 유역과 함께 동중국해 주변에서 항공작전의 거점으로 삼을 것”을 규정했다.¹⁰⁷⁾ 그리고 대본영은 天號작전을 통해 항공작전, 이른바 ‘특공작전’을 준비했다. 대본영은 천1호(오키나와 방면), 천2호(대만), 천3호(남지연안), 천4호(불령인도, 해남도)을 규정하고,¹⁰⁸⁾ 10방면군 예하 제8비행사단은 필리핀, 오키나와 방면

특공작전의 핵심이 되어 천호작전을 감행했고, 이에 수많은 젊은이가 자폭으로 생을 마감했다. 한국인 김상필 또한 마찬가지였다. 1945년 3월 10일 제8비행사단 제32비행대에 배속된 그는 1945년 4월 3일 嘉手納 앞바다에서 미군 함선을 향해 출격,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사망하였다.¹⁰⁹⁾

종전 당시 대만지역에 주둔한 제10방면군 및 해군 高雄경비사령부의 병력은 35만에 달했다. 이 중 한국인 1천 3백여명의 신병이 臺灣警備總司令部(중국 국민군 예하 제72군사령부)로 인도되었다. 중국 국민군은 臺北市 大直에 있던 미군포로수용소에 이들을 집결시켜 ‘韓籍官兵集訓總隊’를 편성했다. 한적관병집훈총대는 비교적 호의적인 대우를 받았지만, 엄연한 이들의 신분은 엄연히 포로였다. 1946년 3월 한국인들은 2차에 걸쳐 대부분 한국으로 송환됐다.¹¹⁰⁾

104) 황선익, 앞의 글, 418~419쪽.

105) 末光欣也, 앞의 책, 360쪽.

106) 井上 満, 「臺灣の戦雲」, 『大東亞戦史』 5, 東京: 富士書苑, 1969, 353쪽.

107) 防衛廳防衛研修所 戦史室, 『大本營陸軍部 <10>』, 14쪽.

108) 第一復員局, 『第十方面軍作戦記録(臺灣及南西諸島)』, 1946. 8, 84쪽.

109) 여태순, 『그날 오키나와 하늘에서』, 서울, 1996. 5;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大東亞聖戰大碑”와 7인의 한국인특공대』, 서울, 2006. 12, 14~15쪽.

110) 이들은 귀국 직전 『十字星盟友會會員錄』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총대본부, 憲察部를 비롯 8개 중대로 편제된 집훈총대에는 1,317명의 한국인이 있었다. 집훈총대에 속한 한국인의 출신지를 도별로 보면, 경남 199, 함남 187, 함북 154, 강원 156, 경기 150, 경북 91, 전남 86, 평남 64, 황해 60, 충남 54, 평북 35, 전북 34, 만주 27, 충북 20명 순으로 나타난다(在臺灣韓籍官兵集訓總隊, 『十字星盟友會會員錄』, 臺北, 1946. 3. 1). 13개도 및 만주출신 한국인이 모두 소속되어 있는 가운데 경남, 함남, 함북, 강원, 경기도 5개도 출신자가 846명으로 전체의 2/3을 넘고 있다. 이 지역들은 특히 19, 20사단의 병력정발지가 된 점을 참고할 수 있다. 한적관병집훈총대에 관해서는 황선익, 「해방 후 대만지역 한인사회와 귀환」(『한국근현대사연구』 34집, 2005. 9) 참조.

5. 맺음말

일본 제국주의의 해외침략에서 대만은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럼에도 태평양전쟁 전까지 대만 주둔 일본군의 병력은 미비한 상태였다. 중일전쟁 이후 대만혼성여단이 중국·태평양전선을 전진하는 가운데 대만 내 방위력은 거의 전무하다시피였다. 그러나 전세가 일본군에 불리해지자 대만은 일본의 본토방어전략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부상되기 시작했다.

1944년 중반 일본군은 마리아나제도에서 패하고, 필리핀 및 대만, 남서제도까지도 연합군의 상륙권에 놓이게 되었다. 연이은 패전의 원인은 보급로와 연락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본영은 일본-남서제도-대만-필리핀을 잇는 연락선을 확보하기 위해 10호계획을 준비하였다. 10호계획은 계속되는 남서방면에서의 연합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했다. 연락선의 확보가 우선시된 10호계획에서 일본군은 우선 항공병력의 확보와 육군의 항공기지 엄호, 항만시설의 정비를 순차적으로 준비해갔다.

1944년 7월 대본영은 일본 본토 방위를 위한 첩호작전을 수립하고, 대만-남서제도를 아우르는 제10방면군을 편성했다. 대본영은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 내에서 지상병력을 확충해나갔다. 그리고 기존의 대소전략을 대미전략을 전환하여 관동군을 남방으로 전출시켰는데 그 중 절반의 병력을 제10방면군 예하에 편입시켰다. 이후 대만에는 제9사단, 12사단, 71사단 병력이 차례로 이동해왔다.

대만지역은 뉴기니아, 필리핀 등지로 파견되는 일본군의 중간 기착지였다. 특히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의 대만해협과 필리핀과 대만 사이의 바시해협에서 미군의 잠수함 공격이 강화되는 가운데 제부

대의 남방이동경로는 중국 해안선을 따라 팽호도, 대만을 거쳐 남방으로 이동되는 경로로 변경되어갔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 전선 등으로 동원예정이던 제19사단, 20사단의 일부 병력이 연합군의 해상공격으로 대만에 잔류하게 되었다. 10방면군은 이렇게 잔류한 부대를 기반으로 독립혼성여단을 구성했다. 종전 당시 대만에 많은 독립혼성여단이 주둔하고 있던 것도 이런 점에 기인한 것이었다. 유수명부상에 한국인의 소속부대가 중복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선상황에 따른 일본군의 편제변화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대만으로 동원된 한국인 중 많은 수가 '남양비도14방면군직할19사단'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유수명부 제10방면군 소속으로 중복 기재되어 있다.

대만은 일본군과 연합군의 지상전이 벌어지지 않은 곳이다. 그럼에도 500명 넘는 한국인이 사망한 곳이다. 이는 대만해안에 대한 연합군의 폭격과 대만 인근해협에서의 연합군의 잠수함 공격 등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었다. 제공권과 제해권을 이미 상실했다고 자인한 일본군의 무리한 전선배치는 수많은 인명을 태평양에 수장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무고한 식민지민의 비참한 운명을 낳게 하였다.

북한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의 철군을 둘러싼 북중관계 연구

박 중 철*

1. 도 입
2. 중국군의 대북지원과 철군 결정
3. 중국군의 철군 중단과 재철군 결정의 배경
—중파사건을 중심으로
4. 중국군의 완전철군을 둘러싼 북·중 협상
5. 중국군의 최종철군과정과 철군 직후의 정세
6. 결 론

1. 도 입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 중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 중의 하나는 ‘중국인민지원군’(이하, 중국군)의 철군에 대한 문제이다. 이 논문은 중

국군이 정전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으로 철군하는 과정을 둘러싼 북중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철군을 둘러싼 북중관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립이다.

중국군에 대한 자료는 북한과 중국에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그리고 공개된 문헌이나 연구는 당·정·군이 인정하는 공식 역사에 부합하는 내용뿐이다. 그러므로 중국군의 철군과정은 블랙박스로 표현할 수 있다. 정전 이후에도 중국군은 전후복구와 안전보장 지원을 명목으로 북한에 잔류하였다. 중국군은 한국전쟁 당시에도 병력교대를 위하여 일부부대가 철수하였고, 1953년 정전 직후부터 비공식 철수를 시작했다. 비공식철수에 대한 문건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공식철군 과정을 중심으로 철군과정에 대한 북중관계를 연구한다. 공식철군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졌는데,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두 시기를 제1단계 철군과 제2단계 철군(최종철군)이라고 한다. 제1단계 철군은 1955년 말까지로 공식철수와 비공식철수를 병행하였다. 제1단계의 공식철수 시기는 1954년 9월부터 1955년 10월까지였으며, 19개의 사단이 3차례로 나누어 철수했다. 제2단계 철군(최종철군)의 공식철군은 1958년 2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제1단계 철군과 제2단계 철군 사이의 2년 간, 중국군의 철군은 중지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중파사건을 중심으로, 1955년 말에서 1957년까지 2년 간의 철군 중단과 재철군 결정의 배경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 시기의 북중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중국에서 간행된 회고록, 연보, 대사기, 연합공보, 연설, 문건집, 전보 등을 이용한다. 중국 측에서 발간된 자료 중에 유의미한 기초자료를 소개하면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이 있다.¹⁾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정치와 경제연구소 국제관계학 박사

성립에서 1994년 8월까지 중국의 한국·조선정책에 대한 공개된 문건, 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문건집에는 철군을 둘러싼 중국의 공식적인 성명, 인민일보 사설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중국정부의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입장을 반영한 연구서인 『抗美援朝戰爭史 1, 2, 3』이 있는데 중국군의 참전부터 철군까지를 다루고 있다.²⁾ 그 외에 북중관계에 관여한 중국측 지도자의 연보를 통해서도 기존의 사실을 검증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적다. 이것은 중국에서 중국군의 철군문제는 기밀처리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연구에서는 저우언라이연보, 저우언라이 외교연보 등의 연보와 군부지도자인 펑더화이, 주더, 니예룽쥘, 천이, 속위, 허룽 등의 연보와 철군 당시 중국군의 사령관이었던 양용에 관한 『楊勇將軍傳』를 참고한다. 그 외에 ‘양국·양당의 최고지도자의 상호방문에 대한 문집’ 등에서는 북한과 중국 지도자의 공식연설 등의 북중우호를 강조하는 문건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 사실관계의 정립이므로 시계열적으로 논문을 구성하고 시기적 구분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째, 1953년에서 1955년까지의 지원군의 전후 복구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1차 철군 결정의 배경과 철군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둘째, 1955년 말부터 1957년까지의 철군의 중단 배경과 재철군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종파사건과 연계하여 기술한다. 셋째, 1957년 말부터 1958년의 최종철군 협상과 철군과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북중

관계를 기술한다. 결론에서는 철군의 배경, 협상, 과정을 요약하면서, 철군을 둘러싼 북중관계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다.

2. 중국군의 대북지원과 철군 결정

(1) 지원군의 북한의 복구지원과 김일성의 감사의 방증

1950년 10월 중국군은 압록강을 건너 “항미원조 보국안위 전쟁”에 참여했다.³⁾ 특히 한국전쟁을 통하여 북중간의 혈맹관계는 더욱 견고해졌고,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안잉(毛岸英)의 전사는 북중간의 ‘피로 맺은 우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⁴⁾

정전 이전에 중국군은 병력교대를 위하여 일부 부대가 철수를 했었고, 정전직후부터 비공식철군이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중에 병력교대를 위하여 철수한 부대는 제38군, 제39군, 제40군, 제42군, 제66군, 제50군, 제20군, 제26군, 제27군, 제37군, 제23군 등이 있다. 정전 직후 8월 64군단, 9월 63군단, 포병 7사, 10월 60군단, 65군단, 포병2사, 포병21사, 고사포 61사 등이 즉시 철군하였다.⁵⁾

1)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년).

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년),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抗美援朝戰爭史第3卷』(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0년).

3) 裴堅章, 『中華人民共和國外交史(第一卷): 1949-1956』(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3년), 79쪽.

4) 歐陽善著, 富坂聰編, 『對北朝鮮・中國機密ファイル』(동경: 文芸春秋, 2007년 9월)의 제1장에서는 마오안잉이 구체적인 죽음을 둘러싼 상황과 문화대혁명시기 북한측의 중국군 열사능의 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5) 中國人民革命軍事博物館編著, 『中國戰爭地圖集』(北京: 星球地圖出版社, 2007년 7월).

<표 1: 정전이전 중국군 철군 및 교대 병력>6)

부대서열	참전일시	철군일시
제38군	1950년 10월 19일	1953년 7월 10일
제39군	1950년 10월 19일	1953년 5월 7일
제40군	1950년 10월 19일	1953년 7월
제42군	1950년 10월 19일	1952년 10월 30일
제66군	1950년 10월 19일	1951년 4월 10일
제50군	1950년 10월 26일, 1951년 7월	1951년 4월 12일, 1955년 4월 19일
제20군	1950년 11월 7일	1952년 10월 11일
제26군	1950년 11월 7일	1952년 6월 5일
제27군	1950년 11월 7일	1952년 10월 4일
제37군	1951년 9월 7일	1951년 11월 30일
제23군	1952년 9월 5일	1951년 11월 30일

1953년 7월 휴전협정의 서명 이후에도⁷⁾ 중국은 북한에 정치, 군사, 경제적 지원을 지속했다. 중국군의 많은 부대는 북한의 안전보장과 생산회복을 돕기 위하여 북한에 잔류한다고 주장하였다. 휴전협정체결 이후에도 중국군사령부를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수도 평양에서 약간 떨어진 평안남도 회창에 주둔시켰다. 정전직후 평더화이 사령관도 귀국하였는데, 21일, 중국으로 귀국한 평더화이는 제39차 군사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전쟁 이후의 국제정세, 국내정세를 분석했다. 그리고 29일, 평더화이는 항미원조전쟁의 경험 총결에서 승리의 원인을 보고했다.⁸⁾ 9월 12일 마오쩌둥은 중앙

인민정부위원회 제24차 회의를 주재하고 평더화이는 ‘중국군 항미원조 업무에 관한 보고’를 했다.⁹⁾

9월,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하여 한국전쟁에서의 소련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고, 소련은 김일성에게 북한의 전후 복구를 위하여 원조를 약속했다. 11월, 김일성은 동일한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김일성은 중국군의 참전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고, 앞으로의 복구건설과정에서 중국의 원조를 요청하였다.¹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조는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3년 12월 31일까지, 북한에 제공한 물자와 비용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1954년에서 1957년까지 4년 간 북한정부에 8조의 인민폐를 무상 원조하는 것이다.¹¹⁾

11월 16일, 저우언라이 총리는 정무원 제195차 정무회의를 주재했다.¹²⁾ 정무회의에서 저우언라이는 중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북한 지원의 중요성을 연설하였다. 이 연설에서는 북한지원에 대한 국내적 불만을 중국안보와 연결함으로써 무마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안보에 대한 중국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다. 11월 23일, 마오쩌둥 주석은 북한 정부대표단을 연회에 초청하여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 그들은 제1방어선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2방어선이고, 즉 후방입니다. 그들은 승리했으므로, 이것은 곧 우리를 도운 것으로, 그들이 경제를 회복하는 것은 곧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즉 중국군의 잔류는 중미관계

6) 『中國戰爭地圖集』.

7) 『彭德懷年譜』(北京: 人民出版社, 1998年), 554쪽.

8) 『彭德懷年譜』, 556~557쪽.

9) 彭德懷, 「關於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工作的報告」(1953年9月12日); 『中國군의 한국전쟁사 3』, 705~708쪽; 『彭德懷年譜』, 558~559쪽.

10) 畢桂發主編, 『毛澤東: 評說世界政要』(北京: 解放軍出版社, 2004년), 242~243쪽.

11) 『周恩來年譜1949-1976(上)』, 333~334쪽.

12) 『周恩來年譜1949-1976(上)』, 335~336쪽.

를 고려한 지정학적 목적이라는 의미였다.

이 회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후 복구지원을 약속했고, 중국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개입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이 협상은 정부 간의 협상이었으나, 협상은 저우언라이와 김일성이 주도하고, 최종심의는 마오쩌둥이 했다. 즉 북한이 마오쩌둥을 아시아 혁명의 지도자로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 간의 평등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의 국력차이라는 현실과 중국의 대국주의적 자세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중국군의 한국전쟁 당시의 병력교대를 위한 철군과 정전 직후의 철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흥미로운 것은 김일성과 불편한 관계인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과 조선인민군을 지휘한 평터화이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평터화이와 김일성의 갈등에 대하여 중국 지도부가 김일성을 배려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¹³⁾

(2) 제네바회의를 둘러싼 철군논쟁

제네바 회의는 한반도 문제, 특히 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철수의 교섭을 위한 정치협상이었다. 제네바회의는 4월에서 6월까지 개최되었

는데, 이 회의는 첨예하고 복잡하고 격렬하게 진행되었다.¹⁴⁾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하는 선거법을 만들고, 이에 따라 중립국의 감시하에 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했고, 유엔 측은 통일한 국정부는 자유선거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한국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권위와 기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선거 감시문제, 선거관리문제, 유엔의 권위인정, 외국군의 철수' 등 쌍방의 주장은 타협이 불가능했다. 유엔의 권위인정문제는 미군주도의 유엔군과 전쟁을 벌이고, 유엔의 회원국이 아닌 북한, 중국 등으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주제였다.

제네바 회의 직전의 북중관계를 분석해 보면 제네바 회의 직전에 저우언라이와 남일이 북경에서 제네바 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국내적 준비와 더불어 관련 사회주의 국가들과 회의내용을 조율하였다. 히라이와는 '저우언라이 외교활동대사기'를 분석하여, 제네바 회담 결렬 이후 1954년 8월이나 9월 상순 남일이 중국을 방문하여 저우언라이와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고, 저우언라이-남일 회담에서 중국군 철군의 최종적 조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⁵⁾ 만약 중국과 북한이 8월이나 9월에 철군을 합의했다면, 제네바 회의에서 '외국군의 한반도에서의 완전 철군'에 대하여 북한, 중국, 소련이 동일한 의견을 국제사회에 반복해서 발언할 기회는 쉽지 않다. 즉, 1954년 9월 16일~10월 3일의 7개 사단의 철수되었는데, 이런 대규모 병력이 단 며칠만의 준비를 통하여 공식 철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제네바 회담에서 중국, 북한, 소련의 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철군에 관련된 발언을 주목해 본다면, 1954

13) 歐陽善著, 富坂聰編, 앞의 책, 제1장에서는 제5차 전역을 둘러싸고 김일성의 군사적 실책 때문에 평터화이가 김일성의 따귀를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김일성의 독단적인 조선인민군의 지휘로 제64사단의 8천명이 몰살당한 적이 있는데, 이때 평터화이는 김일성을 소련 특사 앞에서 따귀를 때릴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북한 역시 평터화이와 가까운 박일우 등을 참석시키지 않았다. 中國國家博物館編著, 『共和國領袖故事: 周恩來』(上海教育出版社, 2006年版)에 따르면,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을 만날 때도 평터화이는 김일성을 국가원수로 대접하지 않고 무시했다고 한다.

14) 裴堅章, 앞의 책, 213~214쪽.

15) 平岩俊司, 앞의 논문, 17~18쪽.

년 4월에 이미 중국군의 철군이 협상되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4월 초순의 제네바 정치협상을 준비하는 북중의 협상에서 중국군의 철군문제가 논의되었다는 것이다.

제네바 협정에서는 또 하나의 동아시아의 중요한 전쟁인 베트남-프랑스 전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7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베트남민주공화국이 점령하고, 남쪽은 프랑스가 점령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한반도, 대만, 인도차이나를 둘러싼 중미 간 대결에 대하여 중국지도부가 신중국의 건국 이전부터 우려했다는 점에서, 중국군의 북한으로부터 완전 철군의 결정에는 미국과 프랑스라는 제국주의 세력의 대만과 인도차이나부터 철군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되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제네바 협정 이전에 북중 간에 철군이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소련, 중국, 북한, 베트남이 미국, 프랑스 등에 대항하여 '공산진영이 연대한 동아시아 전략'으로써 북한에서의 중국군의 철군문제를 고민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히라이와의 주장처럼 대만해협의 제7함대의 철수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의 프랑스군과 미국의 지원이라는 제국주의 세력의 철수를 요구하기 위하여 공산진영은 북한으로부터 중국군의 철수를 고려한 것이다.

4월 27일, 북한의 남일 외무상은 남북의 통일 회복과 한반도의 자유선거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3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둘째 항목은 '모든 외국무장세력은 6개월 이내에 조선에서 철수한다'이다. 이에 대하여 남한대표 변영태 외무장관은 미군은 지속적으로 남한에 주둔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4월 28일, 저우언라이 외무부장은 남일 외무상의 3개 건의를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모든 외세의 간섭을 배제해야 하고, 테러집단의 어떠한 압력도 배제해야 하고, 전조선 인민은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모든

외국군대는 반드시 조선에서 철퇴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몰로토프 외무부장은 저우언라이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했다. 미국 국무부 장관 덜레스(John Foster Dulles)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가 한반도 문제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북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수하는 것을 반대했다.

5월 3일, 남일 외무상은 '조선통일과 전조선 자유선거의 3항에 관한 건의'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미국, 남한은 중국, 소련, 북한의 방안에 반대했다. 저우언라이는 남일 외무상이 건의를 다시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 미국대표는 중국, 미국이 조선으로부터 거리가 다르므로, 모든 외국군대의 동시철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다. 사람들은 질문을 금치 못한다. 미국이 수천 리의 조선침략에 병사를 파병해 놓고, 왜 현재 군대를 철수하여 원래대로 되돌리지 못하는가? 모든 외국군의 철수 후 조선은 평화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고, 남일 외무상은 조선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가 조선의 평화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건의했다 ..."

이에 대하여 남한대표 변영태는 14개 항의 건의를 제출했고, 미국대표 스미스는 남한의 건의를 지지했다. 6월 15일, 마지막 회의에서 남일 외무상은 한반도의 평화상태를 보장하는 6개의 제안을 제시했는데, 첫째 항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조선 경내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신속히 철수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 국가의 정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저우언라이는 6항을 지지했다. 그러나 스미스 미국대표는 북한, 중국, 소련의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거절했다.

'제네바 정치회의'에서의 '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완전 철군'에 대하여 북한과 중국이 일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제네

바 정치회의 결렬 직후 인민지원군이 철수를 시작했다. 제네바 회의에서의 남일과 저우언라이의 한반도에서의 외국군의 즉시 철군의 발언을 주목한다면, 북한과 중국 간에는 제네바 정치회의 이전에 이미 철군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었다는 것이다.

(3) 지원군의 철수 과정

1954년 3월 총사령부는 “조선인민을 도와 재건활동을 진행할 것에 관한 지시”를 내리고 전후 복구건설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¹⁶⁾ 북한에 주둔하는 중국군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전후 복구건설을 지원하였다. 지원군 총사령부의 ‘3월 지시’는 시간적으로 2월 28일 베를린 회의에서 제네바 정치회담의 개최를 결정한 시점과 4월의 제네바 회의를 위한 북중협상의 사이이다. 이 결정에 따르면 중국군은 철군을 전제로 전후 복구작업을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다.

제네바 정치협상의 결렬 직후, 제1차 철군은 1954년 9월에서 10월 3일에 이루어졌으며, 중국군 제47, 제67군단 및 제33사단 등 7개 사단이 철수했다.¹⁷⁾ 1954년 9월 5일 중국군 7개 사단의 철수가 발표되었다.¹⁸⁾ 이날, 평터화이가 지원군 사령관을 사직하고, 덩화가 지원군 사령관 겸 정치위원을, 양더즈, 양용런(楊勇任)이 부사령관을 맡았다. 9월 29일, 평터화이는 국방위원회 부주석 겸 국방부 부장에 임

명되었다.¹⁹⁾ 9월 28일에서 10월 5일, 김일성은 중국 건국 5주년 경축행사에 참여하였다. 즉 중국군의 철수기간에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한 것이다.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회담에서는 중국군 7개 사단 철수에 관한 문제와 전후 복구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²⁰⁾ 또한 한국전쟁 이후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의 업무를 중국 측이 관장하고 있었는데, 북한 주권의 손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북중 양국은 정전위원회의 책임을 북한이 맡는데 합의하고, 1955년 1월 21일자로 중국은 판문점에서 정전위원회 위원 1인과 소령 1인만을 남기고 대표단을 철수하였다.²¹⁾

2월 상순, 주더 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3월 31일~4월 16일 사이에 제50, 제68군단 등 6개 사단이 철수했다. 총사령부 대변인은 3월 25일 철수를 발표했으며, 양더즈 사령관도 귀국했고, 양용이 사령관이 되었다. 중국군 철수부대는 3월 29일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환송대회를 열었으며, 3월 31일 신의주를 통과했다.²²⁾ 1955년 6월에 양용 사령관은 북한의 중문잡지 ‘신조선’에 ‘항미전쟁 5주년을 기념하여 북중의 국제주의적 우호와 단결’에 대한 글을 기고하였다.²³⁾

1955년 8월 11일~23일, 주더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또다시 북한을 방문했다. 공식적인 방문목적은 ‘8·15 조선해방 10년 행사’의 참여였다. 시기적으로 주더 부주석은 김일성과 철군을 논의했을 것이다.²⁴⁾ 김일성은 주더에게 한국전쟁 시기와 전후에 건설된 지하 공

16) 李連慶主編, 『中國外交演義-新中國時期』(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5年), 185쪽.
17) 「中國人民志願軍總部發言人宣布將從朝鮮撤出7个是回國的公告」(1954년 9월 5일), 「中國人民志願軍返國部隊代表邱蔚在平壤歡送中國人民志願軍返國部隊大會上答詞」(1953년 9월 10일),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 793~808쪽;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788~789쪽.
18) 「中國人民志願軍總部發言人宣布將從朝鮮撤出7个師古國的公告」,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獻匯編』, 793쪽.

19) 『彭德懷年譜』, 576~577쪽.

20) 「毛澤東主席會見金日成首相率領的朝鮮政府代表團」(1954년 9월 28일),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 807쪽; 『周恩來年譜1949-1976(上)』, 415쪽.

21) 이종석, 앞의 책, 205쪽.

22) 『新朝鮮』(平壤: 外文出版社, 1955년4월), 63쪽;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789쪽.

23) 楊勇, 「偉大的國際主義的友誼和團結: 紀念朝鮮人民抗美戰爭5周年」, 『新朝鮮』(平壤: 外文出版社, 1955년6월), 12~13쪽.

장의 상황을 설명하였다.²⁵⁾ 10월 10일~10월 26일, 제24, 제6군단 등 모두 6개 사단이 철수함으로써, 중국군의 철수가 완료되었다.²⁶⁾ 중국군은 1954년에서 1955년에 3차례에 걸친 공개적인 철수와 비밀철수를 병행하였다. 기타 비밀철수로는 1953년~1955년 말, 제60, 제63, 제64, 제65, 제12, 제15군 등 6개 군단, 포병 제2, 제7, 제21, 제22사단과 고사포 제61, 제63, 제64, 제65사단과 기타 특수병과 부대 등이 철수하였고, 1955년 1월 제3병단 지도기관이, 1955년 4월 초 제9병단 지도기관이 철수하였다.²⁷⁾ 중국은 인민지원군의 철군으로 인한 북한의 군사안보적 공백을 우려하여 1955년 말까지 북한인민군을 60만 명 선에서 편성, 훈련을 지원하며, 동북3성에 6개 군을 상주시켜 유사시 북한의 증원군으로 활용한다고 약속하였다.

중국군이 대폭 철수한 것은 중국군의 북한 주둔에 따른 막대한 주둔비용, 베트남전쟁, 대만위기 등의 대외적 위협, 국토완정 등이 작용했다.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없는 상태에서 중국군의 대규모로 일방적으로 철수가 가능한 것은 압록강을 건너서 한반도로 재진주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미군과 달리 매우 짧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24) 「關於派中國代表團參加朝鮮解放10周年典禮給金日成的夏信」(1955년8월11日), 「毛澤東等祝賀朝鮮解放10周年的電報」(1955년8월12日), 『建國以來毛澤東文稿第5冊』, 295~333쪽; 『朱德年譜』, 391~392쪽; 「朱德副主席在離開平壤時發表的談話」(1955년8월24日); 「朱德副主席離開朝鮮國境時致金日成首相的感謝電」(1955년8월24日),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 850~851쪽.

25) 「在朱德同金日成談話摘要上的批語」(1955년8월), 『建國以來毛澤東文稿第5冊』, 334쪽.

26) 「社論: 光榮屬於中國人民志願軍」, 『新朝鮮』(平壤: 外國文出版社, 1955년10월), 3~4쪽; 「中國人民志願軍總部發言人宣布志願軍6個師已全部撤離朝鮮返回祖國」(1955년10월27日);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789쪽.

27)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789쪽.

<표 2: 중국군의 제1단계 철군 일정과 현황>

철군일시	구 분	철수병력
1953년 8월 ~10월	비공개철수	8월-64군단 9월-63군단, 포병7사 10월-60군단, 65군단, 포병2사, 포병21사, 고사포 61사
1954년 4월 ~8월	비공개철수	4월-12군단 5월-15군단, 장갑병 제1지휘소(4개 연대) 8월-포병(단동)64사 12월-포병22사, 포병(단동)65사
1954년 9월 16일 ~10월 3일	제1단계 1차 철수	7개 사단 총 87,894명 제47군단(139, 140, 141사단), 제67군단(199, 200, 201사단 및 제 33사단 등)
1955년 3월 31일 ~4월 16일	제1단계 2차 철수	6개 사단 총 52,192명 제50군단(148, 149, 150사단), 제68군단(202, 203, 204사단)
1955년	비공개철수	1월-제3병단 지도기관, 관문점 정전위원회 일부 3월-공안사, 포병3사 4월-제9병단 지도기관 9월-고사포(단동)63사
1955년 10월 10일 ~26일	제1단계 3차 철수	6개 사단 총 63,257명 제24군단(70, 72, 74사단), 제46군단(133, 136, 137사단)
1955년 말 이후, 잔류 부대	잔류부대 (25만명)	제1, 제16, 제21, 제23, 제54 등 모두 5개 군단, 포병, 고사포병, 장갑병, 공정병, 후방 병참부대 등
1957년 2월	비공개철수	포병1사, 4사

3. 중국군의 철군 중단과 재철군 결정의 배경

－ 종파사건을 중심으로

(1) 철군 중단의 배경 - 종파사건과 사회주의 진영의 혼란

1955년 말부터 중국군의 철군은 중단되었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연안과 숙청이 진행되었고, 북한의 종파사건을 둘러싸고 중국은 북한의 내정을 개입했다. 1956년 2월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를 둘러싸고, 사회주의 각국 국내에서는 개인숭배를 격하하면서 자유화가 진행되었다.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치상황이 복잡하게 진행될 때 중국군의 철군중지결정과 완전철군이 결정되었다.

제3절에서는 북한의 종파사건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이를 둘러싼 철군중지 결정과 완전철군결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1957년 2월 비공식적으로 철수한 포병 1사와 4사가 있기는 하지만, 1955년 10월부터 1958년 3월까지 2년 기간동안 중국군에 대한 철군 논의가 중단되었다. 즉 중국군의 완전철군이 연장된 시점은 종파사건이라고 불리는 북한내부 권력투쟁이 격화되는 변혁의 시기이며 사회주의 진영의 혼란의 시기였다. 중국은 북한의 권력투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리고 1957년 10월, 중국과 북한은 러시아 혁명 40주년 기념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이때 마오쩌둥과 평터화이가 김일성에게 사과하면서 북중관계는 봉합된다. 즉 마오쩌둥은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적 자세에 대항하기 위하여 북중간의 협력을 추진하면서 북·중의 지도자는 지원군 문제를 논의하였다.

1955년 10월 말, 중국군의 제1단계 철군이 완료된 시점에서 김일성은 연안계와 소련계에 대하여 숙청을 진행하였다. 1955년 12월,

김일성은 박일우를 반당 종파행위의 혐의로 출당조치했다. 박일우²⁸⁾는 마오쩌둥, 평터화이 등의 중국지도부와 막역한 사이였다. 1956년 2월 소련 20차 당대회에서의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은 북한,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에서는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에 힘을 얻은 연안계, 소련계 등은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비판을 준비하게 되었다.²⁹⁾ 이런 배경하에 1955년 12월 28일 로동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은 '주체에 대하여' 연설하였다.³⁰⁾ 이는 중국과 소련이라는 대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는 연설이었다. 즉 중국군의 제1단계 철군완료, 연안계에 대한 숙청, 그리고 김일성의 '주체'에 대한 연설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 것이다.

1955년 10월 철군 이후 1958년 2월까지 중국군의 철수는 진행되지 않았다. 히라이와는 중국 지도부의 원래 계획은 1956년 내에 중국군 전원을 철수시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의 영향으로 폴란드 사건, 헝가리 사건이 발생했다. 히라이와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 지도부는 미국이 사회주의진영의 이런 복잡한 정세를 이용하여 동아시아에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한다.³¹⁾ 또한 1956년 6월 1일, 로동신문에는 조선인민군의 병력을 축소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새로운 기여를 하고, 평화적 통일의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1956년 8월 31일까지 8만명을 축소한다고 발표하였다.³²⁾

28) 2007년 7월 발간된 《中國戰爭地圖集》에 의하면, 박일우는 중국군의 서열 3위로써 부정치위원이다.

29) 小此木政夫, 「北朝鮮における對ソ自主性の盲啞1953-1955」, 『アジア經濟』, (1970年, 第7号), 53쪽.

30) 平岩俊司, 앞의 논문, 24쪽.

31) 平岩俊司, 앞의 논문, 23~24쪽.

6월 7일부터 7월 19일, 스탈린 격하 등의 소련 신지도부의 급격한 노선변화와 원조에 대하여 동유럽 국가들과 교섭을 하기 위하여 김일성은 정부대표단을 인솔해 소련과 동구권을 방문했다.³³⁾ 김일성이 부재중인 기간에 '8월 그룹'은 반김일성 활동이 진행하였고, 그들은 소련대사관과도 상당한 정보교류가 있었다.³⁴⁾ 당시 박일우 등 연안계는 북조선 내 중국군 고위간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당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하였고, 평더화이를 통하여 북한의 문제점을 마오쩌둥에게 직접 전달하였다.³⁵⁾ 8월 30일 평양예술극장에서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 때 연안계는 김일성 지도부를 공격하였으나, 그들의 도전은 실패했다. 김일성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대응했다. '반중파투쟁'을 피해 중국으로 도피한 연안계 인물은 1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연안계의 이상조 주소대사는 9월 3일 흐루시초프에게 긴급서한을 보냈다. 그는 소련과 중국공산당이 직접 조선로동당의 당내 상황에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³⁶⁾

(2) 중·소 공동대표단의 북한에 대한 간섭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북경에서 중국공산당 제8차 대회가

32) 박영실, 「정전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대북한 지원과 철수」, 『정신문화연구』(2006년 겨울호 제29권 제4호), 277쪽.

33) 이종옥, 「偉大的友誼和偉大的援助」, 『新朝鮮』(平壤: 外文出版社, 1956년 7월), 이종옥의 문장은 6~9쪽, 일부 국가의 구체적인 원조량은 44쪽. 구체적인 방문일정은 10쪽.

34) 下斗舞信夫 著, 이혁재 옮김, 앞의 책, 105쪽; 中共中央對外聯絡部, 『各國共產黨總覽』(当代世界出版社, 2000년), 5쪽.

35) 정창현, 『인물로 본 북한 현대사』(서울: 민연, 2002년 7월), 209쪽.

36) 9월 3일, 이상조 주소대사가 흐루시초프에게 보낸 긴급서신은 정창현, 앞의 책, 225~226쪽.

개최되었다. 소련공산당에서는 미코얀(Anastas Ivanovich Mikoyan) 부수상 겸 정치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그 기간 중에 미코얀은 소련 간부회의의 결정에 따라 북한의 종파사건에 대하여 마오쩌둥 등 중국 고위 지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³⁷⁾ 북한의 정치투쟁을 조사하기 위하여 미코얀과 평더화이를 대표로 하는 중소 공동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평더화이와 김일성은 한국전쟁 시기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평더화이는 박일우를 지지하며 한국전쟁 때부터 줄곧 김일성과 마찰을 빚고 있었다.³⁸⁾ 미코얀은 중국과 북한 방문 직전 헝가리에서 '작은 스탈린'이라고 불리는 라코시 추방작업을 원만히 수행하였다. 즉 김일성 제거를 위해 미코얀과 평더화이라는 중소의 최고의 실력자가 참여한 것이다.³⁹⁾

중국군 대표로 양용 사령관이 제8차 중국공산당대회에 참가하여 중앙위원회 후보중앙위원으로 선출되어, 중국군의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중국군은 대국주의적 태도와 교만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용은 북한에 돌아온 후, 8대 정신과 마오쩌둥 주석의 지시에 따라, 일부 중국군의 대국주의와 자만한 사상 경향에 대하여 왕펑 정치위원과 '지원군학습단'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⁴⁰⁾ 이것은 역설적으로 북한에서 중국군의 대국주의적 자세와 자만한 사상을 인정하며 지원군과 북한주민과 불화가 상당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종파사건의 준비, 진행, 중소공동개입에 중국지도부와 중국군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정황으로 볼 때, 양용 사령관과 마오쩌

37) 이웅현, 『헝가리 침공과 흐루시초프: 1956년 10월 23일-11월 4일, 위기의 13일간』(서울: 세종연구소, 1999년), 61쪽.

38) 下斗舞信夫 著, 이혁재 옮김, 앞의 책, 143쪽.

39) 안드레이 란코프 저, 김광린 역, 앞의 책, 231~237쪽; 下斗舞信夫 著, 이혁재 옮김, 앞의 책, 106쪽.

40) 『楊勇將軍傳』, 340~342쪽.

등, 평터화이 등의 중국지도부간에 종파사건을 둘러싸고 정보교환이 있었을 것이다.

중국공산당 대회기간 중에 미코얀 부수상과 평터화이 국방부장을 대표로 하는 중소공동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였지만,⁴¹⁾ 9월 23일, 미코얀, 평터화이가 참석한 전원회의는 이날 하루만 열렸다. 김일성은 전원회의에서 형식적으로 자기비판을 하면서 권력을 유지했다. 김일성은 중소대표들 앞에서 로동당의 결정이 성급했음을 시인했다. 그리고 8월 전원회의 결정의 내용을 번복했다.⁴²⁾ 그러나 이 사건에 관여한 코비젠코 등 소련공산당 전문가 등은 김일성이 로동당을 완전 장악했다고 보았다. 중국군이라는 강력한 외세가 있는 상황에서, 김일성은 오진우가 이끄는 군병력을 평양에 배치하여 반란에 대비하였다.⁴³⁾ 중소공동대표단 철수 이후, 종파주의자에 대한 숙청은 지속되어 1961년까지 진행되었다. 더욱이 공동간섭은 중소분쟁으로 인하여 흐지부지되었다. 마오쩌둥 등의 중국지도부는 연안계에 숙청에 대하여 분노하였지만, 연안시대에 중국, 조선 공산주의자간에 종파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기도 했었음으로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을 삼가하였다.

(3)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타협으로써 완전철군결정

1957년 11월, 모스크바의 각국 공산당대회에서 김일성과 마오쩌둥은 각각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였다. 마오쩌둥과 평터화이가 김일성에게 8월 종파사건 등 북한 내부에 대한 중국의 간섭을 사과

하면서 갈등은 수습되었다. 종파사건에 대하여 마오쩌둥과 평터화이가 김일성에게 사과하는 자리에서 중국인민지원의 최종철군이 협상되었다. 중국측 자료에 의하면 마오쩌둥은 “조선 형세가 안정됨에 따라 중국군의 사명은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으므로, 전부 조선에서 철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고, 마오쩌둥의 철군 제안에 대하여 김일성이 동의했다고 한다.⁴⁴⁾ 그러나 모스크바에서 마오쩌둥과 평터화이가 사과한 이후, 북한에서 소련과 중국의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다.⁴⁵⁾ 마오쩌둥의 사과와 철군에 대한 논의는 중소분쟁에서 소련에 대항하기 위하여 김일성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는 측면이 강했다. 마오쩌둥의 입장에서는 중소관계가 악화되는 시점에서 동유럽에 주둔하는 소련군의 철수에 대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동유럽에서의 친중국 분위기를 고무시키고, 중소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1955년 10월말 제1단계 철수 이후, 8월 종파사건을 중심으로 1955년 말에서 1957년에 걸쳐 연안계를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중국군, 연안계는 위협적인 외세로 인식되었다. 김일성은 국내적으로 권력강화를 위하여 중국군의 철수를 원했다. 이런 점에서 모스크바 회의에서 김일성이 먼저 마오쩌둥 등의 중국지도부에 전원 철군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김일성이 끈질기게 중국군의 철수를 재촉하여 완전히 철수당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북한 내정간섭으로 갈등이 극에 달하였을 때, 중국이 북한

41) 안드레이 란코프 저, 김광린 역, 앞의 책, 234쪽; 『彭德怀年譜』, 628쪽.

42) 이종석, 앞의 책, 214쪽.

43) 下斗舞信夫 저, 이혁재 옮김, 앞의 책, 106쪽.

44) 『楊勇將軍傳』, 345쪽.

45) 정창현, 앞의 책, 244~245쪽.

정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중국군을 통한 영향력 행사와 친중인사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었다. 김일성은 1955년에서 1957년을 통하여 대부분의 연안계를 숙청하였다. 중국 측의 완전철수 결정에 대하여 히라이와는 중국이 최용건, 김광협 등 친김일성계열이면서도 친중인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국군의 철수를 결정했다고 한다.⁴⁶⁾ 즉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군을 완전 철수하는데 동의하면서, 북한 내의 친중인사들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미관계와 북중관계를 연계하여 히라이와는 '미군이 여전히 중국에 위협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중국군은 재철군을 결정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⁴⁷⁾

4. 중국군의 완전철군을 둘러싼 북·중 협상

(1) 철군협상과정과 철군에 대한 공식발표

모스크바 회담에 따라서 김일성은 12월 16일과 25일 마오쩌둥에게 '지원군의 한반도 철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북한정부가 성명을 발표하여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주장하고 중국정부도 이에 적극 호응하는 것, 두 번째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유엔에 서한을 보내고 소련도 유엔에 제안을 하여 유엔이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었다.⁴⁸⁾ 1957년 12월

26일과 1958년 1월 24일,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전보를 통하여 중국군의 철군계획을 확정했다. 철군일정은 마오쩌둥의 제안대로 진행되었다. 철군은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결단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저우언라이가 평양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했다.

12월 30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임위원회와 서기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토론하여, '중국군의 조선으로부터의 철수 방안'을 수립했다. 이 방안은 '조선정부가 유엔군과 중국군의 철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정부가 이를 지지한다. 중국군을 단계적으로 조선반도에서 철수시키는 문제를 조선정부와 논의 하겠다고 정식으로 표명하여, 유엔군 측의 관련 정부 역시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당일 저우언라이는 이 방안을 심의한 후, 마오쩌둥에게 승인을 요청했다. 31일 마오쩌둥은 이 방안을 승인하고 동의했다.⁴⁹⁾ 그 후 중국정부는 한반도에서 중국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소련 정부에 통보하고 소련의 의견을 구했다.⁵⁰⁾ 1월 13일, 중앙군사위원회는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중국군의 철군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참모부 작전부와 중국군 총사령부는 중국군 철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했다.⁵¹⁾

1958년 1월 24일, 마오쩌둥은 중국군의 한반도 철수에 관한 전문을 김일성에게 보냈다. 전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도적으로 외국군대의 조선반도에서의 철수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중국정부가 조선정부의 요구에 호응한다 ... 이 방안에 대하여 우리는 다

46) 平岩俊司, 앞의 논문, 25~26쪽.

47) 平岩俊司, 앞의 논문, 25~26쪽.

48)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790쪽.

49) 「對從朝鮮撤回中國人民志願軍的方案의批語」(1957年12月31日), 『建國以來毛澤東文稿第六冊』, 697쪽.

50)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790~791쪽.

51)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792쪽.

음과 같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그 의견은 우리가 이미 소련 정부와 상의했고 그들이 완전히 동의한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전문은 출처에 따라서 내용이 다소 상이하지만, 마오쩌둥의 여러 가지 형태의 전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최고인민회의가 유엔에 외국군 대의 조선에서의 철수를 요구하고, 소련은 유엔에 철군 문제를 제출하여, 유엔에서 이 문제가 채택되도록 한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결점이 있다. 우리의 적국으로서 일방인 유엔회원국은 사실상 유엔군으로써 침략군대를 조직해서 파병했으므로, 우리를 지지하는 것은 소수의 유엔회원국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발표한 공개성명을 따를 것을 제안한다. 조선정부가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군과 중국군이 동시에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동시에 남북평화통일에 관한 몇 가지 조치를 제안한다 ….

둘째, 조선정부가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중국정부가 조선정부의 주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단계적으로 중국군의 철수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정식으로 표시하고 동시에 유엔군 관련 각국 정부도 이와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한다.

셋째, 이어서 소련정부가 성명을 발표하고 조선과 중국 정부의 성명을 지지하고 유엔군 관련된 각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요구에 호응하라고 강조하며, 관련 국가가 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논의할 것을 건의한다.

넷째, 2월 중순 저우언라이 동지가 중국정부를 대표해 방북하는 동안 조선과 중국 양국 정부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정부가 이미 중국군과 협의해 중국군이 1958년 말 이전에 단계적으로 한

반도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선포한다. 공동성명에서 조선과 중국 양국 정부가 유엔군 철군 전에 중국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한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논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힌다. 그런 다음 유엔군 역시 이에 호응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중국군도 성명을 발표하고 조선과 중국 양국 인민은 서로 고난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관계이지, 중국군의 철수가 조선과 중국 양국 인민들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승만과 미국이 다시 도발을 진행해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 조선정부가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군은 주저하지 않고 다시 조선인민군과 함께 침략자를 응징할 것이라고 표명한다.

다섯째, 중국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시기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하나, 북중 양국 정부의 연합공보 발표 이후, 1958년 3월부터 4월까지 1/3을 철수시키고 기타 2/3를 균등하게 제2방어선에 배치하며 조선인민군 전부를 제1방어선에 배치하고; 둘, 1958년 7월부터 9월까지 다시 1/3을 철수시키며; 셋, 1958년 말까지 나머지 1/3을 철수시킨다.

여섯째, 북중 양국 정부 연합공보 발표 이후, 중립국감시위원회 양단 방면에서 다시 감찰위원회에 요구를 제안하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여전히 유엔군이 아직 철수하지 않는 이유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 판문점에서 감독임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요청을 무시하고 떠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⁵²⁾

평더화이는 양용이 중국에 귀국하였을 때, ‘마오쩌둥의 철군에 대한 구상’을 전달했다. 그리고 1월 28일, 양용은 평더화이에게 중국군

52) 「關於志願軍撤出朝鮮問題給金日成的電報」<중국지원군 철수문제에 관하여 김일성에게 보내는 전문>, (1958년 1월 24일).

철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다. “조선반도에서 중국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이 이미 확정된 것과 행동시간이 급박함을 감안하여 전투준비 태세를 늦추지 않고 경비 지출을 절약한다는 정신 하에 지원군은 이미 초보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했다. 부대의 영구적 구조물의 건설은 계속 진행한다. 금년 상반기에 장교 가족들의 조선반도로의 입국을 일률적으로 중지시킨다. 군수물자는 금년에 필요한 것이 아니면 조선반도로 들어오지 않는다. 방어임무 교대에 관한 모든 관련 자료는 현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부대의 철수 시간과 방법 및 각 군단의 귀국 후 주둔지, 그리고 병단과 중국군 지도 기관의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동시에 중국군은 철군 계획을 수립했다.⁵³⁾ 즉, 양용은 철군 시간과 방법문제, 그리고 철군 이후의 중국에서의 재배치 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였다.⁵⁴⁾

1월 31일 평터화이는 양용의 보고서를 읽고, 마오쩌둥에게 전달했다. 2월 3일, 마오쩌둥은 양용의 보고서를 읽고, 고려할 수 있다고 표명하면서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보고서를 저우언라이에게 전달했다. 저우언라이, 천이, 양용, 왕펑, 량뻬예(梁必業), 왕원루이(王蘊瑞) 등의 장·영단은 중국군 사령부 2층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했다. 저우언라이는 “군사위원회는 이미 초보적인 연구를 했다. 기본적으로 당신의 의견에 찬동한다. 내일 우리와 조선 동지는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이후에 우리는 당신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같이 새해를 맞을 것이다”라고 말했다.⁵⁵⁾

53)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792쪽; 『楊勇將軍傳』, 345~346쪽; 「양용이 평터화이에게 한 보고」(1958년 1월 28일).

54) 『楊勇將軍傳』, 345~346쪽.

55) 『楊勇將軍傳』, 346~347쪽.

북한, 중국, 소련 삼국 정부가 합의한 방안에 따라 2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모든 외국 군대의 철군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⁵⁶⁾ 이틀 후인 2월 7일, 중국정부는 북한정부에 대한 성명을 지지하는 발표를 했다.⁵⁷⁾ 그리고 유엔군의 철군을 연계하여, 미국과 남한의 위상을 흔드는 전략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군사적으로 재개입할 뜻을 밝히면서 북한의 안전보장을 확인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미군과 남한정부를 겨냥하여 ‘조선반도에서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군’을 연계하여 선전해나갔다. 북한에서 먼저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과 북한에 있는 중국군의 철군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정부는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철군문제를 협의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발표하는 순서로 문제를 처리해 나갔다.

(2) 저우언라이의 북한 방문⁵⁸⁾: 철군 협상, 지원군 방문, 그리고 선전활동

2월 10일, 저우언라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기 5차 대회에서 조선반도문제에 대하여 미군을 겨냥하여 외국군의 철군을 요구하는

56)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的重大聲明」(人民日報:社論, 1958년 2월 5일),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 921~922쪽;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792~793쪽.

57) 「中國政府同朝鮮政府磋商撤出志願軍的聲明」(1958년 2월 7일),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 921~922쪽;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793쪽.

58) 1958년 2월 북경에서 발간된 북중간의 완전철군에 대한 연합성명과 관련 문건집은 『爲了朝鮮的和平統一—中朝兩國政府關於中國人民志願軍撤出朝鮮的聯合聲明及有關文件』(北京:世界知識出版社, 1958년).

연설을 하였다.⁵⁹⁾ 공식적으로 중국 국내에서 중국군의 철군을 공표한 것이다. 철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군 당위원회는 중앙군사위원회와 저우언라이 총리의 지시에 따라 철군 작업을 구체적으로 조정하여 전 군에 “절대 태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처음과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군대의 철수는 우의를 강화할 것이다!”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⁶⁰⁾ 이에 따라서 2월 13일, 사령관 양용, 정치위원 왕핑은 철군에 관한 훈령을 반포했다.⁶¹⁾

2월 14일에서 21일, 중국정부대표단이 철군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한을 우호 방문하였다. 춘절(설)에 철군을 앞둔 중국군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 14일, 국무원 총리 저우언라이는 평양공항에 도착하였다. 저녁에는 저우언라이, 천이, 리위, 양용 등이 철군 문제를 논의하였다. 저우언라이의 조속한 철군 준비 요청에 대하여, 양용이 중국군 참전 8주년에 맞추어 10월 25일 최종 철군할 것을 건의하여 ‘최종철군일’이 결정되었다.⁶²⁾

저우언라이는 김일성과 회담을 진행하고, ‘중국군의 조선반도 철군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유엔군과

중국군이 동시에 철수하고 중립국 감시 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북한의 성명을 지지했다. 2월 16일 저녁, 저우언라이는 총사령부가 있는 회창에 도착했다. 2월 17일 춘절, 저우언라이는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군 지휘관과 장교들을 접견하고 한반도에서의 철군에 관한 중국군의 의견을 듣고, 중국군 전체 장·병사들이 북한과 중국 양국 정부의 설명을 따르도록 지시했다.⁶³⁾ 오후에 저우언라이는 중국군이 정부대표단을 위해 거행한 환영식에 참석했다. 저우언라이는 중국군 연대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환영식에서 연설을 하였다. “국제 정세와 아시아 정세를 분석하고 철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내의 사회주의건설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전 군의 간부들이 모범을 보여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자신을 문무를 겸비한 군사전문가로 연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체 장사병이 고도의 국제주의 정신을 발휘하여 근면한 북한 주민과 영웅적인 조선인민군의 장점을 배울 것을 호소하고, 철군 과정에서 조선 정부와 조선인민군과 조선 주민에게 각종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자신들이 휴대하는 무기 외에는 모두 남겨 두어 조선과 중국 양국 인민들의 우의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⁶⁴⁾

2월 19일, 김일성과 저우언라이는 ‘연합성명’에 서명했다. ‘연합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는 조선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일관되게 적극 촉진한다는 입장에 근거해 2월 7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서의 각종 제안을 완전히 지지한다고 밝힌 것 외에, 조선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다시 중국군의 자발적인 조선반도 철군을 건의했다. 중국군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건의에 완

59) 『周恩來總理在一屆全國人大五次會議上的講話：目前國際形勢和我國外交政策』(1958年2月10日).

60)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798쪽. 각급 부대에서는 “交好, 走好, 到好”를 요구했다. ‘交好’는 무기와 장비와 개인이 휴대하는 물품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북한인민군에 넘겨주고, ‘走好’는 원만하고 완전하게 철군하는 것이며, ‘到好’는 조국으로 돌아간 다음 공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으며 조국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61)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798~799쪽. 훈령에서는 전 군이 철군 과정에서 “交好, 走好, 到好”의 세 가지를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의 각 항의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62) 『楊勇將軍傳』, 342~345쪽; 2월 14일, 『周恩來外交活動大事記1949-1975』, 232~234쪽.

63) 『楊勇將軍傳』, 347~349쪽.

64) 『楊勇將軍傳』, 349~350쪽.

전히 동의했고 1958년 연말 이전에 단계적으로 조선반도에서 모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제1차 철수는 1958년 4월 30일 이전에 철군을 완료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군의 이러한 결정에 동의했고, 중국군의 철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⁶⁵⁾ 같은 날, 연합성명에 대하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북한 양국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실행한다면 환영받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한걸음 더 나아가 ‘유엔’의 감독하에 전체 한반도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모두 철수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다.⁶⁶⁾

중국 정부는 미국에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다양한 외교 통로를 통해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관련국에 건의했다. 2월 7일, 중국 정부가 성명을 발표한 당일, 외교부 부부장 뤼귀보(羅貴波)는 중국 주재 영국대표부 대표를 접견해서 중국 정부의 성명을 전달하고 영국 정부에 이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영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성명을 유엔군에 참가한 기타 각국 정부에 전달해 줄 것도 요청했다.

5. 중국군의 최종철군과정과 철군 직후의 정세

(1) 북·중의 철군준비활동

북한과 중국의 최고지도부의 철군 결정에 따라서 2월 20일, 지원

65) 『周恩來年譜1949-1976(中)』, 127~130쪽; 『陣毅年譜』, 733~735쪽;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793~794쪽; 『楊勇將軍傳』, 342~351쪽.

66)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795~796쪽; 『인민일보』(1958년 2월 21일).

군 총사령부는 철군 성명을 발표했다.⁶⁷⁾ 성명을 통하여 중국은 반복적으로 철군을 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군이 한반도에 진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총사령부는 철군 대회를 열었다. 중국군 부정치위원 량빠에는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 정부의 공동 성명과 중국군 총사령부의 성명 내용을 설명하고 철군 작업 문제에 대해서 전체 장사병들에게 필요한 요구를 했다.⁶⁸⁾ 같은 날, 소련 정부는 ‘조선과 중국의 중국군 조선반도 철수에 관한 건의를 완전히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⁶⁹⁾ 21일, 저우언라이는 귀국했다. 같은 날, 중국군 정치부는 ‘지원군의 조선 철수에 관한 정치작업지시(關於志願軍撤出朝鮮的政治工作指示)’를 발표했다.⁷⁰⁾

24일, 중국군과 북한인민군은 임무를 교대할 부대의 배치와 구성을 확정했다. 25일, 사령관 양용과 인민군 총참모장 이권무는 쌍방의 방어임무 교체에 관한 연합 명령에 서명했다.⁷¹⁾ 그리고 27일, 중국군은 물자와 기자재의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병사들에게 하달했다.⁷²⁾ 2월 24일, 북한과 중국 측의 건의 하에 한반도 군사정전위원회는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 측 수석대표는 지원군 총사령부의 한반도에서의 자발적 철군에 관한 성명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한반도에서 미국 군대와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북한과 중국 측의 제안에 대응하지 않았다. 27일, 북한내각은 ‘내각결정 22호: 공화국 북반부 지역으

67)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795쪽; 『인민일보』(1958년 2월 21일).

68)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799~800쪽.

69)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795~796쪽; 『인민일보』(1958년 2월 21일).

70)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00쪽.

71) 북한과 중국의 연합명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00~801쪽.

72)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03쪽.

로부터 철군하는 중국군의 위대한 업적을 영원히 기념하며 그들을 환송할 때에 대하여'를 채택하였고, 김일성 수상은 내각 결정에 서명하였다.⁷³⁾

4월 9일, 유엔군에 참가한 각국 정부는 중국 주재 영국사무소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2월 7일 성명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관련국은 중국군의 한반도에서의 철수에 대하여 환영을 표시하고, 통일된 독립적 민주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남북한이 하나의 국민의회를 설립해 유엔의 감독 하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이 선거는 유엔이 주관하여 실시해야 되고, 국민회의의 대표 정원은 현지의 인구비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⁴⁾

5월 6일, 중국 정부는 북한 정부의 위탁으로 다시 한번 중국 주재 영국사무소에 미군과 유엔군의 철군을 요구하는 외교 각서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7월 2일, 중국 주재 영국사무소는 유엔군 측의 각국 정부를 대표해 중국 정부의 각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 한반도 문제가 유엔의 결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⁵⁾

(2) 지원군의 철군일정과 과정

3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중국군은 3차로 나누어 완전 철군을 했다. 이 철군 기간 동안, 남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정치공세를 강화하였다.⁷⁶⁾ 중국군 각급 부대는 계획에 따라 3차로 나누어 철수했다. 처음 1/3은 4월 20일 이전에 철군을 완료하고, 다음 1/3은 8월 20일

이전에 철군하고, 마지막 1/3은 중국군 참전 8주년을 기념하여 10월 26일에 하기로 일정을 세웠다. 부대의 철수 순서에 대하여 중앙군사위원회는 “전방, 서해안, 중간”의 방침을 확정했다. 먼저 철수하는 제1선 부대는 중국군의 철군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적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는 부대였고, 마지막으로 중간에 있는 부대를 철수시키는 것은 유사시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제1차로 철수한 부대는 육군 제23군단, 제16군단의 6개 사단과 일부 포병, 전차, 공정병, 수송부대, 그리고 공정병지휘소와 제19병단의 지도기관 등 모두 8만 명으로, 3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철수했다. 별도로 제20병단 지도기관은 3월 12일부터 미리 철수하였다. 그리고 6월 중국군 정치부는 철군정치공작 30조를 제시했다.⁷⁷⁾ ‘交好, 走好, 倒好’를 반드시 이행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 양국의 우의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체 장사병들이 북한과 중국의 우의를 위해 노력하는 기풍을 조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⁷⁸⁾ 중국군의 철수시 ‘三好’ 운동은 북한인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원군장사병에게 중국 국내정치를 교육하는 정치공작이었다. 당시 중국은 반우파 정풍운동,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지원군 지휘부는 장사병에게 정치공작을 하였다.⁷⁹⁾

제2차로 철수한 부대는 육군 제54군단, 제21의 6개 사단과 일부

73)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08~809쪽.

74)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796~797쪽.

75)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797~798쪽.

76)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797쪽; 『인민일보』(1958년 5월 7일).

77) 中國人民志願軍政治部, 『撤軍政治工作三十條』,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經驗匯編』, 1007~1010쪽. 철군부대의 정치공작 자료는 다음과 같이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經驗匯編』, 1011~1018쪽에 「451部隊移交中的政治工作」, 「450部隊撤离朝鮮前的友好活動」, 「執行“走好”“到好”的情況和體會」 등이 있다.

78)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00쪽.

79) 楊勇, 「滿載中朝友誼而歸」,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經驗匯編』(北京: 解放軍出版社, 1987年), 1002~1006쪽.

전차, 포병, 고사포, 병참, 공정병부대와 전차 지휘소 등 모두 10만 명으로, 7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철수하였다. 제3차로 철수한 부대는 총사령부, 육군 제1군단의 3개 사단, 포병지휘소 및 중국군 후방병참사령부 등으로 모두 7만 명이었고, 9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철수하였다.⁸⁰⁾ 거대한 병력의 철군이라는 군사적, 정치적 행동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북한과 중국 양국 철도부문이 철군 작업에 동원되었다.⁸¹⁾ 철군과정에서 중국군은 각종 공개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계획으로 8개월 동안 연인원 154만여 명이 작업에 투입되었다.⁸²⁾

3월 15일 이후 중국군 부대가 단계적으로 한반도에서 철군할 때, 김일성 수상과 북한의 당정 지도자들은 직접 철군부대의 주둔지를 방문하고, 중국군 장병들을 위문하고 환송했으며, 환송회와 연회에 직접 참석해 중국군을 격려하였다. 3월 11일, 제1차 철군부대의 환송회에서 김일성 수상은 “지원군이 조선전쟁에서 세운 위대한 업적은 조선의 아름다운 강산과 함께 영원히 남을 것이다”라는 찬사를 보냈고, 6월 26일 제2차 철군부대의 환송회에서 김일성 수상은 중국군이 “진정한 인민의 군대이며, 진정한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군대이며, 진정한 국제주의의 군대”라는 찬사를 보냈다. 환송회에서 북한의 당정 지도자들은 중국군 철군부대에 기념기를 증정하고 장병들에게 조국해방전쟁 기념장과 북중 우의 기념장을 수여하였다.⁸³⁾ 북한 정부는 10월을 ‘북중 우호의 달’로 지정하여, 북한의 당·정·군이 중국군의 철군에 대한 환송 활동을 전개했다.⁸⁴⁾ 10월 3일, 북

경에서 ‘중조친선협회’가 성립되었고,⁸⁵⁾ 같은 날 평양에서는 ‘조선중국우호협회’가 성립되었다.⁸⁶⁾

제3차로 철수한 부대는 중국군 총사령부, 육군 제1군단의 3개 사단, 포병 지휘소 및 중국군 후방병참사령부 등으로 모두 7만 명이었고, 9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철수했다.

10월 16일, 김광협 대장을 대표로 하는 북한인민군 대표단이 회창을 방문해서 지원군 총사령부와 직속 부대와 함께 고별대회를 개최했다.⁸⁷⁾ 17일, 사령관 양용과 민족보위상 김광협은 ‘지원군 총사령부와 민족보위상의 공동성명’에 서명했다.⁸⁸⁾ 18일, 양용은 북한인민에 대한 고별서신에 서명했다. 21일 오전, 양용 등의 지원군 지도부는 열사능에 헌화했다. 22일 10시 30분, 왕핑 등 중국군은 주둔지를 떠났다.⁸⁹⁾ 23일, 양용, 왕핑 등이 평양에서 고별연회를 거행했다. 이 행사에 김일성 수상 등 당·정·군 지도자들과 인민이 참석했다.⁹⁰⁾ 24일 오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평양에서 훈장수여식을 거행했다. 최용건 위원장은 사령관 양용, 정치위원 왕핑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훈장인 ‘일급 국기훈장’을 수여했다.⁹¹⁾ 25일, 중국군의 향미원조 8주년 기념일이었다. 이날 오전 12시, 중국군 총

84)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12~813쪽; 『楊勇將軍傳』, 355~356쪽.

85) 「彭眞同志在中阿, 中保, 中匈, 中岳, 中德, 中朝, 中蒙, 中波, 中羅, 中捷友好協會成立大會上的講話」(1958년 9월 30일).

86) 「朝鮮中國友好協會」, 『各國對華友好組織概況匯編』(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 1982년 修訂本), 1~2쪽.

87)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13~814쪽; 『楊勇將軍傳』, 356쪽.

88) 「中國人民志願軍總部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民族保衛省聯合公報」(1958년 10월 17일);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02쪽; 『인민일보』(1958년 10월 18일).

89) 『楊勇將軍傳』, 356~358쪽.

90)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14쪽; 『楊勇將軍傳』, 359쪽.

91)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14~815쪽; 『楊勇將軍傳』, 359~361쪽.

80)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02~803쪽.

81)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03쪽; 『楊勇將軍傳』, 353~354쪽.

82)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03~805쪽.

83)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10~811쪽.

사령부가 탑승한 마지막 철군 열차가 평양역을 떠났다. 김일성 수상 등 당정 지도부가 평양역에서 중국군을 환송했다. 26일, 사령관 양용과 정치위원 왕핑은 안동에서 김일성 수상에게 전문을 보내 북한 인민과 북한인민군에 감사를 표시하고, 북중 우호를 확인했다.⁹²⁾ 25일, 로동신문은 철군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⁹³⁾

10월 26일 12시 10분, 마지막 철군 열차가 안동에 도착했다. 당일, 총사령부는 철군 성명을 발표했다.⁹⁴⁾ 중국 측 주장에 의하면, 3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중국군이 북한인민군에게 제공한 각종 물자의 총 가치는 인민폐로 1억 5,700만 위안 정도라는 것이다.⁹⁵⁾ 중국은 철군하면서 북한에 무기, 설비 등을 그대로 공여하여 북한군의 전력은 증강되었다. 27일, 사령관 양용, 정치위원 왕핑 등의 중국군 대표단 150여 명은 안동을 출발하여 28일 북경에 도착했다. 29일, 마오쩌둥 주석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가지도자들은 중남해 화이런탕에서 양용과 왕핑 등의 중국군 대표단을 접견했다.⁹⁶⁾

(3) 철군 직후의 북중관계

철군완료 이후 북한과 중국은 한반도 내의 외국군 완전철군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였다. 10월 30일, 중국의 전인대와 정협에서는 '항미원조사업보고'를 개최하여, 한반도에서의 평화건설이 완수되었다는 것과 타이완 등의 국토완정을 강조하였다. 한국전쟁 이전부터 중

국 측의 한반도, 대만의 안전을 연계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뜻한다.

11월, 김일성은 중국군의 철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중국을 방문했다. 그 이외의 방문목적은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철군 직후부터 새로운 원조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북한에서는 중국군의 철군에 따라 전후 복구를 위한 인력 부족 현상이 빚어졌고, 1956년 이후의 반중국 움직임은 지속되었다. 중국에서도 재중조선인에 대한 반우파투쟁이 지속되었다.

10월 27일,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한반도 문제가 영원히 해결된다는 조건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28일, 국무장관 덜레스는 기자회견에서 "중국군이 한반도에서 철군한 것은 압록강 저편으로 건너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나중에 다시 신속하게 한반도로 돌아올 수 있다. 만일 미국이 철군한다면 그것은 50마일 뒤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만 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참가한 유엔군 부대는 한반도에서의 임무를 아직 완수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인 자신들이 선거를 실시하는 조건 하에서 한반도가 다시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⁹⁷⁾

28일, 북한 정부는 중국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중국군의 자발적 철군에 따른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축진을 설명하고, 주한 미군의 철수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11월 8일, 소련 정부는 북한 정부의 성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8일, 중국과 북한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미국

92)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15~816쪽; 『楊勇將軍傳』, 361~362쪽.

93)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16쪽.

94)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16쪽; 『楊勇將軍傳』, 362~363쪽.

95)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02쪽.

96)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21~824쪽; 『楊勇將軍傳』, 363~364쪽.

97)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26쪽.

의 한반도 주둔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⁹⁸⁾

10월 30일 오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중남해 화이런탕에서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양용은 '중국군의 8년간 항미원조 사업보고(中國人民志願軍八年來抗美援朝工作報告)'를 했다. 그는 "8년 동안 지원군은 양국의 우의와 극동 및 세계 평화를 위한 의무를 다했으며, 항미원조 투쟁의 위대한 승리는 당과 마오쩌둥 주석의 영웅적인 지도의 결과이며, 인민이 온 힘을 다해 지지해 준 결과"라고 연설하였다.⁹⁹⁾

양용의 보고 이후 연석회의에서는 '중국군의 8년간 항미원조 사업보고에 관한 결의(關於中國人民志願軍八年來抗美援朝工作報告的決議)'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에서 '회의에서는 중국군이 부여된 사명을 완성했다고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3년 간의 전투에서 미 제국주의로부터의 침략을 무찔렀으며, 정전 이후 조선반도의 평화건설에 공을 세웠다. 조선인민군과 인민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지켰다. 동시에 중국의 안전을 보장했다. 조선 정부와 인민이 8년 간 중국군을 지원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했다. 중국군이 조선반도에서 철수함으로써 조선반도에 평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 결의의 마지막에서 중국 인민은 타이완과 평후 열도, 진먼도를 해방시키고, 조국 통일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표명했다.¹⁰⁰⁾

철군 완료 이후, 김일성이 이끄는 정부대표단은 중국(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12월 2일부터 10일까지)과 베트남(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을 방문하였다.¹⁰¹⁾ 북한 정부대표단의 중국방문은 '북중

경제 및 문화합작에 관한 협정'의 5주년 기념행사와 중국군 철수에 따른 감사방문의 성격이었다. 11월 22일, 김일성이 이끄는 정부대표단은 북경역에 도착했다.¹⁰²⁾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중국군 철군과 연계하여 조선반도 상의 모든 외국군대 철수를 선전하였다. 또한 미국 제국주의를 비난하면서 베트남과 북한의 평화통일을 지지하였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지하고 소련의 핵무기 사용제한 노력을 지지하였다. 이로써 양당·양국의 우호와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였다.¹⁰³⁾ 12월 6일, 평더화이와 김광협 등의 군부 간의 연회가 있었다.¹⁰⁴⁾

북한에서 중국군이 철수를 하였지만, 반중국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었다. 반혁명과의 투쟁을 목적으로 국내의 적대분자 및 파괴분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이 전개되었다. 1958년 10월부터 1959년 5월까지의 시기에만 약 9만 명이 자수했고 1만 명이 사회안전부에 의해 적발되었다.¹⁰⁵⁾

중국군 철군과 함께, 한국전쟁 기간에 중국 측에서 양육하던 전쟁고아 2만 명을 귀국시키기 위한 협의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북한 측

98)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26~827쪽.

99)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24~825쪽; 『楊勇將軍傳』, 364~366쪽.

100)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825~826쪽.

101) 『周恩來外交活動大事記 1949-1975』, 246~248쪽.

102) 「周恩來總理在北京車站歡迎朝鮮政府代表團的講話」(1958년 11월 22일), 「周恩來總理在歡迎朝鮮政府代表團的宴會上講話」(1958년 11월 22일),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 1081~1109쪽.

103) 「毛澤東主席在武漢接見金日成首相」(1958년 11월 25일), 「毛澤東主席同金日成首相會談并設宴熱烈歡迎朝鮮貴賓」(武漢: 1958년 11월 26일), 「毛澤東主席和金日成首相會談」(1958년 12월 6일),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聯合聲明」(1958년 12월 8일),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 1081~1109쪽; 『周恩來年譜1949-1976(中)』, 191~194쪽; 『陳毅年譜』, 755~757쪽; 『朱德年譜』, 442쪽.

104) 「彭德懷元帥在金光俠大將舉行的答謝宴會上的講話」(1958년 12월 6일).

105) 투가리노프 소련외교부 극동국장, 「조선 정세 보고서」, 정창현, 앞의 책, 232~233쪽.

에서 대외문화연락협회위원장 허정숙이 북한대표단을 이끌고 1958년 5월 3일 중국을 방문하여, 1958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전쟁고아를 귀국시키기로 합의했다.¹⁰⁶⁾ 북한 재건사업에 참여한 양질의 노동력인 중국군이 철군함에 따라 북한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중국군의 철군 직후 사회주의 각국에서 양육하던 전쟁고아, 재일조선인, 소련 연해주 조선인, 재중조선인들의 귀국사업을 펼친 것이다. 특히 북한은 재중조선인을 대상으로 김일성 우상화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마오쩌둥은 이에 분노하였다. 북한의 재중

<표 3: 1958년의 중국군 철군 일정과 현황>

철군일시	구 분	철수병력
1958년 3월 15일 ~4월 15일	최종 제1차	육군 제23군단, 제16군단의 6개 사단과 일부 포병, 전차, 공정병, 수송부대, 그리고 공정병지휘소와 제19병단의 지도기관 등(8만 명)
1958년 3월 12일 ~?	최종 제1차 별도	제20병단 지도기관
1958년 7월 11일 ~8월 14일	최종 제2차	육군 제54군단, 제21의 6개 사단과 일부 전차, 포병, 고사포, 병참, 공정병부대와 전차지휘소 등(10만 명)
1958년 9월 25일 ~10월 26일	최종 제3차	지원군 총사령부, 육군 제1군단의 3개 사단, 포병 지휘소 및 지원군 후방병참사령부 등(7만 명)

106) 『毛澤東主席接見志願軍代表團』(1958년10월29일),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 927~956쪽; 中共遼寧省委黨史研究室, 丹東抗美援朝紀念館, 『保家衛國的奉獻-遼寧人民支援抗美援朝戰爭紀實』(沈陽: 遼寧大學出版社, 2000년5월), 352~379쪽.

조선인 귀국사업으로 인하여 10만 여명의 조선인이 귀국하여 동북지방의 일부 병원, 공장, 연구소 등의 폐쇄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지원군 철군이후의 북중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북중간의 영토분쟁이 시작되었다. 철군 직후의 북중관계는 혈맹이라는 표면적으로 강한 협력을 했지만, 민족, 영토 등을 둘러싸고 내면적으로는 균열이 진행되는 시기를 맞이했다.

6. 결 론

북한에서 중국군의 철군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하다. 한국전쟁 이전의 병력교대와 비공식 철군문제, 그리고 철군의 결정과 과정, 각국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상황 등의 향후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중국측의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으므로 철군을 둘러싼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해체된 소련과 동유럽 등의 철군을 둘러싼 정보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사회주의 진영내부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정전 직후의 중국 입장에서 비공식 철군은 군비에 대한 경제적 압력, 국토완정 등의 중국 국내사정에 의하여 즉시 철군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1954년도의 철군 결정에서 중국은 제네바협상의 한반도 외국군 철군협상과 대만, 인도차이나의 미국을 겨냥하였다. 그러나 1955~56년에는 공산진영 분열을 둘러싸고, 중국과 북한은 미군의 한반도에서 군사활동을 우려하여 철군을 중지했으나, 1956년 종파사건을 거치면서 김일성은 중국군에 대하여 내정간섭을 하는 외세로 인식하였다. 북중의 갈등에 따라서 1957년 11월, 김일성과 마오쩌둥

은 완전 철군에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1954년의 철군 결정과 1957년의 철군 결정은 그 배경이 다르다.

1954년과 1957년의 철군 결정에서 중국의 경제상황, 국토완정, 미군에 대한 압력 등은 공통된 철군 결정의 배경이었다. 1954년의 철군 결정은 동아시아의 미군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1957년의 철군 결정은 동아시아의 미군뿐만이 아니라 동유럽의 소련군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군을 내정을 간섭하는 외세로서 인식했고, 중국은 내정간섭을 둘러싼 북중갈등을 둘러싸고 연안계를 보호하려는 측면이 있다.

1954년에서 1955년의 철군과정에서는 평터화이의 역할에 관련된 문건이 없으나, 1957년에서 1958년의 최종철군은 그의 철군계획 수립에 관한 기록이 공개되어 있다. 1954-55년 철군과 1957-58년의 철군을 비교할 때, 평터화이의 역할 유무에 대한 점은 흥미롭다.

제1단계 철군과 마찬가지로 제2단계 철군에서도 북한과 중국은 한반도의 외국군 완전철군을 연계하는 프로파간다를 구사하여, 미국과 남한의 위상을 흔들었다. 그리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군사적으로 재개입할 뜻을 밝히면서 북한의 안전보장을 확인하였다.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군사적 재개입을 명확히 했으므로, 당시 미국 측의 중국군 철군에 대한 대항 논리로써 중국의 철군은 몇 마일 후방으로 후진하는 것뿐이라는 논리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

제1차 철군 협상과 제2차 철군 협상은 김일성과 저우언라이가 담판을 짓고 담판의 협정을 마오쩌둥이 최종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는 양당·양국의 불평등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 내부에서도 마오쩌둥이 북한 문제에 대해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철군완료 이후 11월, 김일성은 중국군에 대한 감사를 뜻을 표하기 위하여 중국을 방문했다. 이 방문의 숨은 뜻 중 하나는 경제적·군사적 원조의 지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중국군의 철군에 따라 전후 복구를 위한 인력 부족 현상이 빚어져서, 해외의 조선인에 대한 귀국사업이 펼쳐졌다. 또한 완전철군 이후에도 북중갈등은 지속되었다.

1954년의 철군 결정은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는 동서냉전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1957년의 철군 결정은 동서냉전만이 아니라 중소갈등도 작용하였다. 또한 주체사상과 마오쩌둥주의라는 민족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충돌도 작용하였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갈등은 국내정치에도 연장되었다. 1955년에 중국군의 철군 이후 연안계에 대한 숙청이 시작되었고, 완전철군 이후에도 북한에서는 반중국적인 숙청이 지속되었다. 중국에서도 북중 우호의 상징이라는 재중조선인에 대한 반우파투쟁을 전개하였다. 철군을 둘러싸고 북중관계는 혈맹이라는 표면적으로 강한 협력을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균열이 진행되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임진왜란, 청일전쟁, 그리고 한국전쟁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분쟁에 지정학적 이익을 고려하여 언제나 개입하였다. 비록 김일성과의 불화와 내정간섭, 그리고 공산진영의 분열이 최종 철군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역사적으로 중국군의 한반도 개입에서 가장 명예로운 철수였다. 그러나 중국은 철군을 하면서 한반도의 유사시 재개입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1961년의 북중우호조약을 통하여 중국이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을 하는 조문을 담은 북중간의 군사동맹이 형성되었으므로 현재의 북중군사동맹은 '1961년 체제'이다. 즉 '1961년 체제'를 근거로 언제든지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

<표 4 : 중국군의 철수를 둘러싼 북중정상회담>

시 기	장소	회담 주체	주 제	비 고
1950년 5월 13일 ~16일	북경	김일성: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한국전쟁 계획	비공식
1950년 12월 3일	북경	김일성: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중조연합사령부 설치 문제	비공식
1951년 6월 3일	북경	김일성: 마오쩌둥	휴전회담 운영방침	비공식
1952년 9월 4일	모스 크바	김일성: 저우언라이, 스탈린	전쟁포로 교환문제, 북중 공군 작전문제	비공식(김일성, 평더화이 갈등)
1953년 11월 10일 ~27일	북경	김일성: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전후 경제원조, 북중 경제 및 문화합작에 관한 협정	공식
1954년 9월 28일 ~10월 5일	북경	김일성: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중국건국 5주년 기념, 중국군 철수에 대한 방문	공식
1957월 11일	모스 크바	김일성: 마오쩌둥	중국군 철군 내부 합의, 종파사건 사과, 중소관계	공산당 및 노 동자 대표대회
1958년 2월 14일	평양	김일성: 저우언라이	중국군 철군 공표, 양국관계	공식
1958년 11월 21일~28일 12월 2일~10일	북경, 무한	김일성: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통일문제, 대만문제, 국제공산진영 단결문제	공식 베트남방문

중국군의 철군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주체’라는 자율성의 증가를 위하여 안보위협을 증대시킨 것이다. 대국-소국관계의 비대칭적인 힘에 의한 ‘자율성과 안보의 딜레마’가 1950년 후반의 북중 간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철군 직후부터 1960년 중반까지는 중소분쟁시기로, 중국은 북한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북한에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공여하였다. 즉 철군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율성도 증가하였고

군사적·경제적 이익도 얻었던 것이다. 중국은 북중갈등에 의하여 중국군을 철수시켰지만 중소분쟁 초기에 북한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다. 마오쩌둥의 “한반도는 전방이고, 중국동북은 후방”이라는 논리에 의한다면, 북한의 중국 지지는 중국동북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논리이다. 북중관계에서는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대를 철수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감소했지만,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평화 공세를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표 5 : 관문점 군사정전위원회의 철군>

연 도	구 분	상 황
1955년 1월 21일	관문점 정전위원회	정전위원회 위원 1인과 소령 1인을 제외하고 중국군 대표단 철수
1966년 10월, 제229회 관문점 휴전회담	문화대혁명	정전위원회 중국측 대표 불참(북중갈등으로 인한 무단 철수 가능성)
1970년 3월	북중관계정상화	저우언라이의 북한 방문 직전, 정전위원회에 중국측 대표 복귀
1994년 12월 13일	관문점 정전위원회	중국대표단과 중국군 대표단 철수(북핵협상에서 북한의 일방적 철수요구)

<참고문헌>

□ 전보, 연설, 보고

<毛澤東等祝賀朝鮮解放12周年的電報>(1957年8月13日).

<關於志願軍撤出朝鮮問題給金日成的電報>(1958년 1월 24일).

<彭眞同志在中阿, 中保, 中匈, 中岳, 中德, 中朝, 中蒙, 中波, 中羅, 中捷友好協會成立大會上的講話>(1958년 9월 30일), <朝鮮中國友好協會> 《各國對華友好組織概況匯編》(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 1982年修訂本).

<中國人民志願軍總部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民族保衛省聯合公報>(1958년 10월 17일).

《爲了朝鮮的和平統一—中朝兩國政府關於中國人民志願軍撤出朝鮮的聯合聲明及有關文件》(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58年).

<周恩來總理在一屆全國人大五次會議上的講話: 目前國際形勢和我國外交政策>(1958年2月10日).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政治工作經驗匯編》(北京: 解放軍出版社, 1987年).

_____ 楊勇 <滿戴中朝友誼而歸>

_____ 中國人民志願軍政治部 <撤軍政治工作三十條>

_____ <451部隊移交中的政治工作>

_____ <450部隊撤离朝鮮前的友好活動>

_____ <執行“走好”“到好”的情況和體會>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_____ 彭德怀 <關於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工作的報告>(1953年9月12日).

《建國以來毛澤東文稿》,

_____ <在朱德同金日成談話摘要上的批語>(1955年8月).

_____ <中國人民志願軍總部發言人宣布志願軍6个師已全部撤离朝鮮返回祖國>(10월 27일).

_____ <對從朝鮮撤回中國人民志願軍的方案的批語>(1957年12月31日).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年).

_____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郭沫若主席在歡迎中國人民志願軍彭德怀司令員胜利歸國代會上的歡迎詞>(1953년 8월 11일).

_____ <彭德怀司令員致金日成元帥電>(1953년 8월 15일).

_____ <賀龍將軍在平壤招待朝鮮黨軍負責人酒會上的講話>(1953년 11월 3일).

_____ <毛澤東主席接見金日成首相率領的朝鮮政府代表團>(1953年11月13日).

_____ <歡迎金日成元帥和朝鮮政府代表團>(人民日報社論, 1953年11月13日).

_____ <周恩來總理在招待朝鮮政府代表團宴會上的歡迎詞>(1953年11月13日).

_____ <周恩來總理在北京車站歡迎朝鮮政府代表團的講話>(1958년 11월 22일).

_____ <周恩來總理在歡迎朝鮮政府代表團的宴會上講話>(1958년 11월 22일).

_____ <毛澤東主席和金日成首相會談>(1958년 12월 6일).

_____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聯合聲明>(1958년 12월 8일).

_____ <毛澤東主席在武漢接見金日成首先>(1958년 11월 25일).

_____ <毛澤東主席同金日成首相會談并設宴熱烈歡迎朝鮮貴賓>(武漢: 1958년 11월 26일).

_____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代表團談判公報>(1953년 11월 23일).

_____ <中華人民共和國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經濟及文化合作協定>(1953년 11월 23일).

_____ <中國簽訂經濟及文化合作協定的公報>(1953년 11월 23일).

_____ <周恩來總理在中朝經濟及文化合作協定簽字儀式上的講話>(1953년 11월 23일).

_____ <中國人民志願軍總部發言人宣布將從朝鮮撤出7个是回國的公告>(1954년 9월 5일).

_____ <中國人民志願軍返國部隊代表邱蔚在平壤歡送中國人民志願軍返國部隊大會上答詞>(1953년 9월 10일).

_____ <中國人民志願軍總部發言人宣布將從朝鮮撤出7个師古國的公告>

_____ <毛澤東主席會見金日成首相率領的朝鮮政府代表團>(1954년 9월 28일).

_____ <朱德副主席在離開平壤時發表的談話>(1955년 8월 24일).

_____ <朱德副主席離開朝鮮國境時致金日成首相的感謝電>(1955년 8월 24일).

_____ <關於派中國代表團參加朝鮮解放10周年典禮給金日成的夏信>(1955년 8월11일).

_____ <毛澤東等祝賀朝鮮解放10周年的電報>(1955년8월12일).

_____ <毛澤東主席接見志願軍代表團>(1958년10월29일).

_____ <中國政府同朝鮮政府磋商撤出志願軍的聲明>(1958년 2월 7일).

_____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的重大聲明>(人民日報：社論, 1958년 2월 5일).

_____ <彭德懷元師在金光俠大將舉行的答謝宴會上的講話>(1958년 12월 6일).

《新朝鮮》(平壤：外文出版社, 각호),

_____ 安一英 <歡迎中國人民訪朝慰問團>(1953년11월).

_____ <社論：光榮屬於中國人民志願軍>(1955년 10월).

_____ 楊勇 <偉大的國際主義的友誼和團結：紀念朝鮮人民抗美援朝5周年>(1955년 6월).

_____ 이종옥 <偉大的友誼和偉大的援助>(1956년 ? 月).

□ 연보, 대사기

《賀龍年譜》(北京：人民出版社, 1996年).

《周恩來外交活動大事記1949-1975》(中央文獻出版社, 1993).

《彭德懷年譜》(北京：人民出版社, 1998年).

《陳毅年譜》(北京：人民出版社, 1995年).

《周恩來年譜1949-1976(上)》(北京：中央文獻出版社, 1997年).

□ 학술서, 연구논문 등

오진용, 『김일성시대의 중소와 남북한』(나남출판, 2004년).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선인, 2005년 1월).

김동성, 「북한의 대중국정책」, 양성철·강성학 공편, 『북한외교정책』.

이웅현, 『헝가리 침공과 흐루시초프: 1956년 10월 23일-11월 4일, 위기의 13일간』(서울: 세종연구소, 1999년).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서울: 중심, 2000년).

정창현, 『인물로 본 북한 현대사』(서울: 민연, 2002년 7월).

아키쓰키 노조무, 「북중관계의 특질과 그 전개」, 小此木政夫編著, 『金正日時代の北朝鮮』(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99年), 강성윤·이종국·조진구 옮김, 『김정일과 현대북한』(을유문화사, 2000年).

下斗舞信夫, 이혁재 옮김, 『북한 정권 탄생의 진실』(기과랑, 2005. 1), 107쪽.

고태우, 『북한현대사101장면』(서울: 가람, 1996년).

박영실, 「정전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대북한 지원과 철수」, 『정신문화연구』(2006년 겨울호 제29권 제4호).

秋月望, 「華夷システムの延長上にみる中國・朝鮮半島關係」, 『アジア研究』(第40卷3号, 1993.12).

秋月望, 「中國の「楯」としての北朝鮮」(『外交フォーラム』, No68, 1994.5).

陳峰軍, 王傳劍, 《亞太大國与朝鮮半島》(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年).

小此木政夫, 「北朝鮮における對ソ自主性の盲啞1953-1955」, 『アジア經濟』(1970年, 第7号).

玉城素, 「北朝鮮における『自主』路線の形成過程」, 『國際問題』(1969年3月).

안드레이 란코프 지, 김광린 역, 『북한현대정치사』(오름, 1995).

和田春樹, 「遊撃隊國家の成立と展開」, 『世界』(東京: 岩波, 1993年10月).

平岩俊司, 『北朝鮮・中國關係の歴史的變遷とその構造』(慶應義塾大學博士論文, 1999).

박종철, 《演變中的中朝關係研究: 走出血盟(1953年-1994年)》(北京: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博士學位論文, 2007年4月).

裴堅章, 《中華人民共和國外交史(第一卷): 1949-1956》(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3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년),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抗美援朝戰爭史第三卷》(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重村智計, 『北朝鮮の外交戦略』(講談社, 2000).

李連慶主編, 『中國外交演義-新中國時期』(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5年).

歐陽善著, 富坂聰編『對北朝鮮・中國機密ファイル』(동경: 文芸春秋, 2007년 9월).

中共中央對外聯絡部, 《各國共產黨總覽》(当代世界出版社, 2000年).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史》(軍事科學出版社, 1990年).

《当代中國叢書: 抗美援朝戰爭》(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年).

《光榮的中國人民志願軍》(中國解放軍畫報社, 1959), 노동환외 번역, 『그들이 본 한국전쟁 1-抗美援朝, 中國人民志願軍』(눈빛출판사, 2005).

畢桂發主編, 《毛澤東: 評說世界政要》(北京: 解放軍出版社, 2004년).

中國國家博物館編著, 《共和國領袖故事: 周恩來》(上海教育出版社, 2006年).

武立金, 《毛岸英在朝鮮戰場》(北京: 作家出版社).

劉万鎮, 李請貴《國際交往錄》(北京: 中國党史出版社, 2002年).

『조선중앙연감(국내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3년).

中共遼寧省委党史研究室, 丹東抗美援朝紀念館, 《保家衛國的奉獻-遼寧人民支援抗美援朝戰爭紀實》(沈陽: 遼寧大學出版社, 2000年5月).

中國人民革命軍事博物館編著, 《中國戰爭地圖集》(北京: 星球地圖出版社, 2007年7月).

■ 主 幹

군사사1부 선임연구원 조 성 훈

軍事史 研究叢書 (第5輯)

2008年 3月 24日 印刷

2008年 3月 26日 發行

發行處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發行人 金 洪 榮

印刷處 상 신 인 쇄

<非賣品>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